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이상아·오성은·이원지·고은새·황윤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Self-Help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오성은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원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고은새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임연구원

황윤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CONTENTS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문헌고찰	5
II. 조사방법	23
1. 조사과정 및 표본추출	25
2. 조사영역 및 변수설정	28
III. 참여자 특성	39
1. 일반적 특성	41
2. 경제적 특성	42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	60
4. 주거 특성	73
5. 가족 및 사회적관계 특성	77
6. 사회서비스 이용	93
IV. 자활사업 참여 실태	109
1. 자활사업 참여 현황	111
2. 자활 참여자 정서적 자활 및 웰빙	129
3. 자활사업 만족도	136
4. 향후 근로 관련 요구	145

V. 심층분석 :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의 변화	161
1. 분석방법	163
2. 일반적 특성	163
3.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변화율	166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변화율	178
 VI.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	 217
1.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 주요결과	219
2. 자활사업 참여실태 분석 주요결과	225
3. 자활사업 참여자 경제적·정서적 자활 분석 주요결과	228
4. 심층분석 :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 변화 주요결과	229
5.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232
 부록	 237
 참고문헌	 279

CONTENTS

표목차

〈표 I-1〉 2012년-2018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연구내용	4
〈표 I-2〉 1~7차년도 자활패널 조사(2012~2018년) 영역 및 문항 구성	6
〈표 I-3〉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8
〈표 I-4〉 주요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의 조사 영역과 본 연구의 조사 영역 구성	9
〈표 I-5〉 자활사업 성과지표 선행연구 정리	11
〈표 I-6〉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지위별 분포	17
〈표 I-7〉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 분포	18
〈표 I-8〉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	19
〈표 I-9〉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단 유형별 분포	19
〈표 I-10〉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업종별 분포	20
〈표 II-1〉 조사 설계	25
〈표 II-2〉 자활사업 참여자 표본설계 예시	26
〈표 II-3〉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지역별 표본 설계표	27
〈표 II-4〉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지역별 응답표본 분포	28
〈표 II-5〉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의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29
〈표 II-6〉 일반적 및 수급 특성 조사문항	30
〈표 II-7〉 자활사업 참여 특성 조사 문항	31
〈표 II-8〉 경제적 상황 조사 영역 및 문항	32
〈표 II-9〉 주거 특성 조사 문항	33
〈표 II-10〉 건강 영역 조사 세부 영역 및 문항	34
〈표 II-11〉 일관련 경험 및 욕구 조사 영역 및 문항	35
〈표 II-12〉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조사 문항	36
〈표 II-13〉 사회적 특성 조사 문항	37
〈표 II-14〉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특성 조사 문항	38

〈표 II-15〉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문항	38
〈표 III-1〉 참여자 일반적 특성	41
〈표 III-2〉 총 개인부채(특성별)	43
〈표 III-3〉 부채 부담 인지 정도	46
〈표 III-4〉 월평균 가구 생활비(종합)	48
〈표 III-5〉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종합)(1+2+3순위)	50
〈표 III-6〉 원하는 생활수준별 필요한 생활비 평균금액	52
〈표 III-7〉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53
〈표 III-8〉 과거 일 경험 및 일 중단시점(특성별)	55
〈표 III-9〉 과거 일자리 평균소득(특성별)	57
〈표 III-10〉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59
〈표 III-11〉 신체적 동작 어려움 정도(특성별)	61
〈표 III-12〉 주관적 건강상태(특성별)	63
〈표 III-13〉 일상생활 도움 여부 및 도움 제공자(종합)	65
〈표 III-14〉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종합)	66
〈표 III-15〉 간이정신건강진단 평균(특성별)	68
〈표 III-16〉 구간별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특성별)	70
〈표 III-17〉 삶의 만족도(특성별)	72
〈표 III-18〉 현재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 가능시기(특성별)	74
〈표 III-19〉 주거환경(특성별)	76
〈표 III-20〉 동거인 여부 및 가구원 수(특성별)	78
〈표 III-21〉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특성별)	80
〈표 III-22〉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특성별)	82
〈표 III-23〉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특성별)	84

〈표 Ⅲ-24〉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방법(특성별)	86
〈표 Ⅲ-25〉 가족 부양 부담 정도	88
〈표 Ⅲ-26〉 가족지지(특성별)	90
〈표 Ⅲ-27〉 사회적 자본(특성별)	92
〈표 Ⅲ-28〉 지난 2년간 건강검진 경험(특성별)	94
〈표 Ⅲ-29〉 지난 1년간 의료 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및 이유(특성별) ...	96
〈표 Ⅲ-30〉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특성별)	98
〈표 Ⅲ-31〉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기타항목)	99
〈표 Ⅲ-32〉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특성별)	101
〈표 Ⅲ-33〉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만족도(특성별)	103
〈표 Ⅲ-34〉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특성별)	105
〈표 Ⅲ-35〉 사회서비스 필요도(특성별)	106
〈표 Ⅳ-1〉 자활사업 참여 이유(1+2순위)(특성별)	112
〈표 Ⅳ-2〉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종합)(특성별)	114
〈표 Ⅳ-3〉 사업단 이용경험 및 횟수(특성별)	116
〈표 Ⅳ-4〉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특성별)	118
〈표 Ⅳ-5〉 구직경험 유무(특성별)	120
〈표 Ⅳ-6〉 다른 일자리 구직 경험이 없는 이유(특성별)	122
〈표 Ⅳ-7〉 자활사업 참여 중 최근 구직시기(특성별)	123
〈표 Ⅳ-8〉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여부 및 개수(특성별)	125
〈표 Ⅳ-9〉 자격증 도움 정도	128
〈표 Ⅳ-10〉 변화(특성별)	130
〈표 Ⅳ-11〉 고용장벽 인지(특성별)	131
〈표 Ⅳ-12〉 자활행동(특성별)	133

〈표 IV-13〉 주관적 경제적 자활 현황(특성별)	135
〈표 IV-14〉 사업단 만족도(특성별)	138
〈표 IV-15〉 자활서비스 만족도(특성별)	140
〈표 IV-16〉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특성별)	142
〈표 IV-17〉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특성별)	144
〈표 IV-18〉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1+2순위)(특성별)	147
〈표 IV-19〉 실제로 참여 가능한 사업단 업종(특성별)	148
〈표 IV-20〉 건강 및 조건 상관없이 희망하는 사업단 업종(1+2순위 종합)	149
〈표 IV-21〉 원하는 자활 근로형태 및 시간제 근로 선택 이유(특성별)	151
〈표 IV-22〉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특성별)	153
〈표 IV-23〉 취·창업 중 원하는 일 유형	155
〈표 IV-24〉 취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특성별)	157
〈표 IV-25〉 창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특성별)	159
〈표 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65
〈표 V-2〉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	166
〈표 V-3〉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변화율	167
〈표 V-4〉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자율성과 자기결정 점수 변화	169
〈표 V-5〉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자율성과 자기결정 변화율	170
〈표 V-6〉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	171
〈표 V-7〉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재정적 안정과 책임 변화율	172
〈표 V-8〉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	174
〈표 V-9〉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 변화율	175
〈표 V-10〉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	176
〈표 V-11〉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변화율	177

〈표 V-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변화	179
〈표 V-13〉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변화율	180
〈표 V-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182
〈표 V-15〉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 변화율	182
〈표 V-1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184
〈표 V-17〉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가치역량 변화율	185
〈표 V-18〉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186
〈표 V-1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미래전망동기부여 변화율	187
〈표 V-20〉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188
〈표 V-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기술과 자원 활용 변화율	189
〈표 V-2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191
〈표 V-23〉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목표지향 변화율	192
〈표 V-24〉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벽 변화	194
〈표 V-25〉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 변화율	195
〈표 V-26〉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벽 변화	196
〈표 V-27〉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 변화율	198
〈표 V-28〉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벽 변화	200
〈표 V-2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 변화율	201
〈표 V-30〉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203
〈표 V-31〉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 변화율	203
〈표 V-3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205
〈표 V-33〉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근로관련행동 변화율	206
〈표 V-3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207
〈표 V-35〉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일상생활 변화율	207

〈표 V-3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209
〈표 V-37〉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	210
〈표 V-38〉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211
〈표 V-3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청결외모 변화율	212
〈표 V-40〉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213
〈표 V-41〉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건강관리행동 변화율	214
〈표 VI-1〉 조사결과 도출된 자활사업 참여자 특징	232
〈표 VI-2〉 경제적 자활 22년도 평균 대비 23년도 평균의 증감	234
〈표 VI-3〉 정서적 자활 22년도 평균 대비 23년도 평균의 증감	235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II-1] 설문조사 방식	26
[그림 III-1] 총 개인부채(종합)	43
[그림 III-2] 부채 부담감 정도(성별)	45
[그림 III-3] 부채 부담감 정도(연령)	45
[그림 III-4] 부채 부담감 정도(학력)	45
[그림 III-5] 부채 부담감 정도(참여기간)	45
[그림 III-6] 부채 부담감 정도(자활역량점수)	45
[그림 III-7] 부채 부담감 정도(수급유형)	45
[그림 III-8] 월평균 가구 생활비(종합)	47
[그림 III-9]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종합)(1+2+3순위)	49
[그림 III-10] 원하는 생활수준별 필요한 생활비 평균금액	51
[그림 III-11] 과거 일 경험유무 및 중단 시점(종합)	54
[그림 III-12] 과거 일자리 평균소득(종합)	56
[그림 III-13]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58
[그림 III-14] 신체적 동작 어려움 정도(종합)	60
[그림 III-15] 주관적 건강상태(종합)	62
[그림 III-16] 일상생활 도움 여부 및 도움 제공자(종합)	64
[그림 III-17]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종합)	66
[그림 III-18] 간이정신건강진단 평균(종합)	68
[그림 III-19] 구간별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종합)	70
[그림 III-20] 삶의 만족도(종합)	72
[그림 III-21] 현재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 가능시기(종합)	74
[그림 III-22] 주거환경(종합)	76
[그림 III-23] 동거가구원 수(종합)	78

[그림 Ⅲ-24]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종합)	80
[그림 Ⅲ-25]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종합)	82
[그림 Ⅲ-26]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종합)	83
[그림 Ⅲ-27]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방법(종합)	85
[그림 Ⅲ-28] 가족 부양 부담 정도(성별)	87
[그림 Ⅲ-29] 가족 부양 부담 정도(연령대)	87
[그림 Ⅲ-30] 가족 부양 부담 정도(학력)	87
[그림 Ⅲ-31] 가족 부양 부담 정도(참여기간)	87
[그림 Ⅲ-32] 가족 부양 부담 정도(자활역량점수)	88
[그림 Ⅲ-33] 가족 부양 부담 정도(수급유형)	88
[그림 Ⅲ-34] 가족지지(종합)	90
[그림 Ⅲ-35] 사회적 자본(종합)	92
[그림 Ⅲ-36] 지난 2년간 건강검진 경험(종합)	94
[그림 Ⅲ-37] 의료 이용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및 이유(종합)	95
[그림 Ⅲ-38]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종합)	97
[그림 Ⅲ-39]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종합)	100
[그림 Ⅲ-40]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만족도(종합)	102
[그림 Ⅲ-41]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종합)	104
[그림 Ⅲ-42] 사회서비스 필요도(종합)	106
[그림 Ⅳ-1] 자활사업 참여이유(1+2순위)(종합)	111
[그림 Ⅳ-2]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종합)	113
[그림 Ⅳ-3] 이동 경험 및 이동횟수(종합)	115
[그림 Ⅳ-4]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종합)	117
[그림 Ⅳ-5] 구직경험 유무(종합)	119

[그림 IV-6] 다른 일자리 구직 경험이 없는 이유(종합)	121
[그림 IV-7] 자활사업 참여 중 최근 구직시기(종합)	123
[그림 IV-8]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여부	125
[그림 IV-9] 자격증 개수(종합)	125
[그림 IV-10] 자격증 도움 정도(성별)	127
[그림 IV-11] 자격증 도움 정도(연령)	127
[그림 IV-12] 자격증 도움 정도(학력)	127
[그림 IV-13] 자격증 도움 정도(참여기간)	127
[그림 IV-14] 자격증 도움 정도(자활역량점수)	127
[그림 IV-15] 자격증 도움 정도(수급유형)	127
[그림 IV-16] 자활의지 변화(종합)	129
[그림 IV-17] 고용장벽 인지(종합)	131
[그림 IV-18] 자활행동(종합)	133
[그림 IV-19] 주관적 경제적 자활(종합)	135
[그림 IV-20] 사업단 만족도(종합)	137
[그림 IV-21] 자활서비스 만족도(종합)	139
[그림 IV-22]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종합)	141
[그림 IV-23]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종합)	143
[그림 IV-24]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1+2순위)(종합)	146
[그림 IV-25] 원하는 자활 근로형태	150
[그림 IV-26] 시간제 근로 선택 이유(종합)	150
[그림 IV-27] 원하는 근로일수	152
[그림 IV-28] 원하는 근로시간	152
[그림 IV-29] 취·창업 중 원하는 일 유형	154

[그림 IV-30] 취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종합)	156
[그림 IV-31] 창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종합)	158
[그림 V-1]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 변화율: 학력 구분	176
[그림 V-2]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변화율: 성별 구분	181
[그림 V-3]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기술과 자원 활용 변화율: 성별 구분	190
[그림 V-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목표지향 변화율: 성별 구분	193
[그림 V-5]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 변화율: 학력 구분	196
[그림 V-6]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 변화율: 학력 구분	199
[그림 V-7]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 변화율: 참여센터 유형 구분	199
[그림 V-8]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 변화 : 학력 구분	202
[그림 V-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 변화율: 사업단 유형 구분	202
[그림 V-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 참여기간 구분	211
[그림 V-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건강관리행동 변화율: 연령 구분	21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문헌고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022년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 가구 수는 약 169만 9천 가구이며, 수급자 수는 2,451 천 명에 달한다. '17년과 비교하였을 때 수급 가구 수는 약 +64.5%, 수급자 수는 +54.9%, '22년도 대비 수급 가구 수 +3.8%, 수급자 수 +3.9% 증가하여 17년도 이후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 증가는 '15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및 선정 기준이 대폭 개편됨에 따른 빈곤층의 수급 기회 확대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자활사업은 참여자 유입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구·가구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 패러다임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증거 기반의 자활사업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활사업의 기초자료 생산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향후 자활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기존의 행복e음, 자활정보시스템의 행정 데이터만으로는 현장에서 자활 참여자의 자활역량 상태 혹은 참여자들의 심리적·정서적 변화 등 자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심층적 조사자료가 필요한 현황이다(이상아 외, 2022).

이러한 한계점에 근거하여,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¹⁾를 시작하여 2004년까지 매년 패널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현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

여자 실태조사²⁾ 또한 부가조사로 수행되었다가 다시 중단되었다. 이후 2012년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구축을 진행하였다. 특히, 패널구축 연구의 경우 매년 코호트 연구 방식으로 1,500여 명을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2018년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외부 용역 의존 등의 문제로 패널 본 표본 유지관리나 지속성과 같은 패널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고 결국 2018년 이후로 중단되었다.

〈표 I-1〉 2012년-2018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연구내용

년도	연구명	표본 수	조사 대상
2012년	자활사업 분야 (불완전 취업자 패널구축 연구)	1,500명 (단년도)	시장형 자활사업단 556명 인큐베이팅 자활사업단 452명 사회서비스 자활사업단 519명
2013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구축 연구 (2차년도)	1,470명 (단년도)	지역별, 센터별 참여자수 표본추출
2014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구축 연구 (3차년도)	1,200명 (단년도)	
2015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구축 연구 (4차년도)	1,468명 (14년도 연계)	2014년도 기존패널(669명) 신규패널(799명)
2016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화 추진 연구 (5차년도)	1,463명	2014년 기존패널(669명)+2014년도 신규패널(799명) 중 699명 추출 2015년도 새로운 신규패널(799명)
2018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화 연구 (7차년도 패널조사연구)	1,500명 (15년~18년 연계)	기존패널(15년~18년, 1,020명)+ 신규패널(480명)

자료 : 이상아 외(2022),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p.4

이에 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3에 따라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참여대상 다변화, 대상별 맞춤형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이 설계 운영되기 위한 기초 조사로써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2022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1차 조사 표본으로 2021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10%에 해당하는 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하였다. 본 조사는 2차년

1) 표본조사가구 177가구 전수조사 후, 총 대상가구 10,022 중 92.2%에 해당하는 9,244가구 편별 후 산출된 중위소득 60%기준에 따라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총 27,718명을 조사함(이상아 외, 2022).

2) 1,500명 대상 조사 수행(이상아 외, 2022).

도 조사로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12%에 해당하는 6,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조사의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 실태 및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향후 발전된 증거기반 자활사업 운영의 기반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실태를 대표하는 질 높은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표본 규모와 특성을 전국 지역별 자활참여 분포와 유사하게 설계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정서적 수준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기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이상아 외, 2022).

둘째, 2023년도 참여자의 성별, 연령, 학력, 수급유형 등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실태(참여자 자활성과, 자활사업 만족도, 정책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국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현황,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파악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의 실태를 대표하는 질 높은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표본 규모와 표본 특성을 전국 지역별 자활참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하였다(이상아 외, 2022).

2. 문헌고찰

1) 국내 자활사업 실태조사 관련 연구 고찰

(1) 자활 패널조사

자활사업의 환경 및 제도적 변화와 함께, 낮은 근로능력, 다차원적 문제를 가진 참

여자의 증가, 청년의 증가와 같은 참여자들의 특성 또한 변화를 겪어왔다. 최근 코로나의 발발과 경기침체, 고실업의 장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심화 및 플랫폼노동의 증가와 같은 변화와 함께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또한 급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에 참고하고자 한다.

자활 영역에서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2012년에서 2018년까지 7차에 걸쳐 자활패널을 수집한 바 있다. 2012~2018년에 걸쳐 수행한 1~7차년도 자활패널조사의 조사표는 크게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근로 참여특성, 자립의지, 가구가족특성, 건강, 음주, 정신건강 및 가족관계, 가구소득, 가구소비 및 생활여건, 가구저축, 자산, 부채, 주거 및 지역사회환경, 사회적 자본, 근로경험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세부 문항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I-2〉 1~7차년도 자활패널 조사(2012~2018년) 영역 및 문항 구성

영역	세부 문항 구성
자활근로 참여특성	자활참여특성, 자활참여센터, 자활 참여기간, 자활사업단 종류, 자활사업단 업종, 자활사업단 참여기간, 자활사업단에서의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정해진 날 외의 근무 혹은 야간 추가근무 여부, 자활사업단의 월평균 급여, 자활사업단에서의 직책, 자활사업단의 사회보험가입 여부 및 혜택, 자활사업단 일자리에 대한 평가, 자활사업 지속참여 여부, 자활사업참여 어려움, 탈피 후 필요 지원 비목
자립의지	5년 후의 가족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 가족상황 변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자립의지,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자립에 필요한 욕구충족정도 및 인적자본,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인식
가구가족특성	가구원 정보, 본인과 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학력수준, 학력이수 구분, 가구형태, 다문화가구 여부, 동거여부,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주 소득원 여부, 장애등록여부, 장애등급, 장애 발생 시기, 장애 관련 일상생활 수행 정도, 만성질환 정도, 가족 이외의 도움 제공기관(장애인 복지관, 미취학아동·청소년·노인)
건강, 음주, 정신건강 및 가족관계	의료보장형태, 건강검진여부 및 형태, 현재 건강상태, 건강으로 인한 자활사업참여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못함,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제 경험, 우울에 대한 인식, 가족적응력에 대한 인식, 음주, 가족기능
가구소득	근로소득여부 및 소득액, 재산소득여부 및 소득액, 사회보험 수급여부 및 수급액, 개인연금수급 여부 및 수급액, 친지로부터의 금전적 도움 제공여부 및 제공액, 정부 또는 친지로부터의 현물 생계지원여부 및 지원액, 정부나 친지의 다른 소득여부 및 소득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여부 및 수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제외한 정부보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가구소비 및 생활여건	적정생활비, 1년간 실제생활비 및 직년과 생활비 비교, 가계부담이 가장 큰 생활비지출, 생활비부족 경험여부, 생활비부족 충당방식 및 충당금액, 물질적 결핍에 대한 인식

영역	세부 문항 구성
가구저축, 자산, 부채	저축여부 및 각항목별 저축금액, 주택이나 토지소유여부 및 소유금액, 전세나 월세여부 및 보증금액, 금융자산 소유여부 및 소유액, 부채여부 및 부채액
주거 및 지역사회환경	주택유형, 주택점유 형태, 거주층, 주택건평, 가구원구성 및 침실구성, 가구의 주택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종류 및 사용 형태, 거주기간, 문화사회복지교육시설·교통 등 거주지역 생활환경
사회적 자본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 참여 모임 및 단체, 공식적 참여, 비공식적 참여, 고용 및 생산활동 참여, 문화 및 대중매체, 삶의 목표, 가치관과 규범, 만족감·적응·소속감
근로경험	근로여부, 근로형태, 현 직업에 자활사업이 도움이 되는지,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한 적 있는지, 직업경험(가장 최초, 가장 오래 유지, 자활사업 참여 바로직전), 자활사업 참여 도중 일자리 구한 적 있는지(일자리 구했는지, 일자리 고용형태, 희망임금 수준, 직업 얻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훈련과정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적 있는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 및 개수
개인사	현재 참여 중인 자활사업 이외의 다른 자활사업 참여 여부, 수급지위 변동(1999년~2012년), 수급지위변동 주된 이유

자료 : 유태균 외(2012). 자활사업 분야(불완전 취업자) 패널구축 연구
 이상아 외(2022).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p.17.

(2)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7차년도 자활패널 조사가 완료된 2018년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는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자활사업 효과성의 정책적 기반이 될 근거자료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및 자활 효과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자활 패널조사보다 발전된 형태의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참여자의 사업참여 실태, 참여 만족도 및 요구 등의 자활사업 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자활사업 관련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정책효과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시행된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는 자활사업의 실태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본 조사의 1차 년도 조사에 해당하는 최초 조사이다.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는 전국 시군 250개 지역 자활센터 참여자 전체의 10% 표본을 할당 후 자활 역량점수, 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비례층화표집을 실시하였고 지역 자활센터 담당자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 외에 객관적 지표와 자료는 자활정보시스템을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조사 영역으로는 기본적인 참여자의 일반, 경제, 가족, 주거 특성을 측정하여 참여자들의 실태 파악을 하였다. 또한, 근로 실태파악을 위한 자활 사업 참여 이전, 참여 중, 참여 이후 각 기점마다의 근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 관련 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징적으로는 자활사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사업의 만족도 이외에 자활을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자활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각 영역별 세부적인 문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3〉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영역	내용
일반 및 수급특성	일반특성(성별, 생년월일, 학력수준, 장애유무), 가구특성(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동거가족 유무 및 수, 함께 생활하는 가족), 근로특성(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 가능성), 수급특성(현재 받고있는 급여 유형, 수급지위)
자활사업 참여특성	자활사업 참여 이유, 사업단 이동 경험여부 및 빈도, 사업단 이동 사유,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유형 및 업종, 자활 참여기간
경제적 상황	월평균 소득(근로소득(자활급여, 그 외 소득), 공적 이전소득), 자산(총 금융자산), 월평균 저축(통장사업 참여여부 및 월평균 저축액, 통장사업 외 월평균 저축액), 부채(총 개인 부채,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한 인지), 신용 상태, 월평균 지출(월평균 총 생활비, 지출이 큰 생활비 항목), 경제적 자활 정도에 대한 인지
주거	거주주택 점유형태, 주거자산 및 비용(주택 총액, 월세), 주거안정성에 대한 인지, 주거환경
건강	신체 건강(신체적 능력,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 건강(BSI-18, PHQ-9 우울 척도), 건강검진 여부, 의료서비스 필요 시 비용 경험 및 사유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경험(근로 경험 유무, 근로 중단 시점,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수준, 근로 중단 사유),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경험(최근 구직 경험 유무, 구직하지 않은 이유),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창업 중 희망 유형 및 취창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정서적 자활(자활의지(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 행복(삶에 대한 만족감, 긍정적, 부정적 감정 빈도)
사회적 관계	가족지지, 사회적자본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가족 돌봄 관련(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유무 및 유형, 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돌봄 서비스 부담에 대한 인지)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자활급여, 근로내용, 근로환경, 교육, 전반적 만족도), 사업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자료 : 이상아 외(2022).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p.31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는 2012~2018년까지 시행된 자활패널조사보다 발전된 형태의 조사로 구성하고자 한국복지패널, 장애인 삶 패널조사, 노인 일자리 실태조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패널 구축과 같은 실태조사 패널을 활용하여 조사 영역을 재구성하였다. 이에 기존 자활패널에서 보지 않았던 정서적 자활 및 경제적 자활과 같은 자활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근로 관련 경험도 자활사업 전과 참여 중, 자활 참여 이후의 3가지 시점으로 분할하여 근로욕구 전반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활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과 필요한 사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자활 의지를 촉진할 정책적, 사업적 제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표 I-4〉 주요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의 조사 영역과 본 연구의 조사 영역 구성

	자활패널 2012~2018	한국 복지패널 2006~2020	장애인 삶 패널조사 2018~2020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2019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2019~2021	20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일반적 및 수급 특성	가구·가족 특성	기초보장 수급	-	일반적 및 가구 특성	일반적 특성 및 수급 현황	일반적 및 수급 특성
건강	건강, 음주	-	건강·의료	건강 및 의료이용	신체적 건강	건강(신체 및 정신건강)
심리정서적 특성	정신건강	-	-	사회참여 특성 및 심리적 특성	심리정서적 특성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사회적 특성	가족관계, 사회적 자본	-	사회참여		사회적 특성	사회적 관계
경제적 상황	가구소득, 저축, 자산, 부채, 소비 및 생활여건	소득분포 빈곤역동성	자립	경제상태	경제적 상황 재무역량	경제적 상황
근로경험 및 특성	근로경험	-	-	경제활동	근로 특성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자활근로참여특성				진로관련 노력	자활사업 참여 특성
	자립의지					
주거	주거 및 지역 사회환경	주거실태	-	-	주거상황	주거
제도 만족도 및 개선의견	-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 및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개선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자활패널 2012~2018	한국 복지패널 2006~2020	장애인 삶 패널조사 2018~2020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2019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패널구축 2019~2021	202년 자활사업 참여 실태조사
사회서비스 이용	-	-	-	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현황
돌봄	-	-	-	-	돌봄 부담	
기타	개인사	공적연금 가입	장애수용 및 변화	노후생활	코로나 영향	-

자료 : 이상아 외(2022). 2022년 자활사업 실태조사 p.22-23.

2) 자활사업 관련 국내 연구 동향

(1) 자활사업 성과 측정 지표 개발

자활사업 및 자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개발과 관련된 연구와 자활사업 효과성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인식에 관한 실무자 및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다(이상아, 2022). 먼저, 자활사업의 성과측정 지표 관련 연구의 경우 연도별로 자활사업의 목적의 변화에 따라 지표도 함께 변화하였다. 2000년대 초반 자활사업의 목적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빈곤 탈출로 자활사업의 성과 또한 탈수급률과 취업률로 측정되었다(이석원·정희정, 2007; 고경환 외, 2009; 이채정, 2012; 이상아, 2022 재인용).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인 연구들은 취업률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활’의 수준만을 자활사업의 성과로 지표화하였다. 임동진(2001)은 취업률, 강병구(2002)는 취업률에 고용안정성과, 근로소득수준까지 보았으며, 김교성·강철희(2003)는 ‘경제적 자활’의 용어를 사용하여 경제적 자활의 진입여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자활사업 예상 기간을 보았다. 오영훈(2005)은 이에 자격증 취득가능성, 취업가능성, 소득을 통해 경제적 자활 가능성을 보았고 이석원·정희정(2007)은 경제적 자활달성 및 직업능력 향상 정도를, 안서연(2008)은 자활참여자와 근로비교층의 소득을 비교하였다. 백학영·김경휘(2013) 또한 자활종료 참여자들의 성공적 자활 측정 척도인 취·창업자 비율과 조건불이행 비율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활성공률을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제적 측면’만으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자활사업의 성과

가 공통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이형하·조원탁(2004)을 시작으로 경제적 측면만 살펴보는 것은 자활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며, 탈수급과 같은 결과 중심의 접근 외에도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나 정서적 측면의 변화까지 모두 측정하는 다차원적 성과 측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상아 외, 2022).

이에 이형하·조원탁(2004), 박재민 외(2014)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자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고, 고경환 외(2009) 또한 자활을 적절성(목표 적절성, 대상 적절성), 효과성(근로 유인효과, 소득보장효과), 효율성(비용효율성), 지속가능성(정부의 의지, 현장 의지, 참여자의지)의 다측면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박정호(2010) 또한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을 함께 보았으며, 엄태영(2014), 최상미(2017)은 정서적 자활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김경휘 외(2022)는 자활사업을 결과중심의 정량적 평가가 아닌 과정중심의 정성적 평가에 기반하여 자활의지, 근로장벽, 자활행동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선행연구 별 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5〉 자활사업 성과지표 선행연구 정리

구분	연구자	지표	
경제적 측면	임동진(2001)	취업률	
	강병구(2002)	취업률 고용안정성 근로소득	
	김교성, 강철희(2003)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 기간	
	오영훈(2005)	자격증취득가능성 취업가능성 소득	
	이석원, 정희정(2007)	자활 달성 정도 직업능력의 향상 정도	
	안서연(2008)	소득	
	백학영, 김경휘(2013)	자활성공률	
다차원적 측면	이형하, 조원탁(2004)	경제적 자활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고경환 외(2009)	적절성	목표 적절성 대상 적절성

구분	연구자	지표	
다차원적 측면		효과성	근로유인효과 소득보장효과
		효율성	비용효율성
		지속가능성	정부의 의지 현장의 의지 참여자의 의지
	박정호(2010)	경제적 자활성	구직 도움 직업능력개발 도움 생계 도움
		정서적 자활성	심리적 안정 도움 자존심 향상 도움
	박재민 외(2014)	경제적 측면	경제적 자활성과군
		정서적 측면	정서적 자활성과군
		사회적 측면	사회적 자활성과군
	엄태영(2014)	정서적 자활	긍정적 삶의 태도 대인관계 통제력 일에 대한 생각 자아상(자신감) 자립의지
	최상미(2017)	정서적 자활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기술과 자원의 사용 목적지향성
	김경휘 외(2022)	과정적 성과지표 (정성적 성과)	자활의지 근로장벽 자활행동

자료 : 이상아 외(2022),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p.8

(2) 자활사업 효과성 및 영향 요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정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과거 자활의 성과지표가 경제적 자활이 중심이 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경제적 자활에 대한 영향요인을 위주로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으나, 최근 정서적 자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서적 자활이 자활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자활보다 더 중요한 성과지표

로 주목을 받음으로써 정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현황이다. 이에 과거 경제적 자활을 중점으로 살펴본 소수의 연구와 최근 경제적, 정서적 자활을 종합적으로 본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후 최근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서적 자활의 영향요인 관련 연구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전 시기에 주로 진행된 연구들로 이석원·정희정(2007)은 참여자의 개인 특성이 취업과 자격증취득과 같은 경제적인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연령, 가족구성원, 직장경력, 지역, 성별, 학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경제적 자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엄태영·주은수(2016) 또한, 경제적 자활에서도 취·창업을 중점적 효과로 살펴본 결과,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이 남성이며, 연령이 높고 학력은 낮을수록,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경제적 자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과거 근로경험과 자격증이 없을 경우 경제적 자활성공률이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취·창업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중 상담, 면접, 관련 사회서비스나 비용지원은 실질적인 취·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경제적자활과 함께 정서적 자활과 같은 다차원적 측면을 성과로 그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박정호(2010)는 경제적 자활과 함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을 살펴보고 그 결과, 학력, 자활사업 유형, 거주지역이 정서적 자활 성과 중 심리적 안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박재민 외(2014)는 자활 참여자의 정신건강 수준인 우울, 불안, 신체화 정도가 심각할수록 정서적 자활 및 사회적 자활 수준이 낮아졌으며, 알코올 문제는 경제적 자활을 유의하게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최근 중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정서적 자활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특히 정서적 자활의 하위 요인으로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중점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았는데 다양한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와 개인 및 관계적 요인에 집중한 연구, 자활사업의 환경이나 제도적 기능과 같은 외부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접근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경승구·이용갑(2018)은 자활 단기 참여자가 장기참여자에 비해 자활의지가 더 높았으며, 근로경험, 학력, 수급여부, 가족지지, 실무자와의 관계가 자활의지 영향요인이었으며, 장기참여자는 근로경험, 학력, 수급여부 외에 장애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경휘(2017) 또한, 탈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활의지에 연령과 미취학 자녀 비율이 높을수록, 신체 및 정신건강이 안 좋을수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다른 공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긍정적 가족기능과 주관적 자원 정도가 높을수록,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수록 탈수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자활의지에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서 제도적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적 요인 및 주변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로 권민숙 외(2012)는 자활의욕에 참여자들의 성취동기, 자아효능감과 함께 자활사업에서의 동료 및 실무자와의 관계와 업무적절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정희(2022)는 자활의지에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탄력성과 정신건강을 중점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 경우에도 정신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고, 가족탄력성이 정신건강 수준을 부분매개로 자활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미정·김윤정(2023)의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의 중·고령 자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의 성과인 자활의욕에 개인의 성취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파악하고자 자활센터 실무자들의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활의욕은 참여자들의 성취동기의 영향도 받지만, 자활센터 실무자들의 지지로 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자활사업 환경이나 제도적 기능에 따른 정서적 자활에 주목한 연구로 엄태영·임진섭(2014)은 개인특성보다는 환경 특성에 집중하여 자활사업단의 업무 환경적 요인이 정서적 자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자활 하위 요인에서도 근로 태도에 대해서는 조직헌신을 통한 간접효과만 있는 것을 밝혀, 업무환경이 정서적 자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조경식(2020)은 제도적 기능에 집중하여, 참여자들이 사업을 통해서 자활 기능습득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활지원 신청절차가 용이함을 느끼는 자활의 행정적·제도적 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탈수급 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자활의지에 자활의 행정적·제도적 기능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자활의 행정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과 같은 자활사업의 성과에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과 가족 및 환경적인 다양한 측면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개인적 측면에서는 학력이나 정신건강 수준이 중요하며, 가족구성원의 존재나 가족지지와 같은 가족관계적 측면 또한 이들의 자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업을 제공하는 실무자와의 관계 또한 자활성과를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어 참여자에게 있어 실무자의 지지와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자활사업 참여 경험과 인식

자활사업의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 외에도 자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과측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심층적 성과분석 외에도 향후 자활제도와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안해줄 수 있기에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자활정책 및 사업 관련 인식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정책 경험과 인식 및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경휘·최상미(2022)는 자활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욕구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활급여나 취·창업을 위한 기술과 정보 등 경제적 자활수준이나 자활 준비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욕구는 잘 충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나 대인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욕구가 있음을 확인하여 자활사업에서 참여자들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지규옥(2021)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활노동의 의미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을 경우 적합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활급여로 경제적 문제가 회복되어 가족 관계 및 자신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들 간의 우호적 관계와 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 및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에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참여자 간의 갈등은 자활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드러나 참여자들 간 우호적 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자옥·유태균(2018)은 참여자 48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경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활 준비나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자활근로의 질이나 사업의 비자발적 참여로 인해 자활의 결과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사업참여를 위한 방안과 자활 근로의 질을 높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일원·강혜영(2023)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에게 자활사업 참여 경험은 자활급여를 통한 경제적 문제해결 및 참여자들과의 연대감과 이를 통한 희망감은 긍정적 면모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활사업 일자리가 역량과 욕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활사업 일자리를 통해 실제 일반 시장에서 경제성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경험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수급자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김소형·김경호(2020)의 질적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이 청년들에게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기능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이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취·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기회,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경험, 자신감을 쌓아 이것이 자본이 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수급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은경 외(2021)의 질적연구에서 또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생계유지와 자립 의지 회복은 긍정적 요소이나, 마찬가지로 개인의

육구나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배치된 비자발적 사업단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이기에 특히 돌봄공백으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자활사업이나 취성패에 참여한 한부모 여성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수정 외(2023)의 질적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지원 체계가 돌봄권을 보장하지 않기에 한부모 여성들이 일자리 참여 경험에서 불이익을 경험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돌봄이 필요한 참여자들에게 시간제일자리와 긴급돌봄지원과 같은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농촌지역 참여자들 25명을 대상으로 자활인식을 유형화한 하승범·신원식(2019)의 연구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자활경험을 통해 태도개선이나 자신의 근로능력 파악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일부 유형에서 자활을 통해 실제 자활 의지가 높아지지 않았으며, 자활임금이 낮아 생활이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이후 2년 미만의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진행한 연구에서 또한, 소극적 자활추구형에 해당하는 6명의 참여자가 자활 급여가 너무 낮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자활사업만으로는 탈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적극적 자활추구형(6명)은 자활경험이 탈수급 의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참여 안주형(6명)은 자활사업과 급여 등으로 인한 현재 생활수준에 만족하나 탈수급 의지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하승범, 신원식, 2019). 김진숙(2023)은 요즘 사회문제로 부상한 은둔형 외톨이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경제적 자립이 이를 탈피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으며, 특히, 자활공동체 참여를 통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료들과의 관계, 자립훈련, 균형있는 생활시간 회복이 매우 중요하기에 은둔형 외톨이들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진명·구혜경(2021)은 자활관련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를 참여자 관점에서 메타분석하여 자활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신청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개인의 다양한 역량과 욕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비자발적으로 사업단에 배치되거나 질 낮은 일자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자활 만족도가 저하되었다. 이에 참여자 개인의 역량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사업단 배치를 실시하며, 지역 내의 기업과 협력하여 충분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질 높은 사업단 일자리 제공과 지속적인 만족도를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정책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종합해보면,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급여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 관계자와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좋을 경우 정서적 자활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갈등 관계일 경우 오히려

려 자활 참여를 저해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권이 배제된 수동적이고 질 낮은 자활사업단 일자리는 정서적 자활수준을 낮추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자들의 자활 동기를 증진시키고 실질적으로 취·창업시에 도움이 될만한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단과 질 높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과 의견이 반영된 질 높은 일자리가 시급함이 드러났다.

3)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관련 고찰

자활사업 참여자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2023 자활사업 현황 통계」의 자료를 활용하여 2022년도 각 분기별(총 4분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현원³⁾ 분포를 수급지위, 성별, 연령, 사업단 유형, 사업단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각 분기별 현원을 살펴보면, 1분기는 29,953명, 2분기는 28,933명, 3분기 28,326명, 4분기 27,701명으로 1분기에 가장 참여자 수가 많으며 점차 참여자 수가 줄어들어 4분기에는 7.52% 감소하였다.

〈표 I -6〉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지위별 분포

(단위: 명, %)

분기	계	수급자				차상위	기타	해당없음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특례 수급자			
1분기	29,953 (100.0)	8,283 (27.7)	11,301 (37.7)	83 (0.3)	5,384 (18.0)	4,893 (16.3)	0 (0.0)	0 (0.0)
2분기	28,933 (100.0)	8,560 (29.6)	10,731 (37.1)	90 (0.3)	4,926 (17.0)	4,614 (15.9)	0 (0.0)	0 (0.0)
3분기	28,326 (100.0)	9,430 (33.3)	10,089 (35.6)	88 (0.3)	4,440 (15.7)	4,271 (15.1)	0 (0.0)	0 (0.0)
4분기	27,701 (100.0)	9,604 (34.7)	9,733 (35.1)	100 (0.4)	4,102 (14.8)	4,157 (15.0)	0 (0.0)	0 (0.0)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2023 자활사업 현황 통계

자활근로자 수 변화에 따른 수급 유형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1분기(27.7%)에서 4분기(34.7%)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여 7%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특례수급자 수는 1분기(18%)에서 4분기(14.8%)로 비율이 감소하였

3) 해당 분기 말 기준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 중인 참여자의 수임

으며, 일반수급자와 차상위, 시설수급자 또한 소폭 감소하였다. 이에 하반기로 갈수록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1분기 여성은 51.2%, 남성은 48.8%로 남성이 여성보다 2.4% 적어 약 7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하반기인 4분기로 갈수록 차이의 폭이 줄었으나 4분기 여성 51.0%, 남성 49.0%로 여성은 0.2% 감소, 남성은 0.2%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거의 변화세 없이 유지되었고 여전히 여성이 약 580명 정도로 소폭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는 4분기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 참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7〉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분기	계	여성	남성
1분기	29,953 (100.0)	15,331 (51.2)	14,622 (48.8)
2분기	28,933 (100.0)	14,771 (51.1)	14,162 (48.9)
3분기	28,326 (100.0)	14,428 (50.9)	13,898 (49.1)
4분기	27,701 (100.0)	14,140 (51.0)	13,561 (49.0)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2023 자활사업 현황 통계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대는 2015년 이전 대부분 중장년에 몰입된 인원비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2015년 65세 이상으로 참여자가 확대되고, 2018년 청년 맞춤형 사업단이 창설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대가 확대되었다. 이에, 2022년 분기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분기는 40대(37.4%)와 50대(27.8%)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여 중·장년층이 65.2%로 참여자 연령대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60세 이상은 27.8%, 청년층에 해당하는 30대 이하는 27.4%로 나타났다. 하반기로 갈수록 50대(25.7%)와 60세 이상(25.7%)은 점차 비율이 감소하였고 40대도 소폭 감소세로 나타났으나 청년층인 30대(20.5%)와 19세 이하(0.7%)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최종 4분기 중장년층(64.0%), 노년층(25.7%), 청년층(28.2%)으로 고연령 분포가 줄고 청년층이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다.

〈표 I -8〉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분기	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분기	29,953 (100.0)	137 (0.5)	2,122 (7.1)	2,245 (19.8)	5,933 (37.4)	11,194 (27.8)	8,322 (27.8)
2분기	28,933 (100.0)	180 (0.6)	2,057 (7.1)	2,252 (20.0)	5,794 (37.4)	10,835 (27.0)	7,815 (27.0)
3분기	28,326 (100.0)	174 (0.6)	2,018 (7.1)	2,254 (20.3)	5,739 (37.8)	10,708 (26.2)	7,433 (26.2)
4분기	27,701 (100.0)	183 (0.7)	1,935 (7.0)	2,191 (20.5)	5,684 (38.3)	10,598 (25.7)	7,110 (25.7)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2023 자활사업 현황 통계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단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분기는 사회서비스형(52.9%)로 나타나 사업단 유형에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장진입형(23.6%)로 나타났으며, 게이트웨이(14.6%),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3.5%), 청년자립도전(2.0%), 근로유지형(0.8%), 파일럿 사업단(0.5%)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의 분포가 다른 사업단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분기로 갈수록 게이트웨이(10.3%), 파일럿사업단(0.0%)은 감소하였고 다른 사업단은 소폭 증가세를 이루거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과 같은 주 사업단이 2~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하반기 새로운 참여자 유입은 점차 감소하고, 기존 게이트웨이 사업이 2개월이 지나 종료되어 사업단을 이전하며 나타난 현상이며, 파일럿 사업단의 경우에도 시범사업단으로 주로 연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론된다.

〈표 I -9〉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단 유형별 분포

(단위 : 명, %)

분기	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인턴· 도우미형	게이트 웨이	시간제 자활근로 사업단	청년 자립 도전	파일럿 사업단	기타 ⁴⁾
1분기	29,953 (100.0)	7,065 (23.6)	15,832 (52.9)	253 (0.8)	615 (2.1)	4,388 (14.6)	1,063 (3.5)	590 (2.0)	145 (0.5)	2 (0.0)
2분기	28,933 (100.0)	6,952 (24.0)	15,824 (54.7)	277 (1.0)	616 (2.1)	3,583 (12.4)	1,058 (3.7)	573 (2.0)	60 (0.2)	2 (0.0)

분기	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인턴· 도우미형	게이트 웨이	시간제 자활근로 사업단	청년 자립 도전	파일럿 사업단	기타 ⁴⁾
3분기	28,326 (100.0)	6,810 (24.0)	15,742 (55.6)	285 (1.0)	594 (2.1)	3,353 (11.8)	1,028 (3.6)	569 (2.0)	3 (0.0)	2 (0.0)
4분기	27,701 (100.0)	6,863 (24.8)	15,572 (56.2)	325 (1.2)	584 (2.1)	2,842 (10.3)	997 (3.6)	579 (2.1)	0 (0.0)	2 (0.0)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2023 자활사업 현황 통계

2022년 참여자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업단 유형과 같이 일부 업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비율로 보면 위탁생산(17.1%), 게이트웨이(14.6%), 청소(11.1%)로 위 3가지가 자활사업의 주요 업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음식점(8.6%), 유통·판매(6.0%)가 뒤를 따랐다. 4분기로 갈수록 사업단 유형의 변화와 같이 게이트웨이는(10.3%)는 2.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에 청소(12.2%)와 위탁생산(17.5%)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게이트웨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단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청소는 0.6%, 음식점은 0.7% 증가하여 사업단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게이트웨이 외에 농산물 생산·가공, 배송, 사회서비스는 각 0.1%씩 소폭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 업종 또한 일부 업종이 주 업종으로 참여자 대다수가 일부 업종에 포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10〉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업종별 분포

(단위 : 명, %)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29,953(100.0)	28,933(100.0)	28,326(100.0)	27,701(100.0)
공산품생산	476(1.6)	470(1.6)	468(1.7)	422(1.5)
농산물생산·가공	1,536(5.1)	1,476(5.1)	1,421(5.0)	1,395(5.0)
배송	1,656(5.5)	1,663(5.7)	1,671(5.9)	1,688(6.1)
사회서비스	1,203(4.0)	1,186(4.1)	1,163(4.1)	1,118(4.0)
생활용품생산	771(2.6)	724(2.5)	685(2.4)	687(2.5)
세탁	829(2.8)	831(2.9)	820(2.9)	839(3.0)
수산물생산·가공	118(0.4)	104(0.4)	92(0.3)	94(0.3)

4) '기타'는 자활근로 외 위탁사업임

5) 업종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음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식품생산		1,307(4.4)	1,260(4.4)	1,208(4.3)	1,225(4.4)
위탁생산		5,128(17.1)	4,963(17.2)	4,926(17.4)	4,843(17.5)
유통 · 판매		1,810(6.0)	1,874(6.5)	1,877(6.6)	1,936(7.0)
음식점		2,564(8.6)	2,575(8.9)	2,602(9.2)	2,658(9.6)
이 · 미용 · 건강		28(0.1)	28(0.1)	33(0.1)	30(0.1)
인력파견		708(2.4)	698(2.4)	646(2.3)	655(2.4)
재활용		1,194(4.0)	1,218(4.2)	1,193(4.2)	1,194(4.3)
집수리		312(1.0)	285(1.0)	284(1.0)	277(1.0)
청소		3,338(11.1)	3,365(11.6)	3,348(11.8)	3,378(12.2)
축산물생산 · 가공		81(0.3)	73(0.3)	68(0.2)	66(0.2)
취미 · 여가		49(0.2)	50(0.2)	48(0.2)	51(0.2)
홍보물		75(0.3)	76(0.3)	73(0.3)	72(0.3)
환경정비		446(1.5)	459(1.6)	453(1.6)	457(1.6)
해당 없음	도우미	510(1.7)	509(1.8)	476(1.7)	481(1.7)
	게이트웨이	4,388(14.6)	3,583(12.4)	3,353(11.8)	2,842(10.3)
	인큐베이팅	13(0.0)	18(0.1)	19(1.1)	17(1.2)
	근로유지형	281(0.9)	302(1.0)	304(1.1)	338(1.2)
	기타	620(2.1)	643(2.2)	629(2.2)	576(2.1)
기타 ⁵⁾		512(1.7)	500(1.7)	466(1.6)	362(1.3)

자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3). 2023 자활사업 현황 통계



조사방법

1. 조사과정 및 표본추출
2. 조사영역 및 변수설정

II

조사방법 <<

1. 조사과정 및 표본추출

1) 조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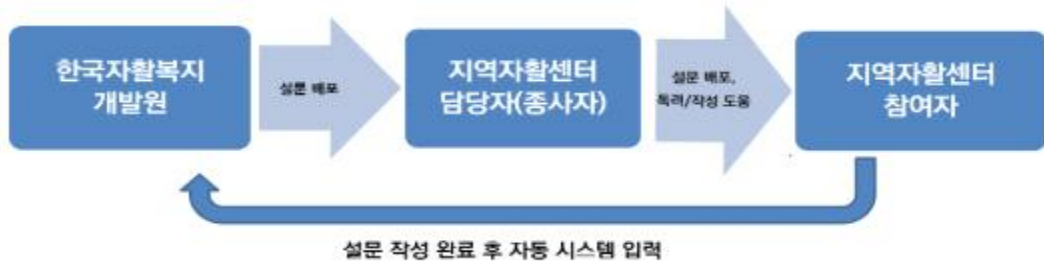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는 전국 시군 250개 자활사업 참여자(GATEWAY 포함) 6,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7일에서 2023년 9월 1일까지 진행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의 실태를 주기적,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기반으로 이메일과 대면 면접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접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였다. 이후 자료 처리는 SPSS를 활용하여 기초분석과 심층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II-1〉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표본 수	6,000 표본
표본 설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간, 자활역량평가점수에 따른 비례배분
표본틀	2023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조사
조사기간	2023년 8월 7일 ~ 2023년 9월 1일
자료처리 방법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분석

조사 진행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내 담당자(게이트웨이 담당자 혹은 사례관리 담당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게 직접 구두로 연구에 대해 안내한 뒤, 온라인 기반 설문지(URL)를 전달, 첫 화면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동의를 취득한 뒤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림 II-1] 설문조사 방식



자료 : 이상아 외(2022). 2022년 자활사업 실태조사 p.28

2) 표본추출

본 조사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참여자 수 51,195명(자활정보시스템 기준)을 기준으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전체 약 12%의 표본을 할당하였다. 이후, 자활역량점수⁶⁾와 자활사업 참여기간 참여자별 유의 할당에 따라 비례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센터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참여자 수 215명 중 약 12%를 표본으로 산출하고, 참여자의 자활역량점수와 참여기간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표본을 할당하였다.

〈표 II-2〉 자활사업 참여자 표본설계 예시

(단위: 명)

	참여자수 (명)	표본 (12%)	구분	45점 미만	45점 이상- 59점 이하	60점 이상- 79점 이하	80점 이상
A센터	215	26	1년 미만	2	3	3	0
			1년 이상-3년 이하	2	3	4	1
			3년 초과	1	3	3	0

6) 자활역량점수는 자활사업단 배치시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대상자 판단 기준으로 대상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자활의지, 가구여건, 지역사회 연건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고 있음

이때 각 지역자활센터별 최소 표본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되도록 임의 조정하였다. 최종 표본은 6,000명으로, 지역별 표본 할당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3〉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지역별 표본 설계표

(단위: 명, %)

지역	조사 모집단	표본 수	비율
강원	2,282	287	4.8
경기	6,246	771	12.9
경남	3,373	417	7.0
경북	2,462	308	5.1
광주	2,590	318	5.3
대구	2,944	361	6.0
대전	1,613	198	3.3
부산	4,616	566	9.4
서울	10,526	1,289	21.5
세종	190	24	0.4
울산	997	124	2.1
인천	3,393	414	6.9
전남	1,877	237	4.0
전북	2,106	262	4.4
제주	666	83	1.4
충남	1,568	196	3.3
충북	1,148	145	2.4
전체	48,597	6,000	100.0

추출된 표본기관 중 250개 지역자활센터 모두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할당된 표본과 현재 참여자 구성이 일치하지 않아 설계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센터까지 포함된 전체 지역별 응답 표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I-4〉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지역별 응답표본 분포

(단위: 명, %)

지역	모집단 수(전체)	표본 수	응답 수	지역별 응답률
강원	2,282	287	275	95.8
경기	6,246	771	704	91.3
경남	3,373	417	404	96.9
경북	2,462	308	246	79.9
광주	2,590	318	263	82.7
대구	2,944	361	362	100.3
대전	1,613	198	190	96.0
부산	4,616	566	60	106.4
서울	10,526	1,289	1,243	96.4
세종	190	24	19	79.2
울산	997	124	92	74.2
인천	3,393	414	417	100.7
전남	1,877	237	224	94.5
전북	2,106	262	258	98.5
제주	666	83	83	100.0
충남	1,568	196	142	72.4
충북	1,148	145	207	142.8
전체	48,597	6,000	5,731	95.5

2. 조사영역 및 변수설정

본 연구는 주요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를 검토하여 조사영역을 일반특성 및 수급 특성, 자활사업 참여 특성, 경제적 상황 및 생활 실태, 주거 특성,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특성,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사회적 관계, 사회서비스 이

용 및 가족돌봄 현황, 자활사업 효과 및 만족도의 10개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5〉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의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영역	내용
일반 및 수급특성	- 일반 현황: 성별, 생년월일, 학력수준, 장애유무 - 가구 현황: 혼인상태,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 - 수급 현황: 현재 받고있는 급여 유형, 수급지위
자활사업 참여특성	- 자활 참여 현황: 자활 참여기간, 지역자활센터 소재지, 이용 중인 지역자활센터, 자활역량평가 점수, 자활사업 참여 이유 및 적극참여 방해요인, 사업단 이동 경험여부 및 빈도, 사업단 이동 사유,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유형 및 업종 - 자격증 현황: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여부 및 개수, 취득 자격증 도움 정도
경제적 상황 및 생활실태	- 소득: 가계근로소득, 근로소득 외 - 자산: 총 금융자산 - 부채: 총 개인 부채, 개인 부채 부담 인지 정도 - 지출(월평균): 월평균 생활비,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1~3순위), 생활수준별 필요 생활비(주관적 최저 생계비)
주거	- 주거 현황: 주거 형태 및 소유형태 - 주거 환경: 주거 안정성(거주 가능 기간), 주거 환경
건강	- 신체적 건강: 신체적 능력, 주관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제공자,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 정도 - 정신적 건강: 정신건강(BSI-18), 우울(PHQ-9), 삶의 만족도 -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경험 여부, 의료서비스 필요시 미이용 경험 및 사유, 필요한 의료서비스 유형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경험: 근로 경험 유무, 근로 중단 시점,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수준, 근로 중단 사유 - 구직 경험: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경험 유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마지막 구직 시기 - 자활사업 참여 관련 욕구: 참여 희망 업종(실제 참여 가능 업종, 조건 없을 시 희망 업종 단순 희망 업종), 원하는 자활 근로 형태(전일제/시간제) 및 이유,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자활사업 종료 이후 근로 관련 욕구: 취·창업 중 희망 유형, 취·창업 시 고려사항, 탈수급 예상시기
정서적 자활 및 웰빙	- 정서적 자활: 자활의지(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 - 웰빙: 경제적 자활 정도에 대한 인지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 가족지지, 사회적 자본
사회서비스 이용 및 가족돌봄 현황	-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도 - 가족 돌봄 현황: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유무 및 유형, 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및 및 부담 인지 정도
자활사업 만족도	- 근로 만족도: 자활급여, 근로내용, 근로환경, 교육, 전반적 만족도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공급자 및 이용자 만족도

1) 일반 및 수급 특성

(1) 일반적 특성 : 성별, 출생년월,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응답자의 성별, 출생년월,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를 질문하였다. 그 외에 학력수준, 혼인상태, 등록장애인 여부 등도 일반적 특성 자료로 파악하나 실태조사에는 포함하지 않고 자활정보시스템(자정시) 내 자료를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2) 수급 현황 : 현재 받고있는 급여 유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현황을 파악. 자활정보시스템 내 자료가 있기는 하나, 자료 이용의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급 급여 유형을 조사하였다. 한편 수급지위는 자활정보시스템 자료를 매칭하여 이용하였다.

〈표 II-6〉 일반적 및 수급 특성 조사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일반적 특성	생년월일	○	
	성별	○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	○	
	학력수준		○
	혼인상태		○
	등록장애인 여부		○
수급현황	수급 중인 급여 (중복응답)	○	
	수급지위 (조건부, 일반, 차상위, 시설 등)		○

2) 자활사업 참여 특성 : 자활사업 참여 기간, 자활역량 평가점수, 참여하게 된 이유, 사업단 이동 경험여부 및 빈도, 참여 중인 사업단 유형 및 희망 사업단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현황 및 특성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이유,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사업단 이동 경험여부 및 빈도, 사업단 이동 사유,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및 유형 등을 참여자의 인지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외에 자활 참여기간, 자활역량 점수 및 이용 중인 지역 자활센터의 소재지는 자활정보시스템 자료를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표 II-7〉 자활사업 참여 특성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자활역량평가 점수	○	
	자활사업 참여 이유 및 적극 참여가 어려운 이유	○	
	사업단 이동 경험 및 횟수	○	
	사업단 이동 사유	○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	
	현재 참여 중인 사업단 업종 및 유형		○
	자활사업 참여기간		○
	이용 중인 지역자활센터 소재지		○
자격증 취득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여부	○	
	취득 자격증 개수	○	
	취득 자격증의 도움 인지 정도	○	

3) 경제적 상황 : 소득, 자산, 부채, 지출

참여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자산, 부채, 지출현황을 파악하였다. 소득으로는 참여 조사대상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조사하였다. 평균 근로소득은 자활급여(기본급여, 자립성과금), 자활급여 외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을 분리하였으며, 자산과 함께 자활정보시스템 자료를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부채는 조사대상자의 개인부채로, 조사 시점 기준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조사하였

다. 자정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채에는 은행 빚,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을 포함하였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과 연체액은 포함하였으나, 카드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채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용상태를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부채에 대한 부담을 응답자의 인지에 근거하여 11점(0점-10점)으로 파악하였다.

최대한 자활정보시스템의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월평균 지출하는 생활비와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을 1~3순위까지 조사하였다. 또한, 생활수준별(근근이, 그럭저럭, 건강한 문화생활) 필요한 생활비 척도를 통해 빈곤수준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최저 생계비를 측정하였다.

〈표 II-8〉 경제적 상황 조사 영역 및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경제적 상황	소득	근로소득		○
	자산	총 금융자산		○
	부채	총 개인 부채 및 신용상태	○	○
		부채 부담 인지 정도	○	
	지출	월평균 생활비	○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	
		생활수준별 필요 생활비(주관적 최저 생계비) ¹⁾	○	

자료 :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4) 주거 특성 : 주거 형태 및 소유 형태, 주거 안정성, 주거 환경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 형태 및 소유 형태, 주거 안정성, 주거 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거형태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원룸,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주거 소유 형태는 자가, 전세, 임대, 월세, 기타로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주거 안정성은 응답자의 인지를 바탕으로 이주시기를 조사하여 파악하였으며, 주거 환경은 주거지의 튼튼함 정도와 주거지 내부 및 외부의 쾌적함, 안전함 및 교통과 편의시설을 통해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표 II-9〉 주거 특성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주거 특성	주거 형태 및 주거 소유형태		○
	주거 안정성	○	
	주거 환경 ¹⁾	○	

자료 : 1) 김정희 외(2021).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 주거 환경 척도 문항 수정

5) 건강 특성

(1) 신체적 건강 : 신체적 능력, 주관적 건강 상태

자활사업 참여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적 능력 척도, 주관적 건강상태 정도를 조사하였다. 신체적 능력 척도는 문항에 해당하는 동작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로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스포츠 종목, 무거운 물건 옮기기, 고강도 노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일상생활, 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측정하였다.

(2) 정신적 건강 : 정신건강, 우울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간이정신건강 진단(BSI-18) 척도와 우울척도(PHQ-9)를 활용하여 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다. 간이정신건강 진단 척도(Derogatis, 2000)의 경우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신체화 증상(somatization)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우울 측정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PHQ)-9)를 사용하였다.

(3)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 건강검진 여부, 의료서비스 필요시 미이용 경험 및 사유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통해 건강관리 전반 및 건강관리 방해 사유에 대해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건강관

리의 경우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의 경험 여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파악을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 경험 유무에 대해 조사하고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정보 부족, 두려움, 중한 질병이 아닐 것으로 생각해서 등에 대해 측정하였다. 또한 자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만성질환 관리, 물리치료, 치과 치료, 신경정신과 치료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II-10〉 건강 영역 조사 세부 영역 및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신체적 건강	신체적 능력	○	
	주관적 건강 상태	○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 어려움 여부	○	
정신건강	정신건강(간이정신건강 진단 BSI-18) ¹⁾	○	
	우울(PHQ-9) ²⁾	○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	○	
	의료서비스 필요시 미이용 경험 여부	○	
	의료서비스 필요시 미이용 이유	○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유형	○	

자료 : 1) Derogatis, L. R.(2000). Brief Symptom Inventory 18(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2) Spitzer, R. L.et al.(1999). Vali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6)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1) 과거 일 경험

자활사업 참여 이전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 시장에서의 일 경험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경험 유무, 근로 중단 시점, 근로 및 사업소득의 수준, 근로 중단 사유(실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 종료, 가족 돌봄, 코로나19, 건강상의 이유, 은퇴, 낮은 소득 및 장래성 등)에 대해 측정하였다.

(2)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경험

현재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관련 경험 및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경험 유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마지막 구직 시기를 조사하였다.

(3) 자활사업 및 자활 종료 이후 근로 관련 욕구

참여자들의 근로 관련 욕구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자활사업에 대한 근로 욕구와 자활사업 종료 이후에 대한 근로 욕구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활사업에 대한 근로 욕구로는 자활사업 참여 희망 업종을 실제로 참여 가능한 업종, 건강이나 기타 조건이 없다면 하고 싶은 업종, 단순 희망 업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전일제와 시간제 중 어떤 자활근로 형태를 희망하는지, 시간제를 희망할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였다.

자활 종료 이후 근로 관련 욕구로는 자활사업이 종료된 이후 취업이나 창업 중 희망하는 유형과 취·창업시 고려 사항을 조사하였다. 추가적으로 탈수급 예상 시기 관련 질문을 통해 자활에 성공하여 탈수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그 시기를 조사하였다.

〈표 II-11〉 일관련 경험 및 욕구 조사 영역 및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과거 일 경험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경험 유무		○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중단 시점		○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또는 사업소득 수준		○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중단 사유		○	
구직 경험	자활 사업 참여 중 구직 경험 유무		○	
	구직하지 않은 이유		○	
	최근(마지막) 구직 시기		○	
근로 관련 욕구	자활 참여 관련	자활사업 참여 희망 업종 (실제 참여 가능, 조건 없을 시 희망, 단순 희망)	○	
		희망하는 자활 근로 형태(전일제/시간제)	○	
		시간제 자활근로 형태를 원하는 이유	○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 및 일간 근로시간	○	
	자활 종료 이후	취·창업 중 희망유형	○	
		취·창업시 고려사항	○	
		탈수급 예상시기	○	

7) 정서적 자활 및 웰빙

(1) 정서적 자활: 자활의지(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이후 자활 의지(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의 변화 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정서적 자활은 참여자 중심 자활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

이 중 자활의지는 참여자가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인지하고 근로 및 구직과 관련하여 얼마나 동기부여 되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성취를 위해 나아가고 있느냐를 의미한다. 고용장벽은 근로 및 구직과 관련하여 인적자본, 정보 측면에서 인지하는 장벽의 정도를, 자활 행동은 스스로 자신이 근로 관련, 일상생활, 청결, 건강관리 측면에서 자활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2) 웰빙 : 주관적 경제적 자활

자활사업 참여자의 웰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자활 척도를 활용하였다. 경제적 자활 척도(ESS)는 기본적 경제영역, 자율적 경제영역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주관적 경제 수준을 반영함으로써 실제 삶을 반영하는 척도로서 활용하였다.

〈표 II-12〉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정서적자활 ¹⁾	자활의지(고용희망)	○	
	고용장벽에 대한 인지	○	
	자활행동	○	
웰빙	경제적 자활 정도에 대한 인지 ²⁾	○	

자료 : 1) 김경휘 외(2021). 자활사업 참여 효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2) Gowdy, E. A. & Pearlmuter, S.(1993). Economic Self-sufficiency: It's not just money

8) 사회적 특성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지지, 사회적 자본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가족지지는 가족의 도움 노력 정도, 정서적 도움과 지지 정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의지 정도 등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 척도로는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수준, 사회참여 및 규범의식을 통해 사회적 자본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13〉 사회적 특성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사회적 관계	가족 지지 ¹⁾	○	
	사회적 자본 ²⁾³⁾	○	

자료 : 1) 신준섭·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사회적지지 문항 중 가족지지 4문항만 사용함

2) Zimet, G. D., et al.(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3) 이민홍·고정은(2015).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9)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이전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유무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자활사업 이외에 이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가 있는지 이용 여부를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파악하고 각 사회서비스 유형에 대한 필요도를 측정하여, 참여자들이 어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가족 돌봄 현황을 파악하고자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유무와 구성원의 유형을 조사하고 가족 돌봄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부담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II-14〉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특성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및 필요도	○	
가족 돌봄 현황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무	○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	○	
	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	
	돌봄서비스 부담 인지 정도	○	

10)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전반을 파악하고자 자활 근로 만족도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로 만족도의 경우 자활 급여나 근로 내용, 근로 환경, 교육, 게이트웨이 등 자활사업 참여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인 McMurtry, S.L., et al(2000)의 CSI(The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를 번역하고 보완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모두 통과한 CSI-K(김용석 외, 2007)의 척도를 활용하여 참여자가 이용 중인 자활센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2가지 측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15〉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조사지 포함	자정시 활용
자활 근로 만족도	자활 급여 및 난이도, 근로시간 만족도	○	
	사업단 및 근로 환경 만족도	○	
	게이트 웨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시기 만족도	○	
	자활 효과 및 전반적 만족도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¹⁾²⁾	서비스 공급자 만족도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자료 : 1) 김용석 외(2007).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 McMurtry, S.L., et al(2000). The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Results of an Initial Validation Study



참여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2. 경제적 특성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
4. 주거 특성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특성
6. 사회서비스 이용

III

참여자 특성 <<

1. 일반적 특성

1) 참여자 일반적 특성

자활실태조사 참여자들은 모두 5,731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56.1%)이 남성(43.9%)보다 많았고 연령은 50~59세(35.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40~49세(22.5%), 60세 이상(20.9%)이 따랐다. 학력은 고졸(51.2%)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참여자들의 자활 참여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37.6%)가 가장 많았고 자활역량점수는 60점 이상 79점 이하(41.7%), 45점 이상 59점 이하(36.6%)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참여자의 수급유형은 일반수급자(60.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건부수급자(25.3%), 차상위자(11.4%), 자활특례자(2.7%), 시설수급자(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참여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특성		사례수(명)	백분율(%)
전체		5,731	100.0
성별	남성	2,517	43.9
	여성	3,214	56.1
연령	29세 이하	633	11.0
	30세 이상 39세 이하	600	10.5
	40세 이상 49세 이하	1,289	22.5

특성		사례수(명)	백분율(%)
	50세 이상 59세 이하	2,013	35.1
	60세 이상	1,196	20.9
학력	무학	99	1.7
	초졸	412	7.2
	중졸	799	13.9
	고졸	2,935	51.2
	대졸	872	15.2
참여기간	1년 미만	1,802	31.4
	1년 이상 3년 이하	2,157	37.6
	3년 초과	1,772	30.9
자활역량	45점 미만	987	17.2
	45점 이상 59점 이하	2,100	36.6
	60점 이상 79점 이하	2,391	41.7
	80점 이상	253	4.4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3,445	60.1
	조건부수급자	1,451	25.3
	자활특례자	153	2.7
	차상위자	654	11.4
	시설수급자	28	0.5

2. 경제적 특성

1) 재산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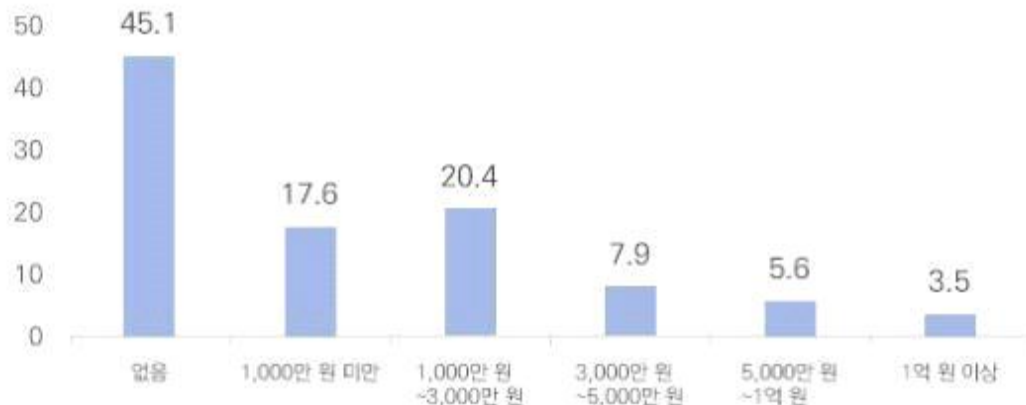
(1) 총 개인부채

자활사업 참여자의 총 개인부채 조사 결과 45.1%가 개인부채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20.4%), 1,000만 원 미만(17.6%),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던 참여자들의 자활특성으로는 참여기간 1년 미만(43.1%),

자활역량 45점 미만과 45점 이상 59점 이하(각 44.7%),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43.3%)인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특히 연령이 40세 이상 49세(38.9%) 이하는 부채가 없다는 비율이 30%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Ⅲ-1] 총 개인부채(종합)

(단위 : %)



〈표 Ⅲ-2〉 총 개인부채(특성별)

(단위 : %)

특성		없음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 3,000만 원	3,000만 원 ~ 5,000만 원	5,000만 원 ~ 1억 원	1억 원 이상
전체		45.1	17.6	20.4	7.9	5.6	3.5
성별	남성	46.0	18.2	18.1	7.0	5.8	4.8
	여성	44.3	17.1	22.2	8.6	5.4	2.5
연령	29세 이하	65.6	20.2	10.3	2.8	0.5	0.6
	30세 이상 39세 이하	45.8	19.7	19.8	9.2	3.7	1.8
	40세 이상 49세 이하	38.9	18.4	24.6	9.0	5.8	3.3
	50세 이상 59세 이하	39.6	16.9	21.2	9.4	7.9	4.9
	60세 이상	49.6	15.6	20.0	6.2	5.1	3.6
학력	무학	54.5	14.1	16.2	4.0	6.1	5.1
	초졸	54.9	16.0	17.2	6.8	3.2	1.9
	중졸	43.1	20.0	22.0	6.6	5.0	3.3

특성		없음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1억 원 이상
	고졸	45.7	17.5	19.7	8.1	5.7	3.3
	대졸	41.9	16.9	20.8	8.6	6.8	5.2
참여기간	1년 미만	43.1	17.0	18.9	9.5	6.3	5.0
	1년 이상 3년 이하	44.9	17.5	21.7	6.8	5.9	3.2
	3년 초과	47.2	18.3	20.1	7.5	4.5	2.3
자활역량	45점 미만	44.7	17.1	20.0	8.4	6.9	2.9
	45점 이상 59점 이하	44.7	17.9	20.0	8.1	5.6	3.6
	60점 이상 79점 이하	45.3	17.7	20.8	7.4	5.1	3.6
	80점 이상	46.6	16.2	20.2	8.7	4.7	3.6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44.7	17.8	21.0	7.7	5.4	3.5
	조건부수급자	43.3	18.7	19.7	8.3	6.1	3.8
	자활특례자	52.3	16.3	14.4	8.5	5.9	2.6
	차상위자	48.9	13.9	20.0	8.3	5.5	3.4
	시설수급자	53.6	25.0	21.4	0.0	0.0	0.0

(2) 부채 부담 인지 정도

참여자의 부채 부담 인지 정도는 11점 만점에 평균 7.43점으로 전반적으로 부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7.06점)보다 여성(7.71점)의 부채 부담 정도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 참여자들에게 부채부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연령은 증가할수록, 학력은 낮아질수록, 참여자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1년 미만(7.54점), 자활 역량점수 80점 이상(7.57점), 자활특례자(7.81점)일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부담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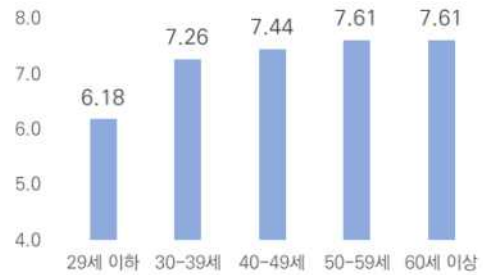
[그림 Ⅲ-2] 부채 부담감 정도(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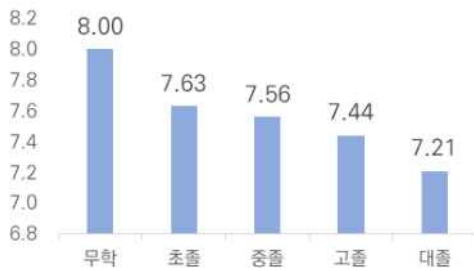
[그림 Ⅲ-3] 부채 부담감 정도(연령)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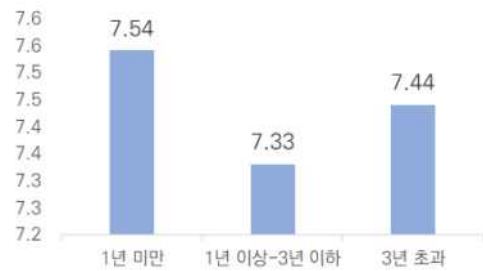
[그림 Ⅲ-4] 부채 부담감 정도(학력)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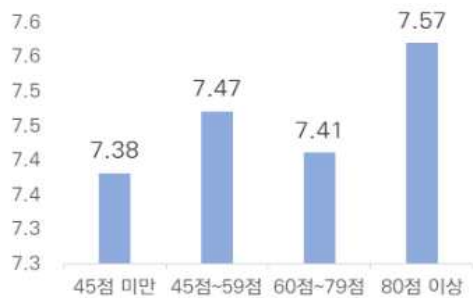
[그림 Ⅲ-5] 부채 부담감 정도(참여기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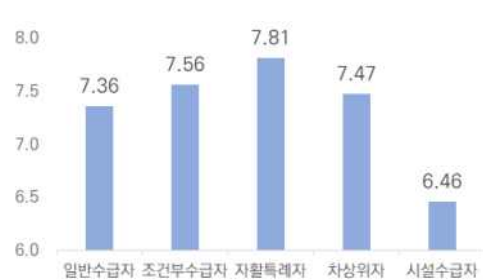
[그림 Ⅲ-6] 부채 부담감 정도(자활역량점수)

(단위 : 점)



[그림 Ⅲ-7] 부채 부담감 정도(수급유형)

(단위 : 점)



〈표 Ⅲ-3〉 부채 부담 인지 정도

(단위 : 점, %)

특성		평균 (점)	전혀 부담 안됨	← 1	← 2	← 3	← 4	보통	→ 6	→ 7	→ 8	→ 9	매우 부담
전체		7.43	4.5	1.4	1.1	1.2	0.6	22.7	3.8	8.6	9.8	3.4	42.8
성별	남성	7.06	5.8	1.6	1.7	1.4	0.7	26.5	4.3	8.5	7.9	2.9	38.9
	여성	7.71	3.5	1.3	0.7	1.1	0.6	19.8	3.5	8.7	11.2	3.8	45.8
연령	29세 이하	6.18	8.3	1.8	1.8	4.1	2.3	27.1	9.2	10.6	9.6	2.3	22.9
	30세 이상 39세 이하	7.26	7.4	2.8	0.6	1.2	0.0	20.3	2.2	7.7	12.0	4.3	41.5
	40세 이상 49세 이하	7.44	3.2	1.5	1.5	1.3	0.5	21.7	3.7	11.5	12.1	4.4	38.6
	50세 이상 59세 이하	7.61	3.9	1.0	0.9	0.9	0.7	23.5	3.5	7.2	8.6	3.2	46.6
	60세 이상	7.61	4.5	1.3	1.2	0.7	0.5	22.1	3.8	7.3	8.0	2.3	48.4
학력	무학	8.00	2.2	0.0	0.0	4.4	0.0	22.2	0.0	6.7	6.7	2.2	55.6
	초졸	7.63	3.2	1.6	1.6	0.0	1.1	21.5	3.2	8.6	9.1	5.9	44.1
	중졸	7.56	5.9	0.7	0.0	1.1	0.7	22.2	3.5	7.9	7.9	2.4	47.7
	고졸	7.44	4.0	1.5	1.2	1.1	0.6	23.6	4.0	8.0	10.5	3.3	42.3
	대졸	7.21	4.5	1.4	2.0	2.0	0.6	22.1	5.7	10.3	10.5	3.0	38.1
참여 기간	1년 미만	7.54	4.2	2.0	1.4	1.6	0.5	21.2	3.4	7.5	7.8	2.8	47.6
	1년 이상 3년 이하	7.33	4.7	1.5	0.8	1.1	0.8	23.0	4.5	9.7	10.8	3.6	39.5
	3년 초과	7.44	4.5	0.6	1.3	1.0	0.5	24.0	3.5	8.4	10.7	3.7	41.7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7.38	5.9	1.3	0.9	0.9	0.9	23.6	3.3	6.2	9.5	3.5	44.0
	45점 이상 59점 이하	7.47	4.0	1.3	1.7	1.5	0.6	22.1	3.5	9.3	9.2	2.9	43.8
	60점 이상 79점 이하	7.41	4.2	1.7	0.8	1.1	0.6	23.3	4.2	9.3	9.9	3.4	41.5
	80점 이상	7.57	5.9	0.7	0.7	0.7	0.0	18.5	5.2	5.9	14.1	6.7	41.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7.36	4.5	1.4	1.3	1.1	0.6	23.9	3.8	8.7	10.2	3.7	40.9
	조건부수급자	7.56	4.5	1.8	1.1	1.2	0.6	20.0	4.0	7.8	9.5	3.0	46.4
	자활특례자	7.81	1.4	0.0	0.0	1.4	1.4	23.3	6.8	6.8	9.6	4.1	45.2
	차상위자	7.47	4.5	1.2	0.9	1.8	0.6	22.2	2.7	10.8	8.7	2.4	44.3
	시설수급자	6.46	15.4	0.0	0.0	0.0	0.0	23.1	15.4	7.7	0.0	0.0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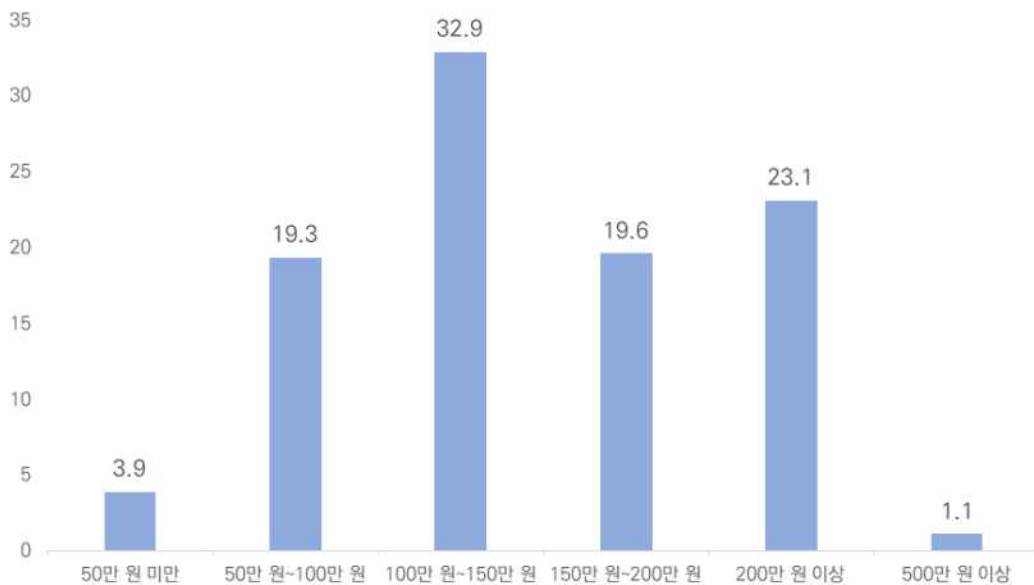
3) 지출

(1)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생활비

자활사업 참여자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 규모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32.9%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이상(23.1%),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19.6%)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월평균 가구 생활비가 100만 원 미만인 자활 특성을 살펴보면, 참여 기간 1년 미만(25.9%),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24.3%), 수급유형 시설수급자(32.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여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적은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Ⅲ-8] 월평균 가구 생활비(종합)

(단위 : %)



〈표 III-4〉 월평균 가구 생활비(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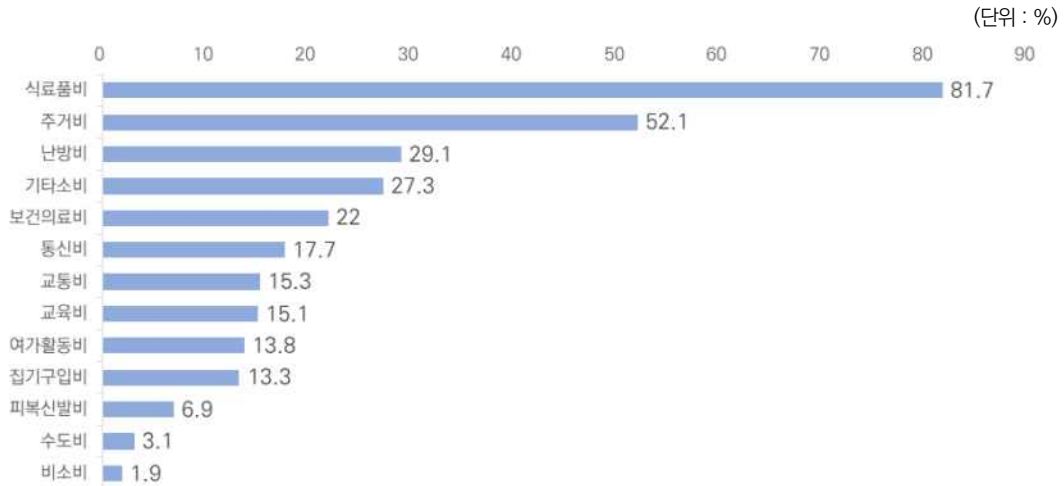
(단위 : %)

특성		50만 원 미만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전체		3.9	19.3	32.9	19.6	23.1	1.1
성별	남성	5.0	24.9	37.2	16.9	15.1	0.8
	여성	3.1	14.9	29.6	21.7	29.4	1.4
연령	29세 이하	9.5	24.3	28.0	15.2	20.5	2.5
	30세 이상 39세 이하	6.0	17.7	27.5	20.5	27.7	0.7
	40세 이상 49세 이하	2.9	14.5	28.1	20.3	32.4	1.8
	50세 이상 59세 이하	2.8	20.2	33.8	21.0	21.6	0.6
	60세 이상	2.9	21.2	42.1	18.4	14.8	0.7
학력	무학	3.0	34.3	36.4	12.1	13.1	1.0
	초졸	4.4	23.1	38.1	15.3	18.7	0.5
	중졸	4.1	21.3	36.8	17.6	18.3	1.9
	고졸	4.1	18.7	31.9	19.9	24.3	1.2
	대졸	3.0	18.5	29.9	22.4	25.2	1.0
참여기간	1년 미만	4.1	21.8	30.8	20.8	21.9	0.7
	1년 이상 3년 이하	4.0	18.8	33.5	18.6	23.9	1.1
	3년 초과	3.7	17.3	34.4	19.6	23.4	1.6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7	19.9	35.6	19.3	20.7	0.9
	45점 이상 59점 이하	3.4	20.9	34.0	18.2	22.5	1.0
	60점 이상 79점 이하	4.4	18.0	31.2	21.2	23.9	1.3
	80점 이상	4.7	15.8	29.6	17.4	30.8	1.6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3.8	19.8	34.7	19.7	21.0	1.0
	조건부수급자	3.4	17.2	27.2	20.5	30.3	1.4
	자활특례자	5.9	23.5	39.9	17.0	13.7	0.0
	차상위자	5.7	20.2	35.0	17.7	20.3	1.1
	시설수급자	3.6	28.6	25.0	17.9	25.0	0.0

(2)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복수응답)

참여자들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에 대해 3순위까지의 복수응답을 종합하여 조사한 결과, 식료품비가 81.7%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 주거비(52.1%), 3위 난방비(29.1%) 순으로 뒤를 따랐다. 1위인 식료품비의 비율이 2위인 주거비와 약 30% 가까운 차이를 보여, 의식주에 기본이 되는 식료품비에 대한 부담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참여자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났다. 모든 참여자 유형에서 또한 식료품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9]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종합)(1+2+3순위)



〈표 Ⅲ-5〉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종합)(1+2+3순위)

(단위 : %)

특성		식료 품비	주거비	난방비	수도비	집기 구입비	피복 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여가 활동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	비소비
전체		81.7	52.1	29.1	3.1	13.3	6.9	22.0	15.1	13.8	15.3	17.7	27.3	1.9
성별	남성	84.2	58.2	26.0	2.7	12.0	6.5	18.6	5.5	17.7	16.4	19.2	29.9	2.2
	여성	79.8	47.3	31.6	3.4	14.4	7.1	24.6	22.7	10.7	14.3	16.5	25.3	1.7
연령	29세 이하	77.9	44.2	25.4	9.5	13.4	5.4	13.4	7.4	21.6	23.4	30.5	26.5	1.1
	30세 이상 39세 이하	83.8	45.2	25.3	3.3	13.8	6.7	15.3	25.8	13.7	16.7	21.0	27.2	1.5
	40세 이상 49세 이하	84.2	41.7	28.9	2.6	13.9	8.1	17.5	29.3	11.2	12.9	19.2	27.5	1.9
	50세 이상 59세 이하	82.1	57.4	29.5	1.7	13.3	7.2	23.9	12.8	12.8	13.3	15.2	28.3	2.1
	60세 이상	79.5	62.0	32.7	2.5	12.5	5.9	31.4	2.5	14.2	16.1	12.0	26.0	2.2
학력	무학	75.8	52.5	37.4	6.1	8.1	11.1	27.3	8.1	10.1	24.2	15.2	23.2	1.0
	초졸	78.9	56.8	33.3	3.2	11.9	5.6	28.2	6.6	11.2	20.1	16.0	26.0	2.4
	중졸	79.7	53.1	33.5	3.1	13.1	6.3	21.7	9.3	14.0	18.0	17.4	27.8	2.3
	고졸	82.2	50.8	27.9	3.1	14.0	7.2	21.1	16.5	13.9	14.4	18.8	27.2	1.9
	대졸	85.0	53.6	25.5	2.4	11.7	6.4	22.0	18.5	14.8	11.9	16.6	29.0	1.8
참여 기간	1년 미만	83.0	55.7	26.5	3.2	12.7	7.0	20.1	13.6	13.6	16.0	18.8	27.8	1.6
	1년 이상 3년 이하	81.9	52.1	27.9	2.9	13.9	7.0	22.3	14.3	14.4	14.9	17.3	28.4	1.9
	3년 초과	80.2	48.5	33.4	3.2	13.3	6.5	23.5	17.7	13.2	15.0	17.1	25.5	2.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81.4	51.4	29.4	2.9	15.0	6.5	22.7	11.3	14.7	15.5	16.1	29.6	2.2
	45점 이상 59점 이하	81.1	53.3	28.2	3.2	12.8	7.5	23.3	14.2	14.1	14.6	17.3	27.8	1.9
	60점 이상 79점 이하	82.5	52.2	29.9	3.1	13.5	6.5	20.8	16.3	13.1	15.5	18.6	25.6	1.8
	80점 이상	81.0	43.5	28.1	3.2	10.3	6.3	18.6	26.5	13.4	17.8	19.0	30.4	1.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82.0	55.4	28.6	3.2	14.2	6.6	21.2	11.7	14.7	14.8	16.7	27.9	2.2
	조건부수급자	84.3	44.4	27.3	2.6	13.0	8.0	19.1	25.2	11.7	14.7	19.0	28.5	1.7
	자활특례자	77.8	58.8	25.5	4.6	13.1	5.9	17.6	7.8	17.0	20.3	21.6	29.4	0.7
	차상위자	75.8	51.4	37.2	3.5	9.3	5.4	33.9	12.1	12.5	17.3	18.8	21.4	0.9
	시설수급자	78.6	17.9	21.4	3.6	17.9	21.4	14.3	25.0	17.9	21.4	32.1	21.4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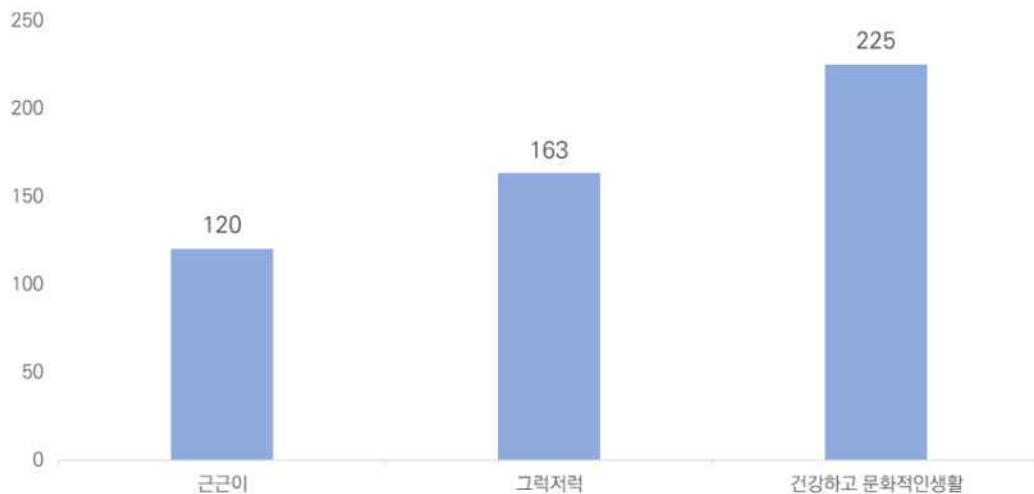
(3) 원하는 생활수준별 필요한 생활비

참여자들의 원하는 소비생활 수준별 필요한 생활비를 조사하여 상대적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근근이 살아가는 것에는 평균 120만 원, 그럭저럭한 생활은 평균 163만 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225만 원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상대적 빈곤 해결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22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 비율에서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과반수가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해결을 위한 생활비가 평균보다 적은 200만 원 미만일 비율이 가장 높은 자활 특성으로는 참여기간 3년 초과(38.6%),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41.5%), 수급유형은 시설수급자(57.1%)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유형들은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Ⅲ-10] 원하는 생활수준별 필요한 생활비 평균금액

(단위 : 만원)



〈표 III-6〉 원하는 생활수준별 필요한 생활비 평균금액

(단위 : 만원)

특성		근근이	그럭저럭	건강하고 문화적인생활
전체		120	163	225
성별	남성	110	150	208
	여성	128	174	239
연령	29세 이하	112	157	222
	30세 이상 39세 이하	126	173	241
	40세 이상 49세 이하	136	187	257
	50세 이상 59세 이하	118	159	218
	60세 이상	107	144	197
학력	무학	100	138	192
	초졸	102	138	188
	중졸	110	151	207
	고졸	123	167	231
	대졸	131	176	245
참여기간	1년 미만	121	166	229
	1년 이상 3년 이하	120	163	224
	3년 초과	120	162	223
자활역량 점수	45점 미만	117	159	219
	45점 이상 59점 이하	116	158	218
	60점 이상 79점 이하	124	168	233
	80점 이상	130	178	240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16	158	218
	조건부수급자	134	181	251
	자활특례자	107	146	204
	차상위자	115	156	215
	시설수급자	93	126	165

〈표 Ⅲ-7〉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단위 : %)

특성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
전체		1.0	5.8	12.3	19.1	56.9	4.9
성별	남성	1.3	6.5	14.5	22.6	51.5	3.5
	여성	0.8	5.2	10.5	16.4	61.1	6.0
연령	29세 이하	1.9	10.3	14.1	16.0	51.2	6.6
	30세 이상 39세 이하	1.7	6.7	9.2	15.8	60.0	6.7
	40세 이상 49세 이하	0.6	4.4	9.1	15.5	61.1	9.2
	50세 이상 59세 이하	1.0	4.9	13.0	19.3	58.8	3.0
	60세 이상	0.7	5.9	15.1	26.1	50.6	1.7
학력	무학	1.0	11.1	18.2	24.2	40.4	5.1
	초졸	2.4	7.3	17.2	24.0	48.3	0.7
	중졸	1.0	7.1	13.9	21.0	53.8	3.1
	고졸	1.0	5.2	12.2	18.1	57.7	5.8
	대졸	0.1	5.0	9.4	18.0	61.1	6.3
참여기간	1년 미만	0.7	6.0	11.4	20.1	56.5	5.3
	1년 이상 3년 이하	1.3	5.3	12.6	18.9	57.4	4.5
	3년 초과	1.1	6.2	12.8	18.5	56.6	5.0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1.2	5.8	13.1	19.0	57.5	3.3
	45점 이상 59점 이하	1.1	5.5	14.0	20.9	54.0	4.4
	60점 이상 79점 이하	0.9	6.3	10.8	17.7	58.4	5.9
	80점 이상	0.8	3.6	8.3	19.0	63.2	5.1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0	5.8	12.7	20.3	56.3	3.9
	조건부수급자	0.8	4.5	10.1	15.8	61.1	7.6
	자활특례자	2.0	7.2	17.6	21.6	47.7	3.9
	차상위자	1.2	7.5	13.0	20.0	53.5	4.7
	시설수급자	0.0	21.4	21.4	14.3	42.9	0.0

5) 과거 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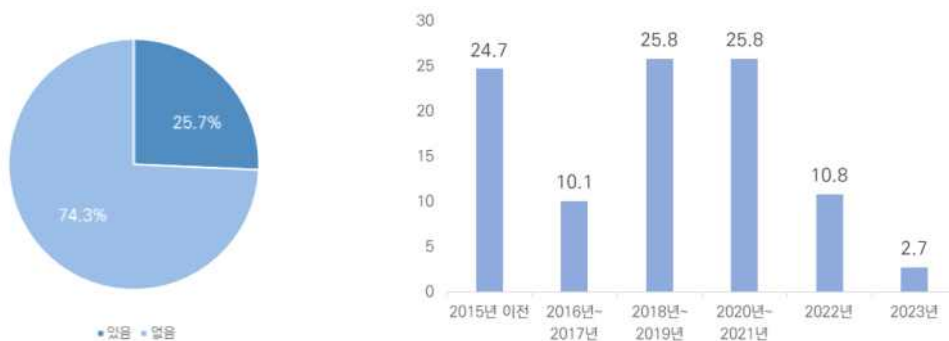
(1) 과거 일 경험 및 일 중단 시점

참여자의 과거 일 경험과 중단 시점에 대한 조사 결과, 과거 일 경험이 있음(74.3%), 없음(25.7%)으로 참여자 대부분 과거 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과거 일자리 중단 시점은 2020년~2021년(2~3년), 2018~2019년(4~5년)이 모두 25.8%로 가장 높았고 2015년 이전(8년 이상)이 24.7%로 그 뒤를 따라 일 중단 시점이 대부분 3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 중단 시점이 8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참여자 비율이 높은 자활 특성으로는 참여기간 3년 초과(38.7%), 자활역량 45점 이상 59점 이하(25.5%), 수급유형 자활특례자(34.3%)인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유형의 참여자들이 과거 일을 중단한 시점이 가장 오래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III-11] 과거 일 경험유무 및 중단 시점(종합)

(단위 : %)



〈표 Ⅲ-8〉 과거 일 경험 및 일 중단시점(특성별)

(단위 : %)

특성		과거 일 경험				마지막 일자리 중단시점			
		있음	없음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74.3	25.7	24.7	10.1	25.8	25.8	10.8	2.7
성별	남성	76.9	23.1	22.4	9.8	27.6	26.7	11.0	2.4
	여성	72.3	27.7	26.6	10.4	24.3	25.0	10.7	2.9
연령	29세 이하	55.8	44.2	5.1	8.5	20.7	36.8	20.1	8.8
	30세 이상 39세 이하	73.8	26.2	20.1	11.5	22.1	27.1	14.9	4.3
	40세 이상 49세 이하	78.4	21.6	25.7	8.1	28.5	25.3	10.5	1.9
	50세 이상 59세 이하	77.6	22.4	27.7	10.2	25.9	25.1	8.8	2.2
	60세 이상	74.5	25.5	28.4	12.2	26.5	22.6	9.1	1.2
학력	무학	65.7	34.3	27.7	9.2	21.5	29.2	10.8	1.5
	초졸	72.3	27.7	31.9	12.1	22.1	24.5	8.1	1.3
	중졸	72.8	27.2	27.7	10.5	25.1	24.6	9.8	2.4
	고졸	74.6	25.4	24.1	10.1	25.9	26.2	10.9	2.7
	대졸	79.1	20.9	22.0	8.7	27.4	27.1	12.0	2.8
참여 기간	1년 미만	73.9	26.1	15.5	6.0	15.0	29.4	26.3	7.8
	1년 이상 3년 이하	74.5	25.5	20.9	8.2	28.2	37.0	5.2	0.5
	3년 초과	74.5	25.5	38.7	16.6	33.8	8.6	2.1	0.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71.1	28.9	23.4	9.5	26.9	25.9	12.3	2.0
	45점 이상 59점 이하	75.5	24.5	25.5	10.3	26.5	26.2	8.9	2.6
	60점 이상 79점 이하	74.4	25.6	25.3	10.6	24.6	25.3	11.4	2.8
	80점 이상	75.9	24.1	17.7	6.3	27.1	26.6	16.7	5.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73.7	26.3	25.1	10.7	27.2	25.0	9.7	2.2
	조건부수급자	76.2	23.8	24.5	8.6	23.0	27.6	12.3	4.0
	자활특례자	70.6	29.4	34.3	14.8	28.7	12.0	9.3	0.9
	차상위자	74.3	25.7	20.8	9.7	25.1	28.8	13.2	2.5
	시설수급자	78.6	21.4	27.3	4.5	9.1	22.7	22.7	13.6

(2) 과거 일자리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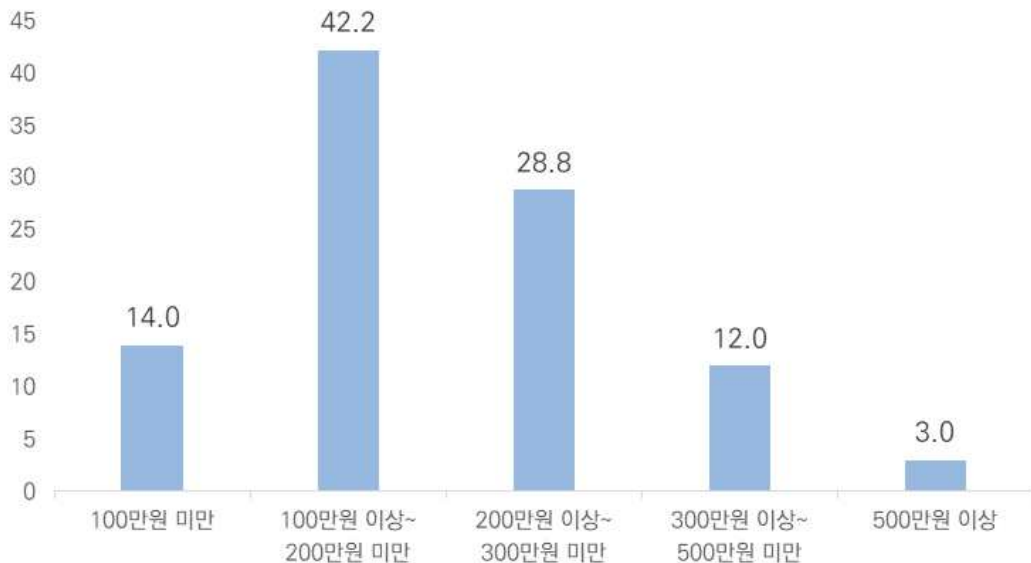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전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인 4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28.8%), 100만 원 미만(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차이에 따른 소득 평균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성참여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으로 매우 적은 소득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18.8%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남성은 8.4%만 응답하였다. 또한, 51.3%의 여성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소득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남성은 200만 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35.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였으며, 그 이상의 고 소득자도 여성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 특성별로는 과거 마지막 일자리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으로 가장 적은 수준의 근로소득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유형은 참여기간 3년 초과 (16.7%),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14.7%), 수급유형 조건부 수급자(15.8%)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과거 일자리 평균소득(종합)

(단위 : %)



〈표 Ⅲ-9〉 과거 일자리 평균소득(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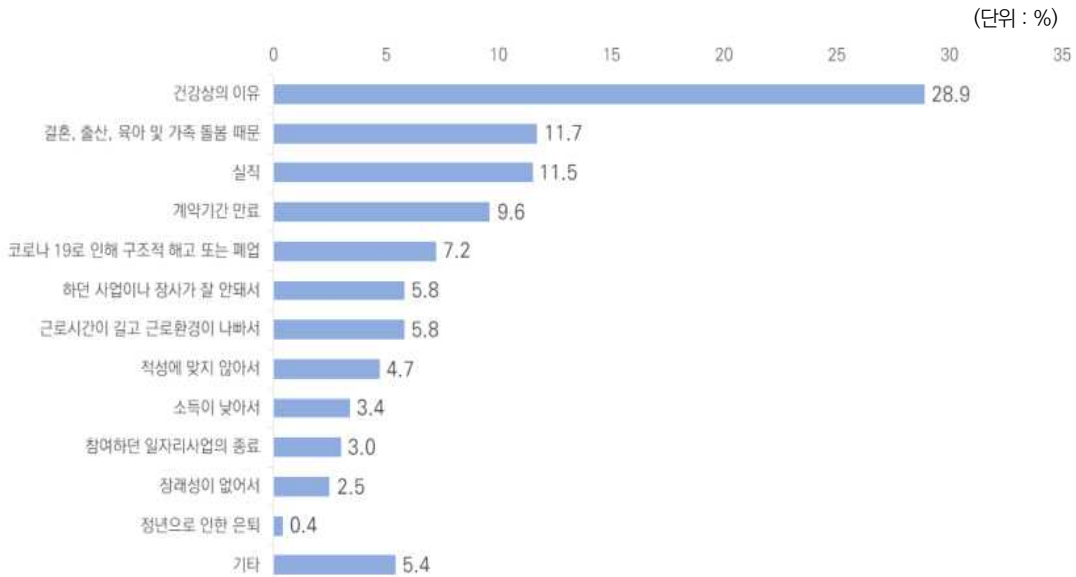
특성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전체		14.0	42.2	28.8	12.0	3.0
성별	남성	8.4	31.4	35.1	20.2	5.0
	여성	18.8	51.3	23.5	5.2	1.2
연령	29세 이하	22.1	54.4	20.7	2.5	0.3
	30세 이상 39세 이하	15.8	45.8	29.1	7.9	1.4
	40세 이상 49세 이하	12.8	42.7	31.0	10.8	2.8
	50세 이상 59세 이하	13.3	39.9	28.9	14.1	3.7
	60세 이상	12.7	39.1	29.0	15.6	3.7
학력	무학	15.4	44.6	26.2	10.8	3.1
	초졸	17.1	39.3	27.9	13.1	2.7
	중졸	13.7	44.2	27.7	12.9	1.5
	고졸	13.5	42.9	29.6	11.1	2.8
	대졸	14.5	40.4	27.1	13.2	4.8
참여기간	1년 미만	13.9	40.6	29.5	12.9	3.0
	1년 이상 3년 이하	12.0	40.5	31.9	12.9	2.7
	3년 초과	16.7	46.0	24.1	10.1	3.2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14.7	41.9	27.9	12.1	3.4
	45점 이상 59점 이하	14.1	41.4	29.7	11.5	3.3
	60점 이상 79점 이하	13.8	42.6	28.4	12.7	2.5
	80점 이상	13.5	46.9	27.6	9.4	2.6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3.9	39.5	30.0	13.6	3.0
	조건부수급자	15.8	45.3	26.9	8.8	3.2
	자활특례자	15.7	42.6	19.4	17.6	4.6
	차상위자	10.1	49.2	28.6	10.1	2.1
	시설수급자	13.6	45.5	27.3	9.1	4.5

(3) 과거 일 중단 이유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1위는 건강상의 이유(신체적, 정신적)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11.7%), 3위는 실직(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특성별로도 모든 자활특성 유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참여자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며, 이와 관련한 서비스와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30~39세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 중단이 1위(2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2.5%)에 비해 여성(19.3%)이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 중단 문제가 심각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학력에 있어서도 무학(1.5%)이나 초졸(3.0%)의 경우보다 고졸(13.0%)과 대졸(11.4%)의 경우 가족돌봄 문제로 일을 중단했다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이 겪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 중단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었다.

[그림 III-13]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표 III-10〉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 %)

특성		건강상의 이유	결혼, 출산, 육아, 가족돌봄 때문	실직	계약기간 만료	코로나 19로 인한 구조적 해고, 폐업	하던 사업 및 장사가 잘 안돼서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환경이 나빠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소득이 낮아서	참여하던 일자리사업 의 종료	장래성이 없어서	정년으로 인한 은퇴	기타
성별	전체	28.9	11.7	11.5	9.6	7.2	5.8	5.8	4.7	3.4	3.0	2.5	0.4	5.4
	남성	32.8	2.5	14.1	9.6	7.3	7.2	7.5	5.0	2.6	2.4	3.1	0.7	5.2
	여성	25.6	19.3	9.3	9.6	7.2	4.6	4.3	4.6	4.0	3.6	2.1	0.2	5.5
연령	29세 이하	14.7	11.9	8.2	8.8	4.2	0.3	7.1	15.3	4.8	4.0	5.1	0.0	15.6
	30세 이상 39세 이하	20.1	23.3	10.6	5.9	6.8	2.7	7.7	6.1	4.1	1.6	4.3	0.0	7.0
	40세 이상 49세 이하	24.4	21.7	9.1	9.4	7.6	3.3	6.6	4.7	2.9	2.7	2.5	0.1	5.0
	50세 이상 59세 이하	33.9	6.7	12.4	9.7	7.7	8.0	5.1	3.5	3.7	3.1	2.1	0.2	3.9
	60세 이상	35.1	3.4	14.4	12.0	7.4	8.5	4.4	2.1	2.5	3.6	1.5	1.6	3.6
학력	무학	36.9	1.5	18.5	6.2	9.2	4.6	4.6	3.1	1.5	4.6	3.1	0.0	6.2
	초졸	42.3	3.0	11.1	11.1	4.4	6.4	5.0	2.0	4.0	2.7	1.7	0.7	5.7
	중졸	32.8	9.3	11.5	9.5	8.4	4.5	5.5	3.1	4.8	2.9	2.2	0.3	5.2
	고졸	27.1	13.0	11.6	9.6	6.9	5.5	6.1	5.4	3.2	3.0	2.4	0.5	5.7
	대졸	22.9	11.4	11.6	10.9	8.6	8.0	5.4	5.1	3.0	3.5	3.5	0.1	6.1
참여 기간	1년 미만	29.1	9.6	10.3	10.9	8.3	4.8	6.3	5.3	3.2	3.4	2.7	0.5	5.6
	1년 이상 3년 이하	27.9	12.3	11.9	8.0	10.0	5.3	5.9	4.8	3.4	2.9	2.2	0.2	5.2
	3년 초과	30.0	13.0	12.2	10.4	2.8	7.3	5.0	4.1	3.6	2.9	2.7	0.6	5.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9.9	9.0	12.3	11.4	7.3	6.8	4.6	3.4	3.1	3.1	3.1	0.9	5.1
	45점 이상 59점 이하	30.4	10.7	12.3	10.1	7.3	6.4	5.7	4.0	3.4	3.2	1.9	0.2	4.5
	60점 이상 79점 이하	27.7	13.3	10.2	8.8	7.5	5.0	6.5	5.6	3.4	2.9	3.0	0.5	5.7
	80점 이상	24.0	15.6	14.1	7.3	4.7	4.2	4.2	7.8	3.6	2.6	1.6	0.0	10.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0.9	9.0	12.2	8.9	6.7	6.6	6.1	5.0	3.4	2.7	2.7	0.5	5.2
	조건부수급자	23.7	20.1	10.0	9.3	8.7	4.0	5.0	4.0	3.0	3.8	2.0	0.1	6.3
	자활특례자	38.0	6.5	13.0	11.1	5.6	6.5	3.7	5.6	2.8	0.0	1.9	0.9	4.6
	차상위자	28.8	7.0	10.3	14.4	7.2	5.6	6.0	4.7	3.9	3.7	3.1	0.8	4.5
	시설수급자	13.6	27.3	18.2	0.0	0.0	4.5	9.1	9.1	13.6	0.0	0.0	0.0	4.5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

1) 신체적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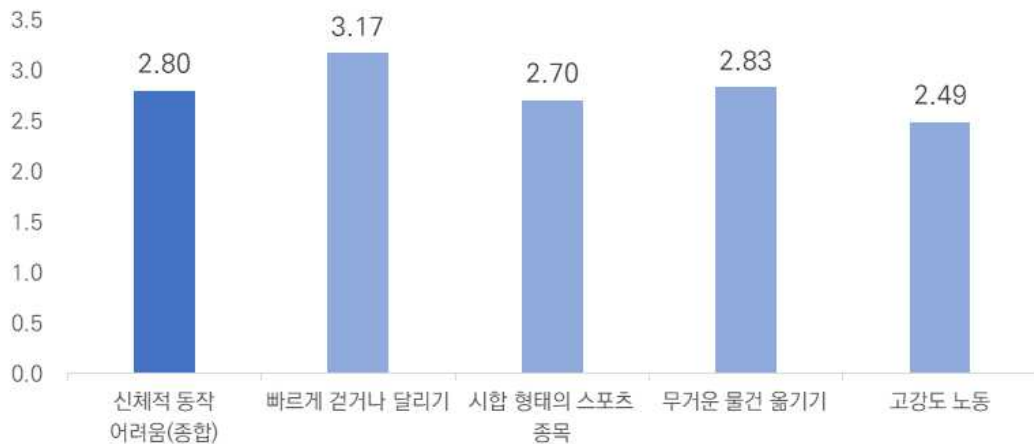
(1) 신체적 능력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과거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1위가 건강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건강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신체적 동작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신체적 동작 어려움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4점 만점에서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3.17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동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거운 물건 옮기기(2.83점), 시합 형태의 스포츠 종목(2.70점), 고강도 노동(2.49점)이 뒤를 따랐다.

자활 특성별로 살펴보면, 참여기간 1년 미만(2.84점), 자활역량 80점 이상(2.94점), 수급유형 시설수급자(3.21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종합적으로 신체적 동작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 신체적 동작 어려움 정도(종합)

(단위 : 점)



〈표 Ⅲ-11〉 신체적 동작 어려움 정도(특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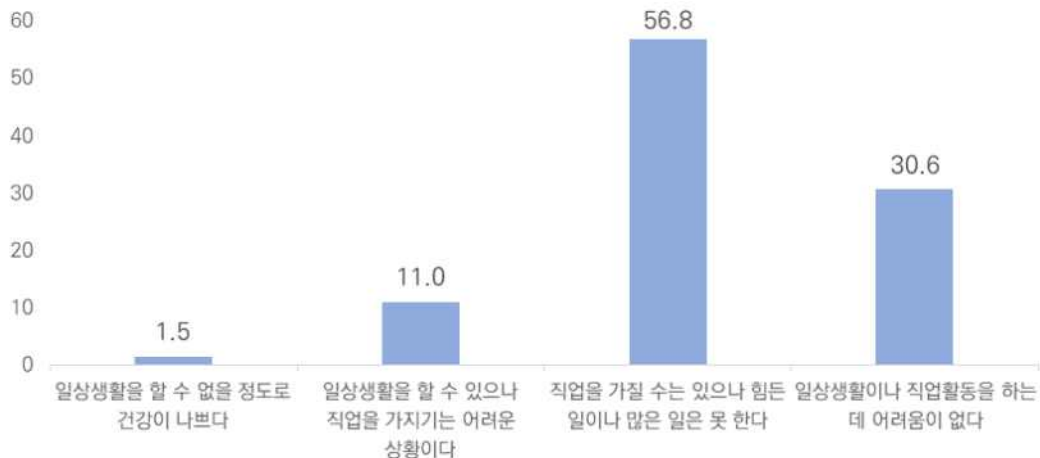
특성		신체적 동작 어려움 (종합)	빠르게 건거나 달리기	시합 형태의 스포츠 종목	무거운 물건 옮기기	고강도 노동
전체		2.80	3.17	2.70	2.83	2.49
성별	남성	2.88	3.20	2.78	2.97	2.56
	여성	2.74	3.14	2.64	2.72	2.44
연령	29세 이하	3.24	3.57	3.24	3.28	2.88
	30세 이상 39세 이하	3.05	3.41	2.97	3.08	2.75
	40세 이상 49세 이하	2.85	3.20	2.77	2.86	2.55
	50세 이상 59세 이하	2.68	3.05	2.56	2.71	2.38
	60세 이상	2.60	2.98	2.47	2.63	2.30
학력	무학	2.68	2.89	2.53	2.78	2.51
	초졸	2.58	2.92	2.38	2.65	2.38
	중졸	2.77	3.10	2.70	2.80	2.49
	고졸	2.82	3.20	2.73	2.85	2.51
	대졸	2.87	3.29	2.79	2.89	2.50
참여기간	1년 미만	2.84	3.21	2.76	2.87	2.51
	1년 이상 3년 이하	2.82	3.20	2.72	2.85	2.51
	3년 초과	2.73	3.08	2.62	2.76	2.45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2.78	3.15	2.69	2.80	2.49
	45점 이상 59점 이하	2.73	3.09	2.62	2.77	2.42
	60점 이상 79점 이하	2.86	3.23	2.77	2.88	2.54
	80점 이상	2.94	3.34	2.85	2.95	2.61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2.78	3.14	2.69	2.81	2.48
	조건부수급자	2.82	3.21	2.73	2.84	2.51
	자활특례자	2.74	3.06	2.60	2.81	2.48
	차상위자	2.82	3.19	2.71	2.87	2.50
	시설수급자	3.21	3.61	3.16	3.21	2.86

(2) 주관적 건강상태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직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은 못 한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이나 작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30.6%),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11.1%),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1.5%)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3년 초과(14.4%), 자활 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15.0%), 수급 유형 자활특례자(18.3%)에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수준 이상으로 건강이 나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15] 주관적 건강상태(종합)

(단위 : %)



〈표 Ⅲ-12〉 주관적 건강상태(특성별)

(단위 : %)

특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나 직업을 가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직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은 못 한다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전체		1.5	11.0	56.8	30.6
성별	남성	1.4	13.8	52.8	31.9
	여성	1.6	8.9	60.0	29.5
연령	29세 이하	0.8	3.9	35.9	59.4
	30세 이상 39세 이하	1.3	10.0	49.2	39.5
	40세 이상 49세 이하	1.7	9.2	58.2	30.9
	50세 이상 59세 이하	1.8	12.9	62.9	22.4
	60세 이상	1.3	14.2	60.1	24.3
학력	무학	5.1	25.3	48.5	21.2
	초졸	2.9	15.3	58.0	23.8
	중졸	1.9	12.8	57.9	27.4
	고졸	1.4	10.4	56.4	31.9
	대졸	0.9	7.6	57.1	34.4
참여기간	1년 미만	0.9	9.7	57.0	32.4
	1년 이상 3년 이하	1.5	11.2	56.9	30.4
	3년 초과	2.2	12.2	56.7	29.0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1.7	10.4	59.3	28.6
	45점 이상 59점 이하	1.8	13.2	58.2	26.8
	60점 이상 79점 이하	1.2	9.7	55.4	33.7
	80점 이상	2.0	7.9	49.8	40.3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7	12.4	56.7	29.2
	조건부수급자	1.4	8.9	57.8	31.8
	자활특례자	0.7	17.6	56.9	24.8
	차상위자	1.1	7.5	56.3	35.2
	시설수급자	0.0	0.0	42.9	57.1

(3) 일상생활 도움 여부 및 도움 제공자

앞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항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에 응답한 88명(1.5%)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여자가(59.1%)로 도움을 받는 참여자(40.9%)보다 근소하게 더 많아 도움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수가 과반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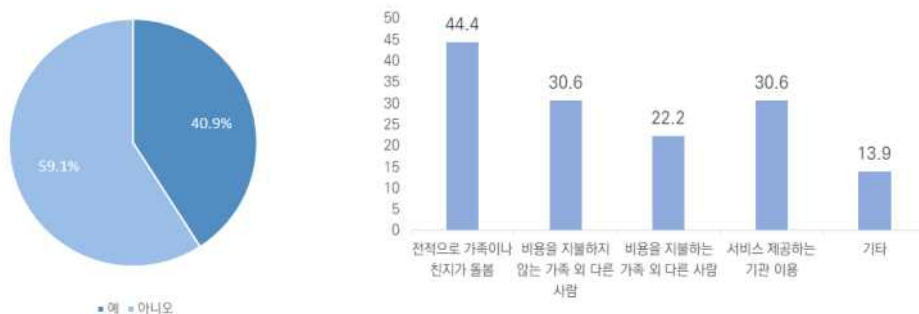
도움을 받고 있을 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1~2순위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전적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돌봄(44.4%)이 가장 높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 외 다른 사람과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모두 30.6%로 그 뒤를 따라 여전히 많은 수가 가족돌봄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자 자활특성별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참여자는 참여기간 3년 초과(66.7%), 자활역량 45점 이상 59점 이하(60.5%), 수급유형 차상위자(85.7%)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상위자의 경우 도움이 필요하나 제공받지 못하는 비율의 응답이 다른 유형보다 매우 높은 편에 속해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 도움과 관련된 서비스가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16] 일상생활 도움 여부 및 도움 제공자(종합)

(N=88)

(N=88, 단위 : %)



〈표 Ⅲ-13〉 일상생활 도움 여부 및 도움 제공자(종합)

(N=8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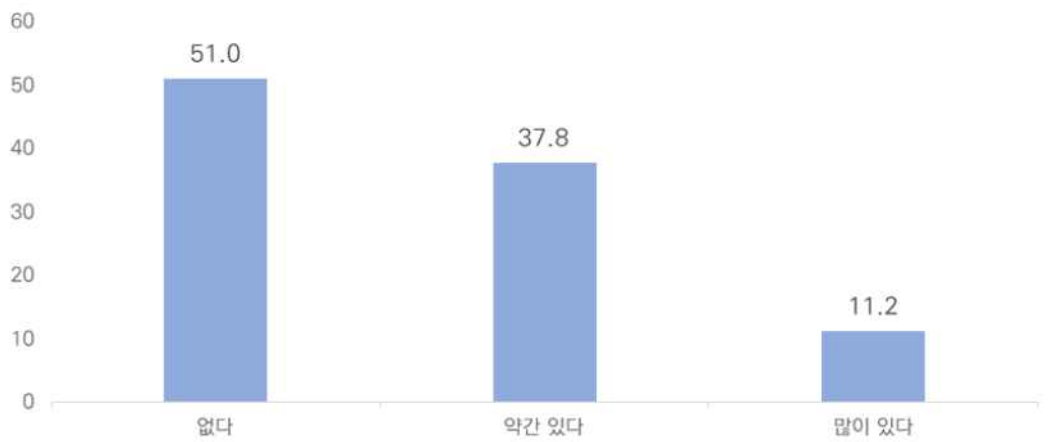
특성		일상생활 도움 여부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받고 있음	받지 못함	전적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돌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 외 다른 사람	비용을 지불하는 가족 외 다른 사람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이용	기타
전체		40.9	59.1	44.4	30.6	22.2	30.6	13.9
성별	남성	41.7	58.3	53.3	26.7	20.0	26.7	0.0
	여성	40.4	59.6	38.1	33.3	23.8	33.3	23.8
연령	29세 이하	80.0	20.0	25.0	25.0	25.0	50.0	25.0
	30세 이상 39세 이하	37.5	62.5	33.3	66.7	33.3	33.3	0.0
	40세 이상 49세 이하	54.5	45.5	58.3	16.7	16.7	25.0	16.7
	50세 이상 59세 이하	29.7	70.3	45.5	27.3	36.4	27.3	9.1
	60세 이상	37.5	62.5	33.3	50.0	0.0	33.3	16.7
학력	무학	40.0	60.0	0.0	50.0	0.0	50.0	100.0
	초졸	33.3	66.7	50.0	25.0	0.0	25.0	0.0
	중졸	60.0	40.0	66.7	33.3	22.2	11.1	0.0
	고졸	40.0	60.0	43.8	25.0	25.0	37.5	12.5
	대졸	50.0	50.0	0.0	50.0	50.0	50.0	25.0
참여기간	1년 미만	41.2	58.8	28.6	57.1	42.9	28.6	0.0
	1년 이상 3년 이하	50.0	50.0	50.0	18.8	12.5	31.3	18.8
	3년 초과	33.3	66.7	46.2	30.8	23.1	30.8	15.4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17.6	82.4	33.3	66.7	33.3	0.0	33.3
	45점 이상 59점 이하	39.5	60.5	40.0	33.3	20.0	33.3	13.3
	60점 이상 79점 이하	53.6	46.4	53.3	20.0	26.7	33.3	6.7
	80점 이상	60.0	40.0	33.3	33.3	0.0	33.3	33.3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37.3	62.7	50.0	13.6	18.2	36.4	13.6
	조건부수급자	57.1	42.9	25.0	66.7	33.3	25.0	16.7
	자활특례자	100.0	0.0	100.0	0.0	0.0	0.0	0.0
	차상위자	14.3	85.7	100.0	0.0	0.0	0.0	0.0
	시설수급자	0.0	0.0	0.0	0.0	0.0	0.0	0.0

(4)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

참여자가 지난 한 해 동안 건강 문제로 자활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없다(51.0%), 약간 있다(37.8%), 많이 있다(11.2%) 순으로 나타나, 참여자 중 절반 정도가 자활사업 참여에 있어 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참여자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3년 초과(13.3%), 자활역량 45점 이상 59점 이하(12.6%), 수급유형 자활특례자(13.1%)가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II-17]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종합)

(단위 : %)



〈표 III-14〉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종합)

(단위 : %)

특성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전체		51.0	37.8	11.2
성별	남성	55.7	35.5	8.8
	여성	47.3	39.7	13.1
연령	29세 이하	75.8	19.1	5.1
	30세 이상 39세 이하	57.3	35.0	7.7
	40세 이상 49세 이하	48.8	39.9	11.3
	50세 이상 59세 이하	44.0	42.5	13.5
	60세 이상	48.7	39.1	12.1

특성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학력	무학	37.4	43.4	19.2
	초졸	50.0	36.9	13.1
	중졸	49.2	39.5	11.3
	고졸	51.0	38.4	10.5
	대졸	54.6	35.3	10.1
참여기간	1년 미만	56.7	32.6	10.7
	1년 이상 3년 이하	49.3	40.8	9.9
	3년 초과	47.2	39.5	13.3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52.8	36.6	10.6
	45점 이상 59점 이하	47.4	40.0	12.6
	60점 이상 79점 이하	52.7	37.2	10.1
	80점 이상	57.3	30.8	11.9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49.9	38.7	11.4
	조건부수급자	50.6	37.5	11.9
	자활특례자	44.4	42.5	13.1
	차상위자	57.6	34.1	8.3
	시설수급자	82.1	10.7	7.1

2)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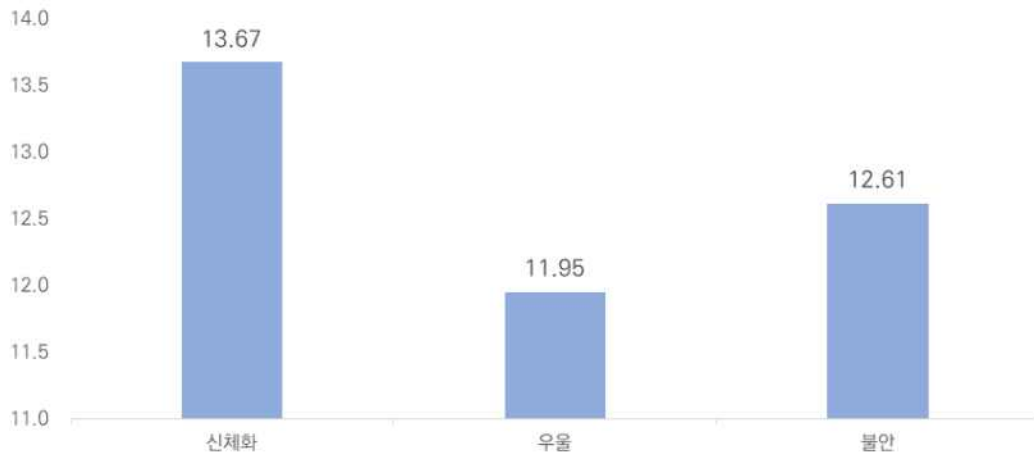
(1) 정신건강(간이정신건강 진단 BSI-18)

참여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각 평균 30점 만점에서 신체화 평균 13.67점, 우울 평균 11.95점 불안 평균 12.60점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이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 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 수급 유형 자활특례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모든 정신건강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유형이 자활특례자일 경우 신체화(14.22점), 우울(12.74점), 불안(13.48점)의 모든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반대로 시설수급자의 경우 신체화(11.14점), 우울(9.83점), 불안(9.94점)의

모든 점수가 유형 중 가장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급유형이 자활특례자인 참여자들에 대한 정신건강적 지원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그림 Ⅲ-18] 간이정신건강진단 평균(종합)

(단위 : 점)



〈표 Ⅲ-15〉 간이정신건강진단 평균(특성별)

(단위 : 점)

특성		신체화	우울	불안
전체		13.67	11.95	12.60
성별	남성	13.27	11.38	12.35
	여성	13.99	12.39	12.81
연령	29세 이하	12.98	11.50	11.26
	30세 이상 39세 이하	13.82	12.03	12.12
	40세 이상 49세 이하	13.58	11.89	12.34
	50세 이상 59세 이하	14.01	12.29	13.15
	60세 이상	13.50	11.64	12.86
학력	무학	14.19	11.84	12.86
	초졸	14.08	12.20	13.09
	중졸	13.83	12.13	13.12
	고졸	13.60	11.90	12.48
	대졸	13.24	11.56	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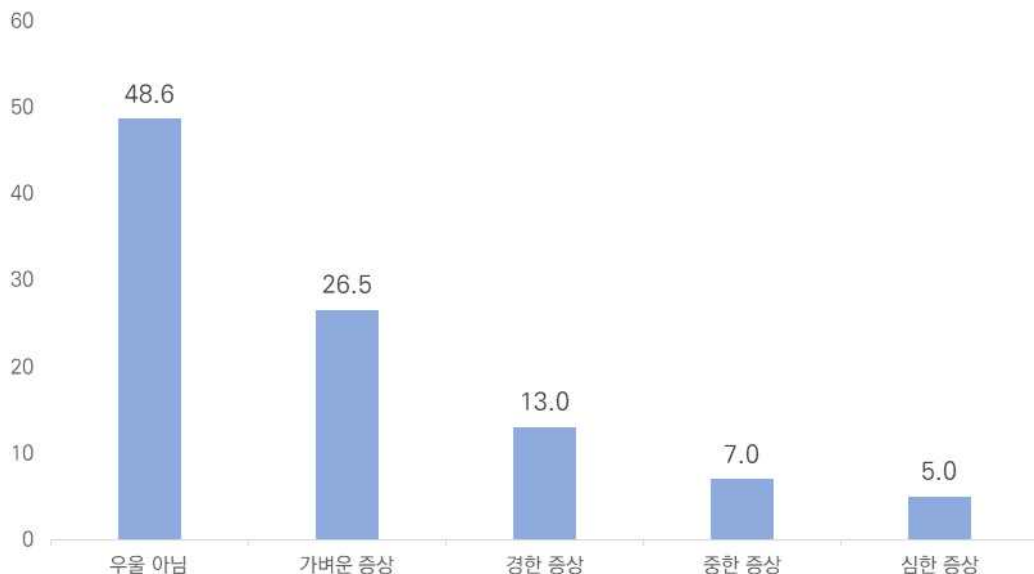
	특성	신체화	우울	불안
참여기간	1년 미만	13.44	11.76	12.31
	1년 이상 3년 이하	13.66	11.89	12.58
	3년 초과	13.93	12.20	12.94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13.44	11.74	12.50
	45점 이상 59점 이하	13.99	12.18	12.96
	60점 이상 79점 이하	13.51	11.88	12.40
	80점 이상	13.59	11.64	12.10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13.78	12.07	12.77
	조건부수급자	13.68	11.87	12.43
	자활특례자	14.22	12.74	13.48
	차상위자	13.09	11.40	12.05
	시설수급자	11.14	9.83	9.94

(2) 우울

PHQ-9을 사용한 참여자의 우울증 진단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참여자(51.4%)가 우울증상이 없는 참여자(48.6%)보다 근소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치료를 요하는 중한 증상은 7.0%,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심한 증상은 5.0%, 경한 증상은 13.0%로 확인되었다. 특히 참여자 특성별로 참여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5.3%),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5.7%), 수급유형 자활특례자(7.3%)가 상대적으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심한 증상을 겪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특례자는 정신건강점수와 우울점수 모두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나,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19] 구간별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종합)

(단위 : %)



〈표 III-16〉 구간별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특성별)

(단위 : %)

특성		우울 아님	가벼운 증상	경한 증상	중한 증상	심한 증상
전체		48.6	26.5	13.0	7.0	5.0
성별	남성	51.1	25.7	12.6	6.2	4.5
	여성	46.8	27.1	13.3	7.6	5.3
연령	29세 이하	49.2	27.0	13.2	5.6	5.1
	30세 이상 39세 이하	42.8	25.9	16.2	9.2	5.9
	40세 이상 49세 이하	46.9	27.0	13.6	7.1	5.5
	50세 이상 59세 이하	48.5	26.8	12.7	7.4	4.6
	60세 이상	53.1	25.4	11.2	5.7	4.5
학력	무학	47.6	26.8	11.7	9.4	4.4
	초졸	51.1	24.1	12.3	7.0	5.5
	중졸	50.5	24.4	13.4	6.9	4.7
	고졸	48.8	26.6	12.9	6.8	4.8
	대졸	49.7	28.6	12.9	6.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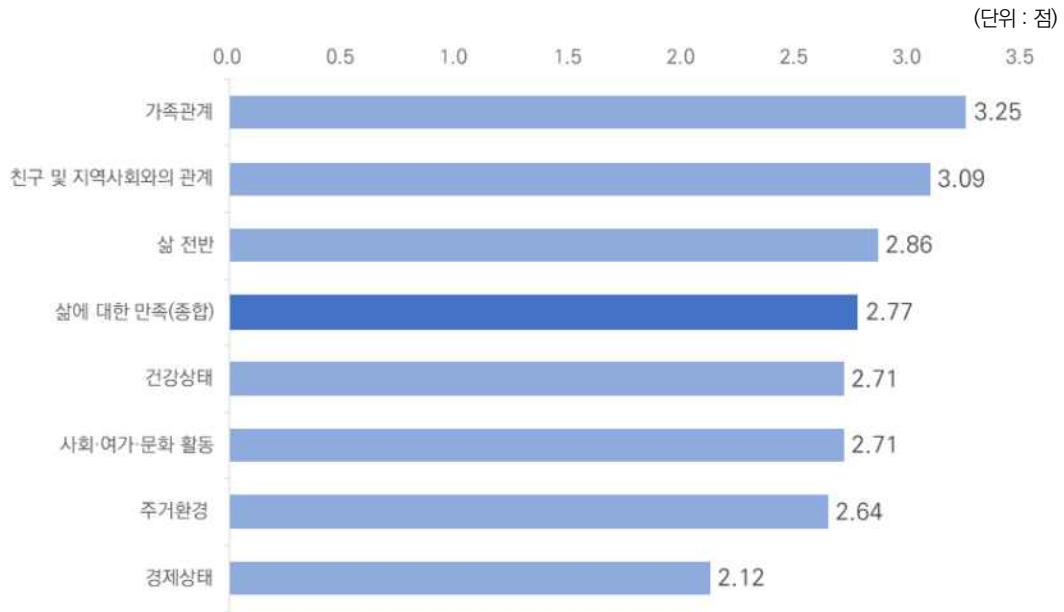
특성		우울 아님	가벼운 증상	경한 증상	중한 증상	심한 증상
참여기간	1년 미만	49.7	25.8	12.6	7.0	4.9
	1년 이상 3년 이하	48.5	26.1	13.4	6.7	5.3
	3년 초과	47.8	27.6	12.8	7.2	4.6
자활역량 점수	45점 미만	51.5	24.8	11.2	6.8	5.7
	45점 이상 59점 이하	47.0	26.6	13.8	7.7	4.8
	60점 이상 79점 이하	49.1	26.6	13.0	6.3	5.0
	80점 이상	47.0	30.0	12.7	7.5	2.8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47.8	26.9	13.7	6.6	5.0
	조건부수급자	47.7	26.9	12.7	7.9	4.8
	자활특례자	52.7	23.1	7.7	9.1	7.3
	차상위자	54.3	24.1	11.1	6.4	4.1
	시설수급자	63.0	22.1	3.7	3.7	7.5

(3) 삶의 만족도

참여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평균 2.77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경제상태(2.12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3.25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 삶의 만족도 종합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참여기간 3년 초과(2.79점),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2.83점), 수급유형 시설수급자(3.13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참여기간 1년 미만(2.75점),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2.73점), 수급유형 자활특례자(2.73점)로 다른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종합)와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모두 가장 낮아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개입이 특히 시급한 집단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20] 삶의 만족도(종합)



〈표 III-17〉 삶의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특성		삶에 대한 만족 (종합)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사회·여가 ·문화 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 와의 관계	삶 전반
전체		2.77	2.71	2.12	2.64	3.25	2.71	3.09	2.86
성별	남성	2.70	2.72	2.10	2.60	3.02	2.70	2.99	2.75
	여성	2.82	2.69	2.13	2.67	3.44	2.72	3.17	2.95
연령	29세 이하	3.06	3.00	2.40	3.01	3.44	3.21	3.37	3.01
	30세 이상 39세 이하	2.80	2.73	2.09	2.71	3.35	2.83	3.09	2.82
	40세 이상 49세 이하	2.75	2.67	2.08	2.61	3.36	2.65	3.05	2.85
	50세 이상 59세 이하	2.68	2.60	2.02	2.52	3.18	2.60	3.01	2.81
	60세 이상	2.77	2.76	2.17	2.65	3.12	2.65	3.12	2.92
학력	무학	2.74	2.65	2.20	2.74	3.02	2.65	3.07	2.88
	초졸	2.76	2.67	2.24	2.71	3.04	2.67	3.06	2.92
	중졸	2.75	2.68	2.14	2.64	3.14	2.73	3.10	2.85
	고졸	2.78	2.71	2.11	2.63	3.29	2.72	3.10	2.87
	대졸	2.80	2.79	2.08	2.66	3.36	2.76	3.08	2.86

특성		삶에 대한 만족 (종합)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사회·여가·문화 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 와의 관계	삶 전반
참여 기간	1년 미만	2.75	2.74	2.07	2.57	3.19	2.71	3.11	2.85
	1년 이상 3년 이하	2.77	2.70	2.13	2.65	3.24	2.72	3.10	2.85
	3년 초과	2.79	2.68	2.15	2.70	3.33	2.71	3.07	2.9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77	2.72	2.14	2.63	3.22	2.72	3.08	2.86
	45점 이상 59점 이하	2.73	2.66	2.11	2.60	3.19	2.67	3.06	2.83
	60점 이상 79점 이하	2.80	2.74	2.12	2.67	3.31	2.74	3.12	2.89
	80점 이상	2.83	2.71	2.05	2.72	3.40	2.81	3.17	2.92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75	2.68	2.11	2.62	3.20	2.69	3.08	2.84
	조건부수급자	2.77	2.69	2.05	2.63	3.33	2.72	3.09	2.87
	자활특례자	2.73	2.70	2.22	2.63	3.20	2.61	2.96	2.78
	차상위자	2.89	2.83	2.27	2.75	3.38	2.83	3.21	2.99
	시설수급자	3.13	3.36	2.68	3.04	3.36	3.07	3.29	3.14

4. 주거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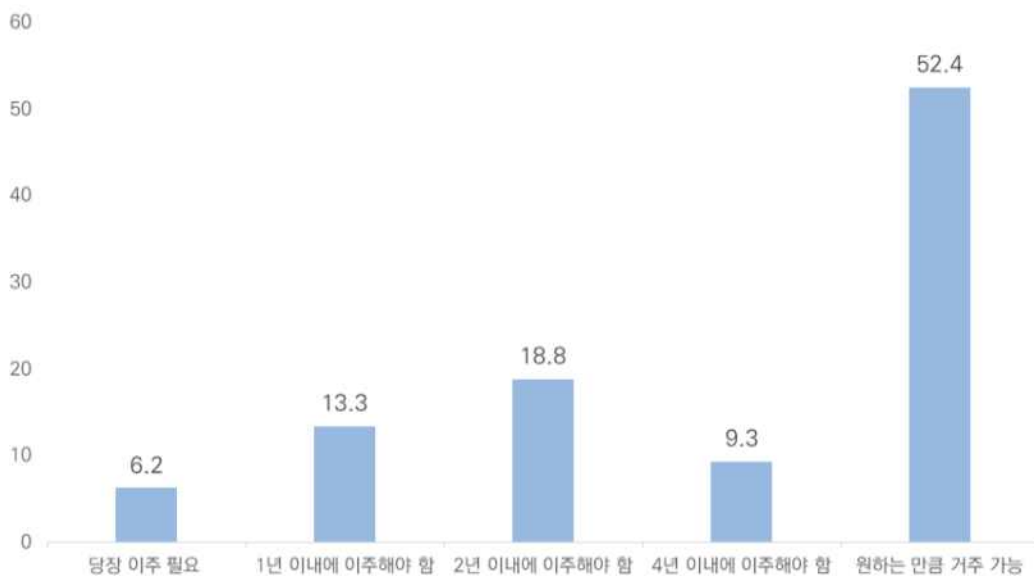
1) 주거형태

(1) 주거안정성

참여자의 현재 거주지의 지속 거주 가능 시기는 원하는 만큼 거주 가능하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2년 이내에 이주해야 함(18.8%), 1년 이내 이주해야 함(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 참여기간 1년 미만(7.4%), 자활 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7.0%), 수급유형 시설수급자(7.1%)와 조건부수급자(7.3%)가 당장 이주를 해야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Ⅲ-21] 현재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 가능시기(종합)

(단위 : %)



〈표 Ⅲ-18〉 현재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 가능시기(특성별)

(단위 : %)

특성		당장 이주 필요	1년 이내에 이주해야 함	2년 이내에 이주해야 함	4년 이내에 이주해야 함	원하는 만큼 거주 가능
전체		6.2	13.3	18.8	9.3	52.4
성별	남성	7.4	14.8	18.6	9.0	50.1
	여성	5.2	12.1	19.0	9.6	54.1
연령	29세 이하	2.5	14.5	18.0	11.1	53.9
	30세 이상 39세 이하	3.8	15.8	21.5	11.7	47.2
	40세 이상 49세 이하	5.8	12.6	18.9	10.0	52.8
	50세 이상 59세 이하	7.6	13.8	19.0	9.1	50.6
	60세 이상	7.4	11.3	17.6	6.9	56.8
학력	무학	5.1	9.1	21.2	7.1	57.6
	초졸	7.3	13.3	17.0	6.6	55.8
	중졸	7.6	11.9	19.0	8.5	52.9
	고졸	6.0	14.0	18.2	9.6	52.2
	대졸	5.6	14.0	21.2	9.7	49.4

특성		당장 이주 필요	1년 이내에 이주해야 함	2년 이내에 이주해야 함	4년 이내에 이주해야 함	원하는 만큼 거주 가능
참여 기간	1년 미만	7.4	15.0	21.0	8.4	48.2
	1년 이상 3년 이하	6.2	14.9	18.3	9.9	50.8
	3년 초과	4.9	9.5	17.4	9.7	58.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8	13.0	19.8	9.9	51.6
	45점 이상 59점 이하	7.0	12.2	20.1	8.0	52.6
	60점 이상 79점 이하	5.8	14.7	16.9	10.1	52.6
	80점 이상	4.3	9.9	23.7	10.7	51.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9	14.3	19.4	8.8	51.7
	조건부수급자	7.3	11.7	19.3	11.0	50.7
	자활특례자	5.2	12.4	19.0	11.8	51.6
	차상위자	5.5	11.8	14.4	7.2	61.2
	시설수급자	7.1	14.3	32.1	28.6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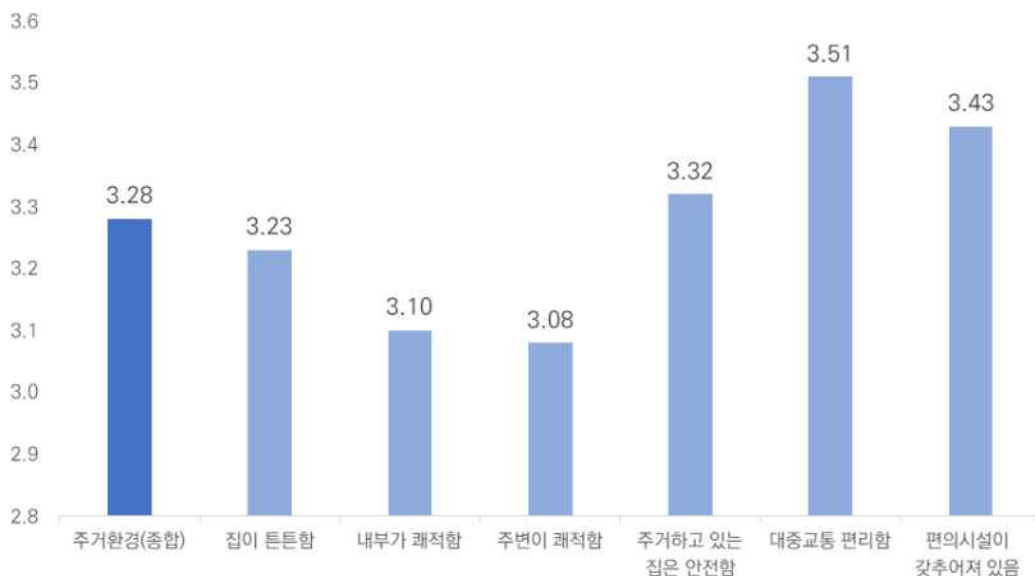
2) 주거환경

참여자의 현 거주지의 주거환경 수준은 5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은 대중교통 편리함이 3.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3.43점), 주거하고 있는 집은 안전하다(3.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주거지 내·외부 쾌적함에 대한 평가(각 3.10점, 3.08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여자의 자활 특성별로는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 또한, 모든 유형에서 집의 내·외부 쾌적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유형은 참여기간 1년 미만(각 3.04점),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3.08점, 3.06점)로 해당 유형 참여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 내·외부 쾌적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수급유형 중 일반수급자(3.07점)에서 집 내부 쾌적함이, 자활특례자(3.03점)에서 집 외부 쾌적함이 제일 낮게 나타나 이들의 주거환경의 열악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22] 주거환경(종합)

(단위 : 점)



〈표 III-19〉 주거환경(특성별)

(단위 : 점)

특성		주거환경 (종합)	집이 튼튼함	내부가 쾌적함	주변이 쾌적함	주거하는 집은 안전함	대중교통 편리함	편의시설 갖추어져 있음
전체		3.28	3.23	3.10	3.08	3.32	3.51	3.43
성별	남성	3.21	3.19	2.98	3.02	3.27	3.44	3.35
	여성	3.34	3.27	3.19	3.13	3.36	3.57	3.49
연령	29세 이하	3.38	3.36	3.23	3.13	3.36	3.64	3.58
	30세 이상 39세 이하	3.30	3.32	3.09	3.03	3.28	3.54	3.51
	40세 이상 49세 이하	3.31	3.29	3.16	3.08	3.33	3.55	3.46
	50세 이상 59세 이하	3.24	3.17	3.05	3.05	3.31	3.49	3.37
	60세 이상	3.25	3.17	3.06	3.13	3.31	3.44	3.38
학력	무학	3.22	3.24	3.10	3.19	3.20	3.36	3.22
	초졸	3.20	3.10	3.01	3.06	3.28	3.43	3.33
	중졸	3.19	3.13	3.01	3.02	3.25	3.43	3.29
	고졸	3.28	3.24	3.11	3.07	3.31	3.53	3.44
	대졸	3.41	3.39	3.21	3.21	3.44	3.63	3.56

특성		주거환경 (종합)	집이 튼튼함	내부가 쾌적함	주변이 쾌적함	주거하는 집은 안전함	대중교통 편리함	편의시설 갖추어져 있음
참여 기간	1년 미만	3.26	3.20	3.04	3.04	3.30	3.52	3.47
	1년 이상 3년 이하	3.29	3.25	3.10	3.08	3.32	3.53	3.43
	3년 초과	3.29	3.25	3.17	3.12	3.34	3.48	3.3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29	3.22	3.10	3.12	3.33	3.53	3.43
	45점 이상 59점 이하	3.25	3.20	3.08	3.06	3.28	3.47	3.39
	60점 이상 79점 이하	3.29	3.25	3.10	3.08	3.32	3.52	3.44
	80점 이상	3.44	3.41	3.27	3.16	3.46	3.70	3.6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26	3.22	3.07	3.06	3.29	3.51	3.41
	조건부수급자	3.30	3.22	3.11	3.07	3.33	3.55	3.52
	자활특례자	3.23	3.24	3.09	3.03	3.33	3.27	3.41
	차상위자	3.33	3.30	3.23	3.24	3.40	3.50	3.31
	시설수급자	3.49	3.54	3.57	3.21	3.89	3.32	3.39

5. 가족 및 사회적관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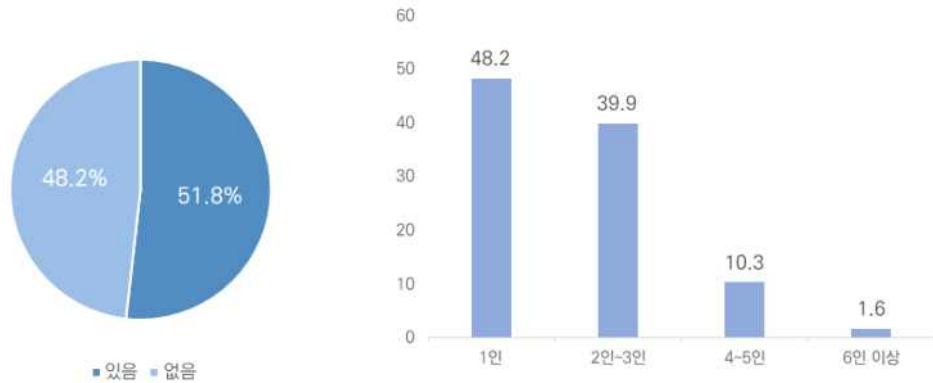
1) 가족형태

(1) 동거인 여부 및 가구원 수

참여자 중 동거가족이 없는 1인 가구 비율은 48.1%로 나타나,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1인가구 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2~3인(39.9%)일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남성 참여자는 65.7%로 과반수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1년 미만(53.6%)으로 가장 짧을수록, 자활역량 점수가 45점 미만(53.0%)으로 낮을수록, 수급 유형은 자활특례자(64.1%)일 경우 동거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일 비율이 가장 높아 이들에 대한 1인 가구 관련 지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23] 동거가구원 수(종합)

(단위 : %)



〈표 III-20〉 동거인 여부 및 가구원 수(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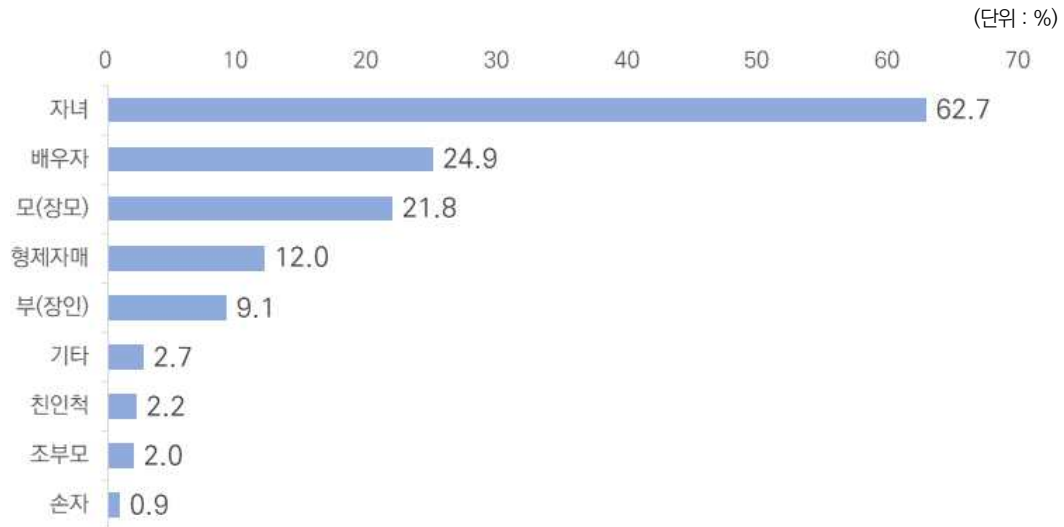
특성		동거가족 무	동거가족 유			
		1인	2~3인	4~5인	6인 이상	
전체		48.2	39.9	10.3	1.6	
성별	남성	65.7	26.9	6.5	0.9	
	여성	34.6	50.1	13.3	2.1	
연령	29세 이하	24.0	57.3	15.3	3.3	
	30세 이상 39세 이하	30.3	51.0	15.2	3.5	
	40세 이상 49세 이하	32.7	46.9	17.5	2.8	
	50세 이상 59세 이하	56.5	35.3	7.7	0.5	
	60세 이상	72.9	25.3	1.8	0.1	
학력	무학	72.7	24.2	2.0	1.0	
	초졸	63.8	30.1	5.1	1.0	
	중졸	56.2	35.7	6.6	1.5	
	고졸	44.1	42.9	11.3	1.7	
	대졸	45.9	39.7	12.7	1.7	
참여기간	1년 미만	53.6	35.1	9.4	2.0	
	1년 이상 3년 이하	47.8	40.6	10.3	1.3	
	3년 초과	43.4	44.0	11.2	1.5	

특성		동거가족 무	동거가족 유		
		1인	2~3인	4~5인	6인 이상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3.0	38.6	7.2	1.2
	45점 이상 59점 이하	52.1	37.4	9.2	1.2
	60점 이상 79점 이하	44.8	41.4	12.0	1.9
	80점 이상	30.4	51.8	15.0	2.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5.2	35.6	8.0	1.2
	조건부수급자	29.6	51.2	16.9	2.3
	자활특례자	64.1	31.4	4.6	0.0
	차상위자	50.3	38.8	9.0	1.8
	시설수급자	28.6	57.1	7.1	7.1

(2) 동거인 형태

동거가족이 있는 참여자의 동거인 형태 조사 결과, 자녀가 62.7%로 참여자들이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대부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배우자(24.9%)와 모 또는 장모(21.8%), 형제자매(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이 여성(74.0%)이거나 연령이 40세 이상 49세 이하(81.1%),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70.4%), 시설수급자(80.0%)일 때 자녀를 돌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높은 것이 드러나 해당 유형에 대한 자녀돌봄 관련 지원의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24]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종합)



〈표 III-21〉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특성별)

(단위 : %)

특성		배우자	부 (장인)	모 (장모)	손자	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전체		24.9	9.1	21.8	0.9	62.7	2.0	12.0	2.2	2.7
성별	남성	29.8	16.6	37.9	0.2	35.2	3.2	17.0	2.8	3.7
	여성	22.9	6.0	15.2	1.1	74.0	1.5	9.9	1.9	2.3
연령	29세 이하	5.0	30.8	57.0	0.6	13.7	8.5	42.8	4.0	4.0
	30세 이상 39세 이하	16.7	14.8	27.3	0.2	64.4	1.9	14.6	2.6	3.1
	40세 이상 49세 이하	24.2	5.3	16.1	0.3	81.1	0.9	4.7	1.4	1.7
	50세 이상 59세 이하	30.8	1.3	10.6	1.3	75.8	0.3	4.0	2.1	2.2
	60세 이상	50.6	0.6	7.7	2.5	49.1	0.0	3.7	1.5	4.3
학력	무학	33.3	0.0	14.8	7.4	63.0	0.0	0.0	3.7	3.7
	초졸	34.9	2.0	12.8	3.4	54.4	0.7	6.7	2.0	3.4
	중졸	30.9	5.7	14.9	1.4	63.1	2.0	8.0	2.3	5.1
	고졸	22.8	10.2	23.8	0.6	62.9	2.3	13.4	2.1	2.1
	대졸	22.0	12.1	26.7	0.4	61.7	2.1	14.0	2.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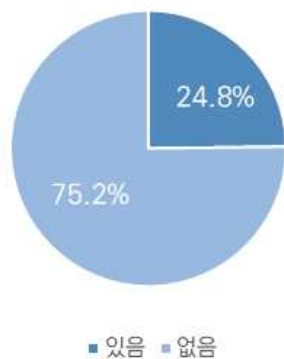
	특성	배우자	부 (장인)	모 (장모)	손자	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참여기간	1년 미만	21.4	13.3	24.4	0.8	58.8	2.7	14.8	2.7	3.0
	1년 이상 3년 이하	24.6	8.3	24.3	1.1	60.7	2.0	13.1	2.0	2.8
	3년 초과	28.1	6.4	16.7	0.7	68.4	1.4	8.4	2.0	2.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6.3	7.3	21.6	1.1	61.0	1.5	9.1	2.4	1.7
	45점 이상 59점 이하	26.7	7.7	18.9	1.1	65.1	1.7	8.9	2.2	3.3
	60점 이상 79점 이하	24.0	10.6	23.4	0.6	61.2	2.5	14.5	2.0	2.7
	80점 이상	17.6	10.2	26.7	1.1	65.9	1.7	18.8	2.8	1.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5.0	9.3	22.9	1.2	60.1	1.9	11.7	2.0	3.4
	조건부수급자	22.5	8.7	19.6	0.3	70.4	1.5	11.8	1.9	1.4
	자활특례자	27.3	3.6	23.6	0.0	54.5	5.5	9.1	3.6	1.8
	차상위자	32.6	10.5	24.3	1.5	51.4	4.0	15.1	4.0	2.5
	시설수급자	0.0	0.0	0.0	0.0	80.0	0.0	0.0	0.0	20.0

2) 돌봄 특성

(1)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무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로 나타나 대부분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은 없는(75.2%)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1년 미만(26.6%)으로 가장 짧고, 자활역량점수가 80점 이상(28.9%)으로 가장 높으며, 수급유형이 시설수급자(46.4%)인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III-25]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종합)



〈표 III-22〉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특성별)

(단위 : %)

특성		있음	없음
전체		24.8	75.2
성별	남성	20.3	79.7
	여성	28.3	71.7
연령	29세 이하	30.8	69.2
	30세 이상 39세 이하	39.5	60.5
	40세 이상 49세 이하	31.7	68.3
	50세 이상 59세 이하	20.5	79.5
	60세 이상	13.8	86.2
학력	무학	14.1	85.9
	초졸	16.5	83.5
	중졸	22.4	77.6
	고졸	25.2	74.8
	대졸	27.3	72.7
참여기간	1년 미만	26.6	73.4
	1년 이상 3년 이하	25.3	74.7
	3년 초과	22.3	77.7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24.4	75.6
	45점 이상 59점 이하	23.2	76.8
	60점 이상 79점 이하	25.8	74.2
	80점 이상	28.9	71.1

특성		있음	없음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2.5	77.5
	조건부수급자	31.9	68.1
	자활특례자	17.0	83.0
	차상위자	21.9	78.1
	시설수급자	46.4	53.6

(2)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은 1위가 노인(41.4%)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위는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가족(22.8%), 3위는 초등학생(13세 미만)(21.9%), 4위는 장애인(19.2%)으로 그 뒤를 따랐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과 자활역량, 수급유형에서 조건부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마찬가지로 노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수급유형에서 조건부수급자와 시설수급자의 경우 초등학생(13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활역량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도 노인(32.9%)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등학생(30.1%)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6]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종합)

(단위 : %)



〈표 III-23〉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유형(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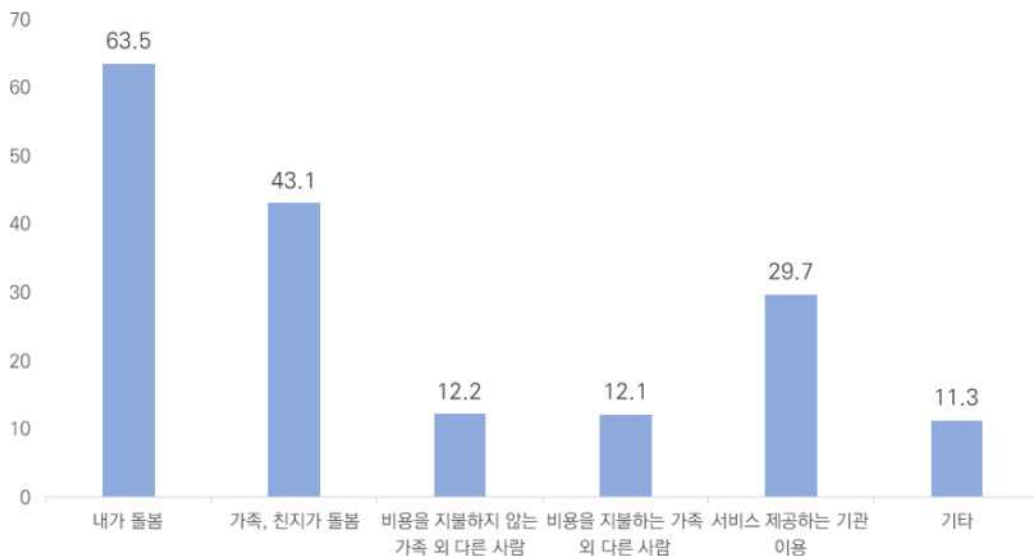
특성		노인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가족	초등학생 (13세 미만)	장애인	미취학 아동	기타
전체		41.4	22.8	21.9	19.2	11.3	0.1
성별	남성	58.2	25.5	6.7	18.0	5.3	0.2
	여성	31.9	21.3	30.5	19.8	14.6	0.0
연령	29세 이하	25.6	32.3	15.4	27.2	17.9	0.0
	30세 이상 39세 이하	19.8	20.7	41.8	18.6	24.5	0.0
	40세 이상 49세 이하	40.1	15.6	37.9	16.9	11.0	0.0
	50세 이상 59세 이하	59.3	23.2	6.1	17.9	2.4	0.2
	60세 이상	49.1	31.5	1.2	19.4	7.3	0.0
학력	무학	42.9	35.7	7.1	28.6	0.0	0.0
	초졸	45.6	27.9	14.7	16.2	4.4	0.0
	중졸	37.4	19.0	21.2	17.9	14.0	0.0
	고졸	41.3	24.0	21.2	19.2	11.1	0.1
	대졸	45.8	21.8	23.9	19.7	7.6	0.0
참여 기간	1년 미만	43.4	22.3	23.2	16.1	14.4	0.0
	1년 이상 3년 이하	38.2	23.5	21.8	20.7	12.5	0.0
	3년 초과	43.3	22.5	20.5	20.8	5.8	0.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3.2	27.0	15.4	17.4	8.3	0.0
	45점 이상 59점 이하	44.1	21.9	18.4	19.5	10.7	0.0
	60점 이상 79점 이하	39.5	22.0	26.3	19.1	12.5	0.2
	80점 이상	32.9	21.9	30.1	23.3	15.1	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6.5	22.9	16.8	18.6	10.5	0.1
	조건부수급자	28.7	23.5	31.5	20.7	14.7	0.0
	자활특례자	61.5	30.8	0.0	26.9	0.0	0.0
	차상위자	53.8	20.3	19.6	16.1	4.9	0.0
	시설수급자	7.7	7.7	53.8	15.4	30.8	0.0

(3) 돌봄서비스 이용방식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방법으로는 1위가 전적으로 내가 돌봄(63.5%)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위는 가족 친지가(43.1%), 3위로는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29.7%)으로 그 뒤를 따랐다. 참여자의 자활 특성별로는 모든 참여기간과 자활역량점수, 자활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돌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수급유형 중 자활특례자의 경우에는 가족, 친지가 돌봄(61.5%)이 내가 돌봄(42.3%)보다 더 높게 나타나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가족 돌봄으로 인하여 자활 참여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림 Ⅲ-27]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방법(종합)

N=5,731, (단위 : %)



〈표 III-24〉 현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방법(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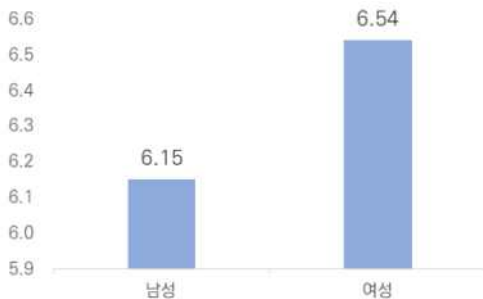
N=5,731, (단위 : %)

특성		내가 돌봄	가족, 친지가 돌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 외 다른 사람	비용을 지불하는 가족 외 다른 사람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이용	기타
전체		63.5	43.1	12.2	12.1	29.7	11.3
성별	남성	55.3	46.3	15.3	10.4	32.5	9.8
	여성	68.1	41.4	10.5	13.0	28.2	12.2
연령	29세 이하	66.2	52.8	9.7	7.2	29.7	9.2
	30세 이상 39세 이하	75.5	36.7	9.7	10.1	31.6	13.1
	40세 이상 49세 이하	69.9	37.7	11.0	10.8	31.5	11.2
	50세 이상 59세 이하	55.4	46.2	15.0	14.3	29.1	10.9
	60세 이상	47.3	46.7	14.5	18.2	24.2	12.7
학력	무학	42.9	28.6	7.1	21.4	28.6	21.4
	초졸	63.2	38.2	7.4	11.8	36.8	8.8
	중졸	62.0	39.1	12.3	14.5	30.2	10.1
	고졸	62.1	44.1	13.3	11.2	29.9	12.0
	대졸	66.8	45.8	10.1	13.9	25.6	10.9
참여 기간	1년 미만	64.1	45.3	14.2	12.5	26.7	11.3
	1년 이상 3년 이하	61.8	42.8	12.8	11.0	31.4	10.8
	3년 초과	65.1	41.0	8.9	12.9	31.1	12.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7.3	45.2	14.1	13.3	27.4	9.5
	45점 이상 59점 이하	63.3	47.1	10.2	12.9	27.7	12.1
	60점 이상 79점 이하	65.6	40.0	12.5	11.2	31.9	11.7
	80점 이상	67.1	35.6	16.4	9.6	32.9	9.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61.6	44.1	13.6	11.6	29.8	12.1
	조건부수급자	67.6	40.2	9.7	11.0	30.5	11.9
	자활특례자	42.3	61.5	19.2	19.2	42.3	0.0
	차상위자	64.3	46.9	11.9	14.7	24.5	7.0
	시설수급자	61.5	15.4	7.7	30.8	30.8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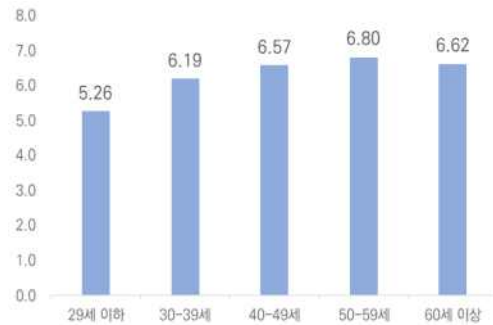
(4) 돌봄서비스 부담 인지 정도

가족 돌봄 부담 인지 정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6.40점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기에,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감 또한 보통 이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과 학력 간 부담 인지 정도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졌다. 먼저, 성별특성에서 남성의 경우 6.15점인 반면, 여성은 6.54점으로 여성의 부양부담감이 매우 높았으며, 학력 또한 다른 유형들은 모두 6점대인 것에 비해 무학일 경우에만 8.3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령은 29세 이하(5.26점)이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낮았으며, 50-59세(6.80점)의 부담인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6.41점), 자활역량점수 60점 이상 79점 이하(6.43점), 수급유형 시설수급자(5.77점)의 가족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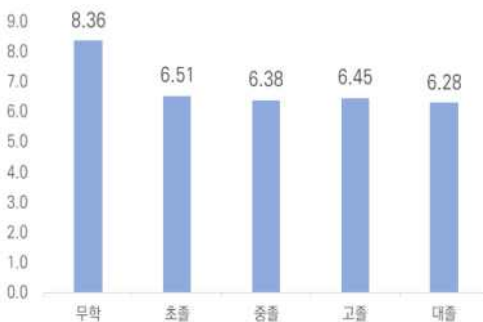
[그림 Ⅲ-28] 가족 부양 부담 정도(성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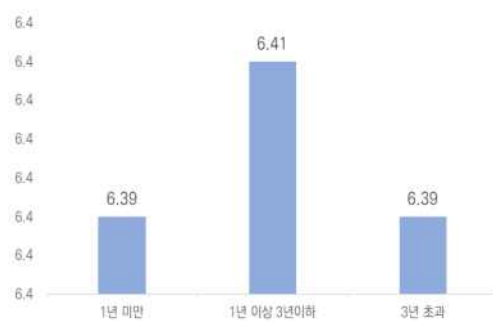
[그림 Ⅲ-29] 가족 부양 부담 정도(연령대)
(단위: 점)



[그림 Ⅲ-30] 가족 부양 부담 정도(학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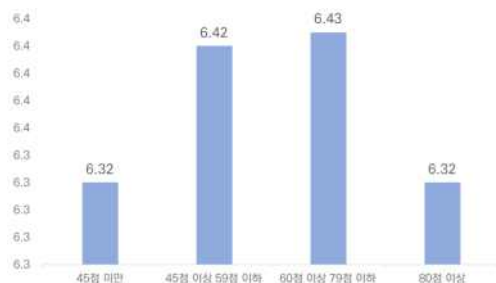


[그림 Ⅲ-31] 가족 부양 부담 정도(참여기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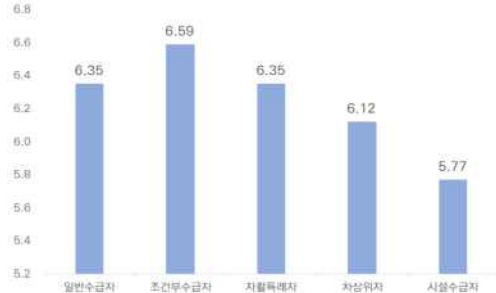
[그림 Ⅲ-32] 가족 부양 부담 정도(자활역량점수)

(단위 : 점)



[그림 Ⅲ-33] 가족 부양 부담 정도(수급유형)

(단위 : 점)



〈표 Ⅲ-25〉 가족 부양 부담 정도

(단위 : %)

특성		평균	전혀 부담되지 않음	← 1	← 2	← 3	← 4	보통	→ 6	→ 7	→ 8	→ 9	매우 부담
전체		6.40	6.6	1.7	2.3	1.6	1.1	31.9	5.7	11.8	10.9	3.9	22.7
성별	남성	6.15	7.5	2.2	2.9	1.8	1.8	33.3	6.1	10.6	9.4	3.5	21.0
	여성	6.54	6.2	1.4	1.9	1.4	0.7	31.0	5.5	12.5	11.7	4.1	23.7
연령	29세 이하	5.26	13.3	2.6	4.6	4.1	1.5	30.3	6.7	12.3	13.3	1.5	9.7
	30~39세	6.19	8.9	1.3	2.5	1.3	1.7	28.7	7.6	14.3	11.0	3.0	19.8
	40~49세	6.57	5.4	2.2	1.5	1.0	0.7	31.3	4.6	13.2	13.4	4.4	22.2
	50~59세	6.80	4.1	1.2	1.7	1.5	1.2	33.7	5.3	8.5	7.7	6.1	29.1
	60세 이상	6.62	4.8	1.2	2.4	0.6	0.0	35.2	5.5	12.7	9.1	1.2	27.3
학력	무학	8.36	0.0	0.0	0.0	0.0	0.0	21.4	0.0	7.1	14.3	7.1	50.0
	초졸	6.51	4.4	0.0	2.9	1.5	0.0	33.8	7.4	11.8	14.7	7.4	16.2
	중졸	6.38	7.8	3.4	2.8	0.6	1.1	29.1	5.6	11.2	8.4	2.8	27.4
	고졸	6.45	5.8	1.5	1.9	1.5	1.2	32.9	6.1	12.4	10.1	4.1	22.5
	대졸	6.28	7.1	0.8	3.4	2.9	1.3	29.8	6.7	10.5	12.6	5.0	19.7
참여기간	1년 미만	6.39	7.1	2.5	3.3	1.3	1.3	28.6	4.6	12.5	11.1	3.3	24.4
	1년 이상 3년 이하	6.41	6.1	1.3	1.5	1.7	1.1	34.9	6.8	9.9	11.0	3.3	22.6
	3년 초과	6.39	6.8	1.3	2.0	1.8	0.8	31.6	5.6	13.7	10.4	5.3	20.8

특성		평균	전혀 부담 되지 않음	← 1	← 2	← 3	← 4	보통	→ 6	→ 7	→ 8	→ 9	매우 부담
자활 역량	45점 미만	6.32	6.6	3.3	3.7	0.0	0.4	31.1	5.4	14.1	7.9	4.6	22.8
	45점이상 59점이하	6.42	5.7	0.8	2.0	1.4	1.0	35.0	5.9	12.3	10.7	3.3	21.7
	60점이상 79점이하	6.43	7.0	1.9	1.9	2.3	1.5	29.7	5.3	10.5	12.3	3.9	23.7
	80점 이상	6.32	9.6	0.0	1.4	1.4	0.0	31.5	8.2	12.3	9.6	5.5	20.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6.35	6.2	2.3	2.1	1.4	1.2	32.9	5.8	12.1	10.3	3.2	22.4
	조건부수급자	6.59	6.0	0.9	2.6	1.9	0.6	29.6	5.6	11.0	13.0	5.2	23.5
	자활특례자	6.35	15.4	0.0	3.8	0.0	0.0	15.4	15.4	7.7	7.7	3.8	30.8
	차상위자	6.12	9.8	1.4	2.1	1.4	2.1	33.6	3.5	12.6	7.7	3.5	22.4
	시설수급자	5.77	0.0	0.0	0.0	0.0	0.0	61.5	7.7	23.1	7.7	0.0	0.0

3)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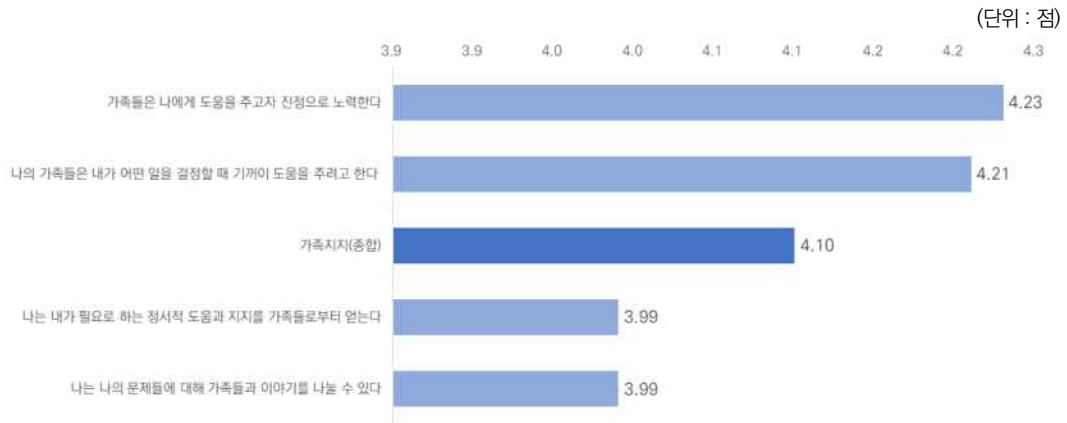
(1) 가족 지지

가족들의 지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7점 만점에 평균 4.10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평가 항목별로는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4.23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족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4.21점),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3.99점), 나의 문제들을 가족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3.99점)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성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성 참여자(4.30점)에 비해 남성 참여자(3.85)의 가족지지 점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 드러나 남성 참여자들의 가족 지지가 취약한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자 특성별 가족지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 또한, 참여기간 1년 미만(3.98점), 자활역량 45점 이상 59점 이하(4.01점), 수급유형 시설수급자(3.86점)의 경우 다른 자활 특성 유형에 비해 가족 지지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참여자 특성별 가족지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참여기간 3년 초과(4.24점),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4.32점), 수급유형 중 차상위자(4.38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가족지지는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34] 가족지지(종합)



〈표 III-26〉 가족지지(특성별)

(단위 : 점)

특성		가족지지 (종합)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까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전체		4.10	4.23	3.99	3.99	4.21
성별	남성	3.85	4.01	3.74	3.71	3.96
	여성	4.30	4.39	4.18	4.21	4.40
연령	29세 이하	4.32	4.63	4.15	4.07	4.44
	30세 이상 39세 이하	4.14	4.34	4.06	3.94	4.22
	40세 이상 49세 이하	4.28	4.44	4.21	4.10	4.37
	50세 이상 59세 이하	4.05	4.13	3.95	4.00	4.15
	60세 이상	3.85	3.89	3.69	3.83	3.99
학력	무학	3.49	3.49	3.46	3.35	3.65
	초졸	3.73	3.79	3.60	3.73	3.79
	중졸	3.80	3.89	3.65	3.76	3.89
	고졸	4.15	4.29	4.03	4.02	4.25
	대졸	4.48	4.65	4.40	4.29	4.60

특성		가족지지 (종합)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참여 기간	1년 미만	3.98	4.11	3.88	3.85	4.09
	1년 이상 3년 이하	4.09	4.21	3.96	3.97	4.20
	3년 초과	4.24	4.36	4.13	4.14	4.3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08	4.18	3.95	3.99	4.20
	45점 이상 59점 이하	4.01	4.12	3.90	3.91	4.12
	60점 이상 79점 이하	4.16	4.31	4.06	4.03	4.26
	80점 이상	4.32	4.44	4.19	4.21	4.4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02	4.13	3.90	3.91	4.12
	조건부수급자	4.20	4.32	4.10	4.06	4.30
	자활특례자	3.96	4.16	3.84	3.80	4.04
	차상위자	4.38	4.52	4.24	4.27	4.49
	시설수급자	3.86	4.29	3.68	3.57	3.89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70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타인을 돕거나 투표, 법을 지키고 신고하는 것에 대한 규범의식(3.88점)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주변사람에 대한 신뢰(3.30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지역이나 사회 모임 참여나 정치·시민단체 참여와 같은 사회참여 수준은 1.62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락하거나 도움을 구할 주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수준도 2.34점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길수록, 수급유형 차상위자(2.80점)인 경우 사회적 자본 평균 점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2.68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자본 점수가 낮아 사회참여나 주변 네트워크와 같은 부분이 매우 취약한 편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35] 사회적 자본(종합)

(단위 : 점)



〈표 III-27〉 사회적 자본(특성별)

(단위 : 점)

특성		사회적자본 (종합)	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	규범의식
전체		2.70	3.30	2.34	1.62	3.88
성별	남성	2.69	3.27	2.29	1.65	3.87
	여성	2.72	3.33	2.38	1.60	3.89
연령	29세 이하	2.61	3.28	2.35	1.40	3.78
	30세 이상 39세 이하	2.57	3.20	2.24	1.50	3.68
	40세 이상 49세 이하	2.65	3.26	2.30	1.56	3.81
	50세 이상 59세 이하	2.73	3.31	2.34	1.68	3.93
	60세 이상	2.83	3.39	2.44	1.76	4.03
학력	무학	2.76	3.34	2.28	1.71	4.03
	초졸	2.73	3.36	2.35	1.64	3.90
	중졸	2.73	3.31	2.38	1.68	3.88
	고졸	2.69	3.28	2.34	1.61	3.86
	대졸	2.77	3.33	2.40	1.65	4.03

특성		사회적자본 (종합)	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	규범의식
참여 기간	1년 미만	2.69	3.31	2.32	1.58	3.89
	1년 이상 3년 이하	2.70	3.29	2.35	1.63	3.86
	3년 초과	2.73	3.31	2.36	1.66	3.9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72	3.30	2.37	1.65	3.88
	45점 이상 59점 이하	2.70	3.29	2.33	1.63	3.89
	60점 이상 79점 이하	2.70	3.31	2.34	1.61	3.88
	80점 이상	2.71	3.35	2.41	1.55	3.8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70	3.28	2.34	1.62	3.87
	조건부수급자	2.68	3.31	2.31	1.56	3.88
	자활특례자	2.75	3.29	2.32	1.72	3.96
	차상위자	2.80	3.37	2.45	1.74	3.97
	시설수급자	2.58	3.24	2.28	1.47	3.68

6. 사회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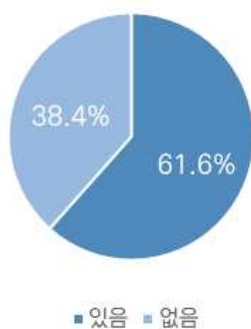
1)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1)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61.6%)는 응답이 받은 적 없다(38.4%)는 응답보다 더 높아 대부분의 참여자가 2년 내 건강검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특성에 있어서 남성(47.9%)이 여성(31.0%)에 비해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 성별차이가 두드러졌다.

자활 특성별 또한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36.0%),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41.2%)일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다른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건강관리 상태의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36] 지난 2년간 건강검진 경험(종합)



〈표 III-28〉 지난 2년간 건강검진 경험(특성별)

(단위 : %)

특성		있음	없음
전체		61.6	38.4
성별	남성	52.1	47.9
	여성	69.0	31.0
연령	29세 이하	43.0	57.0
	30-39세	49.2	50.8
	40-49세	64.5	35.5
	50-59세	63.8	36.2
	60세 이상	70.9	29.1
학력	무학	65.7	34.3
	초졸	68.7	31.3
	중졸	64.0	36.0
	고졸	60.4	39.6
	대졸	61.2	38.8
참여 기간	1년 미만	52.6	47.4
	1년 이상 3년 이하	61.1	38.9
	3년 초과	71.4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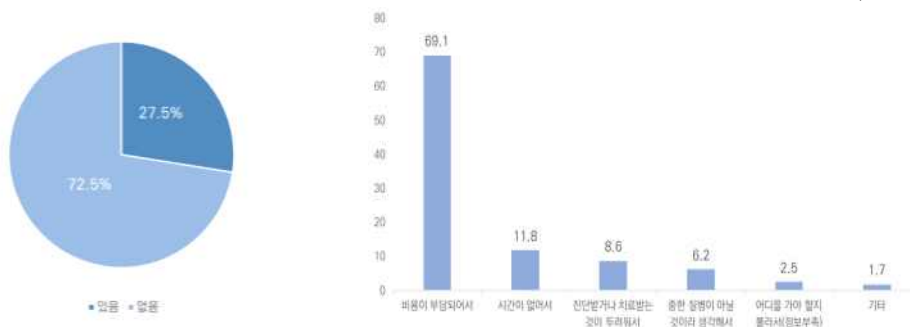
특성		있음	없음
자활 역량	45점 미만	64.0	36.0
	45점 이상59점 이하	61.4	38.6
	60점 이상79점 이하	60.9	39.1
	80점 이상	61.3	38.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60.6	39.4
	조건부수급자	58.8	41.2
	자활특례자	63.4	36.6
	차상위자	72.6	27.4
	시설수급자	71.4	28.6

(2)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 및 이유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27.5%로 대부분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이용(72.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이 부담되어서가 69.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시간이 없어서(11.8%)와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이 두려워서(8.6%)가 뒤를 이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1년 미만(29.1%),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28.0%), 수급유형 차상위자(30.3%)가 의료 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37] 의료 이용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및 이유(종합)

(단위 : %)



〈표 Ⅲ-29〉 지난 1년간 의료 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및 이유(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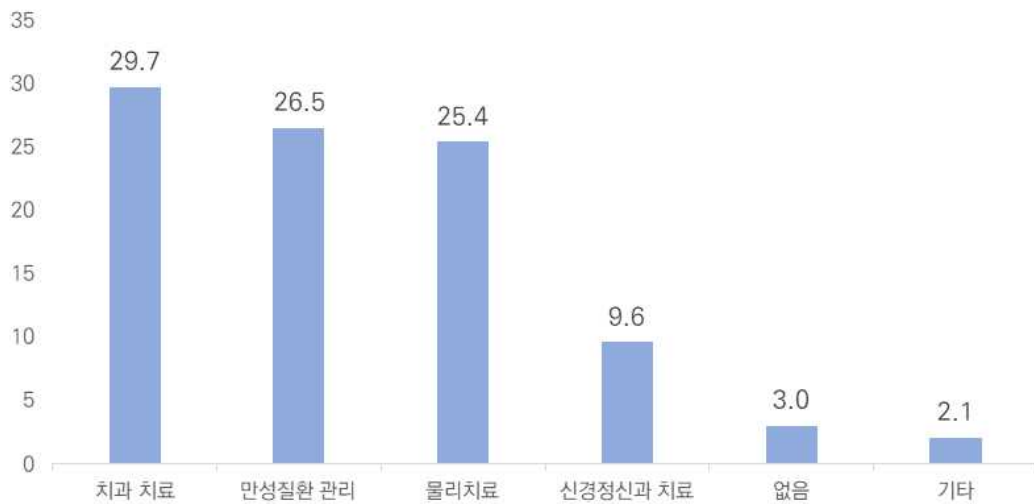
특성		이용하지 못한 경험		의료이용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있음	없음	비용이 부담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이 두려워서	중한 질병이 아닐 것이라 생각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정보부족)	기타
전체		27.5	72.5	69.1	11.8	8.6	6.2	2.5	1.7
성별	남성	26.0	74.0	69.6	9.0	8.3	9.0	2.8	1.4
	여성	28.7	71.3	68.8	13.8	8.9	4.2	2.4	1.8
연령	29세 이하	16.1	83.9	54.9	18.6	9.8	9.8	4.9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28.5	71.5	79.5	8.2	4.1	4.1	3.5	0.6
	40세 이상 49세 이하	28.3	71.7	69.6	12.3	9.9	4.1	1.9	2.2
	50세 이상 59세 이하	30.8	69.2	68.8	12.0	9.9	6.1	1.9	1.3
	60세 이상	26.6	73.4	68.2	10.7	6.9	8.8	3.1	2.2
학력	무학	26.3	73.7	75.6	7.1	8.0	5.7	2.5	1.1
	초졸	29.1	70.9	67.8	13.0	8.2	6.7	2.5	1.8
	중졸	27.2	72.8	63.4	15.7	10.0	6.2	2.7	2.0
	고졸	27.3	72.7	57.7	23.1	3.8	3.8	3.8	7.7
	대졸	25.0	75.0	69.2	7.5	10.0	10.0	1.7	1.7
참여기간	1년 미만	29.1	70.9	64.1	13.4	10.1	7.8	2.8	1.8
	1년 이상 3년 이하	27.8	72.2	70.9	11.2	8.0	6.0	2.5	1.4
	3년 초과	25.5	74.5	72.9	11.9	7.8	4.6	1.4	1.4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27.7	72.3	70.3	12.5	5.9	5.9	3.3	2.2
	45점 이상 59점 이하	28.0	72.0	67.7	12.1	9.2	7.3	2.2	1.5
	60점 이상 79점 이하	27.4	72.6	69.8	11.3	9.3	5.3	2.7	1.5
	80점 이상	22.5	77.5	70.2	12.3	8.8	7.0	0.0	1.8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27.2	72.8	68.3	12.4	9.0	6.4	2.4	1.6
	조건부수급자	27.8	72.2	69.1	11.6	8.4	5.9	3.0	2.0
	자활특례자	20.9	79.1	68.8	9.4	12.5	3.1	6.3	0.0
	차상위자	30.3	69.7	73.7	9.6	6.6	6.6	2.0	1.5
	시설수급자	17.9	82.1	60.0	20.0	20.0	0.0	0.0	0.0

(3)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참여자 중 원활한 자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치과 치료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질환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26.5%, 물리치료(관절염, 통풍 등) 25.4% 순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척추 관련 질환이 1%로 기타 중 가장 높은 요구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38]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종합)

(단위 : %)



〈표 III-30〉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특성별)

(단위 : %)

특성		치과 치료	만성질환 관리	물리치료	신경정신과 치료	없음	기타
전체		29.7	26.5	25.4	9.6	3.0	2.1
성별	남성	31.0	31.4	19.3	8.9	3.5	1.8
	여성	28.7	22.6	30.2	10.0	2.6	2.4
연령	29세 이하	29.5	13.3	21.2	20.7	10.3	2.1
	30세 이상 39세 이하	32.7	15.3	24.3	17.0	3.8	2.5
	40세 이상 49세 이하	29.6	21.0	30.3	9.5	2.3	3.1
	50세 이상 59세 이하	29.2	32.3	25.0	6.7	1.6	1.6
	60세 이상	29.3	35.1	23.6	4.8	1.8	1.8
학력	무학	19.2	32.3	36.4	4.0	4.0	1.0
	초졸	25.0	33.0	26.9	7.5	2.4	2.2
	중졸	29.3	28.8	25.0	9.1	3.1	1.8
	고졸	30.3	25.9	26.0	9.0	3.0	2.1
	대졸	30.8	24.2	24.4	11.0	3.2	2.3
참여 기간	1년 미만	31.6	22.6	24.1	11.4	3.4	2.1
	1년 이상 3년 이하	31.4	25.6	24.4	9.8	3.0	2.1
	3년 초과	25.7	31.5	27.9	7.4	2.5	2.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9.0	27.0	25.4	9.5	2.5	2.6
	45점 이상 59점 이하	30.1	29.2	25.5	7.7	2.4	1.7
	60점 이상 79점 이하	29.7	24.7	25.1	10.9	3.5	2.2
	80점 이상	30.4	19.0	27.3	12.3	4.7	2.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0.4	27.2	24.5	9.3	2.9	2.3
	조건부수급자	31.4	22.2	26.7	10.3	3.2	1.9
	자활특례자	25.5	32.0	28.1	7.2	2.0	0.7
	차상위자	23.2	31.2	26.6	9.5	3.2	2.4
	시설수급자	35.7	17.9	28.6	10.7	3.6	0.0

〈표 Ⅲ-31〉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기타항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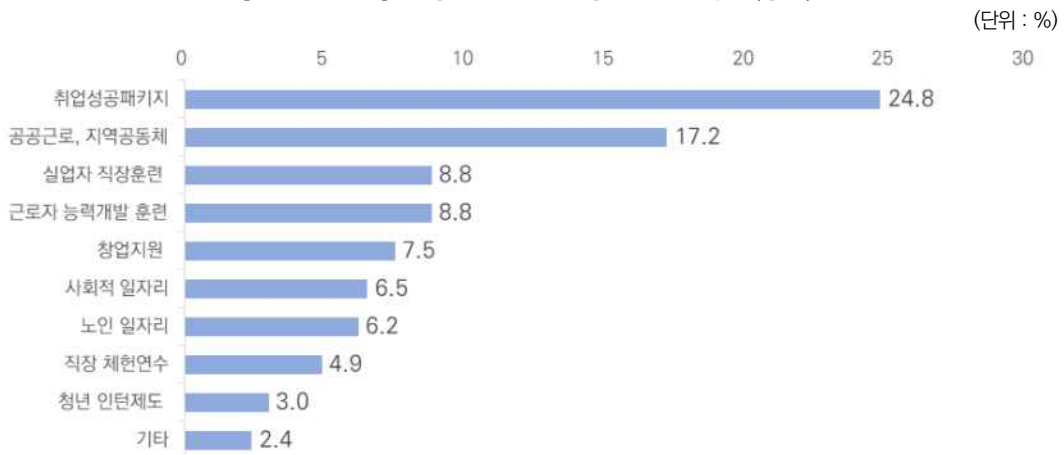
특성		척추 관련 질환	중증 질환	내과 치료	건강 검진· 관리	안과 치료	피부 질환 치료	CT, MRI 등 고가 검사	신경과 치료	일반 진료	한의원 치료
전체		1.0	0.6	0.5	0.4	0.4	0.3	0.2	0.1	0.1	0.1
성별	남성	1.3	0.6	0.5	0.4	0.5	0.3	0.3	0.2	0.1	0.1
	여성	0.7	0.6	0.5	0.5	0.3	0.2	0.1	0.1	0.2	0.1
연령	29세 이하	0.2	0.2	0.5	1.3	0.0	0.6	0.0	0.2	0.2	0.0
	30세 이상 39세 이하	1.0	0.2	1.0	0.5	0.7	0.2	0.3	0.2	0.2	0.2
	40세 이상 49세 이하	1.3	0.6	0.4	0.5	0.2	0.3	0.1	0.1	0.3	0.2
	50세 이상 59세 이하	0.8	0.5	0.6	0.3	0.6	0.2	0.3	0.2	0.0	0.0
	60세 이상	1.2	0.9	0.2	0.1	0.4	0.2	0.3	0.1	0.1	0.1
학력	무학	0.0	0.0	1.0	0.0	0.0	0.0	0.0	1.0	1.0	0.0
	초졸	1.7	0.2	0.2	0.0	0.2	0.2	0.2	0.0	0.0	0.0
	중졸	0.5	0.6	0.3	0.4	0.3	0.4	0.4	0.0	0.1	0.0
	고졸	1.0	0.6	0.5	0.5	0.5	0.2	0.3	0.1	0.1	0.0
	대졸	0.8	0.6	0.6	0.7	0.5	0.3	0.0	0.0	0.2	0.3
참여 기간	1년 미만	1.1	0.6	0.6	0.8	0.6	0.2	0.3	0.2	0.1	0.3
	1년 이상 3년 이하	1.2	0.6	0.5	0.2	0.2	0.4	0.2	0.2	0.2	0.0
	3년 초과	0.6	0.5	0.4	0.3	0.5	0.2	0.1	0.1	0.1	0.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1.2	0.5	0.5	0.6	0.4	0.3	0.3	0.1	0.0	0.0
	45점 이상 59점 이하	0.8	0.6	0.4	0.5	0.4	0.1	0.3	0.1	0.0	0.1
	60점 이상 79점 이하	1.0	0.6	0.5	0.3	0.5	0.3	0.1	0.2	0.2	0.1
	80점 이상	0.8	0.0	0.8	0.4	0.0	0.8	0.0	0.0	0.4	0.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0	0.5	0.4	0.3	0.3	0.3	0.2	0.2	0.1	0.1
	조건부수급자	0.9	0.5	0.8	0.8	0.5	0.3	0.3	0.1	0.1	0.1
	자활특례자	0.7	2.0	0.0	0.0	1.3	0.0	0.0	0.7	0.0	0.0
	차상위자	1.1	0.9	0.6	0.5	0.3	0.3	0.2	0.0	0.0	0.0
	시설수급자	0.0	0.0	0.0	0.0	0.0	0.0	0.0	0.0	3.6	0.0

2)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1)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은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가 2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희망근로)(17.2%), 근로자 능력 개발 훈련과 실업자 직장훈련 관련 프로그램(각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수급유형 중 차상위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활역량점수가 80점 이상(46.6%)인 경우와 시설수급자(32.1%)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반면, 차상위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희망근로)(21.1%)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9]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종합)



〈표 Ⅲ-32〉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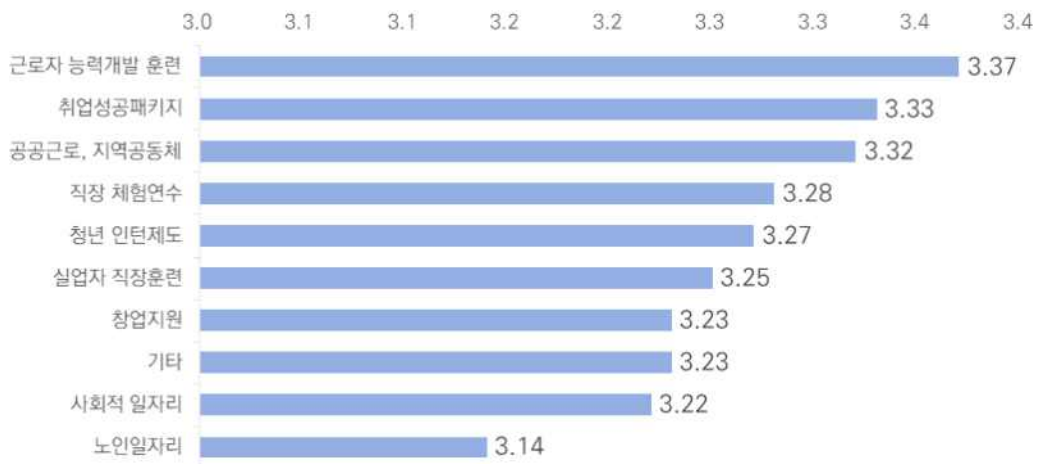
(단위 : %)

특성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노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직장 체험연수	실업자 직장훈련	창업지원	청년 인턴제도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취업성공 패키지	기타
전체		17.2	6.2	6.5	4.9	8.8	7.5	3.0	8.8	24.8	2.4
성별	남성	17.8	7.3	6.0	5.2	9.3	7.9	3.2	7.6	19.9	2.1
	여성	16.6	5.0	6.8	4.6	8.5	7.2	2.8	9.6	28.6	2.5
연령	29세 이하	11.2	0.0	6.3	3.3	3.8	6.6	7.0	6.3	40.3	1.4
	30세 이상 39세 이하	18.3	0.0	7.3	4.0	9.0	6.2	8.2	9.5	40.3	1.8
	40세 이상 49세 이하	17.4	0.0	6.8	4.3	10.8	7.6	2.2	10.2	28.4	2.7
	50세 이상 59세 이하	17.2	1.5	6.3	5.1	9.4	7.3	1.7	9.0	20.5	2.4
	60세 이상	19.4	6.8	6.0	6.5	8.4	8.9	1.2	7.8	12.1	2.6
학력	무학	21.2	6.8	8.1	3.0	7.1	8.1	3.0	3.0	9.1	1.0
	초졸	20.9	5.7	6.8	4.6	7.3	7.8	2.4	10.7	11.4	1.7
	중졸	19.8	7.0	7.9	7.8	9.3	10.3	3.5	10.3	18.3	3.0
	고졸	16.0	7.2	6.3	4.5	9.1	7.7	3.1	8.6	25.8	2.1
	대졸	16.5	3.4	5.0	3.8	9.4	5.4	2.6	8.3	35.2	2.5
참여 기간	1년 미만	18.5	6.3	5.6	3.6	7.5	5.0	3.1	7.5	26.4	2.2
	1년 이상 3년 이하	16.1	6.3	6.3	5.0	8.3	7.8	2.8	8.1	24.2	2.5
	3년 초과	17.0	6.1	7.5	6.1	10.9	9.6	3.2	10.9	23.9	2.4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18.4	6.3	6.9	4.7	7.4	7.8	2.4	8.1	22.1	2.6
	45점 이상 59점 이하	16.8	6.4	5.8	4.6	9.0	6.3	2.4	8.0	20.7	2.6
	60점 이상 79점 이하	17.0	5.9	6.8	5.1	9.2	8.2	3.4	9.5	27.2	2.3
	80점 이상	16.2	10.0	7.1	5.9	9.1	9.1	5.9	9.9	46.6	0.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7.0	6.9	6.9	4.9	8.4	7.9	2.9	8.2	23.3	2.2
	조건부수급자	16.1	5.7	5.7	4.5	9.0	5.7	3.0	9.9	32.5	2.4
	자활특례자	15.0	3.9	5.2	3.9	7.8	8.5	1.3	8.5	22.9	3.3
	차상위자	21.1	4.6	5.7	6.3	10.7	9.5	3.8	9.5	15.9	2.9
	시설수급자	10.7	0.0	10.7	0.0	10.7	3.6	3.6	7.1	32.1	0.0

추가적으로 경험한 고용지원사업에 대한 유형별 참여 만족도를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이 3.37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이 3.1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자활 특성별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을 살펴보면, 참여기간 1년 미만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희망근로)이 3.43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1년 이상 3년 이하, 3년 초과는 근로자 능력개발 프로그램(3.43점, 3.36점)이 가장 높았다. 자활역량점수의 모든 유형과 수급유형 중 일반수급자의 경우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수급유형은 모두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희망근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0]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만족도(종합)

(단위: 점)



〈표 Ⅲ-33〉 고용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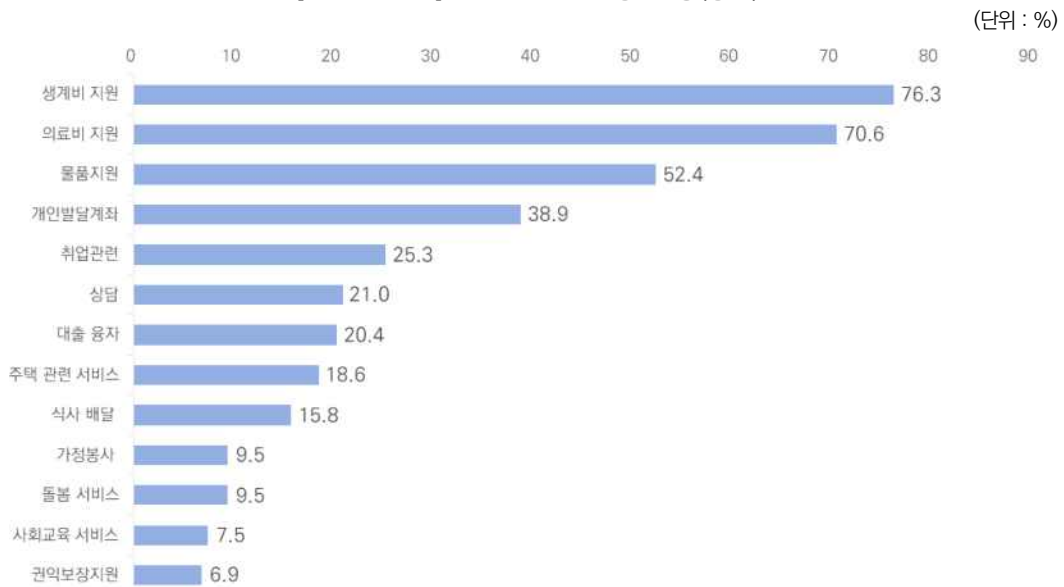
특성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노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직장 체험연수	실업자 직장훈련	창업지원	청년 인턴제도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취업성공 패키지	기타
전체		3.32	3.14	3.22	3.28	3.25	3.23	3.27	3.37	3.33	3.23
성별	남성	3.26	3.23	3.18	3.27	3.16	3.26	3.26	3.38	3.23	3.22
	여성	3.37	3.00	3.25	3.30	3.32	3.22	3.27	3.37	3.38	3.23
연령	29세 이하	3.70	0.0	3.60	3.62	3.38	3.48	3.55	3.65	3.35	3.89
	30세 이상 39세 이하	3.44	0.0	3.00	3.25	3.31	3.35	3.29	3.53	3.36	3.55
	40세 이상 49세 이하	3.40	0.0	3.35	3.53	3.25	3.32	3.24	3.37	3.34	3.11
	50세 이상 59세 이하	3.24	4.0	3.10	3.18	3.26	3.13	2.97	3.34	3.30	3.02
	60세 이상	3.20	3.1	3.22	3.17	3.14	3.17	3.14	3.25	3.30	3.39
학력	무학	3.52	3.0	3.3	3.3	3.29	3.25	3.3	3.67	3.33	4.0
	초졸	3.43	2.9	2.8	2.9	3.03	3.19	3.6	3.23	3.13	3.0
	중졸	3.35	3.2	3.1	3.1	3.19	3.18	3.1	3.30	3.33	3.3
	고졸	3.31	3.3	3.3	3.3	3.27	3.23	3.3	3.39	3.35	3.0
	대졸	3.31	2.8	3.3	3.3	3.28	3.40	3.2	3.47	3.30	3.5
참여 기간	1년 미만	3.43	3.1	3.33	3.35	3.33	3.16	3.40	3.33	3.37	3.23
	1년 이상 3년 이하	3.33	3.2	3.19	3.22	3.26	3.30	3.32	3.43	3.28	3.42
	3년 초과	3.19	3.1	3.18	3.30	3.18	3.21	3.09	3.36	3.34	3.0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29	3.0	3.19	3.33	3.38	3.14	3.21	3.41	3.41	3.31
	45점 이상 59점 이하	3.29	2.9	3.22	3.07	3.09	3.02	3.00	3.28	3.25	3.02
	60점 이상 79점 이하	3.37	3.5	3.22	3.43	3.30	3.42	3.40	3.43	3.35	3.41
	80점 이상	3.32	3.5	3.39	3.33	3.61	3.22	3.60	3.32	3.32	3.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25	3.1	3.2	3.3	3.27	3.18	3.4	3.41	3.34	3.3
	조건부수급자	3.47	2.7	3.3	3.3	3.27	3.37	3.2	3.45	3.35	3.4
	자활특례자	3.48	3.0	3.3	3.0	2.83	3.38	3.5	3.00	3.17	2.2
	차상위자	3.36	4.0	3.0	3.1	3.19	3.27	2.8	3.13	3.20	2.8
	시설수급자	3.33	0.0	3.7	0.0	3.00	3.00	4.0	3.00	3.33	0.0

(2)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 및 필요도

자활사업 참여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회서비스로는 생계비 지원이 76.3%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70.6%), 물품지원(52.4%) 순으로 뒤를 따랐다. 참여자의 자활 특성별로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생계비 지원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기간 3년 초과, 수급유형 자활특례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각 72.2%,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생계비 지원을, 길수록 의료비 지원을 경험해 보았다는 응답률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살펴본 사회서비스 필요도의 경우에도 이용 경험과 상관없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부터 매우 필요함 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확인한 결과, 의료비 지원이 4.33점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생계비 지원(4.29점)으로 뒤를 따랐다. 이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자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같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위의 두 유형의 경우 생계비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그림 III-41]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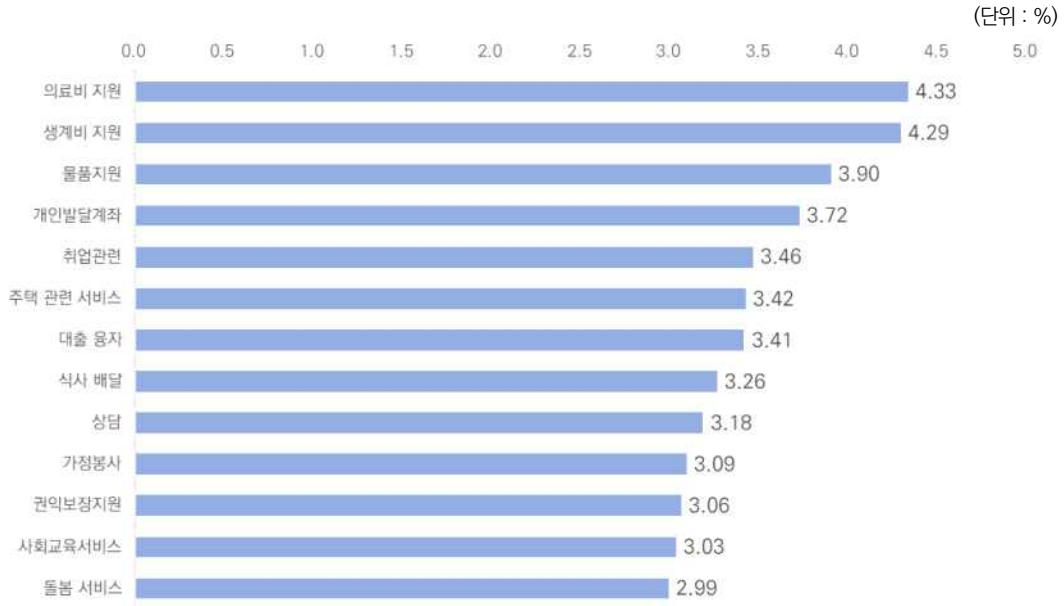


〈표 Ⅲ-34〉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특성별)

(단위 : %)

특성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	가정 봉사	식사 배달	취업 관련	상담	대출 융자	개인 발달 계좌	권익 보장 지원	돌봄 서비스	주택 관련 서비스	사회 교육 서비스
전체		76.3	70.6	52.4	9.5	15.8	25.3	21.0	20.4	38.9	6.9	9.5	18.6	7.5
성별	남성	75.2	69.4	52.5	10.6	16.3	22.1	19.5	17.9	32.3	6.2	7.5	18.0	6.2
	여성	77.2	71.5	52.4	8.7	15.4	27.8	22.2	22.4	44.1	7.3	11.0	19.1	8.5
연령	29세 이하	75.7	78.2	47.9	11.1	18.5	35.2	22.3	16.7	44.5	5.8	7.9	16.0	5.5
	30세 이상 39세 이하	85.0	71.0	59.2	12.8	19.8	33.3	28.5	21.2	42.3	7.3	16.7	19.5	7.8
	40세 이상 49세 이하	82.9	72.9	56.0	9.8	18.7	26.8	23.2	23.6	43.0	7.5	13.8	20.9	8.0
	50세 이상 59세 이하	74.4	69.9	51.8	8.1	13.1	23.2	19.3	20.7	37.5	6.1	6.6	17.5	7.3
	60세 이상	68.3	64.9	48.7	9.1	13.9	18.0	16.9	18.0	32.4	7.7	6.8	18.8	8.0
학력	무학	67.7	59.6	52.5	11.1	21.2	14.1	21.2	16.2	24.2	6.1	7.1	19.2	10.1
	초졸	68.9	62.9	48.1	10.7	16.5	18.2	22.6	16.7	26.7	6.1	7.0	19.9	8.0
	중졸	71.2	68.1	49.6	10.6	17.3	21.5	22.3	22.5	34.4	8.3	10.3	18.0	8.1
	고졸	77.3	71.2	53.0	9.4	15.3	26.2	20.3	21.0	40.7	7.1	9.9	18.8	7.3
	대졸	79.0	70.1	52.4	7.3	12.5	30.8	18.9	18.1	45.0	3.9	7.6	16.1	4.8
참여 기간	1년 미만	80.1	68.6	50.7	8.3	14.5	27.2	20.8	19.1	28.8	7.1	8.4	16.0	6.5
	1년 이상 3년 이하	76.6	70.9	51.8	8.9	14.7	23.1	19.0	19.0	38.8	5.6	8.9	17.4	7.0
	3년 초과	72.1	72.2	55.0	11.5	18.5	26.1	23.6	23.5	49.5	8.1	11.2	22.7	9.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74.5	69.2	47.4	9.6	14.9	23.0	18.3	20.2	37.7	7.4	8.7	17.2	7.8
	45점 이상 59점 이하	77.3	71.4	52.8	9.4	15.8	22.8	21.1	20.1	37.4	7.0	8.3	18.9	7.3
	60점 이상 79점 이하	75.7	70.2	53.8	9.8	16.4	27.4	21.6	20.7	40.1	6.6	10.5	18.9	7.7
	80점 이상	80.2	72.7	56.5	7.5	13.4	36.0	24.1	20.9	45.8	5.1	11.9	18.2	5.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77.1	75.7	53.2	9.4	15.5	24.9	21.3	20.7	39.2	7.1	8.9	18.6	7.3
	조건부수급자	87.2	76.9	55.3	10.8	17.6	29.0	21.6	21.2	39.7	7.3	11.6	20.5	8.1
	자활특례자	69.9	79.1	56.9	11.1	14.4	22.2	20.9	19.6	33.3	6.5	7.2	20.9	6.5
	차상위자	49.4	27.5	40.4	7.2	13.9	20.2	17.9	17.0	36.9	4.7	6.6	14.2	7.0
	시설수급자	78.6	75.0	71.4	7.1	10.7	25.0	25.0	21.4	50.0	10.7	42.9	10.7	10.7

[그림 III-42] 사회서비스 필요도(종합)



〈표 III-35〉 사회서비스 필요도(특성별)

(단위 : %)

특성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	가정 봉사	식사 배달	취업 관련	상담	대출 용자	개인발 달계좌	권익보 장지원	돌봄 서비스	주택 관련 서비스	사회 교육 서비스
전체		4.29	4.33	3.90	3.09	3.26	3.46	3.18	3.41	3.72	3.06	2.99	3.42	3.03
성별	남성	4.21	4.24	3.82	3.11	3.26	3.41	3.15	3.35	3.59	3.04	2.94	3.38	2.92
	여성	4.36	4.39	3.97	3.07	3.27	3.49	3.21	3.45	3.83	3.08	3.04	3.45	3.11
연령	29세 이하	4.19	4.31	3.61	2.87	2.98	3.45	3.02	3.05	3.63	2.60	2.69	3.09	2.53
	30세 이상 39세 이하	4.43	4.42	4.02	3.09	3.40	3.64	3.35	3.41	3.83	2.97	3.13	3.43	2.92
	40세 이상 49세 이하	4.43	4.39	4.01	3.16	3.38	3.58	3.29	3.59	3.85	3.14	3.14	3.52	3.11
	50세 이상 59세 이하	4.26	4.32	3.92	3.11	3.26	3.45	3.19	3.50	3.76	3.18	2.98	3.45	3.12
	60세 이상	4.20	4.22	3.87	3.10	3.23	3.26	3.06	3.25	3.52	3.05	2.96	3.41	3.10
학력	무학	4.13	4.09	3.97	3.68	3.63	3.47	3.34	3.45	3.57	3.25	3.36	3.67	3.38
	초졸	4.18	4.16	3.87	3.16	3.23	3.29	3.16	3.22	3.41	3.04	2.88	3.30	2.93
	중졸	4.18	4.23	3.88	3.03	3.23	3.35	3.18	3.36	3.59	3.07	3.01	3.39	3.08
	고졸	4.31	4.35	3.91	3.07	3.26	3.46	3.16	3.43	3.76	3.04	2.97	3.41	3.00
	대졸	4.33	4.39	3.89	3.11	3.26	3.64	3.28	3.47	3.89	3.07	3.04	3.43	3.03

Ⅲ. 참여자 특성

특성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	가정 봉사	식사 배달	취업 관련	상담	대출 융자	개인발 달계좌	권익보 장지원	돌봄 서비스	주택 관련 서비스	사회 교육 서비스
참여 기간	1년 미만	4.35	4.35	3.94	3.04	3.23	3.45	3.13	3.38	3.69	3.03	2.93	3.39	2.94
	1년 이상 3년 이하	4.28	4.32	3.87	3.06	3.25	3.43	3.14	3.38	3.71	3.02	2.98	3.39	3.02
	3년 초과	4.26	4.31	3.91	3.17	3.31	3.51	3.30	3.47	3.78	3.13	3.08	3.47	3.1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21	4.23	3.79	3.00	3.15	3.32	3.07	3.30	3.61	2.96	2.88	3.30	2.95
	45점 이상 59점 이하	4.32	4.34	3.95	3.12	3.30	3.44	3.20	3.42	3.72	3.08	2.99	3.44	3.03
	60점 이상 79점 이하	4.30	4.35	3.92	3.11	3.29	3.52	3.21	3.44	3.75	3.09	3.04	3.44	3.05
	80점 이상	4.33	4.38	3.82	3.03	3.24	3.50	3.25	3.41	3.94	2.98	3.02	3.49	3.0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29	4.35	3.89	3.08	3.27	3.45	3.18	3.40	3.71	3.05	2.96	3.40	3.03
	조건부수급자	4.44	4.43	4.00	3.12	3.28	3.50	3.21	3.45	3.76	3.10	3.09	3.48	3.02
	자활특례자	4.20	4.27	3.88	3.12	3.20	3.26	3.20	3.37	3.56	3.12	3.12	3.43	3.05
	차상위자	4.03	4.00	3.78	3.08	3.21	3.43	3.18	3.35	3.71	2.99	2.93	3.35	3.02
	시설수급자	4.36	4.46	4.14	3.00	3.43	3.96	3.18	3.46	4.11	3.04	3.36	3.32	2.79

IV

자활사업 참여 실태

1. 자활사업 참여 현황
2. 자활 참여자 정서적 자활 및 웰빙
3. 자활사업 만족도
4. 향후 근로 관련 요구

IV

자활사업 참여 실태 <<

1. 자활사업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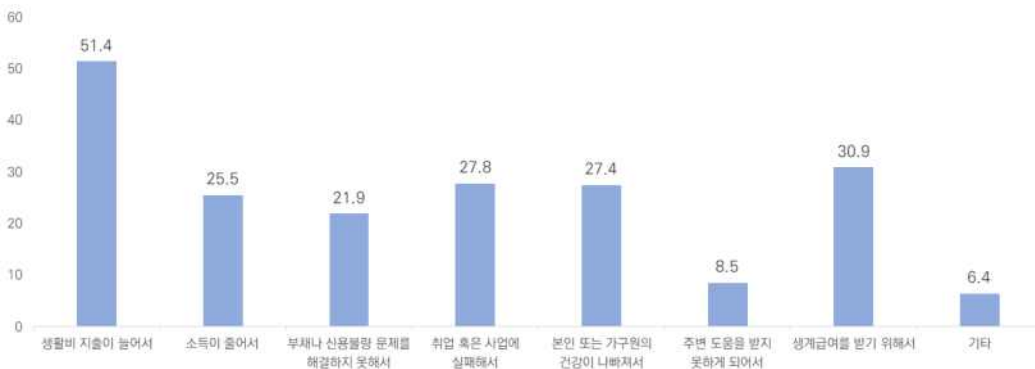
1) 자활사업 참여 및 적극 참여가 어려운 이유

(1) 자활사업 참여 이유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유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1위는 생활비 지출이 늘어서(5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30.9%), 3위는 취업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27.8%), 4위는 본인 또는 가구원의 건강이 나빠져서(27.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활 특성별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에서 생활비 지출이 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IV-1] 자활사업 참여이유(1+2순위)(종합)

(단위 : %)



〈표 IV-1〉 자활사업 참여 이유(1+2순위)(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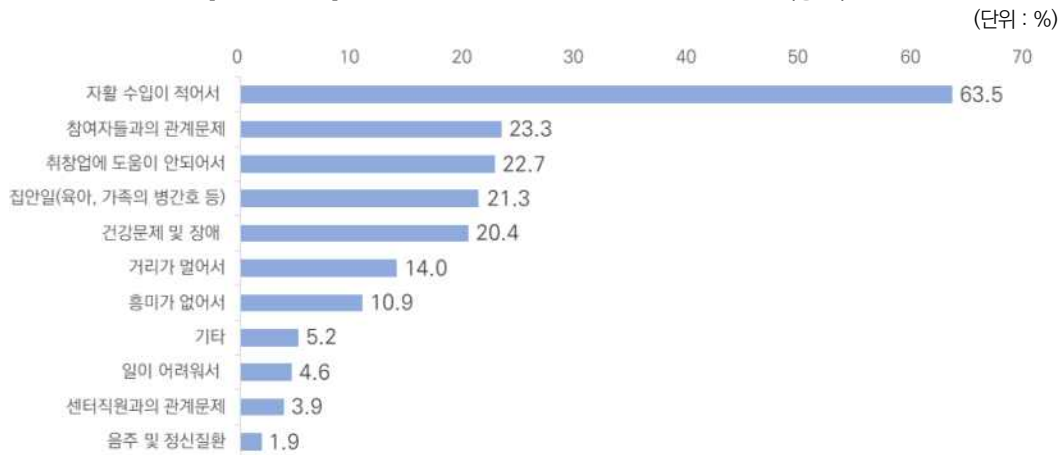
특성		생활비 지출이 늘어서	소득이 줄어서	부채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취업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본인 또는 가구의 건강이 나빠져서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생계급여 를 받기 위해서	기타
전체		51.4	25.5	21.9	27.8	27.4	8.5	30.9	6.4
성별	남성	49.1	26.5	25.5	30.6	27.8	7.3	28.1	5.0
	여성	53.2	24.7	19.1	25.6	27.1	9.4	33.1	7.5
연령	29세 이하	51.8	18.2	7.9	37.6	16.9	8.7	46.1	12.5
	30세 이상 39세 이하	49.3	19.2	20.5	30.8	22.7	11.7	35.2	10.7
	40세 이상 49세 이하	50.7	23.0	21.5	26.3	29.6	9.5	31.3	7.9
	50세 이상 59세 이하	49.9	27.3	26.5	27.5	31.0	7.4	26.0	4.1
	60세 이상	55.6	32.3	22.7	23.2	26.8	7.4	28.6	3.3
학력	무학	51.5	39.4	23.2	16.2	32.3	11.1	23.2	3.0
	초졸	58.3	29.1	21.6	16.5	30.1	9.2	31.3	3.4
	중졸	58.7	25.2	23.9	21.2	27.0	9.9	29.2	5.0
	고졸	51.0	24.9	21.2	29.1	28.4	8.4	30.3	6.4
	대졸	44.6	25.8	22.8	38.2	22.7	6.0	31.2	8.5
참여 기간	1년 미만	51.3	25.7	23.7	26.1	24.0	7.5	34.8	6.6
	1년 이상 3년 이하	48.7	26.1	21.4	29.3	29.2	8.5	30.2	6.4
	3년 초과	54.9	24.5	20.7	27.7	28.8	9.3	27.8	6.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0.7	26.6	23.7	28.7	29.0	7.3	29.9	4.0
	45점 이상 59점 이하	52.7	27.6	21.6	24.6	28.5	9.0	30.1	5.7
	60점 이상 79점 이하	50.9	23.5	21.9	29.9	26.1	8.4	31.6	7.7
	80점 이상	48.2	23.3	18.2	31.6	24.1	9.5	35.2	9.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0.9	25.6	23.8	27.6	28.3	8.4	29.5	5.7
	조건부수급자	49.6	21.0	18.3	26.6	26.9	8.5	41.3	7.9
	자활특례자	44.4	28.8	19.0	30.1	32.0	9.2	28.8	7.8
	차상위자	59.5	34.3	21.3	30.7	23.5	8.7	15.6	6.1
	시설수급자	57.1	25.0	14.3	28.6	7.1	10.7	39.3	17.9

(2)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2가지를 문항 중복 선택으로 조사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로 지급되는 자활수익이 적어서가 6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참여자들과의 관계 문제(자활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가 23.3%, 취·창업에 도움이 안 되어서 22.7%, 집안일(육아, 가족의 병간호 등)이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 또한 모든 유형에서 자활 수입이 적어서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수급유형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항목이 42.9%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비율이 낮았으며, 집안일(육아, 가족의 병간호 등)과 흥미가 없어서가 각 28.6%로 다른 유형에 비해 해당 문항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종합)



〈표 IV-2〉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종합)(특성별)

(단위 : %)

특성		자활 수입이 적어서	집안일 (육아, 가족의 병간호 등)	거리가 멀어서	흥미가 없어서	일이 어려워서	참여 자들 과의 관계 문제	센터 직원 과의 관계 문제	취· 창업에 도움이 안 되어서	건강 문제 및 장애	음주 및 정신 질환	기타	2순위 없음
전체		63.5	21.3	14.0	10.9	4.6	23.3	3.9	22.7	20.4	1.9	5.2	8.2
성별	남성	65.0	15.4	13.5	12.4	4.4	22.7	4.3	25.5	20.6	2.7	4.9	8.8
	여성	62.4	25.9	14.5	9.7	4.8	23.9	3.5	20.5	20.3	1.3	5.5	7.7
연령	29세 이하	58.9	19.7	19.4	20.7	7.0	19.1	3.3	17.7	10.4	3.0	6.3	14.4
	30세 이상 39세 이하	58.2	35.0	13.7	11.8	4.2	21.0	2.8	18.0	16.3	2.5	7.3	9.2
	40세 이상 49세 이하	64.2	30.7	13.0	9.0	3.7	23.3	4.3	19.6	18.3	1.7	5.5	6.7
	50세 이상 59세 이하	66.0	16.5	12.3	9.7	4.8	24.5	4.2	25.4	23.6	1.9	4.4	6.6
	60세 이상	63.8	12.9	15.6	9.2	4.3	24.8	3.7	26.5	24.7	1.3	4.6	8.8
학력	무학	66.7	17.2	12.1	15.2	6.1	17.2	4.0	17.2	26.3	1.0	4.0	13.1
	초졸	62.4	13.6	15.5	8.5	3.6	26.0	5.8	20.4	29.9	1.0	2.9	10.4
	중졸	64.2	20.4	15.5	10.6	5.5	23.8	3.9	20.5	21.5	2.4	4.3	7.4
	고졸	63.4	21.7	13.3	11.0	5.1	23.5	3.7	22.5	20.2	2.0	5.1	8.5
	대졸	65.0	22.9	12.6	11.8	3.3	22.1	3.8	27.6	14.6	1.3	7.2	7.7
참여 기간	1년 미만	64.7	22.1	14.4	11.3	5.1	20.1	3.2	20.7	20.1	2.2	6.4	9.8
	1년 이상 3년 이하	64.8	20.4	14.0	10.2	4.4	23.9	3.8	24.7	19.2	1.9	5.1	7.5
	3년 초과	60.8	21.4	13.7	11.3	4.5	25.9	4.7	22.3	22.2	1.7	4.1	7.4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65.5	20.4	14.6	11.4	3.7	21.4	5.4	21.8	21.0	2.2	6.0	6.7
	45점 이상 59점 이하	63.0	20.1	14.2	10.5	4.5	24.8	3.8	23.2	22.1	1.6	4.2	7.8
	60점 이상 79점 이하	62.9	22.3	13.7	10.7	5.0	23.3	3.5	23.1	19.0	2.1	5.4	9.0
	80점 이상	66.4	24.1	13.4	12.6	5.1	20.2	2.4	18.2	17.4	1.2	9.1	9.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63.3	18.5	13.3	11.2	4.6	24.8	3.7	24.0	20.9	2.1	5.4	8.0
	조건부수급자	64.3	29.7	14.1	10.3	4.3	19.4	3.4	21.3	18.5	1.7	5.0	7.9
	자활특례자	60.8	14.4	14.4	11.8	4.6	21.6	5.2	25.5	27.5	1.3	5.2	7.8
	차상위자	64.5	18.0	17.1	9.3	5.7	25.1	5.2	18.7	21.4	1.4	4.0	9.6
	시설수급자	42.9	28.6	25.0	28.6	0.0	17.9	7.1	10.7	7.1	0.0	17.9	14.3

2) 사업단 이동 경험 및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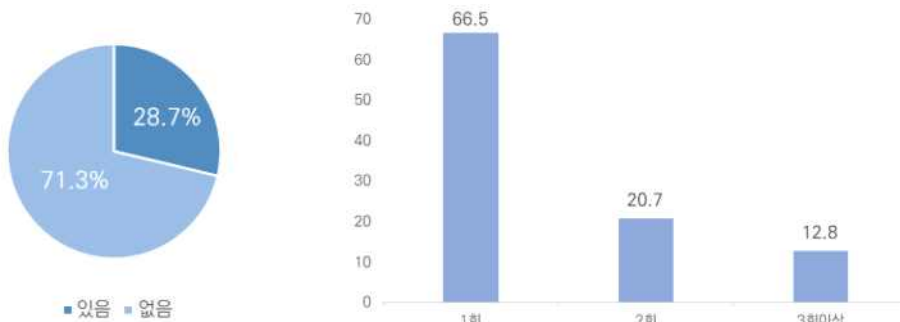
(1) 사업단 이동 경험 및 횟수

자활사업 참여자 중 28.7%가 사업단 이동 경험이 있으며, 평균 이동 횟수는 1.52 회로 조사되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 기간이 길수록, 자활역량점수 60점 이상 79 점 이하(30.6%), 수급유형 자활특례자(42.5%)일 경우 사업단 이동을 경험할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자활역량이 80점 이상일 경우 오히려 이동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26.1%로 가장 낮아 자활역량점수가 높을 경우 사업단 이동률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동 횟수 평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참여 기간이 길수록, 자활 역량점수가 낮을수록 늘어났으며, 수급유형은 차상위자가 1.62회로 가장 많은 사업단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이동 경험 및 이동횟수(종합)

(단위 : %)

(단위 : %)



〈표 IV-3〉 사업단 이용경험 및 횟수(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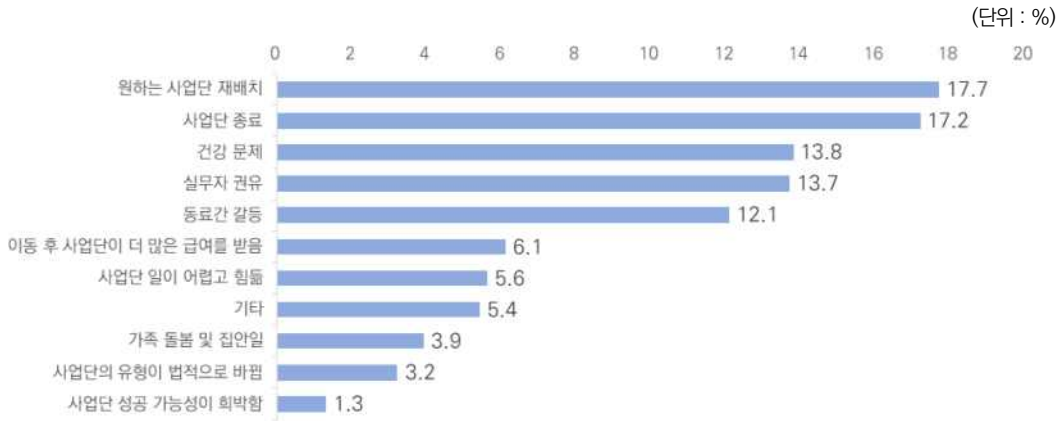
(단위 : %, 회)

특성		사업단이용경험		사업단이용횟수(구간)			
		있음	없음	1회	2회	3회이상	평균 (회)
전체		28.7	71.3	66.5	20.7	12.8	1.52
성별	남성	26.4	73.6	67.5	20.6	11.9	1.50
	여성	30.5	69.5	65.8	20.8	13.4	1.53
연령	29세 이하	29.2	70.8	70.3	21.1	8.6	1.44
	30세 이상 39세 이하	29.0	71.0	69.0	17.8	13.2	1.52
	40세 이상 49세 이하	29.1	70.9	66.7	21.3	12.0	1.49
	50세 이상 59세 이하	28.4	71.6	64.3	22.8	13.0	1.56
	60세 이상	28.3	71.7	66.7	18.0	15.3	1.53
학력	무학	31.3	68.7	67.7	19.4	12.9	1.45
	초졸	28.9	71.1	61.3	18.5	20.2	1.74
	중졸	28.3	71.7	63.3	22.6	14.2	1.55
	고졸	29.2	70.8	67.4	20.3	12.3	1.50
	대졸	26.7	73.3	69.1	20.6	10.3	1.45
참여 기간	1년 미만	14.9	85.1	79.5	14.6	6.0	1.29
	1년 이상 3년 이하	29.1	70.9	69.9	21.9	8.3	1.41
	3년 초과	42.3	57.7	59.0	22.0	19.0	1.69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7.3	72.7	66.2	20.4	13.4	1.55
	45점 이상 59점 이하	27.5	72.5	65.9	20.8	13.3	1.52
	60점 이상 79점 이하	30.6	69.4	66.3	21.5	12.2	1.52
	80점 이상	26.1	73.9	74.2	13.6	12.1	1.41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9.0	71.0	66.6	19.4	13.9	1.53
	조건부수급자	26.5	73.5	68.8	22.9	8.3	1.43
	자활특례자	42.5	57.5	60.0	26.2	13.8	1.57
	차상위자	29.5	70.5	63.2	21.2	15.5	1.62
	시설수급자	10.7	89.3	66.7	33.3	0.0	1.33

(2) 사업단 이동 사유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로는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 재배치(17.7%), 사업단의 종료(17.2%)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13.8%), 실무자의 권유로(13.7%), 동료와의 갈등(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 또한 대부분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의 재배치를 1순위의 이동 사유로 뽑았다. 반면, 자활 기간 3년 초과, 자활역량 80점 이상, 수급유형 자활특례자의 경우 1순위가 사업단 종료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순위인 원하는 사업단으로의 재배치와 10%p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여 다른 유형과의 차이점이 드러났다.

[그림 IV-4]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종합)



〈표 IV-4〉 사업단 이동의 주된 이유(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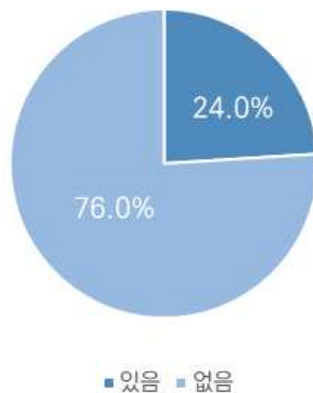
특성		원하는 사업단 재배치	사업단 종료	건강 문제	실무자 권유	동료간 갈등	이동 후 사업단 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음	사업단 일이 어렵고 힘듦	가족 돌봄 및 집안일	사업단 의 유형이 법적 으로 바뀜	사업단 성공 가능성 이 희박함	기타
전체		17.7	17.2	13.8	13.7	12.1	6.1	5.6	3.9	3.2	1.3	5.4
성별	남성	18.8	12.7	14.6	16.1	13.4	5.7	6.6	2.7	3.0	1.8	4.5
	여성	16.9	20.3	13.3	12.1	11.2	6.3	4.9	4.7	3.3	1.0	5.9
연령	29세 이하	21.6	18.4	4.9	18.9	8.1	8.6	8.1	3.2	1.1	0.5	6.5
	30세 이상 39세 이하	14.9	20.1	8.0	13.8	13.2	5.7	6.3	6.3	2.9	1.1	7.5
	40세 이상 49세 이하	17.3	13.6	12.0	13.6	14.4	6.4	4.5	6.1	4.3	1.9	5.9
	50세 이상 59세 이하	17.3	16.3	17.3	11.9	12.8	6.8	3.7	3.3	4.0	1.6	4.9
	60세 이상	18.0	20.6	17.7	14.2	10.0	3.2	8.3	1.5	1.8	0.9	3.8
학력	무학	9.7	22.6	25.8	3.2	12.9	12.9	0.0	3.2	6.5	0.0	3.2
	초졸	11.8	12.6	21.8	19.3	10.9	5.9	7.6	2.5	0.8	1.7	5.0
	중졸	20.4	14.6	16.4	12.8	13.7	4.4	4.9	3.1	2.7	1.8	5.3
	고졸	18.9	17.2	11.6	13.4	12.1	6.0	6.0	4.8	3.3	1.4	5.4
	대졸	18.0	18.9	11.6	12.4	12.0	6.4	5.6	3.4	4.3	1.7	5.6
참여 기간	1년 미만	17.9	10.4	17.9	11.9	14.2	6.0	7.8	2.6	1.9	0.7	8.6
	1년 이상 3년 이하	17.2	13.9	14.5	14.4	12.1	7.2	6.4	4.0	3.2	1.3	5.9
	3년 초과	18.0	22.4	11.7	13.9	11.3	5.2	4.1	4.3	3.6	1.6	3.7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0.1	18.6	12.6	13.8	11.5	4.5	5.9	2.2	4.1	2.2	4.5
	45점 이상 59점 이하	18.0	16.3	14.9	11.6	13.1	5.9	6.6	4.7	2.2	1.0	5.7
	60점 이상 79점 이하	17.0	16.7	13.5	16.4	11.4	6.7	4.7	3.7	3.4	1.4	5.2
	80점 이상	13.6	25.8	12.1	3.0	13.6	7.6	6.1	6.1	4.5	0.0	7.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8.6	16.0	13.9	15.2	12.4	5.4	6.0	3.2	3.6	1.4	4.1
	조건부수급자	14.8	19.0	14.8	7.8	11.2	5.7	4.7	7.3	2.9	1.8	10.1
	자활특례자	10.8	26.2	18.5	12.3	12.3	6.2	4.6	1.5	3.1	0.0	4.6
	차상위자	21.2	16.6	9.8	18.7	12.4	9.8	5.2	1.6	1.6	0.5	2.6
	시설수급자	0.0	33.3	0.0	0.0	0.0	33.3	33.3	0.0	0.0	0.0	0.0

3)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경험

(1)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경험 유무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경험이 없는(76.0%)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1년 미만(76.4%)이며, 자활역량점수는 낮을수록, 수급유형 자활특례자(82.4%)인 경우 구직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자활참여 중 구직경험이 있는 참여자 특성은 참여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24.5%), 자활역량 점수가 높을수록, 수급유형 차상위자(28.0%)일 경우 구직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활특례자는 차상위자보다 약 10%p 가까이 구직 활동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V-5] 구직경험 유무(종합)



〈표 IV-5〉 구직경험 유무(특성별)

(단위 : %)

특성		있음	없음
전체		24.0	76.0
성별	남성	25.9	74.1
	여성	22.5	77.5
연령	29세 이하	25.4	74.6
	30세 이상 39세 이하	27.0	73.0
	40세 이상 49세 이하	24.8	75.2
	50세 이상 59세 이하	23.8	76.2
	60세 이상	21.2	78.8
학력	무학	18.2	81.8
	초졸	20.1	79.9
	중졸	21.8	78.2
	고졸	24.0	76.0
	대졸	28.8	71.2
참여기간	1년 미만	23.6	76.4
	1년 이상 3년 이하	24.5	75.5
	3년 초과	23.8	76.2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21.6	78.4
	45점 이상 59점 이하	22.8	77.2
	60점 이상 79점 이하	25.8	74.2
	80점 이상	26.5	73.5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22.9	77.1
	조건부수급자	25.4	74.6
	자활특례자	17.6	82.4
	차상위자	28.0	72.0
	시설수급자	25.0	75.0

(2) 구직하지 않은 이유

자활사업 참여 중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로 1위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5.6%)로 나타났으며, 2위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4.1%), 3위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유형이 1위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를 뽑았다. 반면, 자활역량 60점 이상 79점 이하, 수급유형이 시설수급자인 경우 구직하지 않은 이유 1위가 이전에 찾아 보았지만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자활역량 80점 이상인 경우 나의 교육, 경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 수급유형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 다른 일자리 구직 경험이 없는 이유(종합)



〈표 IV-6〉 다른 일자리 구직 경험이 없는 이유(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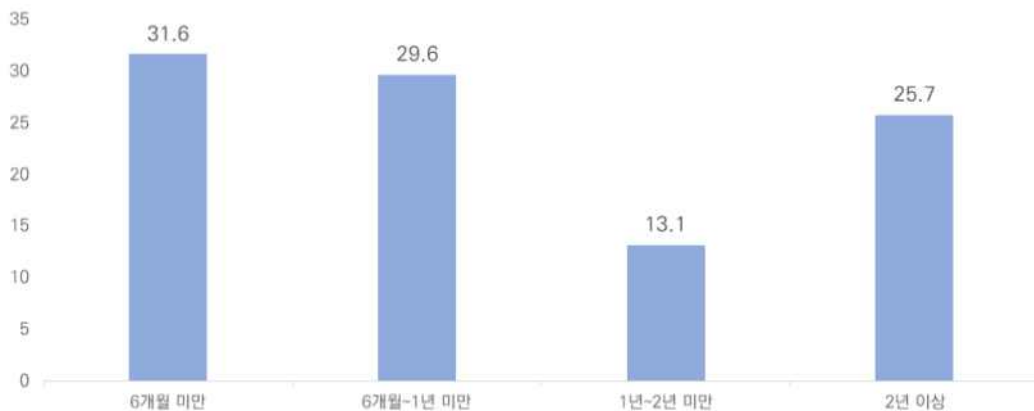
특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음	원하는 임금, 근로조 건에 맞는 일자리 가 없을 것 같음	이전에 찾아보 았지만 구직이 어려웠 던 경험이 있음	나의 교육, 경력이 아직 준비 되지 않았 다고 생각함	전공이 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 가 없을 것 같음	심신장 애가 있음	육아를 하기 위함	근처에 일자리 가 없을 것 같음	출·퇴근 의 어려움 이 있음	가사를 하기 위함	기타
전체		15.6	14.1	13.7	12.2	11.8	7.8	6.2	5.3	1.9	0.8	10.6
성별	남성	16.2	13.5	13.9	10.8	15.1	10.5	1.1	5.0	1.6	0.6	11.6
	여성	15.2	14.5	13.5	13.3	9.4	5.7	10.1	5.5	2.1	0.9	9.8
연령	29세 이하	3.2	4.9	11.2	30.7	18.2	3.2	5.5	7.2	3.6	0.4	11.9
	30세 이상 39세 이하	2.1	11.0	15.3	18.0	10.5	3.2	20.1	7.3	2.5	0.7	9.4
	40세 이상 49세 이하	7.5	15.1	14.3	15.0	9.7	6.7	12.8	5.4	2.5	1.2	9.8
	50세 이상 59세 이하	15.5	17.0	15.5	8.3	11.6	11.2	2.2	4.8	1.6	0.7	11.7
	60세 이상	36.7	14.4	10.6	3.8	11.7	7.7	0.1	4.3	0.5	0.6	9.4
학력	무학	19.8	13.6	16.0	9.9	12.3	11.1	1.2	6.2	0.0	1.2	8.6
	초졸	26.1	13.4	9.1	6.7	9.7	10.0	2.1	5.5	1.5	0.6	15.2
	중졸	20.8	15.0	12.6	9.1	9.3	8.3	6.7	6.4	1.3	1.0	9.4
	고졸	13.6	14.7	13.6	13.4	11.6	7.5	6.3	5.1	2.2	0.9	11.1
	대졸	13.4	13.0	14.8	14.5	16.4	5.3	6.4	4.8	1.4	0.3	9.5
참여 기간	1년 미만	14.4	13.5	13.6	12.3	11.7	7.9	6.8	5.4	1.9	0.6	12.1
	1년 이상 3년 이하	14.9	14.9	13.3	12.8	11.5	7.9	6.7	5.2	1.7	0.9	10.1
	3년 초과	17.9	13.8	14.2	11.6	12.2	7.4	5.2	5.4	2.0	0.8	9.6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0.2	15.4	12.1	8.5	12.3	9.3	4.7	4.0	1.9	0.5	11.1
	45점 이상 59점 이하	17.8	14.6	12.9	10.5	11.8	8.7	4.7	5.2	1.7	0.9	11.3
	60점 이상 79점 이하	12.4	13.3	15.1	14.6	11.7	6.7	7.9	6.1	1.9	0.8	9.5
	80점 이상	9.7	11.8	13.4	21.0	10.8	3.2	10.2	4.8	2.7	0.5	11.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6.6	14.0	14.5	11.9	12.1	8.2	4.4	5.0	2.1	0.8	10.4
	조건부수급자	11.9	14.1	12.1	12.9	11.5	6.9	12.5	4.5	1.6	0.9	11.0
	자활특례자	19.0	11.9	12.7	14.3	11.9	11.1	0.0	7.9	0.0	0.8	10.3
	차상위자	18.3	15.3	12.3	11.7	11.3	6.6	3.8	8.1	1.9	0.4	10.4
	시설수급자	4.8	14.3	28.6	14.3	9.5	0.0	9.5	9.5	0.0	0.0	9.5

(3) 자활사업 참여 중 최근 구직 시기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 중 마지막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한 시기는 6개월 미만(31.6%)이 가장 많아 비교적 구직시기는 최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29.6%), 2년 이상(25.7%), 1년~2년 미만(13.1%)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1년 미만(48.0%), 자활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수급유형은 시설수급자(57.1%)일 경우 가장 최근인 6개월 이내의 시기에 구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수급유형이 자활특례자(33.3%)일 경우 구직 경험이 가장 오래된 시기인 2년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 자활사업 참여 중 최근 구직시기(종합)

(단위 : %)



〈표 IV-7〉 자활사업 참여 중 최근 구직시기(특성별)

(단위 : %)

특성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31.6	29.6	13.1	25.7
성별	남성	30.3	30.6	14.1	25.0
	여성	32.8	28.6	12.2	26.4
연령	29세 이하	49.7	31.1	8.7	10.6
	30세 이상 39세 이하	41.4	30.9	12.3	15.4
	40세 이상 49세 이하	32.2	30.0	12.5	25.3
	50세 이상 59세 이하	28.3	27.9	15.2	28.5
	60세 이상	19.4	30.4	13.0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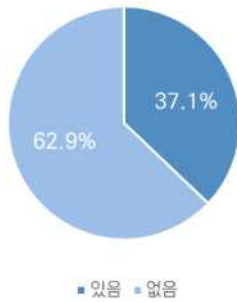
특성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학력	무학	16.7	16.7	16.7	50.0
	초졸	21.7	30.1	9.6	38.6
	중졸	23.0	29.3	15.5	32.2
	고졸	30.9	29.6	13.2	26.3
	대졸	41.4	32.3	13.1	13.1
참여 기간	1년 미만	48.0	27.5	11.5	12.9
	1년 이상 3년 이하	25.7	35.2	15.1	24.0
	3년 초과	22.5	24.6	12.1	40.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8.6	26.8	16.0	28.6
	45점 이상 59점 이하	27.2	30.1	14.2	28.5
	60점 이상 79점 이하	35.0	30.1	11.3	23.6
	80점 이상	41.8	29.9	11.9	16.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7.8	29.7	13.3	29.1
	조건부수급자	34.1	32.2	12.7	20.9
	자활특례자	40.7	22.2	3.7	33.3
	차상위자	40.4	24.6	14.2	20.8
	시설수급자	57.1	28.6	14.3	0.0

4)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및 도움 인지 정도

(1)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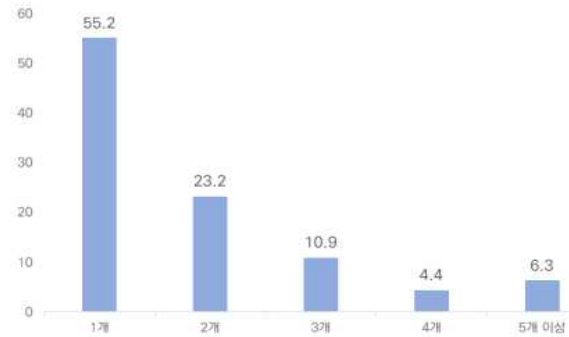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응답은 37.1%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개수는 국가공인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모두 합하여 평균 1.93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 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취득 자격증의 평균 개수가 증가하였다. 수급유형에 따라서는 자격증의 평균 개수는 시설수급자가 2.50개로 가장 많았지만, 자활특례자의 경우에도 평균 2.04개로 많은 편이었고 자격증 취득 경험은 자활특례자가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IV-8]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여부



[그림 IV-9] 자격증 개수(종합)

(단위 : %)



〈표 IV-8〉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여부 및 개수(특성별)

(단위 : %, 개)

특성		자격증 취득여부			취득 자격증 개수(공인자격증+민간자격증)				
		있음	없음	평균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전체		37.1	62.9	1.93	55.2	23.2	10.9	4.4	6.3
성별	남성	31.9	68.1	1.73	60.6	22.4	8.5	4.1	4.5
	여성	41.1	58.9	2.06	52.0	23.8	12.3	4.5	7.3
연령	29세 이하	38.4	61.6	1.66	64.2	20.6	7.4	4.1	3.7
	30세 이상 39세 이하	40.5	59.5	1.90	54.7	23.5	10.3	3.7	7.8
	40세 이상 49세 이하	37.9	62.1	2.00	56.6	21.5	10.4	4.1	7.4
	50세 이상 59세 이하	36.6	63.4	1.96	52.1	24.2	12.6	5.4	5.7
	60세 이상	34.5	65.5	1.99	54.2	25.2	10.7	3.4	6.5
학력	무학	33.3	66.7	1.85	66.7	9.1	18.2	3.0	3.0
	초졸	33.3	66.7	1.66	58.4	24.8	13.1	1.5	2.2
	중졸	31.9	68.1	1.85	54.9	24.3	11.4	3.5	5.9
	고졸	39.2	60.8	1.98	55.5	23.0	10.0	4.4	7.1
	대졸	42.5	57.5	2.06	50.9	22.6	13.7	5.9	6.7
참여 기간	1년 미만	21.6	78.4	1.61	70.4	17.2	5.4	3.6	3.3
	1년 이상 3년 이하	39.1	60.9	1.80	58.3	23.6	10.5	3.4	4.1
	3년 초과	50.3	49.7	2.20	45.7	25.6	13.6	5.6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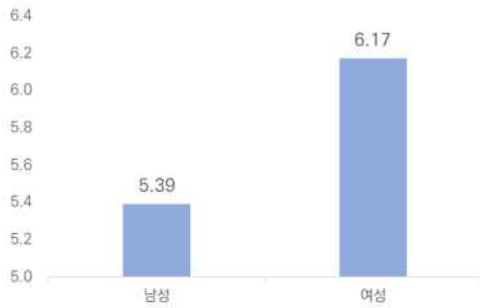
특성		자격증 취득여부				취득 자격증 개수(공인자격증+민간자격증)			
		있음	없음	평균(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33.8	66.2	1.86	56.9	21.6	11.4	5.4	4.8
	45점 이상 59점 이하	36.9	63.1	1.95	55.3	22.7	11.8	3.9	6.3
	60점 이상 79점 이하	38.9	61.1	1.95	54.7	24.5	9.7	4.6	6.5
	80점 이상	34.8	65.2	1.99	54.5	20.5	13.6	2.3	9.1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37.3	62.7	1.89	56.8	21.5	11.2	4.7	5.8
	조건부수급자	34.1	65.9	1.99	55.8	24.2	9.1	4.0	6.9
	자활특례자	44.4	55.6	2.04	39.7	36.8	11.8	4.4	7.4
	차상위자	40.8	59.2	2.00	51.3	26.6	12.7	3.0	6.4
	시설수급자	32.1	67.9	2.50	44.4	22.2	0.0	11.1	22.2

3) 취득 자격증의 도움 인지 정도

취득한 자격증의 도움 인지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88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자격증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자들이 자격증은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6.07점), 자활역량점수 60점 이상 79점 이하(6.03점), 수급유형 시설수급자(6.67점)이 도움 인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기간이 3년 초과(5.74점), 자활역량이 45점 이상 59점 이하(5.75점), 수급유형이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각 5.81점)일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자격증 도움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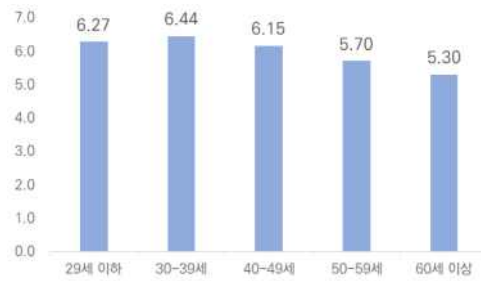
[그림 IV-10] 자격증 도움 정도(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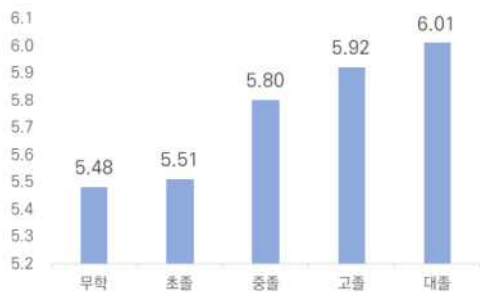
[그림 IV-11] 자격증 도움 정도(연령)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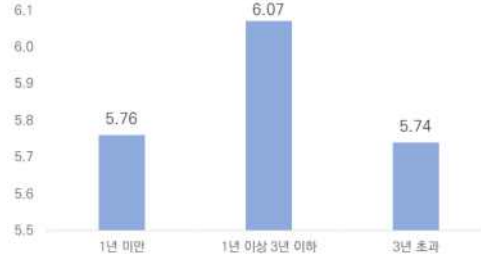
[그림 IV-12] 자격증 도움 정도(학력)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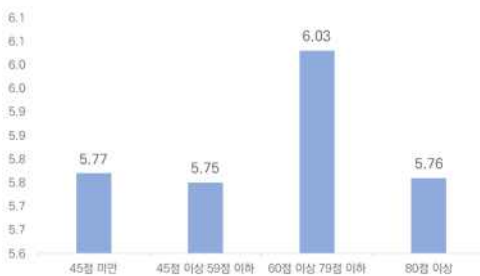
[그림 IV-13] 자격증 도움 정도(참여기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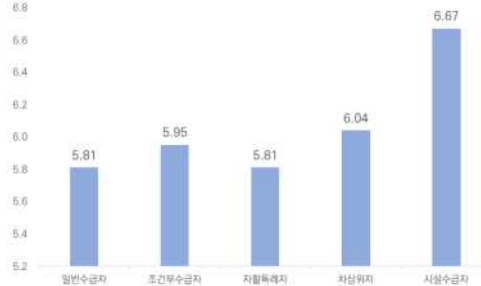
[그림 IV-14] 자격증 도움 정도(자활역량점수)

(단위 : 점)



[그림 IV-15] 자격증 도움 정도(수급유형)

(단위 : 점)



〈표 IV-9〉 자격증 도움 정도

(단위 : 점, %)

특성		평균 (점)	전혀 도움 안됨	← 1	← 2	← 3	← 4	보통	→ 6	→ 7	→ 8	→ 9	매우 도움 이됨
전체		5.88	9.4	3.2	3.0	2.5	1.6	35.3	3.9	8.3	9.0	3.2	20.6
성별	남성	5.39	12.4	4.1	3.1	2.9	1.9	37.4	3.5	8.2	7.7	2.0	16.8
	여성	6.17	7.6	2.7	2.9	2.3	1.4	34.0	4.2	8.3	9.8	3.9	22.9
연령	29세 이하	6.27	5.8	2.1	3.3	2.9	1.6	30.9	4.9	11.5	14.0	3.7	19.3
	30세 이상 39세 이하	6.44	6.2	1.6	1.6	2.1	2.5	32.5	5.8	9.1	9.9	4.5	24.3
	40세 이상 49세 이하	6.15	8.0	2.2	4.3	1.6	1.4	32.5	4.1	9.2	10.0	3.7	22.9
	50세 이상 59세 이하	5.70	9.9	3.9	2.7	2.6	1.1	39.9	2.8	7.1	7.2	2.7	20.1
	60세 이상	5.30	14.3	4.8	2.4	3.4	2.2	34.6	3.9	7.0	7.7	2.4	17.2
학력	무학	5.48	15.2	9.1	0.0	0.0	6.1	27.3	0.0	9.1	6.1	6.1	21.2
	초졸	5.51	11.7	4.4	0.7	5.8	0.0	38.0	2.9	8.0	8.8	2.9	16.8
	중졸	5.80	10.2	2.7	3.1	2.0	1.2	40.0	3.1	6.7	6.7	1.2	23.1
	고졸	5.92	9.0	3.0	3.1	2.3	1.7	35.7	3.4	8.5	10.0	2.7	20.6
	대졸	6.01	9.2	2.7	3.0	3.0	1.6	29.4	7.3	9.7	8.9	5.9	19.4
참여 기간	1년 미만	5.76	9.0	4.4	3.6	2.3	1.5	35.2	3.6	9.0	9.8	3.1	18.5
	1년 이상 3년 이하	6.07	7.9	3.8	2.6	2.6	1.7	33.6	3.2	8.5	10.5	2.8	22.6
	3년 초과	5.74	11.0	2.2	3.0	2.5	1.6	36.9	4.7	7.7	7.3	3.6	19.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77	8.7	3.6	3.3	2.1	2.4	38.6	2.7	8.1	9.3	2.1	19.2
	45점 이상 59점 이하	5.75	9.7	3.7	2.7	2.6	2.1	36.2	3.9	7.9	9.3	3.4	18.6
	60점 이상 79점 이하	6.03	9.4	2.8	2.9	2.5	1.1	33.3	4.3	8.7	8.9	3.4	22.7
	80점 이상	5.76	10.2	2.3	4.5	3.4	0.0	36.4	4.5	8.0	6.8	3.4	20.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81	9.8	3.0	3.0	3.0	1.6	35.8	4.0	8.3	8.4	2.8	20.3
	조건부수급자	5.95	8.3	3.4	3.2	1.4	1.4	35.6	4.8	8.7	9.7	4.0	19.4
	자활특례자	5.81	7.4	0.0	1.5	5.9	4.4	44.1	0.0	8.8	7.4	4.4	16.2
	차상위자	6.04	10.5	4.9	2.6	1.5	0.7	30.7	2.2	7.5	11.2	3.4	24.7
	시설수급자	6.67	0.0	0.0	11.1	0.0	11.1	22.2	11.1	0.0	11.1	0.0	33.3

2. 자활 참여자 정서적 자활 및 웰빙

1) 자활 의지 변화

자활사업 참여 전·후 참여자의 태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조사하고자, 먼저 자활 의지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인 자활 의지 변화는 5점 기준 평균 3.60점으로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가치와 역량(3.69점)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미래전망 동기부여(3.60점), 목표지향(3.58점), 기술과 자원활용(3.53점)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수급유형은 시설수급자(3.81점)일 경우 자활의지가 가장 크게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그림 IV-16] 자활의지 변화(종합)

(단위 : 점)



〈표 IV-10〉 변화(특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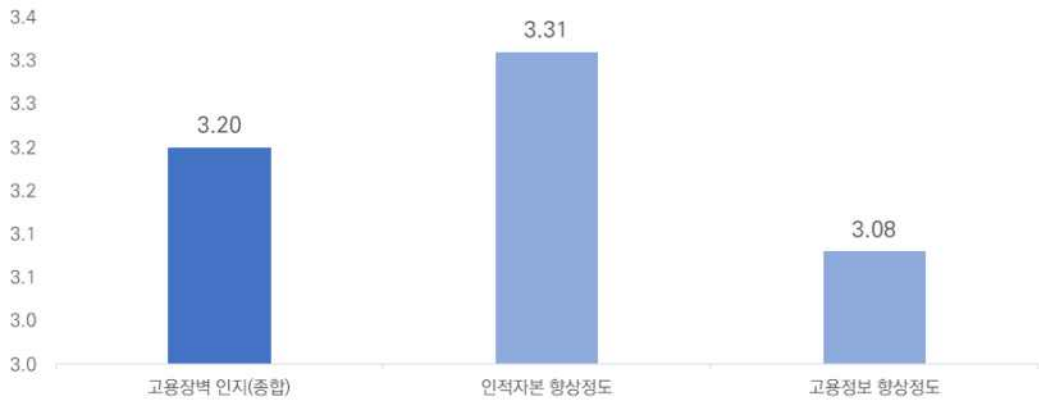
특성		자활의지 (종합)	가치와 역량	미래전망 동기부여	기술과 자원활용	목표지향
전체		3.60	3.69	3.60	3.53	3.58
성별	남성	3.58	3.67	3.57	3.49	3.61
	여성	3.61	3.71	3.63	3.56	3.57
연령	29세 이하	3.60	3.57	3.60	3.51	3.73
	30세 이상 39세 이하	3.60	3.59	3.65	3.51	3.66
	40세 이상 49세 이하	3.67	3.70	3.69	3.62	3.67
	50세 이상 59세 이하	3.59	3.69	3.60	3.52	3.56
	60세 이상	3.54	3.79	3.49	3.45	3.42
학력	무학	3.47	3.74	3.43	3.36	3.34
	초졸	3.52	3.71	3.52	3.48	3.38
	중졸	3.56	3.70	3.57	3.50	3.48
	고졸	3.62	3.69	3.62	3.54	3.62
	대졸	3.70	3.71	3.73	3.61	3.75
참여 기간	1년 미만	3.68	3.77	3.70	3.57	3.68
	1년 이상 3년 이하	3.57	3.66	3.56	3.50	3.57
	3년 초과	3.55	3.64	3.56	3.51	3.5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58	3.71	3.57	3.52	3.54
	45점 이상 59점 이하	3.55	3.65	3.55	3.48	3.52
	60점 이상 79점 이하	3.64	3.71	3.66	3.57	3.64
	80점 이상	3.71	3.76	3.68	3.59	3.7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58	3.68	3.58	3.51	3.56
	조건부수급자	3.61	3.67	3.62	3.54	3.62
	자활특례자	3.42	3.57	3.49	3.31	3.30
	차상위자	3.72	3.81	3.72	3.63	3.71
	시설수급자	3.81	3.83	3.83	3.66	3.91

2) 고용장벽에 대한 인지 변화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전·후 고용장벽에 대한 종합적인 인지 변화는 5점 기준 평균 3.20점으로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고용장벽에 대한 긍정적 인지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인적자본 향상정도(3.31점)가 고용정보 향상정도(3.08점)보다 더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3.35점), 수급유형 차상위자(3.30점)일 경우 고용장벽에 대한 종합적 인지 변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7] 고용장벽 인지(종합)

(단위 : 점)



〈표 IV-11〉 고용장벽 인지(특성별)

(단위 : 점)

특성		고용장벽 인지 (종합)	인적자본 향상정도	고용정보 향상정도
전체		3.20	3.31	3.08
성별	남성	3.19	3.32	3.06
	여성	3.20	3.30	3.10
연령	29세 이하	3.18	3.19	3.18
	30세 이상 39세 이하	3.21	3.24	3.17
	40세 이상 49세 이하	3.29	3.45	3.13
	50세 이상 59세 이하	3.20	3.32	3.07
	60세 이상	3.10	3.24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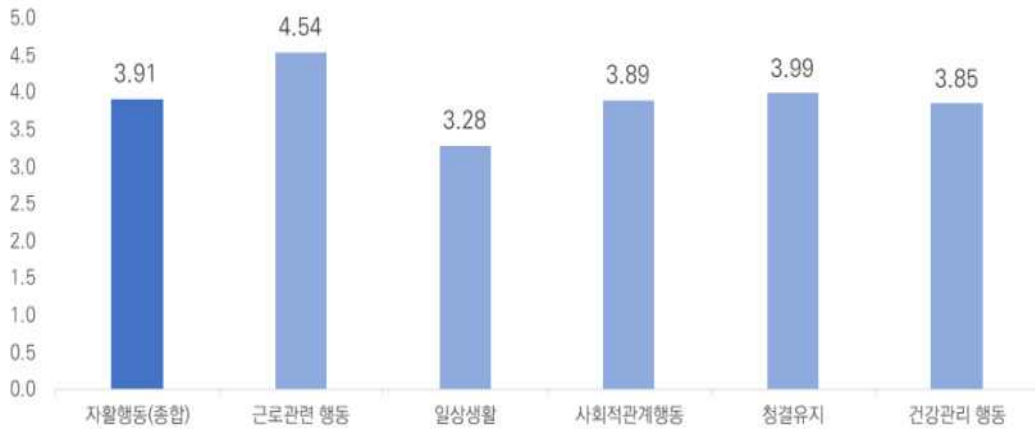
	특성	고용장벽 인지 (종합)	인적자본 향상정도	고용정보 향상정도
학력	무학	3.02	3.14	2.90
	초졸	3.03	3.18	2.87
	중졸	3.10	3.23	2.96
	고졸	3.20	3.32	3.09
	대졸	3.40	3.49	3.32
참여 기간	1년 미만	3.23	3.35	3.12
	1년 이상 3년 이하	3.18	3.29	3.06
	3년 초과	3.18	3.30	3.07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19	3.30	3.08
	45점 이상 59점 이하	3.14	3.26	3.02
	60점 이상 79점 이하	3.24	3.36	3.11
	80점 이상	3.35	3.41	3.2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17	3.29	3.05
	조건부수급자	3.23	3.31	3.14
	자활특례자	3.04	3.17	2.90
	차상위자	3.30	3.44	3.16
	시설수급자	3.20	3.30	3.11

3) 자활 행동 변화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전·후 자활행동 변화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91점으로 자활 행동 또한 자활 전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근로관련행동(4.54점)의 변화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청결유지(3.99점)와 사회적 관계행동(3.89점)이 뒤를 따랐다. 참여자 특성별로는 자활참여기간이 가장 긴 3년 초과(3.93점)일 경우,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수급유형은 차상위자(3.98점)인 경우 자활 행동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활 참여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가장 짧고 자활 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수급유형은 시설수급자(3.84점)인 경우 자활행동 변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활참여 사업이 근로관련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크게 기여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IV-18] 자활행동(종합)

(단위 : 점)



〈표 IV-12〉 자활행동(특성별)

(단위 : 점)

특성		자활행동 (종합)	근로관련 행동	일상생활	사회적관계 행동	청결유지	건강관리 행동
전체		3.91	4.54	3.28	3.89	3.99	3.85
성별	남성	3.85	4.50	3.31	3.79	3.86	3.82
	여성	3.95	4.57	3.26	3.97	4.08	3.88
연령	29세 이하	3.65	4.27	3.05	3.59	3.72	3.62
	30세 이상 39세 이하	3.73	4.36	3.13	3.76	3.79	3.62
	40세 이상 49세 이하	3.91	4.58	3.28	3.94	3.99	3.78
	50세 이상 59세 이하	3.97	4.61	3.34	3.93	4.04	3.92
	60세 이상	4.04	4.61	3.38	4.00	4.14	4.06
학력	무학	3.88	4.52	3.33	3.89	3.91	3.77
	초졸	3.94	4.51	3.32	3.90	4.01	3.96
	중졸	3.92	4.52	3.32	3.90	4.02	3.85
	고졸	3.90	4.54	3.28	3.88	3.99	3.84
	대졸	3.94	4.62	3.25	3.91	3.97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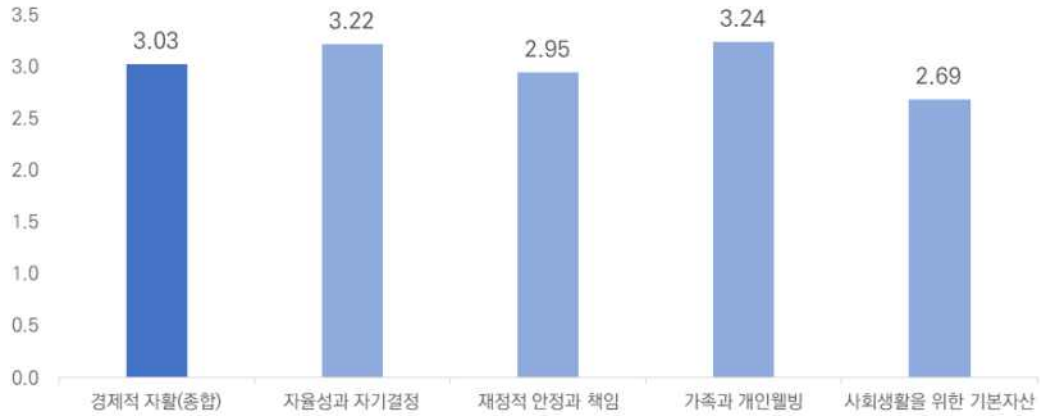
	특성	자활행동 (종합)	근로관련 행동	일상생활	사회적관계 행동	청결유지	건강관리 행동
참여 기간	1년 미만	3.90	4.54	3.28	3.90	3.99	3.81
	1년 이상 3년 이하	3.89	4.53	3.28	3.87	3.96	3.84
	3년 초과	3.93	4.55	3.28	3.91	4.01	3.9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93	4.55	3.33	3.89	4.00	3.87
	45점 이상 59점 이하	3.91	4.54	3.29	3.88	4.00	3.86
	60점 이상 79점 이하	3.90	4.54	3.26	3.90	3.97	3.85
	80점 이상	3.84	4.46	3.20	3.87	3.92	3.7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90	4.53	3.28	3.88	3.97	3.83
	조건부수급자	3.91	4.54	3.27	3.90	3.99	3.83
	자활특례자	3.86	4.53	3.17	3.75	3.92	3.92
	차상위자	3.98	4.59	3.32	3.97	4.06	3.98
	시설수급자	3.84	4.38	3.19	3.81	3.94	3.88

4) 주관적 경제적 자활

참여자의 주관적 경제적 자활 정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3.03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위 영역별로는 가족과 개인웰빙(3.24점)이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그 뒤를 자율성과 자기결정(3.22점)이 따랐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안정과 책임(2.95점)과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2.69점)은 주관적 변화 정도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3.05점)일 때, 자활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수급유형이 시설수급자(3.38점)일 경우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적 자활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19] 주관적 경제적 자활(종합)

(단위 : 점)



〈표 IV-13〉 주관적 경제적 자활 현황(특성별)

(단위 : 점)

특성		경제적 자활 (종합)	자율성과 자기결정	재정적 안정과 책임	가족과 개인웰빙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전체		3.03	3.22	2.95	3.24	2.69
성별	남성	3.06	3.24	3.02	3.24	2.75
	여성	3.00	3.21	2.90	3.23	2.64
연령	29세 이하	3.44	3.55	3.45	3.74	3.00
	30세 이상 39세 이하	3.09	3.25	3.04	3.35	2.71
	40세 이상 49세 이하	2.95	3.15	2.84	3.19	2.61
	50세 이상 59세 이하	2.94	3.14	2.85	3.13	2.64
	60세 이상	3.01	3.25	2.96	3.16	2.69
학력	무학	2.94	3.08	2.99	3.10	2.59
	초졸	3.02	3.21	2.99	3.22	2.67
	중졸	3.02	3.25	2.96	3.19	2.70
	고졸	3.03	3.23	2.95	3.26	2.69
	대졸	3.12	3.29	3.06	3.32	2.81
참여 기간	1년 미만	2.99	3.21	2.90	3.20	2.65
	1년 이상 3년 이하	3.05	3.23	2.99	3.25	2.71
	3년 초과	3.04	3.22	2.97	3.25	2.71

특성		경제적 자활 (종합)	자율성과 자기결정	재정적 안정과 책임	가족과 개인웰빙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03	3.22	2.97	3.23	2.69
	45점 이상 59점 이하	2.98	3.18	2.91	3.19	2.65
	60점 이상 79점 이하	3.06	3.25	2.98	3.28	2.72
	80점 이상	3.06	3.28	2.97	3.28	2.71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02	3.21	2.95	3.21	2.70
	조건부수급자	2.93	3.15	2.83	3.20	2.54
	자활특례자	3.01	3.24	2.95	3.18	2.68
	차상위자	3.27	3.43	3.19	3.46	3.02
	시설수급자	3.38	3.53	3.68	3.52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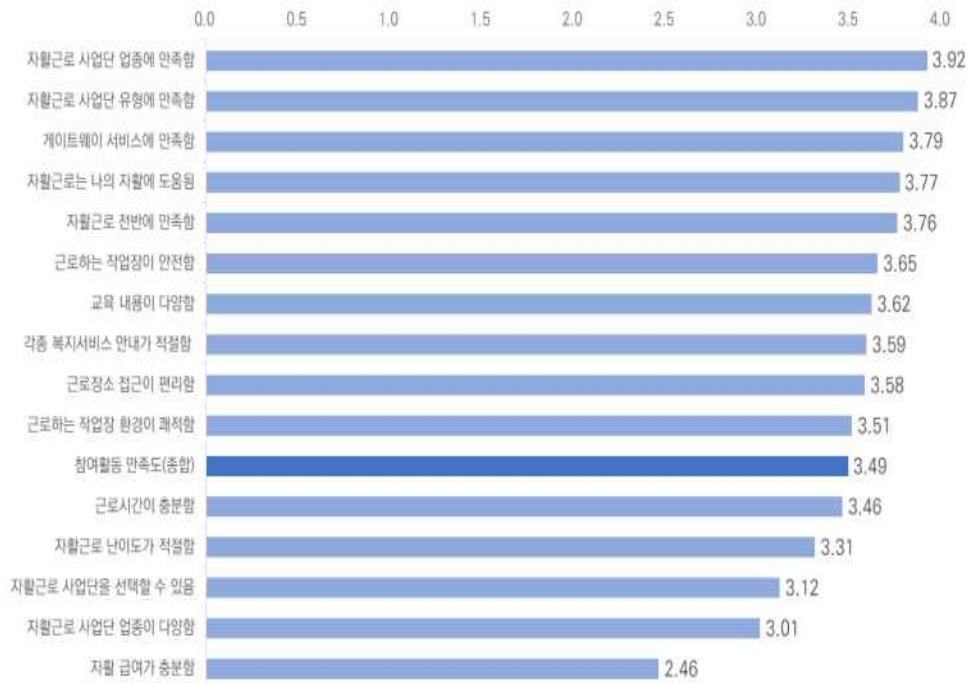
3. 자활사업 만족도

1) 자활사업 참여활동 만족도

참여자가 현재 참여 중인 자활사업 및 사업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하위 영역별로는 자활근로 사업단 업종에 만족함(3.92점)이 가장 높았으며, 자활근로 사업단 유형에 만족함(3.87점), 게이트웨이 서비스에 만족함(3.79점)이 뒤를 따랐다. 반면, 자활급여가 충분함은 2.46점으로 유일하게 하위 영역 중 2점대를 기록하여 자활급여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 유형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은 60점 이상인 경우, 수급유형은 차상위자(3.60점)가 참여활동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았다.

[그림 IV-20] 사업단 만족도(종합)

(단위 : 점)



〈표 IV-14〉 사업단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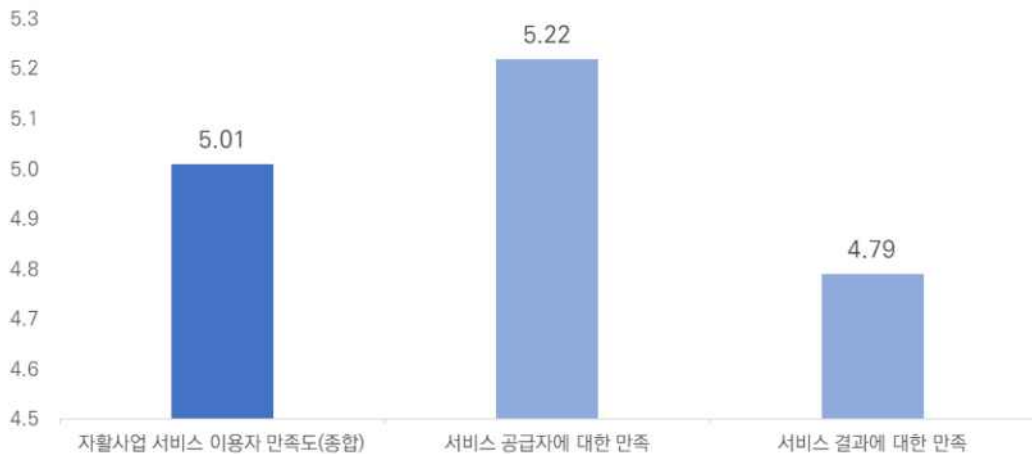
특성		참여활동 만족도 (종합)	자활 급여가 충분함	자활근로 난이도가 적절함	근로시간 이 충분함	자활근로 사업단을 선택할 수 있음	자활근로 사업단 업종이 다양함	근로하는 작업장이 안전함	근로하는 작업장 환경이 쾌적함	근로장소 접근이 편리함	자활근로 는 나의 자활에 도움됨	교육 내용이 다양함	자활근로 전반에 만족함	자활근로 사업단 업종에 만족함	자활근로 사업단 유형에 만족함	게이트 웨이 서비스에 만족함	각종 복지 서비스 안내가 적절함
성별	전체	3.49	2.46	3.31	3.46	3.12	3.01	3.65	3.51	3.58	3.77	3.62	3.76	3.92	3.87	3.79	3.59
	남성	3.48	2.44	3.31	3.46	3.12	3.07	3.67	3.49	3.57	3.73	3.59	3.74	3.88	3.84	3.77	3.58
	여성	3.50	2.48	3.31	3.46	3.12	2.96	3.63	3.52	3.59	3.79	3.65	3.78	3.94	3.90	3.80	3.59
연령	29세 이하	3.71	2.83	3.78	3.77	3.42	3.42	3.90	3.82	3.77	3.79	3.70	3.81	3.99	3.98	3.88	3.75
	30세 이상 39세 이하	3.55	2.59	3.49	3.62	3.16	3.10	3.63	3.55	3.64	3.80	3.63	3.79	3.96	3.92	3.84	3.62
	40세 이상 49세 이하	3.46	2.41	3.26	3.44	3.07	2.87	3.60	3.51	3.57	3.74	3.57	3.76	3.91	3.89	3.77	3.57
	50세 이상 59세 이하	3.44	2.34	3.21	3.37	3.09	2.91	3.58	3.44	3.56	3.77	3.61	3.72	3.89	3.84	3.76	3.54
	60세 이상	3.48	2.48	3.21	3.39	3.06	3.06	3.67	3.45	3.51	3.76	3.66	3.79	3.90	3.85	3.78	3.59
학력	무학	3.55	2.77	3.32	3.39	3.06	3.17	3.69	3.56	3.54	3.88	3.62	3.86	3.90	3.80	3.91	3.73
	초졸	3.61	2.62	3.39	3.62	3.14	3.29	3.73	3.58	3.60	3.89	3.73	3.93	4.07	4.00	3.85	3.64
	중졸	3.48	2.49	3.25	3.42	3.09	3.13	3.61	3.40	3.51	3.75	3.68	3.80	3.91	3.86	3.76	3.60
	고졸	3.48	2.46	3.29	3.42	3.10	2.96	3.61	3.49	3.58	3.76	3.62	3.74	3.91	3.86	3.77	3.56
	대졸	3.51	2.40	3.40	3.50	3.17	2.85	3.72	3.60	3.65	3.80	3.59	3.73	3.90	3.90	3.84	3.65
참여 기간	1년 미만	3.58	2.52	3.38	3.51	3.24	3.08	3.75	3.61	3.64	3.85	3.71	3.84	3.97	3.93	3.93	3.71
	1년 이상 3년 이하	3.47	2.42	3.32	3.45	3.08	2.97	3.62	3.50	3.58	3.73	3.58	3.72	3.87	3.84	3.75	3.54
	3년 초과	3.45	2.46	3.23	3.42	3.05	2.97	3.57	3.42	3.52	3.73	3.59	3.73	3.91	3.86	3.69	3.5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49	2.45	3.28	3.42	3.13	3.04	3.63	3.51	3.59	3.76	3.64	3.79	3.91	3.87	3.78	3.58
	45점 이상 59점 이하	3.48	2.47	3.30	3.44	3.08	2.99	3.64	3.50	3.57	3.74	3.59	3.75	3.90	3.87	3.78	3.58
	60점 이상 79점 이하	3.50	2.47	3.32	3.48	3.14	3.00	3.66	3.52	3.59	3.79	3.65	3.75	3.93	3.88	3.79	3.59
	80점 이상	3.53	2.48	3.45	3.51	3.24	3.03	3.66	3.55	3.60	3.77	3.61	3.76	3.95	3.92	3.85	3.62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47	2.46	3.28	3.43	3.11	2.99	3.62	3.48	3.58	3.74	3.58	3.71	3.89	3.85	3.75	3.54
	조건부수급자	3.52	2.44	3.39	3.49	3.11	2.99	3.67	3.55	3.56	3.78	3.66	3.79	3.93	3.90	3.86	3.68
	자활특례자	3.46	2.56	3.25	3.39	3.10	2.90	3.66	3.46	3.53	3.65	3.56	3.83	3.85	3.77	3.75	3.57
	차상위자	3.60	2.54	3.31	3.56	3.24	3.15	3.72	3.61	3.64	3.92	3.78	3.93	4.06	3.98	3.85	3.64
	시설수급자	3.52	2.57	3.50	3.64	3.21	3.21	3.79	3.57	3.54	3.79	3.61	3.57	3.75	3.68	3.82	3.61

2)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참여자의 자활사업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로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01점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5.22점)가 높았으며,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4.79점이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 기간이 1년 미만(5.15점), 자활역량점수가 60점 이상 79점 이하(5.03점), 수급유형은 차상위자(5.15점)인 경우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특이점은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전체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급자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21] 자활서비스 만족도(종합)

(단위: 점)



〈표 IV-15〉 자활서비스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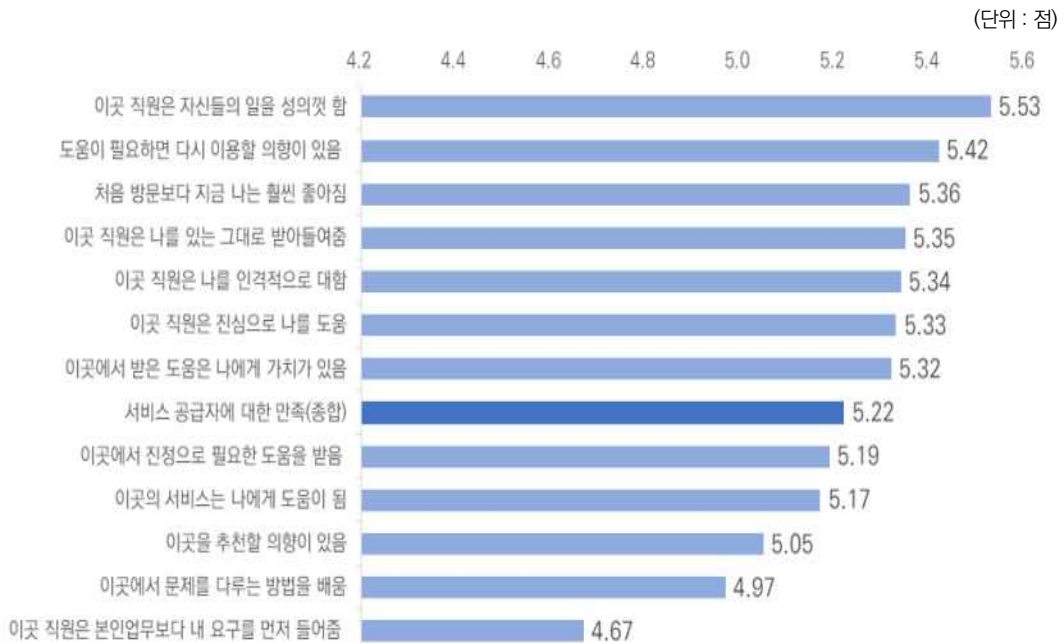
특성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종합)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
전체		5.01	5.22	4.79
성별	남성	5.06	5.26	4.85
	여성	4.97	5.19	4.73
연령	29세 이하	5.03	5.28	4.80
	30세 이상 39세 이하	4.97	5.20	4.73
	40세 이상 49세 이하	4.96	5.18	4.72
	50세 이상 59세 이하	5.01	5.22	4.80
	60세 이상	5.07	5.27	4.85
학력	무학	5.21	5.43	4.96
	초졸	5.12	5.30	4.93
	중졸	4.98	5.19	4.75
	고졸	4.98	5.19	4.76
	대졸	5.06	5.29	4.83
참여 기간	1년 미만	5.15	5.36	4.94
	1년 이상 3년 이하	4.97	5.19	4.71
	3년 초과	4.93	5.13	4.7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99	5.20	4.76
	45점 이상 59점 이하	5.01	5.22	4.78
	60점 이상 79점 이하	5.03	5.24	4.80
	80점 이상	4.98	5.20	4.7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99	5.20	4.76
	조건부수급자	5.02	5.24	4.80
	자활특례자	4.91	5.12	4.67
	차상위자	5.15	5.37	4.95
	시설수급자	4.99	5.28	4.69

(1)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자 먼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와 해당 문항을 살펴보았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2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문항별로는 이곳 직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의껏 함(5.53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대부분의 문항이 모두 5점 이상의 점수를 차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이곳 직원은 본인 업무보다 내 요구를 먼저 들어줌(4.67점)과 이곳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배움(4.97점)의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는 60점 이하 79점 이상(5.24점), 수급유형은 차상위자(5.37점)인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자활역량은 45점 미만이거나 80점 이상인 경우(각 5.20점), 수급유형은 자활특례자(5.12점)일 때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V-22]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종합)



〈표 IV-16〉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특성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	이곳의 서비스는 나에게 도움이 됨	이곳 직원은 진심으로 나를 도움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음	이곳 직원은 나를 인격적으 로 대함	이곳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배움	이곳을 추천할 의향이 있음	이곳 직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실히 함	이곳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음	이곳 직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줌	처음 방문보다 지금 나는 훨씬 좋아짐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나에게 가치가 있음	이곳 직원은 본인업무 보다 내 요구를 먼저 들어줌
전체		5.22	5.17	5.33	5.42	5.34	4.97	5.05	5.53	5.19	5.35	5.36	5.32	4.67
성별	남성	5.26	5.19	5.40	5.46	5.44	5.01	5.05	5.57	5.23	5.38	5.39	5.36	4.69
	여성	5.19	5.15	5.27	5.38	5.26	4.93	5.06	5.51	5.16	5.33	5.33	5.30	4.65
연령	29세 이하	5.28	5.35	5.48	5.33	5.37	5.01	5.07	5.64	5.21	5.43	5.48	5.33	4.66
	30세 이상 39세 이하	5.20	5.31	5.34	5.35	5.23	4.91	5.06	5.49	5.16	5.32	5.32	5.31	4.58
	40세 이상 49세 이하	5.18	5.18	5.30	5.41	5.27	4.86	5.01	5.44	5.12	5.29	5.30	5.27	4.64
	50세 이상 59세 이하	5.22	5.12	5.28	5.44	5.36	4.99	5.04	5.52	5.20	5.33	5.32	5.34	4.69
	60세 이상	5.27	5.06	5.37	5.46	5.41	5.04	5.11	5.61	5.24	5.43	5.44	5.36	4.73
학력	무학	5.43	5.28	5.53	5.52	5.66	5.19	5.43	5.78	5.45	5.58	5.54	5.29	4.90
	초졸	5.30	5.13	5.32	5.59	5.33	5.14	5.24	5.57	5.30	5.39	5.46	5.40	4.78
	중졸	5.19	5.02	5.28	5.44	5.32	5.00	5.03	5.48	5.18	5.34	5.37	5.25	4.61
	고졸	5.19	5.16	5.30	5.36	5.29	4.93	4.99	5.51	5.17	5.33	5.32	5.30	4.67
	대졸	5.29	5.32	5.44	5.45	5.46	4.94	5.16	5.62	5.23	5.38	5.39	5.43	4.69
참 여기간	1년 미만	5.36	5.28	5.53	5.57	5.49	5.05	5.18	5.71	5.33	5.52	5.43	5.45	4.74
	1년 이상 3년 이하	5.19	5.15	5.29	5.37	5.32	4.92	5.02	5.48	5.14	5.32	5.34	5.27	4.63
	3년 초과	5.13	5.07	5.16	5.31	5.21	4.93	4.96	5.41	5.10	5.21	5.31	5.27	4.6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5.20	5.14	5.28	5.41	5.29	4.92	5.00	5.51	5.18	5.32	5.33	5.31	4.66
	45점 이상 59점 이하	5.22	5.12	5.31	5.41	5.41	4.99	5.05	5.54	5.18	5.32	5.36	5.30	4.67
	60점 이상 79점 이하	5.24	5.22	5.37	5.43	5.30	4.96	5.08	5.54	5.21	5.39	5.38	5.35	4.68
	80점 이상	5.20	5.19	5.34	5.37	5.31	5.00	5.04	5.48	5.10	5.32	5.28	5.33	4.6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5.20	5.13	5.28	5.37	5.31	4.96	5.02	5.49	5.16	5.32	5.33	5.32	4.66
	조건부수급자	5.24	5.18	5.39	5.46	5.38	4.92	5.04	5.59	5.21	5.38	5.36	5.29	4.62
	자활특례자	5.12	5.08	5.16	5.33	5.20	4.83	4.90	5.42	5.09	5.22	5.25	5.27	4.74
	차상위자	5.37	5.34	5.47	5.58	5.43	5.15	5.27	5.64	5.31	5.46	5.53	5.44	4.84
	시설수급자	5.28	5.32	5.61	5.79	5.46	4.86	5.04	5.82	5.21	5.39	5.32	4.96	4.61

(2)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

참여자의 자활사업 서비스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평균 4.79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음, 내가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임의 점수가 각 5.1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차지하였고 이곳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음(4.26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참여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1년 미만(4.94점), 자활역량 60점 이상 79점 이하(4.80점), 수급유형 차상위자(4.95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자활 참여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4.71점), 자활 역량 45점 미만, 80점 이상(각 4.76점), 수급유형 자활특례자(4.67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3]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종합)



〈표 IV-17〉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특성별)

(단위 : 점)

특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	이곳에 오기 전에는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함	이곳에서 받은 가장 큰 도움은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운 것임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고 말함	이곳의 직원들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려줌	이곳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음	나는 이곳 직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음	내가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임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음
전체		4.79	4.84	4.66	4.85	4.73	4.26	4.72	5.11	5.11
성별	남성	4.85	4.90	4.78	4.90	4.80	4.42	4.82	5.10	5.10
	여성	4.73	4.79	4.57	4.82	4.67	4.14	4.64	5.11	5.11
연령	29세 이하	4.80	4.76	4.84	4.99	4.78	4.10	4.87	5.01	5.01
	30세 이상 39세 이하	4.73	4.73	4.58	4.85	4.61	4.06	4.73	5.14	5.14
	40세 이상 49세 이하	4.72	4.74	4.61	4.83	4.64	4.16	4.64	5.08	5.08
	50세 이상 59세 이하	4.80	4.90	4.64	4.84	4.74	4.32	4.71	5.13	5.13
	60세 이상	4.85	4.95	4.70	4.84	4.84	4.47	4.75	5.13	5.13
학력	무학	4.96	4.90	4.78	5.06	5.01	4.59	4.82	5.26	5.26
	초졸	4.93	5.05	4.75	4.90	4.81	4.47	4.80	5.34	5.34
	중졸	4.75	4.80	4.61	4.74	4.69	4.25	4.62	5.16	5.16
	고졸	4.76	4.82	4.64	4.86	4.70	4.20	4.70	5.07	5.07
	대졸	4.83	4.87	4.70	4.91	4.80	4.35	4.84	5.08	5.08
참여 기간	1년 미만	4.94	4.98	4.81	5.00	4.91	4.42	4.90	5.26	5.26
	1년 이상 3년 이하	4.71	4.78	4.61	4.79	4.65	4.16	4.67	5.02	5.02
	3년 초과	4.72	4.78	4.57	4.78	4.64	4.23	4.60	5.06	5.06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76	4.84	4.63	4.81	4.67	4.21	4.66	5.12	5.12
	45점 이상 59점 이하	4.78	4.84	4.67	4.86	4.73	4.27	4.70	5.09	5.09
	60점 이상 79점 이하	4.80	4.86	4.66	4.86	4.75	4.27	4.77	5.13	5.13
	80점 이상	4.76	4.69	4.71	4.91	4.77	4.25	4.71	5.02	5.02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76	4.84	4.65	4.81	4.70	4.22	4.70	5.07	5.07
	조건부수급자	4.80	4.78	4.68	4.93	4.78	4.28	4.74	5.09	5.09
	자활특례자	4.67	4.78	4.57	4.59	4.52	4.12	4.67	5.05	5.05
	차상위자	4.95	5.02	4.71	4.98	4.85	4.48	4.86	5.35	5.35
	시설수급자	4.69	4.79	4.71	4.79	4.54	4.04	4.46	5.11	5.11

4. 향후 근로 관련 요구

1) 자활근로 관련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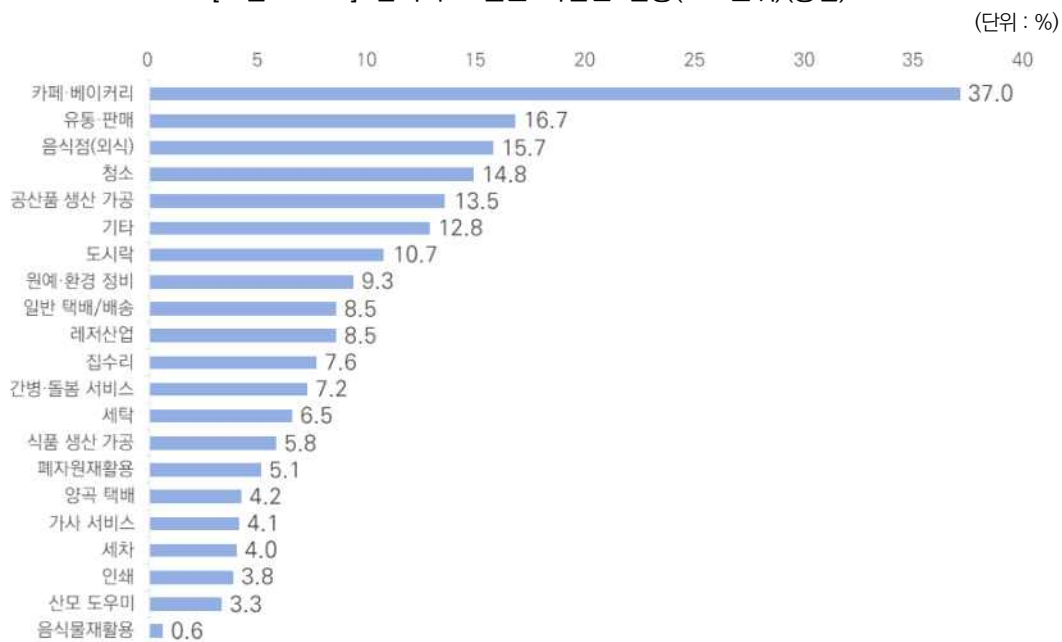
(1)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참여자가 자활사업에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업단 업종은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였을 때, 카페·베이커리(37.0%)가 가장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유통·판매(16.7%), 3위는 음식점(외식)(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 또한 모두 1위가 마찬가지로 카페·베이커리이나 특히 자활 참여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37.9%), 자활 역량점수는 80점 이상(56.1%), 수급유형 시설수급자(60.7%)일 때 카페·베이커리 선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이 원하는 사업단 업종을 참여자의 상황별로 자세하게 특정하고자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외에 실제로 참여 가능한 업종과 건강이나 사정의 제약이 없다면 참여하고 싶은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가 유형 모두 카페·베이커리 사업단이 다른 사업단과 큰 차이로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단 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음식점, 유통·판매, 청소가 약 15% 내외에서 서로 근소한 차이로 앞다퉈 카페·베이커리 다음의 순위경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사업단에 대해 ①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②실제로 참여 가능한 사업 ③건강 및 조건이 상관 없을 경우 원하는 사업단의 3가지 유형을 비교한 결과 카페·베이커리 사업단이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37.0%), 건강 및 조건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36.3%)이나, 실제로 참여 가능한 사업단(27.8%)로 가장 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더 높은 비율의 참여자가 카페·베이커리에 참여하고 싶으나 건강이나 조건 등의 문제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는 실제로 참여 가능한 사업단에서는 23%로 높은 편이었으나,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14.8%), 건강 및 조건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16.2%)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청소 사업단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청소 사업단에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4]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1+2순위)(종합)



〈표 IV-18〉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1+2순위)(특성별)

(단위 : %)

특성		집수리	가사 서비스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도시락	음식점	카페·베이커리	세탁	세차	간병·돌봄 서비스	산모도우미	원예·환경 정비	양곡 택배	일반 택배/배송	유통·판매	인쇄	식품 생산 가공	공산품 생산 가공	레저 산업	기타	2순위 없음
성별	전체	7.6	4.1	14.8	5.1	0.6	10.7	15.7	37.0	6.5	4.0	7.2	3.3	9.3	4.2	8.5	16.7	3.8	5.8	13.5	8.5	12.8	0.3
	남성	13.9	2.2	18.2	7.3	0.6	8.6	11.7	19.2	7.3	6.8	3.1	0.2	9.6	8.5	15.8	17.4	4.1	6.5	14.6	12.9	11.3	0.4
	여성	2.6	5.6	12.2	3.4	0.7	12.4	18.9	50.9	5.8	1.9	10.4	5.7	9.0	0.8	2.9	16.1	3.5	5.3	12.6	5.0	14.0	0.2
연령	29세 이하	6.5	0.9	7.4	2.2	0.8	7.0	24.0	61.6	3.3	4.3	4.3	2.5	8.2	2.7	5.4	15.3	7.6	5.1	7.9	5.2	17.9	0.0
	30세 이상 39세 이하	3.3	2.0	10.7	4.8	0.5	8.3	14.0	51.2	4.5	2.7	6.0	3.2	5.0	3.5	5.7	17.8	6.2	4.8	17.3	7.8	20.5	0.2
	40세 이상 49세 이하	6.4	3.9	12.7	4.3	0.3	9.1	16.8	43.6	6.1	5.1	6.6	4.5	5.6	3.4	7.6	17.9	3.9	5.1	14.6	9.2	12.8	0.4
	50세 이상 59세 이하	8.6	4.6	16.8	5.3	0.5	12.1	13.9	30.9	6.1	4.0	8.1	3.0	11.2	4.7	10.2	18.1	3.0	5.3	12.9	10.3	10.2	0.3
	60세 이상	9.7	6.2	19.7	7.1	1.3	13.4	14.1	19.9	10.2	3.5	8.4	2.9	12.7	5.4	9.9	13.2	1.8	8.4	14.4	6.7	10.9	0.3
학력	무학	16.2	12.1	26.3	8.1	1.0	19.2	13.1	13.1	10.1	4.0	7.1	5.1	12.1	6.1	10.1	5.1	1.0	8.1	13.1	2.0	7.1	00.0
	초졸	12.6	6.1	29.4	9.2	1.0	13.1	15.5	13.1	10.2	6.1	7.5	3.4	10.9	2.7	8.5	8.3	1.7	8.5	15.5	2.7	13.1	1.0
	중졸	9.4	4.8	19.8	6.1	0.8	12.9	18.3	24.4	7.9	4.4	7.5	3.0	9.9	7.4	9.0	12.3	2.1	6.8	16.3	5.9	11.3	0.0
	고졸	6.7	4.1	13.5	4.8	0.7	10.7	16.4	41.3	6.4	3.6	7.2	3.5	7.9	4.0	8.3	18.3	4.0	5.0	12.4	8.7	12.1	0.3
	대졸	5.7	2.8	7.1	3.8	0.1	9.1	13.9	49.8	4.5	3.7	4.9	2.9	10.3	2.4	7.8	20.9	6.5	3.9	10.6	12.7	16.6	0.1
참여 기간	1년 미만	9.1	3.3	14.6	4.7	0.5	10.8	15.8	37.8	6.0	4.1	6.4	2.9	9.4	3.3	8.9	17.7	4.0	5.3	12.9	9.2	13.2	0.2
	1년 이상 3년 이하	7.5	3.6	14.4	5.1	0.6	10.4	15.9	37.9	6.1	4.0	6.9	2.9	9.1	4.9	9.0	17.2	3.8	5.4	12.6	9.1	13.1	0.3
	3년 초과	6.1	5.5	15.6	5.4	0.8	11.0	15.4	35.0	7.4	4.1	8.4	4.2	9.4	4.2	7.6	15.0	3.5	6.8	15.2	7.0	12.2	0.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8.5	5.1	14.2	5.9	0.7	11.2	16.6	35.7	6.2	2.7	8.0	3.2	7.8	4.0	10.4	17.4	3.5	6.2	10.9	8.0	13.4	0.3
	45점 이상 59점 이하	8.2	5.3	17.7	5.6	0.6	10.0	14.8	32.0	7.1	4.7	7.3	3.3	11.2	4.3	7.9	15.4	3.7	7.3	14.2	8.0	11.1	0.2
	60점 이상 79점 이하	6.8	2.8	13.0	4.6	0.7	11.2	16.1	39.9	6.4	4.1	6.8	3.4	8.4	4.2	8.8	17.3	3.9	4.6	14.2	9.0	13.7	0.3
	80점 이상	5.1	1.6	10.7	2.4	0.4	9.5	16.2	56.1	4.0	3.6	6.7	2.4	7.1	4.3	4.3	19.0	4.7	4.0	10.7	9.9	17.4	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8.1	3.9	15.4	4.8	0.8	10.2	15.8	35.4	6.4	4.2	7.1	3.0	10.0	4.6	9.2	16.7	3.5	5.5	14.0	8.8	12.2	0.3
	조건부수급자	6.5	4.1	12.3	5.1	0.4	11.0	16.3	42.9	6.5	3.1	7.1	3.5	7.6	3.0	7.6	16.7	4.1	5.8	13.0	8.0	15.2	0.2
	자활특례자	9.8	4.6	17.6	3.3	0.7	13.1	10.5	29.4	11.1	5.2	5.2	3.3	5.9	3.3	8.5	22.2	6.5	5.2	13.7	7.8	12.4	0.7
	차상위자	6.6	5.0	17.0	6.9	0.6	12.1	15.6	32.9	6.3	4.9	8.3	4.4	10.1	5.2	7.5	15.6	3.8	7.3	11.6	8.0	10.2	.2
	사설수급자	3.6	3.6	7.1	0.0	0.0	17.9	10.7	60.7	0.0	3.6	10.7	7.1	0.0	0.0	3.6	7.1	7.1	7.1	17.9	7.1	25.0	0.0

〈표 IV-19〉 실제로 참여 가능한 사업단 업종(특성별)

(단위 : %)

특성		집수리	가사 서비스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도시락	음식점	카페·베이커리	세탁	세차	간병·돌봄 서비스	산모 도우미	원예·환경 정비	양곡 택배	일반 택배/배송	유통·판매	인쇄	식품 생산 가공	공산품 생산 가공	레저 산업	기타	2순위 없음
전체		7.3	5.9	23.0	5.5	1.6	11.1	16.3	27.8	8.2	5.6	7.8	2.7	6.8	4.9	10.3	17.3	3.2	6.0	13.6	4.5	8.0	0.7
성별	남성	14.5	2.3	26.3	9.1	1.9	8.1	11.6	14.2	9.1	9.2	3.1	.2	8.9	9.7	19.0	18.3	3.6	6.3	15.3	7.9	6.8	0.6
	여성	1.6	8.8	20.4	2.7	1.4	13.5	19.9	38.4	7.5	2.8	11.5	4.6	5.1	1.2	3.5	16.5	2.9	5.7	12.2	1.9	9.1	0.7
연령	29세 이하	4.7	2.1	23.1	2.7	2.5	8.4	20.5	47.1	7.3	6.6	4.3	1.1	4.4	3.6	7.6	18.2	7.7	5.2	9.2	2.5	10.1	1.3
	30세 이상 39세 이하	4.8	5.5	21.2	4.2	.8	11.5	18.2	43.2	7.7	6.0	8.2	3.3	5.7	4.7	7.8	20.7	6.8	7.3	17.3	5.0	12.2	0.8
	40세 이상 49세 이하	6.8	6.9	22.6	4.6	1.9	11.5	18.5	32.8	8.6	5.9	8.2	3.6	4.8	4.2	10.8	19.7	3.5	6.1	15.4	5.3	9.4	0.5
	50세 이상 59세 이하	7.5	6.2	22.8	5.7	1.2	12.2	15.2	22.2	8.2	5.6	8.6	2.5	8.2	5.6	11.6	16.6	1.9	4.7	13.3	4.7	7.0	0.5
	60세 이상	10.0	6.7	24.6	8.4	1.8	10.1	12.6	13.8	8.6	4.6	7.8	2.6	8.2	5.3	10.2	13.5	1.0	7.7	12.5	4.3	5.2	0.7
학력	무학	17.2	10.1	33.3	10.1	2.0	15.2	13.1	10.1	10.1	4.0	2.0	4.0	10.1	6.1	6.1	7.1	1.0	9.1	14.1	2.0	3.0	1.0
	초졸	9.0	6.1	32.5	10.2	1.7	10.0	14.8	10.9	9.5	7.3	5.8	2.2	8.5	3.4	7.8	7.8	1.9	6.8	12.6	2.4	6.3	0.5
	중졸	9.0	5.8	25.5	6.1	1.8	12.8	17.6	18.0	9.6	6.3	7.8	2.3	6.5	6.0	10.1	12.4	1.5	6.0	14.5	3.6	5.3	1.0
	고졸	7.0	5.8	22.7	4.8	1.5	11.3	16.3	31.3	7.9	5.6	7.9	2.5	6.0	4.7	10.7	18.5	3.3	5.1	13.5	4.4	7.3	0.8
	대졸	5.3	6.0	15.3	5.5	1.6	10.7	16.2	38.1	8.4	4.9	8.4	3.4	6.9	5.0	11.0	22.5	5.4	6.1	11.9	6.7	14.7	0.0
참여 기간	1년 미만	8.4	5.7	23.4	4.9	2.1	12.0	17.6	28.1	8.5	5.8	7.7	2.8	7.6	4.6	11.0	18.3	3.8	5.9	14.0	5.7	8.1	0.7
	1년 이상 3년 이하	7.3	5.5	22.6	5.2	1.5	10.9	16.3	28.7	7.0	5.5	6.7	2.5	5.9	5.2	10.8	17.2	3.2	5.1	13.2	4.5	7.7	0.9
	3년 초과	6.1	6.7	23.0	6.4	1.2	10.5	15.0	26.2	9.4	5.6	9.3	2.9	7.0	4.9	8.9	16.4	2.8	7.1	13.6	3.4	8.4	0.4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7.9	6.5	21.6	6.4	1.9	10.4	17.3	26.1	7.3	4.2	9.1	2.5	6.2	4.7	11.2	18.9	2.7	5.6	12.1	4.1	6.0	1.2
	45점 이상 59점 이하	7.4	6.5	24.8	5.5	1.7	11.0	14.9	22.6	8.5	6.3	7.2	3.0	7.1	4.9	10.0	15.1	2.8	6.8	14.1	4.3	7.8	0.6
	60점 이상 79점 이하	7.2	5.3	22.0	5.5	1.4	11.5	16.6	31.3	8.2	5.7	7.9	2.5	7.0	5.2	10.4	18.3	3.4	5.5	13.8	5.1	8.4	0.5
	80점 이상	5.5	5.1	22.1	2.4	1.2	11.1	21.7	43.5	10.3	4.7	6.3	3.2	4.0	3.6	7.5	18.6	7.1	5.1	12.3	2.8	14.2	1.2
수입 유형	일반수급자	7.6	5.4	22.8	5.4	1.7	10.2	16.0	26.4	7.6	5.6	6.9	2.6	6.5	5.5	10.8	17.5	3.1	5.7	13.8	4.5	7.1	0.6
	조건부수급자	6.5	6.8	22.2	5.2	1.6	12.1	17.6	32.1	9.3	5.2	9.2	3.2	6.8	3.8	9.6	17.4	3.9	5.8	13.8	4.4	10.5	0.6
	자활특례자	7.2	7.2	26.1	2.6	0.0	9.8	10.5	21.6	10.5	6.5	3.9	2.6	5.9	2.6	11.8	17.6	2.6	4.6	14.4	6.5	5.9	0.7
	차상위자	7.5	6.4	24.8	7.6	1.5	13.3	16.2	26.0	8.7	6.1	9.8	2.3	8.1	5.2	9.0	15.7	2.3	7.3	10.7	4.3	7.8	0.9
	시설수급자	7.1	10.7	17.9	0.0	3.6	25.0	17.9	46.4	3.6	14.3	21.4	3.6	14.3	0.0	7.1	10.7	10.7	25.0	28.6	7.1	7.1	3.6

〈표 IV-20〉 건강 및 조건 상관없이 희망하는 사업단 업종(1+2순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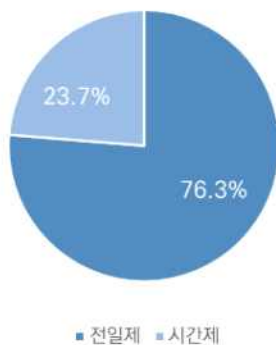
(단위 : %)

특성		집수리	가사 서비스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도시락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세탁	세차	간병· 돌봄 서비스	산모 도우미	원예· 환경 정비	양곡 택배	일반 택배/ 배송	유통 · 판매	인쇄	식품 생산 가공	공산품 생산 가공	레저 산업	기타	2순위 없음
성별	전체	7.4	4.6	16.2	5.0	0.8	10.6	16.8	36.3	6.4	4.3	7.6	3.0	8.7	4.3	9.1	18.0	3.2	5.5	12.6	8.9	8.9	1.7
	남성	14.3	1.9	19.3	7.6	1.0	8.1	12.0	17.9	7.4	7.0	3.2	0.2	9.5	8.6	16.6	18.9	3.5	6.4	14.5	12.8	7.7	1.7
	여성	2.0	6.6	13.8	3.0	0.7	12.5	20.6	50.7	5.6	2.1	11.1	5.2	8.2	0.9	3.1	17.3	3.0	4.9	11.1	5.9	9.8	1.8
연령	29세 이하	5.1	0.8	11.2	2.1	0.8	7.0	23.9	58.9	3.9	5.7	5.1	2.7	7.9	2.2	5.8	16.6	6.6	4.4	7.3	5.8	14.1	2.2
	30세 이상 39세 이하	3.0	2.8	11.8	4.3	0.7	8.7	16.2	48.7	4.0	3.5	7.3	2.8	4.2	3.8	7.2	18.5	5.8	5.8	15.2	9.3	14.3	2.0
	40세 이상 49세 이하	6.9	4.3	14.8	4.0	1.0	9.5	18.1	43.1	6.2	4.3	7.2	3.6	5.0	3.3	7.8	18.3	3.3	4.9	14.2	9.5	9.2	1.2
	50세 이상 59세 이하	8.7	5.1	16.7	5.1	0.4	12.2	15.1	30.9	6.3	3.9	8.3	2.9	10.7	5.0	10.9	19.6	2.3	5.0	12.2	9.9	6.9	1.7
	60세 이상	9.4	6.7	21.8	7.9	1.2	12.0	15.1	19.9	9.2	4.3	8.5	2.8	12.2	5.4	9.9	15.5	1.5	7.7	12.9	7.9	6.3	1.9
학력	무학	13.1	8.1	29.3	9.1	1.0	11.1	17.2	16.2	9.1	3.0	6.1	4.0	12.1	8.1	10.1	6.1	1.0	11.1	14.1	3.0	4.0	3.0
	초졸	12.9	7.0	30.6	9.5	1.0	12.9	17.5	13.1	10.2	6.3	8.5	3.4	9.5	4.1	8.3	10.4	1.5	8.3	12.9	3.4	7.3	1.7
	중졸	9.5	5.3	21.2	6.8	1.0	12.9	19.4	25.7	9.0	4.3	6.8	2.1	8.9	7.0	9.9	13.9	1.9	5.5	14.6	6.3	5.9	2.4
	고졸	6.7	4.4	15.0	4.5	0.7	10.2	16.9	40.3	6.1	4.4	7.7	3.1	7.7	3.9	9.3	19.5	3.1	4.7	11.9	9.5	8.4	1.8
	대졸	4.8	3.0	7.6	3.3	0.5	9.3	15.7	48.4	4.5	3.0	6.9	2.6	9.5	3.0	7.7	20.8	6.1	4.6	10.7	12.2	14.8	1.3
참여 기간	1년 미만	8.9	3.6	16.3	4.7	0.8	10.3	16.9	36.5	6.2	3.9	6.8	2.8	9.1	4.1	8.9	19.3	3.6	4.4	11.4	10.1	9.5	1.9
	1년 이상 3년 이하	7.3	4.5	15.7	4.9	0.6	10.8	17.3	37.2	5.2	4.1	7.3	3.0	8.3	4.5	9.8	18.0	3.3	5.8	12.2	9.2	9.1	1.8
	3년 초과	6.0	5.6	16.9	5.5	1.0	10.7	16.2	35.0	8.0	4.8	9.0	3.2	9.0	4.2	8.3	16.6	2.7	6.4	14.2	7.3	7.9	1.6
자활량 점수	45점 미만	8.3	4.9	17.7	5.7	1.1	11.0	17.1	34.5	6.4	2.8	8.9	3.2	8.0	4.0	10.3	18.8	3.0	5.1	9.6	8.8	9.0	1.5
	45점 이상 59점 이하	8.1	6.2	17.8	5.1	0.8	10.5	15.7	32.1	7.0	4.8	7.9	3.1	10.3	4.7	8.5	16.3	2.8	6.6	13.9	8.0	8.2	1.8
	60점 이상 79점 이하	6.6	3.2	14.7	4.9	0.7	10.7	17.6	39.2	5.9	4.4	7.1	2.9	7.9	4.2	9.5	18.9	3.3	5.1	12.7	9.7	9.0	1.8
	80점 이상	5.9	2.0	12.3	2.8	0.8	8.3	18.6	50.6	6.3	4.3	5.5	2.4	6.3	3.2	4.7	20.2	5.9	3.2	12.3	9.5	13.0	2.0
수요형	일반수급자	7.8	4.6	16.3	5.1	0.6	10.3	16.9	34.5	6.4	4.6	7.3	3.1	9.3	4.8	9.7	18.4	3.0	5.2	12.9	9.5	8.1	1.8
	조건부수급자	6.8	4.2	13.9	4.7	1.0	11.1	17.6	42.5	6.5	3.4	7.9	2.8	7.3	3.3	7.5	18.0	3.4	5.6	11.9	8.1	11.0	1.6
	자활특례자	9.8	3.9	19.6	3.9	0.0	9.8	13.1	30.7	7.8	4.6	6.5	2.0	7.8	2.0	11.8	19.6	2.6	6.5	17.6	9.2	9.2	2.0
	차상위자	6.7	5.0	20.6	6.3	1.2	10.9	16.1	32.7	5.7	4.6	9.3	3.4	9.3	4.4	8.9	16.1	4.0	6.7	10.6	7.8	8.1	1.7
	시설수급자	3.6	3.6	10.7	0.0	3.6	17.9	10.7	53.6	3.6	3.6	7.1	3.6	7.1	3.6	0.0	3.6	3.6	14.3	21.4	10.7	10.7	3.6

(2) 원하는 자활 근로형태 및 시간제 근로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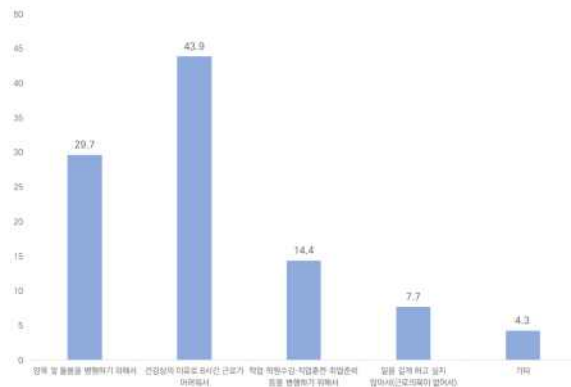
참여자가 자활사업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비율은 23.7%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근로가 어려워서가 43.9%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양육 및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서(29.7%), 3위는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자활역량점수가 45점 미만(25.7%),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33.8%)인 경우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 또한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근로가 어려워서가 1위였으나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44.8%),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41.2%)의 경우에는 1위가 양육 및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V-25] 원하는 자활 근로형태



[그림 IV-26] 시간제 근로 선택 이유(종합)

(단위 : %)



〈표 IV-21〉 원하는 자활 근로형태 및 시간제 근로 선택 이유(특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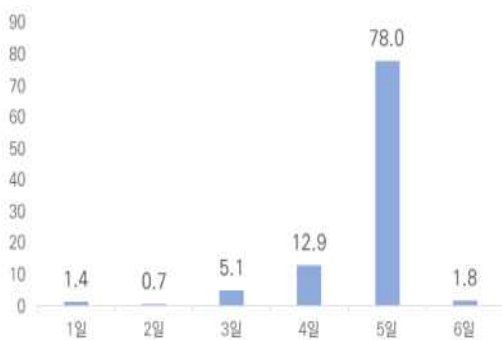
특성		원하는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근로 선택 이유				
		전일제	시간제	양육 및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근로가 어려워서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	일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근로 의욕이 없어서)	기타
전체		76.3	23.7	29.7	43.9	14.4	7.7	4.3
성별	남성	83.4	16.6	12.0	47.6	20.8	13.4	6.2
	여성	70.7	29.3	37.6	42.3	11.6	5.2	3.4
연령	29세 이하	82.1	17.9	27.4	17.7	31.0	15.0	8.8
	30세 이상 39세 이하	69.8	30.2	59.1	13.3	21.0	5.0	1.7
	40세 이상 49세 이하	71.1	28.9	48.8	29.0	12.9	6.2	3.2
	50세 이상 59세 이하	77.7	22.3	14.3	62.1	12.7	7.6	3.3
	60세 이상	79.6	20.4	8.2	68.0	7.4	9.0	7.4
학력	무학	74.7	25.3	8.0	76.0	8.0	4.0	4.0
	초졸	83.5	16.5	8.8	67.6	5.9	11.8	5.9
	중졸	77.7	22.3	22.5	54.5	10.1	8.4	4.5
	고졸	75.2	24.8	30.8	42.0	15.0	8.1	4.1
	대졸	76.7	23.3	30.0	32.0	27.1	6.4	4.4
참여 기간	1년 미만	72.8	27.2	29.8	40.6	16.1	8.0	5.5
	1년 이상 3년 이하	76.3	23.7	30.7	43.0	14.8	8.6	2.9
	3년 초과	79.8	20.2	28.2	49.7	11.5	6.1	4.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74.3	25.7	22.0	52.8	11.8	7.5	5.9
	45점 이상 59점 이하	77.7	22.3	28.8	45.8	13.2	9.2	3.0
	60점 이상 79점 이하	75.8	24.2	32.3	40.1	16.2	6.7	4.7
	80점 이상	77.1	22.9	44.8	27.6	17.2	6.9	3.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78.7	21.3	23.9	47.2	14.3	9.3	5.3
	조건부수급자	66.2	33.8	41.2	38.6	12.2	5.3	2.7
	자활특례자	82.4	17.6	18.5	51.9	22.2	7.4	0.0
	차상위자	84.6	15.4	15.8	46.5	22.8	8.9	5.9
	시설수급자	75.0	25.0	71.4	0.0	28.6	0.0	0.0

(3)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참여자가 자활사업의 형태를 시간제 일자리로 원할 경우, 이들이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는 평균 4.71일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하루 근로시간은 평균 5.37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주당 근로일수는 참여기간이 1년 이상(4.70일),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4.64일), 수급유형 일반수급자(4.69일)가 가장 짧은 근로일수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참여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5.33시간), 자활역량점수 45점 이상 59점 이하(5.33시간), 수급유형 시설수급자(4.86시간)로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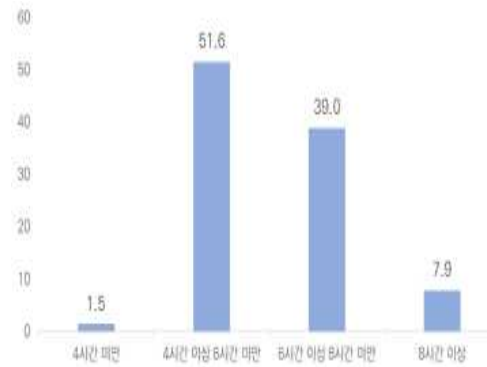
[그림 IV-27] 원하는 근로일수

(단위: %)



[그림 IV-28] 원하는 근로시간

(단위: %)



〈표 IV-22〉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특성별)

(단위 : %, 일,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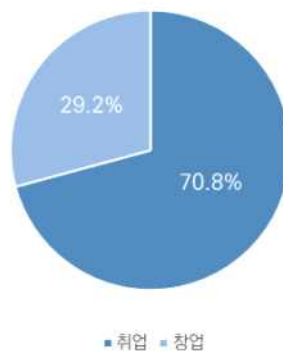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						원하는 일간 근로시간					
		평균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평균 (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전체		4.71	1.4	0.7	5.1	12.9	78.0	1.8	5.37	1.5	51.6	39.0	7.9
성별	남성	4.64	2.2	0.7	6.2	15.6	72.5	2.9	5.66	1.7	40.0	45.9	12.4
	여성	4.74	1.1	0.6	4.7	11.8	80.5	1.4	5.24	1.4	56.8	35.9	5.9
연령	29세 이하	4.74	0.0	0.0	2.7	23.0	71.7	2.7	6.03	1.8	37.2	38.9	22.1
	30세 이상 39세 이하	4.69	1.7	1.1	6.1	11.0	78.5	1.7	5.12	2.2	61.9	25.4	10.5
	40세 이상 49세 이하	4.79	0.8	0.8	4.6	9.4	81.2	3.2	5.25	1.9	55.0	36.2	7.0
	50세 이상 59세 이하	4.69	1.3	0.2	5.8	13.4	78.8	0.4	5.44	1.3	46.3	47.2	5.1
	60세 이상	4.62	2.9	1.2	5.3	14.3	74.2	2.0	5.32	0.4	55.3	38.1	6.1
학력	무학	4.60	0.0	4.0	8.0	12.0	76.0	0.0	5.16	0.0	60.0	32.0	8.0
	초졸	4.68	1.5	1.5	4.4	14.7	76.5	1.5	5.26	2.9	57.4	33.8	5.9
	중졸	4.62	3.4	0.0	6.2	13.5	75.8	1.1	5.54	1.7	44.9	46.1	7.3
	고졸	4.73	1.4	0.7	4.3	12.6	79.1	1.9	5.40	0.8	51.1	40.1	8.0
	대졸	4.75	0.0	0.0	6.4	14.3	77.3	2.0	5.40	2.5	50.2	38.4	8.9
참여 기간	1년 미만	4.73	1.4	0.4	4.9	12.2	79.4	1.6	5.40	1.6	52.0	37.1	9.2
	1년 이상 3년 이하	4.70	1.4	1.0	4.9	13.1	78.1	1.6	5.33	1.2	52.9	38.3	7.6
	3년 초과	4.70	1.4	0.6	5.9	13.7	76.0	2.5	5.41	1.7	49.2	42.5	6.7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67	0.4	1.6	7.1	13.8	75.6	1.6	5.45	2.0	47.2	43.3	7.5
	45점 이상 59점 이하	4.64	1.9	0.6	6.4	14.1	76.1	0.9	5.33	1.5	52.0	39.2	7.2
	60점 이상 79점 이하	4.78	1.4	0.2	3.5	11.6	80.5	2.9	5.36	1.4	53.0	37.3	8.3
	80점 이상	4.67	1.7	1.7	3.4	13.8	79.3	0.0	5.45	0.0	53.4	34.5	12.1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69	1.8	0.8	4.6	14.1	76.6	2.0	5.49	1.9	47.1	42.4	8.6
	조건부수급자	4.73	1.0	0.4	4.9	12.0	81.0	0.6	5.09	1.2	61.4	31.6	5.7
	자활특례자	4.74	0.0	0.0	7.4	14.8	74.1	3.7	5.78	0.0	40.7	48.1	11.1
	차상위자	4.72	1.0	1.0	9.9	6.9	75.2	5.9	5.82	0.0	37.6	49.5	12.9
	시설수급자	4.71	0.0	0.0	0.0	28.6	71.4	0.0	4.86	0.0	85.7	0.0	14.3

2) 자활근로 종료 이후 취·창업 관련 요구

(1) 자활근로 종료 이후 취·창업 중 원하는 일 유형

자활사업 종료 후 취·창업 중 원하는 일 유형으로는 취업 70.8%, 창업 29.2%로 대부분 창업보다는 취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특성 별로는 참여기간이 1년 이상~3년 이하(31.9%),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31.2%), 수급유형 일반수급자(30.0%)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V-29] 취·창업 중 원하는 일 유형



〈표 IV-23〉 취·창업 중 원하는 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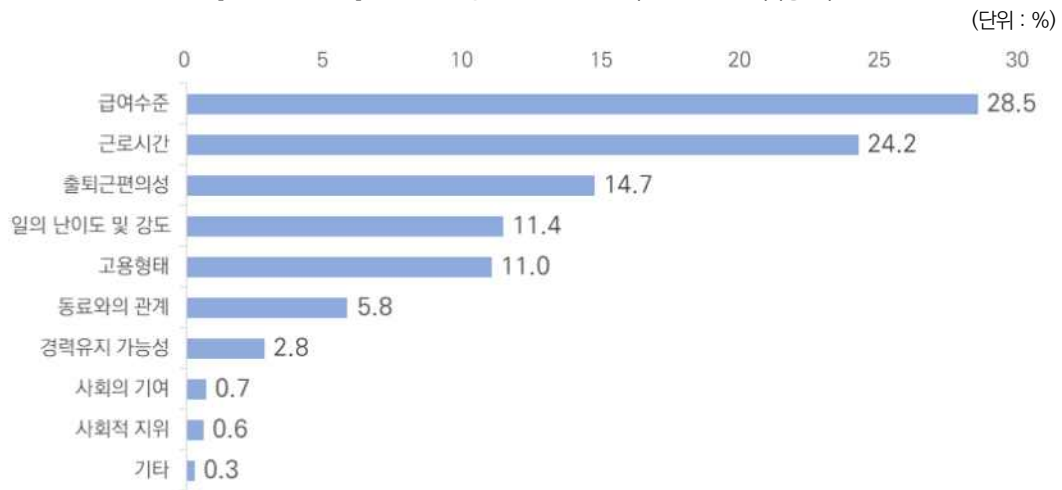
(단위 : %)

특성		취업	창업
전체		70.8	29.2
성별	남성	68.6	31.4
	여성	72.6	27.4
연령	29세 이하	81.7	18.3
	30세 이상 39세 이하	72.5	27.5
	40세 이상 49세 이하	67.9	32.1
	50세 이상 59세 이하	68.2	31.8
	60세 이상	71.9	28.1
학력	무학	80.8	19.2
	초졸	76.5	23.5
	중졸	73.2	26.8
	고졸	70.0	30.0
	대졸	66.9	33.1
	대졸	62.0	28.0
참여기간	1년 미만	71.3	28.7
	1년 이상-3년 이하	68.1	31.9
	3년 초과	73.8	26.2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69.8	30.2
	45점 이상-59점 이하	70.8	29.2
	60점 이상-79점 이하	71.5	28.5
	80점 이상	68.8	31.2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70.0	30.0
	조건부수급자	72.0	28.0
	자활특례자	74.5	25.5
	차상위자	70.9	29.1
	시설수급자	89.3	10.7

(2) 취업 희망시 고려 조건

자활사업 종료 후 취업 희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 1, 2, 3순위를 종합한 결과 종합 1위는 급여수준(28.5%), 2위는 근로시간(24.2%), 3위는 출퇴근 편의성(14.7%), 4위는 일의 난이도 및 강도(1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특성별에서도 모든 유형이 급여수준이 1위로 취업 희망 시 가장 고려하는 조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30] 취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종합)



〈표 IV-24〉 취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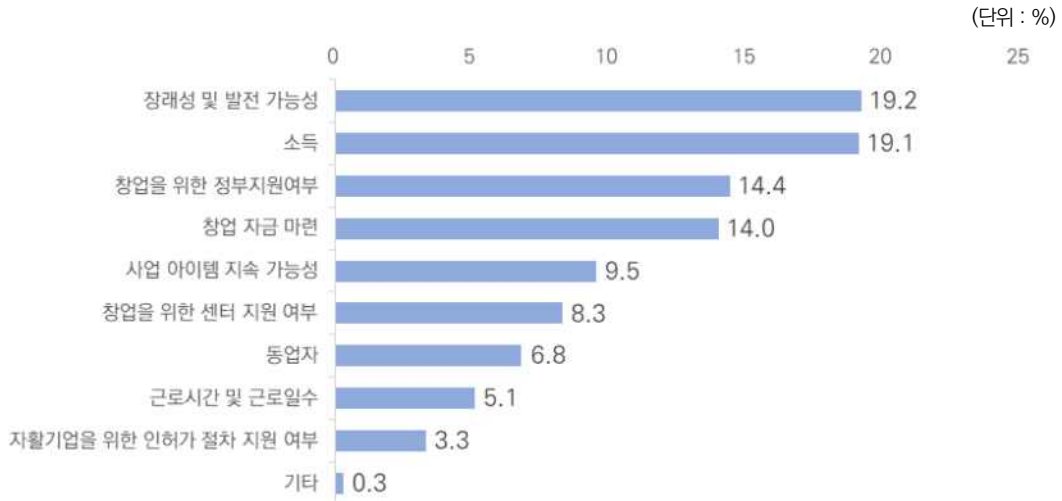
(단위 : %)

특성		급여 수준	근로 시간	고용 형태	경력 유지 가능성	출퇴근 편의성	일의 난이도 및 강도	동료와의 관계	사회적 지위	사회의 기여	기타
전체		28.5	24.2	11.0	2.8	14.7	11.4	5.8	0.6	0.7	0.3
성별	남성	28.4	23.1	12.7	3.4	12.7	11.9	6.0	0.6	0.9	0.3
	여성	28.6	25.0	9.7	2.3	16.2	11.0	5.7	0.6	0.6	0.3
연령	29세 이하	27.7	22.1	11.8	4.5	16.9	9.8	5.3	0.7	0.6	0.5
	30세 이상 39세 이하	26.7	24.6	11.6	3.1	16.3	9.9	5.6	1.1	0.7	0.3
	40세 이상 49세 이하	29.1	25.1	11.4	2.6	16.2	9.5	5.2	0.5	0.3	0.1
	50세 이상 59세 이하	28.5	23.5	10.9	2.6	13.7	12.8	6.3	0.6	0.8	0.2
	60세 이상	29.2	25.2	9.9	2.1	13.0	12.4	6.1	0.5	1.0	0.5
학력	무학	32.2	25.8	8.3	0.0	13.5	10.3	7.9	0.0	1.2	0.9
	초졸	29.8	24.2	9.5	1.9	14.2	11.9	7.1	0.7	0.4	0.3
	중졸	28.5	25.5	9.7	2.7	13.2	10.9	7.3	0.5	0.9	0.8
	고졸	28.4	24.1	11.2	2.7	15.3	11.3	5.7	0.6	0.6	0.2
	대졸	28.5	23.8	13.5	4.0	13.3	10.2	4.4	0.8	1.1	0.4
참여 기간	1년 미만	28.4	24.1	10.6	3.2	14.3	12.0	5.8	0.6	0.7	0.4
	1년 이상 3년 이하	28.7	24.0	11.9	2.3	15.1	11.1	5.6	0.6	0.6	0.3
	3년 초과	28.5	24.5	10.6	2.9	14.8	10.9	6.0	0.7	0.8	0.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9.5	24.7	10.9	2.5	13.4	12.1	5.2	0.6	0.7	0.5
	45점 이상 59점 이하	28.8	23.9	10.5	2.5	14.9	11.4	6.1	0.7	1.0	0.2
	60점 이상 79점 이하	27.9	24.5	11.4	3.0	14.9	11.2	5.9	0.5	0.5	0.3
	80점 이상	28.5	21.9	10.9	4.5	16.9	9.5	5.8	1.2	0.2	0.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8.3	24.0	11.3	2.6	14.3	11.6	6.0	0.6	0.9	0.3
	조건부수급자	28.6	24.6	10.0	2.8	16.1	11.1	5.4	0.7	0.5	0.3
	자활특례자	28.2	24.5	12.0	2.8	12.4	10.6	8.4	0.6	0.0	0.6
	차상위자	29.2	23.7	11.1	3.7	14.6	11.0	5.1	0.5	0.6	0.5
	시설수급자	29.6	26.9	15.4	2.9	12.1	6.7	5.1	1.3	0.0	0.0

(3) 창업 시 고려사항(1, 2, 3 순위 종합)

자활사업 종료 후 창업을 희망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 1위는 장래성 및 발전 가능성(19.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위는 소득(19.1%), 3위는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여부(14.4%), 4위 창업 자금 마련(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 특성별 또한 대부분 유형에서 1위가 장래 및 발전 가능성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자활참여기간 3년 초과(19.6%)의 경우 1위가 소득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활역량 45점 이상 59점 이하(20.7%),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18.8%), 차상위자(20.2%), 시설수급자(22.8%)의 경우 1위가 소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V-31] 창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종합)



〈표 IV-25〉 창업 희망시 고려 조건(1+2+3순위)(특성별)

(단위 : %)

특성		장래성 및 발전 가능성	동업자	소득	근로 시간 및 근로 일수	창업 자금 마련	사업 아이템 지속 가능성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여부	자활 기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지원 여부	창업을 위한 센터 지원 여부	기타
전체		19.2	6.8	19.1	5.1	14.0	9.5	14.4	3.3	8.3	0.3
성별	남성	21.0	6.8	18.7	4.1	13.5	10.4	13.8	3.5	7.9	0.4
	여성	17.6	6.7	19.5	6.0	14.4	8.8	14.9	3.2	8.7	0.3
연령	29세 이하	17.8	8.4	21.1	8.9	11.7	10.4	12.5	2.0	6.2	0.9
	30세 이상 39세 이하	18.6	4.6	20.1	5.7	11.9	10.1	15.8	3.5	9.0	0.7
	40세 이상 49세 이하	19.5	6.4	18.1	5.9	14.4	8.4	14.8	3.8	8.3	0.3
	50세 이상 59세 이하	19.8	7.4	19.0	4.0	14.2	9.6	14.3	2.8	8.8	0.2
	60세 이상	18.3	6.4	19.5	5.0	14.7	10.1	14.0	4.1	7.7	0.2
학력	무학	16.6	12.3	33.3	16.7	3.5	12.7	4.8	0.0	0.0	0.0
	초졸	18.8	7.0	21.1	5.6	15.8	9.3	13.5	3.5	5.3	0.0
	중졸	16.5	8.5	18.9	7.0	14.7	7.9	14.4	5.2	6.8	0.0
	고졸	19.6	6.7	18.6	4.8	14.2	9.5	14.7	2.6	8.8	0.5
	대졸	20.2	6.3	17.9	4.0	13.2	10.1	15.0	3.8	9.1	0.3
참여 기간	1년 미만	19.2	6.1	18.7	4.3	15.1	10.1	14.5	3.0	8.5	0.5
	1년 이상 3년 이하	19.8	7.1	19.1	5.3	13.8	8.7	14.6	2.9	8.4	0.3
	3년 초과	18.3	7.1	19.6	5.9	12.9	9.8	14.0	4.3	7.9	0.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18.3	7.6	18.0	5.2	14.1	9.4	14.7	3.6	8.6	0.5
	45점 이상 59점 이하	19.7	5.9	20.7	5.2	13.4	9.0	14.5	3.5	7.6	0.5
	60점 이상 79점 이하	19.0	7.4	18.3	5.4	14.4	9.6	13.8	3.1	8.8	0.2
	80점 이상	19.8	4.9	18.5	2.2	14.0	13.1	16.2	3.1	8.2	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19.4	7.0	19.1	5.1	13.4	9.6	14.2	3.6	8.6	0.2
	조건부수급자	18.5	6.1	18.8	5.8	15.2	8.6	15.3	3.3	7.9	0.7
	자활특례자	23.0	3.7	19.0	3.3	12.3	12.5	15.6	1.7	9.0	0.0
	차상위자	19.0	7.8	20.2	4.0	15.1	10.4	13.2	2.5	7.5	0.4
	시설수급자	10.5	10.5	22.8	0.0	10.5	11.0	11.8	11.0	11.8	0.0



심층분석 :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의 변화

1. 분석방법
2. 일반적 특성
3.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변화율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변화율

V

심층분석 : <<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의 변화

1. 분석방법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모두 응답한 응답자 978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 점수의 전체 평균이 2022년 대비 2023년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 (paired-sample t-test)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별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 점수 변화율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 자활사업 진입 당시 최종학력, 자활사업 진입 당시 자활역량점수, 자활사업 진입 당시 수급유형, 총 자활사업 참여기간, 현재 사업단 유형, 현재 자활사업유형별로 자활효과 변화율⁷⁾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2. 일반적 특성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모두에 응답한 응답자는 총 978명으로 이 중 남성은 40.2%, 여성 59.8%로 남성 응답자보다 여성 응답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50대가 59.3%로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6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17.1%,

7) 자활효과 변화율은 (2023년 자활효과 점수-2022년 자활효과 점수)/2022년 자활효과 점수로 계산함

29세 이하 12.5%, 30대 11.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 졸업 이상(17.7%), 중학교 졸업이 12.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활역량점수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60점 이상 79점 이하 구간에 속하는 응답자가 4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5점 이상 59점 이하가 32.3%, 45점 미만 12.7%, 80점 이상 7.3% 순으로 많았다. 수급유형은 조건부수급자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수급자(31.2%), 자활특례자(13.4%), 차상위(13.1%) 순으로 확인되었다. 총 사업참여기간을 살펴보면 3년 초과 참여자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 3년 이하가 48.1%, 1년 미만 참여자⁸⁾가 1.3% 순으로 확인되었다. 사업단 유형은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5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장진입형 36.0%, 시간제 사업단 3.8%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센터 유형은 도시형 센터 참여자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농복합형 17.3%, 농촌형 12.4% 순으로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8) 2022년 자활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실태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 중 총 자활사업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가 존재하는 것은 2022년 자활실태조사 참여 이후 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하였다가 중간에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2023년 자활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임

〈표 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특성		사례수(%)
전체		978(100.0)
성별	남성	393(40.2)
	여성	585(59.8)
연령	29세 이하	122(12.5)
	30세 이상 39세 이하	109(11.2)
	40세 이상 49세 이하	238(24.3)
	50세 이상 59세 이하	342(35.0)
	60세 이상	167(17.1)
학력	무학	16(1.8)
	초졸	54(6.2)
	중졸	110(12.7)
	고졸	535(61.6)
	대졸	154(17.7)
자활역량점수	45점 미만	124(12.7)
	45점 이상 59점 이하	316(32.3)
	60점 이상 79점 이하	467(47.8)
	80점 이상	71(7.3)
수급유형	일반수급자	305(31.2)
	조건부수급자	414(42.3)
	자활특례자	131(13.4)
	차상위	128(13.1)
참여기간	1년 미만	13(1.3)
	1년 이상 3년 이하	470(48.1)
	3년 초과	495(50.6)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7(0.7)
	인턴 및 도우미형	30(3.1)
	사회서비스형	552(56.4)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52(36.0)
	시간제 사업단	37(3.8)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688(70.4)
	도농복합	169(17.3)
	농촌형	121(12.4)

3.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변화율⁹⁾

1) 경제적 자활 변화율

전반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의 사전-사후 집단평균 비교 결과, 2022년도에 비해 2023년 경제적 자활 평균 점수가 0.06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인별 경제적 자활 변화율은 0.02로 2022년에 비해 경제적 자활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 간의 경제적 자활의 간극이 크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V-2〉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경제적 자활	3.11(0.83)	3.05(0.82)	-0.06	2.57*
경제적자활_자율성과 자기결정	3.33(0.86)	3.23(0.86)	-0.10	3.56***
경제적자활_재정적 안정과 책임	3.07(1.02)	3.01(1.00)	-0.06	1.76
경제적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	3.31(1.00)	3.27(0.99)	-0.04	1.34
경제적자활_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2.75(0.91)	2.71(0.88)	-0.04	1.21

*p<0.05, **p<0.01, ***p<0.001

더 명확한 확인을 위해 개인별 변화율의 각 집단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경제적 자활 변화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적 자활 변화율은 0.03, 여성의 변화율은 0.01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제적 자활 변화율이 더 큰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변화율이 0.05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29세 이하와 50대의 변화율이 각각 0.02, 30대 0.01, 40대 0.00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으나 연령대별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경제적 자활 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졸업 집단의 변화율은 0.12로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며 무학의 경제적 자활 변화율은 -0.07로 다른 집

9) 경제적 자활 항목 중 '빛을 갠을 여유가 있다'라는 항목과 '아이를 보내고 싶은 교육활동에 보낼 여유가 있다'라는 항목은 각각 빛이 없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비해당으로 제외된다. 심층분석의 경우 배해당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많아 이 분석에서는 두 항목을 제외하고 경제적 자활 점수를 계산하였음

단의 경제적 자활 점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활역량점수별로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45점 미만의 비교적 자활역량점수가 낮은 집단의 경우 경제적 자활 변화율이 -0.02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경제적 자활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80점 이상의 변화율은 0.05로 다른 점수집단에 비해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수급유형별로는 차상위의 변화율이 0.0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활 특례자(0.03),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0.01)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으나 이러한 변화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참여기간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의 변화율은 0.12로 1년~3년 이하(0.01)와 3년 초과(0.02)의 변화율에 비해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사업단 유형별 경제적 자활 변화율은 게이트웨이와 시간제 사업단 참여 응답자가 각각 -0.11, -0.04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경제적 자활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보였으며 인턴 및 도우미형의 경제적 자활 변화율은 0.06, 사회서비스형 0.03, 시장진입형 0.00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참여센터 유형별 경제적 자활 변화율은 농촌형 0.04, 도농복합 0.03, 도시형 0.01로 참여센터 유형별 변화율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2(0.30)	-0.77/2.58	-
성별	남성	0.03(0.30)	-0.77/2.17	1.26
	여성	0.01(0.30)	-0.59/2.58	
연령	29세 이하	0.02(0.27)	-0.68/1.45	0.84
	30세 이상 39세 이하	0.01(0.35)	-0.46/2.58	
	40세 이상 49세 이하	0.00(0.31)	-0.59/2.17	
	50세 이상 59세 이하	0.02(0.29)	-0.77/1.83	
	60세 이상	0.05(0.30)	-0.46/1.25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학력	무학	-0.07(0.22)	-0.40/0.41	2.13
	초졸	0.12(0.30)	-0.53/1.25	
	중졸	0.02(0.29)	-0.55/1.00	
	고졸	0.01(0.31)	-0.77/2.58	
	대졸	0.01(0.25)	-0.45/1.4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2(0.26)	-0.68/0.80	0.94
	45점 이상 59점 이하	0.03(0.34)	-0.55/2.58	
	60점 이상 79점 이하	0.02(0.27)	-0.72/1.83	
	80점 이상	0.05(0.36)	-0.77/1.61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1(0.26)	-0.72/1.45	1.32
	조건부수급자	0.01(0.29)	-0.77/2.17	
	자활특례자	0.03(0.30)	-0.52/1.69	
	차상위	0.06(0.40)	-0.68/2.58	
참여 기간	1년 미만	0.12(0.25)	-0.25/0.73	0.81
	1년 이상 3년 이하	0.02(0.28)	-0.77/2.17	
	3년 초과	0.02(0.32)	-0.72/2.58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11(0.14)	-0.26/0.09	1.35
	인턴 및 도우미형	0.06(0.33)	-0.41/1.45	
	사회서비스형	0.03(0.33)	-0.72/2.58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0(0.25)	-0.77/1.69	
	시간제 사업단	-0.04(0.22)	-0.55/0.58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1(0.28)	-0.77/2.17	0.74
	도농복합	0.03(0.31)	-0.72/1.83	
	농촌형	0.04(0.39)	-0.68/2.58	

*p<0.05, **p<0.01, ***p<0.001

(1) 경제적 자활_자율성과 자기결정 변화율

2022년,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하위 항목인 자율성과 자기결정 평균 점수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 결과, 2022년도에 비해 2023년 전체 응답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 평균 점수는 -0.1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응답자 전체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의 변화율은 0.01로 경제적 자율성과 자기결정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V-4〉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자율성과 자기결정 점수 변화

Mean(S.D.), (단위: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경제적자활_자율성과 자기결정	3.33(0.86)	3.23(0.86)	-0.10	3.56***

*p<0.05, **p<0.01, ***p<0.001

집단별 자율성과 자기결정 점수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자율성과 자기결정 점수의 변화율은 남성 0.03, 여성 0.00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에 따라 변화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변화율이 0.05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30대(0.02), 50대(0.01)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으며 29세 이하(-0.00)와 40대(-0.01)의 경우 자율성과 자기결정 수준이 미약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대별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학력별 자율성과 자기결정 변화율을 확인해보면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변화율이 0.13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0.02,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 0.01로 확인되었으며 무학의 경우에는 변화율이 -0.10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경제적인 자율성과 자기결정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력별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자활역량점수에 따른 변화율은 45점 미만에서는 변화율이 -0.03으로 자율성과 자기결정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45~59점 이하와 60~79점 이하의 변화율이 각각 0.02, 80점 이상의 변화율 0.00으로 자활역량점수별 변화율 수준은 유사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수급유형별로는 차상위의 변화율이 0.07로 다른 수급유형(일반수급자 -0.00, 조건부수급자 0.01, 자활특례자 0.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참여기간에 따라서는 1년 미만 참여자의 변화율이 0.12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초과 0.02, 1~3년 이하 0.01 순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인턴 및 도우미형(0.05), 사회서비스형(0.02)에서만 자율성과 자기결정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변화율이 -0.08로 다른 유형에 비해 자율성과 자기결정 수준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여센터 유형에 따른 변화율은 도농복합형 0.04, 농촌형 0.03, 도시형 0.01로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V-5〉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자율성과 자기결정 변화율

(단위: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1(0.33)	-0.78/3.25	-
성별	남성	0.03(0.35)	-0.78/2.50	1.39
	여성	0.00(0.32)	-0.75/3.25	
연령	29세 이하	-0.00(0.28)	-0.70/1.43	0.89
	30-39세	0.02(0.41)	-0.50/3.25	
	40-49세	-0.01(0.33)	-0.75/2.50	
	50-59세	0.01(0.32)	-0.78/2.25	
	60세 이상	0.05(0.34)	-0.53/1.75	
학력 (N=869)	무학	-0.10(0.21)	-0.50/0.25	2.10
	초졸	0.13(0.33)	-0.55/1.40	
	중졸	0.02(0.33)	-0.53/1.60	
	고졸	0.01(0.35)	-0.78/3.25	
	대졸	0.01(0.27)	-0.53/1.4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3(0.31)	-0.70/1.75	0.90
	45점 이상 59점 이하	0.02(0.38)	-0.61/3.25	
	60점 이상 79점 이하	0.02(0.30)	-0.78/2.25	
	80점 이상	0.00(0.35)	-0.78/1.5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0(0.29)	-0.78/1.43	1.55
	조건부수급자	0.01(0.32)	-0.78/2.50	
	자활특례자	0.02(0.32)	-0.59/1.60	
	차상위	0.07(0.45)	-0.70/3.25	
참여 기간	1년 미만	0.12(0.26)	-0.20/0.71	0.73
	1년 이상 3년 이하	0.01(0.31)	-0.78/2.50	
	3년 초과	0.02(0.36)	-0.78/3.25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8(0.20)	-0.33/0.25	0.57
	인턴 및 도우미형	0.05(0.36)	-0.56/1.43	
	사회서비스형	0.02(0.37)	-0.78/3.25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0(0.27)	-0.78/1.40	
	시간제 사업단	-0.00(0.26)	-0.50/0.67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1(0.31)	-0.78/2.50	0.83
	도농복합	0.04(0.33)	-0.78/2.25	
	농촌형	0.03(0.43)	-0.70/3.25	

*p<0.05, **p<0.01, ***p<0.001

(2) 경제적 자활_재정적 안정과 책임¹⁰⁾ 변화율

경제적 자활 중 재정적 안정과 책임 수준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재정적 안정과 책임 평균 점수는 2022년도 3.07점, 2023년 3.01점으로 0.06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유의한 수준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 응답자 개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책임 점수의 평균 변화율은 0.06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재정적 안정과 책임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6〉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경제적자활_재정적 안정과 책임	3.07(1.02)	3.01(1.00)	-0.06	1.76

*p<0.05, **p<0.01, ***p<0.001

남성과 여성의 재정적 안정과 책임 변화율 모두 0.06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집단의 변화율이 0.11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50대(0.06), 29세 이하와 40대(0.05)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변화율이 -0.01로 재정적 안정과 책임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집단 간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

10) 경제적 자활의 재정적 안정과 책임을 측정하는 항목 중 '빚을 갚을 여유가 있다'라는 항목은 빚이 없는 경우는 비해당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재정적 안정과 책임 점수를 계산하였음

력에 따라 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의 변화율이 0.06으로 가장 변화율이 컸으며, 초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의 변화율이 0.02로 뒤를 이었다. 무학의 경우 변화율이 -0.00으로 확인되었으나 학력 집단별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자활역량점수별 재정적 안정과 책임 변화율은 80점 이상이 0.1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5~59점 이하(0.07), 60~79점 이하(0.04), 45점 미만(0.02) 순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수급유형별 변화율은 자활특례자 0.08, 차상위와 조건부수급자 0.06, 일반수급자 0.04로 수급유형별 변화율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기간에 따른 변화율은 1년 미만의 변화율이 0.08, 1~3년 이하 0.05, 3년 초과 0.06으로 참여기간별 변화율이 유사하였다.

사업단 유형에 따른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인턴 및 도우미형과 사회서비스형의 변화율이 0.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장진입형 변화율이 0.04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재정적 안정과 책임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변화율은 -0.29, 시간제 사업단의 경우 -0.03으로 재정적 안정과 책임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단 유형별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참여센터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도시형 변화율 0.06 농촌형 0.05, 도농복합형 0.04로 참여센터 유형별 변화율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V-7〉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재정적 안정과 책임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6(0.43)	-0.75/2.67	-
성별	남성	0.06(0.42)	-0.75/2.33	0.03
	여성	0.06(0.44)	-0.67/2.67	
연령	29세 이하	0.05(0.32)	-0.67/1.40	1.34
	30세 이상 39세 이하	-0.01(0.35)	-0.64/2.00	
	40세 이상 49세 이하	0.05(0.42)	-0.67/2.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6(0.45)	-0.75/2.00	
	60세 이상	0.11(0.51)	-0.64/2.67	
학력	무학	-0.00(0.35)	-0.50/1.00	1.86
	초졸	0.20(0.48)	-0.50/2.00	
	중졸	0.06(0.46)	-0.67/2.00	
	고졸	0.06(0.45)	-0.75/2.67	
	대졸	0.02(0.36)	-0.54/2.00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2(0.40)	-0.67/2.33	2.02
	45점 이상 59점 이하	0.07(0.47)	-0.67/2.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4(0.38)	-0.75/2.67	
	80점 이상	0.16(0.58)	-0.75/2.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4(0.36)	-0.75/1.50	0.20
	조건부수급자	0.06(0.47)	-0.75/2.67	
	자활특례자	0.08(0.49)	-0.67/2.00	
	차상위	0.06(0.40)	-0.67/2.00	
참여 기간	1년 미만	0.08(0.42)	-0.50/1.00	0.10
	1년 이상 3년 이하	0.05(0.41)	-0.75/2.33	
	3년 초과	0.06(0.45)	-0.75/2.67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29(0.22)	-0.63/0.00	2.12
	인턴 및 도우미형	0.08(0.42)	-0.42/1.40	
	사회서비스형	0.08(0.48)	-0.75/2.67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4(0.35)	-0.75/2.00	
	시간제 사업단	-0.03(0.33)	-0.60/0.75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6(0.43)	-0.75/2.67	0.19
	도농복합	0.04(0.43)	-0.75/2.00	
	농촌형	0.05(0.43)	-0.67/2.00	

*p<0.05, **p<0.01, ***p<0.001

(3) 경제적 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¹¹⁾ 변화율

가족과 본인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 응답자의 가족 및 개인웰빙 평균 점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22년에 비해 2023년 가족 및 개인웰빙 평균 점수는 0.04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의 평균 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변화율은 0.06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가족 및 개인웰빙에 대한 경제적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가족 및 개인웰빙을 측정하는 항목 중 '아이를 보내고 싶은 교육활동에 보낼 여유가 있다'라는 항목은 자녀가 없는 경우는 비 해당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를 계산하였음

〈표 V-8〉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경제적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	3.31(1.00)	3.27(0.99)	-0.04	1.34

*p<0.05, **p<0.01, ***p<0.001

성별에 따라 가족 및 개인웰빙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남성의 변화율은 0.07, 여성의 변화율은 0.04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변화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변화율이 0.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9세 이하와 50대의 변화율이 0.06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학력집단에 따른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 변화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학집단의 변화율은 -0.10으로 다른 학력집단과 달리 가족 및 개인웰빙 차원에서의 경제적 자활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변화율이 0.22로 다른 학력 집단(중학교 졸업 0.04, 고등학교 졸업 0.03, 대학교 졸업 이상 0.05)에 비해 가족 및 개인웰빙 차원에서의 경제적 자활 수준이 유의하게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자활역량점수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활역량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수급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차상위의 변화율이 0.12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일반수급자와 자활특례자(0.06) 조건부수급자(0.03) 순으로 확인되었으나 수급유형별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참여기간에 따라서는 총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적은 집단일수록 변화율이 컸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사업단 유형별 변화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인턴 및 도우미형과 사회서비스형의 변화율이 0.08로 가장 컸으며 시장지입형과 시간제 사업단(0.03), 게이트웨이(-0.00) 순으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참여센터 유형별 변화율은 농촌형 0.12, 도농복합형 0.08, 도시형 0.04로 참여센터 유형별 변화율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9〉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6(0.44)	-0.80/3.50	-
성별	남성	0.07(0.45)	-0.78/3.00	1.05
	여성	0.04(0.43)	-0.80/3.50	
연령	29세 이하	0.06(0.31)	-0.63/1.00	0.55
	30세 이상 39세 이하	0.03(0.40)	-0.50/2.50	
	40세 이상 49세 이하	0.04(0.45)	-0.80/3.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6(0.46)	-0.80/3.50	
	60세 이상	0.09(0.47)	-0.71/2.00	
학력	무학	-0.10(0.32)	-0.40/0.80	3.29*
	초졸	0.22(0.61)	-0.56/3.00	
	중졸	0.04(0.42)	-0.67/2.00	
	고졸	0.03(0.40)	-0.80/3.00	
	대졸	0.05(0.31)	-0.71/1.5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1(0.43)	-0.71/3.00	0.50
	45점 이상 59점 이하	0.06(0.45)	-0.80/3.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7(0.44)	-0.78/3.50	
	80점 이상	0.07(0.39)	-0.78/1.5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6(0.40)	-0.80/3.50	1.52
	조건부수급자	0.03(0.44)	-0.78/3.00	
	자활특례자	0.06(0.44)	-0.67/3.00	
	차상위	0.12(0.51)	-0.80/2.50	
참여 기간	1년 미만	0.15(0.23)	-0.38/0.50	0.31
	1년 이상 3년 이하	0.06(0.43)	-0.78/3.50	
	3년 초과	0.05(0.45)	-0.80/3.00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0(0.15)	-0.17/0.17	0.88
	인턴 및 도우미형	0.08(0.29)	-0.44/1.00	
	사회서비스형	0.08(0.47)	-0.80/3.0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3(0.39)	-0.78/3.50	
	시간제 사업단	0.03(0.55)	-0.57/2.00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4(0.39)	-0.80/3.00	2.16
	도농복합	0.08(0.49)	-0.78/3.50	
	농촌형	0.12(0.59)	-0.80/3.00	

*p<0.05, **p<0.01, ***p<0.001

[그림 V-1]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 변화율: 학력 구분

(단위: 점)



(4) 경제적 자활_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변화율

경제적 자활의 하위 항목 중 하나인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응답자의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평균 점수는 2022년 2.75점에서 2023년 2.71점으로 0.04점 감소하였다. 반면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점수 변화율은 0.07로 확인되어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참여자 개인 수준에서는 기본자산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0〉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

Mean(S.D.), (단위: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경제적자활_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2.75(0.91)	2.71(0.88)	-0.04	1.21

*p<0.05, **p<0.01, ***p<0.001

성별에 따른 기본자산 수준 변화율을 확인해보면 남성의 변화율은 0.09, 여성은 0.0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변화율이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변화율이 0.13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30대(0.08), 50대(0.07)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연령집단간의 변화율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력별 기본자산 변화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의 변화율이

0.1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의 변화율이 0.12, 무학 0.10으로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고등학교 졸업(0.05)이나 대학교 졸업 이상(0.05)에 비해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자활역량 점수별 변화율을 확인해보면 80점 이상의 변화율이 0.12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45~59점 이하(0.08), 45점 미만(0.05), 60~79점 이하(0.05) 순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수급유형별로 비교하면 자활특례자의 변화율이 0.12로 가장 높았고 차상위 0.08, 조건부수급자 0.07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일반 수급자의 변화율이 0.0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참여기간에 따른 기본자산 변화율은 1년 미만이 0.26으로 1~3년 이하(0.06), 3년 초과(0.06)에 비해 변화율이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인턴 및 도우미형(0.12), 사회서비스형(0.08), 시장진입형(0.05)의 경우 기본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게이트웨이(-0.03)와 시간제 사업단(-0.05)의 경우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단 유형간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참여센터 유형별 변화율은 농촌형 0.09, 도농복합 0.08, 도시형 0.06으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1〉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7(0.45)	-0.77/4.00	
성별	남성	0.09(0.46)	-0.77/3.00	1.56
	여성	0.05(0.44)	-0.67/4.00	
연령	29세 이하	0.04(0.38)	-0.75/2.00	1.67
	30세 이상 39세 이하	0.08(0.61)	-0.67/4.00	
	40세 이상 49세 이하	0.02(0.38)	-0.70/2.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7(0.44)	-0.77/2.33	
	60세 이상	0.13(0.48)	-0.75/2.00	
학력	무학	0.10(0.72)	-0.75/2.00	0.85
	초졸	0.13(0.48)	-0.70/2.00	
	중졸	0.12(0.55)	-0.55/3.00	
	고졸	0.05(0.44)	-0.77/4.00	
	대졸	0.05(0.36)	-0.60/2.00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6(0.45)	-0.75/2.00	0.59
	45점 이상 59점 이하	0.08(0.48)	-0.67/3.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5(0.39)	-0.75/2.00	
	80점 이상	0.12(0.63)	-0.77/4.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4(0.45)	-0.67/2.33	1.02
	조건부수급자	0.07(0.42)	-0.77/3.00	
	자활특례자	0.12(0.44)	-0.56/2.00	
	차상위	0.08(0.55)	-0.75/4.00	
참여 기간	1년 미만	0.26(0.60)	-0.25/2.00	1.17
	1년 이상 3년 미만	0.06(0.46)	-0.77/4.00	
	3년 이상	0.06(0.44)	-0.67/2.33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3(0.36)	-0.44/0.67	1.09
	인턴 및 도우미형	0.12(0.42)	-0.33/2.00	
	사회서비스형	0.08(0.48)	-0.75/4.0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5(0.42)	-0.77/2.33	
	시간제 사업단	-0.05(0.32)	-0.55/1.00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6(0.45)	-0.77/4.00	0.24
	도농복합	0.08(0.46)	-0.75/3.00	
	농촌형	0.09(0.48)	-0.75/2.33	

*p<0.05, **p<0.01, ***p<0.001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변화율

1) 정성적 자활 변화율

자활사업의 정성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지 및 근로장벽, 자활행동 수준 등을 포괄하는 정성적 자활 점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정성적 자활 평균 점수는 2022년 3.73점, 2023년 3.71점으로 0.02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정성적 자활 평균 변화율은 0.01로 2022년 대비 2023

년 정성적 자활 수준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반적인 정성적 자활 평균 점수는 2023년 감소하였으나 응답자 개개인의 정성적 자활 점수 변화율은 플러스로 확인되어 정성적 자활 점수가 낮았던 이들의 경우에는 점수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나 정성적 자활 점수가 높았던 이들은 점수의 변화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V-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정성적 자활	3.73(0.58)	3.71(0.57)	-0.02	0.75
자활의지	3.65(0.79)	3.62(0.80)	-0.03	1.18
자활의지_가치역량	3.69(0.82)	3.66(0.83)	-0.03	1.21
자활의지_미래전망동기부여	3.67(0.92)	3.63(0.93)	-0.04	1.47
자활의지_기술과자원활용	3.58(0.93)	3.59(0.93)	0.01	-0.51
자활의지_목표지향	3.67(0.94)	3.60(0.93)	-0.07	2.27*
근로장벽	3.23(0.92)	3.24(0.86)	0.01	-0.49
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정도	3.32(1.02)	3.37(0.98)	0.05	-1.27
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정도	3.13(1.00)	3.12(0.95)	-0.01	0.37
자활행동	3.99(0.50)	3.98(0.50)	-0.01	0.53
자활행동_근로관련행동	4.60(0.58)	4.57(0.63)	-0.03	1.44
자활행동_일상생활	3.29(0.55)	3.28(0.51)	-0.01	0.42
자활행동_사회적관계행동	3.97(0.76)	3.93(0.74)	-0.04	1.65
자활행동_청결외모	4.02(0.75)	4.03(0.75)	0.01	-0.51
자활행동_건강관리행동	3.85(0.83)	3.88(0.82)	0.03	-1.52

*p<0.05, **p<0.01, ***p<0.001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남성의 정서적 자활 점수 변화율은 0.02, 여성은 -0.00으로 남성의 변화율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정서적 자활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29세 이하의 변화율이 0.03으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집단별 정성적 자활 점수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졸업 집단의 변화율이 0.04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0.02), 고등학교

졸업(0.00), 무학(-0.03) 순으로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학력 집단과 달리 무학 집단의 정성적 자활 수준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활역량점수별 변화율은 45점 미만이 0.02, 45~59점 이하 0.00, 60~79점 이하 0.01, 80점 이상 0.01로 집단 간 변화율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급 유형별 변화율 역시 차상위의 변화율이 0.02, 조건부수급자와 자활특례자 0.01, 일반수급자 -0.00으로 확인되어 수급유형 간 변화율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참여기간에 따른 정성적 자활 점수의 변화율은 1년 미만과 3년 초과가 -0.00, 1~3년 이하가 0.02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단 유형별 정성적 자활 변화율을 비교해보면 게이트웨이의 변화율이 -0.02, 시장진입형과 시간제 사업단의 변화율이 각각 -0.00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정성적 자활 수준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인턴 및 도우미형과 사회서비스형의 변화율은 0.02로 정성적 자활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단 유형간의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참여센터 유형별로 정성적 자활 변화율을 살펴보면 도농복합형의 변화율이 0.03, 농촌형 0.01, 도시형 0.00으로 변화율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3〉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변화율

(단위: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1(0.15)	-0.69/1.13	-
성별	남성	0.02(0.15)	-0.40/0.73	2.06*
	여성	-0.00(0.15)	-0.69/1.13	
연령	29세 이하	0.03(0.20)	-0.37/1.13	1.13
	30세 이상 39세 이하	0.01(0.16)	-0.39/0.45	
	40세 이상 49세 이하	0.01(0.14)	-0.69/0.48	
	50세 이상 59세 이하	-0.00(0.14)	-0.49/0.63	
	60세 이상	0.01(0.16)	-0.39/0.48	
학력	무학	-0.03(0.20)	-0.30/0.48	1.38
	초졸	0.04(0.15)	-0.17/0.46	
	중졸	0.02(0.15)	-0.28/0.45	
	고졸	0.00(0.15)	-0.59/0.73	
	대졸	0.02(0.16)	-0.37/1.13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2(0.14)	-0.39/0.48	0.43
	45점 이상 59점 이하	0.00(0.16)	-0.69/0.73	
	60점 이상 79점 이하	0.01(0.14)	-0.49/0.47	
	80점 이상	0.01(0.21)	-0.33/1.13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0(0.14)	-0.40/1.13	1.07
	조건부수급자	0.01(0.16)	-0.69/0.63	
	자활특례자	0.01(0.13)	-0.30/0.41	
	차상위	0.02(0.17)	-0.34/0.47	
참여 기간	1년 미만	-0.00(0.12)	-0.23/0.21	1.60
	1년 이상 3년 이하	0.02(0.15)	-0.39/0.73	
	3년 초과	-0.00(0.16)	-0.69/1.13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2(0.13)	-0.18/0.21	1.02
	인턴 및 도우미형	0.02(0.23)	-0.22/1.13	
	사회서비스형	0.02(0.16)	-0.40/0.63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0(0.14)	-0.69/0.73	
	시간제 사업단	-0.00(0.12)	-0.22/0.32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0(0.15)	-0.49/1.13	1.74
	도농복합	0.03(0.17)	-0.69/0.48	
	농촌형	0.01(0.17)	-0.31/0.73	

*p<0.05, **p<0.01, ***p<0.001

[그림 V-2]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변화율: 성별 구분

(단위 : 점)



(1)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 변화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성적 자활효과 중 자활 및 자립에 대한 자신감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과 의지를 의미하는 자활의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자활의지 평균 점수는 2022년 3.65점, 2023년 3.62점으로 0.03점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응답자 전체의 자활의지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 변화율 0.02로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의지	3.65(0.79)	3.62(0.80)	-0.03	1.18
자활의지_가치역량	3.69(0.82)	3.66(0.83)	-0.03	1.21
자활의지_미래전망동기부여	3.67(0.92)	3.63(0.93)	-0.04	1.47
자활의지_기술과자원활용	3.58(0.93)	3.59(0.93)	0.01	-0.51
자활의지_목표지향	3.67(0.94)	3.60(0.93)	-0.07	2.27*

*p<0.05, **p<0.01, ***p<0.001

자활의지의 변화율은 연령집단 중 50-59세, 수급유형 중 일반수급자, 참여기간 1년 미만인 집단, 사업단 유형 중 게이트웨이만이 2022년에 비해 2023년 자활의지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5〉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2(0.25)	-0.72/2.00	-
성별	남성	0.03(0.24)	-0.72/1.58	1.44
	여성	0.01(0.25)	-0.63/2.00	
연령	29세 이하	0.05(0.29)	-0.47/1.44	1.67
	30세 이상 39세 이하	0.01(0.24)	-0.50/1.03	
	40세 이상 49세 이하	0.02(0.24)	-0.63/2.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0(0.23)	-0.53/1.58	
	60세 이상	0.05(0.27)	-0.72/1.00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학력	무학	0.03(0.30)	-0.29/0.85	0.88
	초졸	0.05(0.22)	-0.29/0.66	
	중졸	0.04(0.23)	-0.50/0.76	
	고졸	0.00(0.23)	-0.53/1.03	
	대졸	0.03(0.27)	-0.60/1.5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3(0.23)	-0.72/0.89	0.36
	45점 이상 59점 이하	0.01(0.26)	-0.63/2.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2(0.24)	-0.53/1.58	
	80점 이상	0.03(0.31)	-0.41/1.4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1(0.22)	-0.72/1.44	2.32
	조건부수급자	0.02(0.27)	-0.63/2.00	
	자활특례자	0.05(0.21)	-0.40/0.89	
	차상위	0.04(0.28)	-0.36/1.58	
참여 기간	1년 미만	-0.02(0.17)	-0.33/0.24	0.54
	1년 이상 3년 이하	0.03(0.26)	-0.72/2.00	
	3년 초과	0.01(0.24)	-0.63/1.58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3(0.14)	-0.20/0.21	0.83
	인턴 및 도우미형	0.02(0.32)	-0.37/1.44	
	사회서비스형	0.03(0.27)	-0.60/2.0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1(0.22)	-0.72/1.58	
	시간제 사업단	-0.02(0.20)	-0.42/0.59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0.13(0.25)	-0.60/2.00	0.63
	도농복합	0.04(0.26)	-0.72/1.05	
	농촌형	0.02(0.23)	-0.41/1.03	

*p<0.05, **p<0.01, ***p<0.001

① 자활의지_가치역량 변화율

자활의지의 하위요인 변화율을 살펴보면 자신의 가치 및 역량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가치역량 점수의 평균은 2022년 3.69점, 2023년 3.66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자활의지 평균 변화율은 0.03으로 2020년에 비해 2023년 응답자의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의지_가치역량	3.69(0.82)	3.66(0.83)	-0.03	1.21

*p<0.05, **p<0.01, ***p<0.001

집단별로 변화율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변화율이 0.03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변화율이 0.06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40대(0.05), 29세 이하(0.02)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가치역량 점수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활사업 진입 시 자활역량점수별 가치역량 점수 변화율은 45점 미만 0.03, 45점~59점 이하 0.02, 60점~79점 이하 0.03, 80점 이상 0.03으로 모든 집단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집단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급유형별로는 자활특례자의 변화율인 0.07로 다른 수급유형에 비해 변화율이 컸으나 역시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사업 참여 기간별 가치역량 점수 변화율은 1년 미만은 -0.03으로 2022년 보다 2023년 가치역량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년~3년 이하는 0.03, 3년 초과은 0.0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과 시간제 사업단 참여 응답자의 경우 변화율이 각각 -0.00, -0.04로 가치역량 점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게이트웨이와 인턴 및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의 경우 변화율이 각각 0.05, 0.03, 0.05로 22년에 비해 23년 가치역량 점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참여센터 유형에 따른 가치역량 점수 변화율은 도시형 0.02, 도농복합형 0.04, 농촌형 0.02로 도농복합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변화율이 컸으나 집단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V-17〉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가치역량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3(0.30)	-0.80/2.20	-
성별	남성	0.03(0.27)	-0.80/1.75	-0.17
	여성	0.03(0.31)	-0.75/2.20	
연령	29세 이하	0.02(0.30)	-0.56/1.00	1.15
	30세 이상 39세 이하	0.01(0.26)	-0.67/1.00	
	40세 이상 49세 이하	0.05(0.32)	-0.69/2.2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1(0.29)	-0.80/1.75	
	60세 이상	0.06(0.30)	-0.75/1.29	
학력	무학	0.10(0.36)	-0.41/1.17	1.52
	초졸	0.07(0.31)	-0.56/1.38	
	중졸	0.06(0.31)	-0.55/1.43	
	고졸	0.01(0.27)	-0.80/2.20	
	대졸	0.02(0.30)	-0.69/1.7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3(0.32)	-0.75/2.20	0.02
	45점 이상 59점 이하	0.02(0.32)	-0.80/2.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3(0.28)	-0.75/1.75	
	80점 이상	0.03(0.29)	-0.56/1.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0(0.25)	-0.75/1.00	1.86
	조건부수급자	0.03(0.30)	-0.80/2.00	
	자활특례자	0.07(0.36)	-0.75/2.20	
	차상위	0.04(0.31)	-0.56/1.75	
참여 기간	1년 미만	-0.03(0.12)	-0.29/0.18	0.34
	1년 이상 3년 이하	0.03(0.29)	-0.80/2.00	
	3년 초과	0.02(0.31)	-0.75/2.20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5(0.12)	-0.07/0.23	2.20
	인턴 및 도우미형	0.03(0.34)	-0.50/1.00	
	사회서비스형	0.05(0.33)	-0.80/2.2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0(0.25)	-0.75/1.75	
	시간제 사업단	-0.04(0.21)	-0.50/0.67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2(0.30)	-0.80/2.20	0.26
	도농복합	0.04(0.29)	-0.75/1.43	
	농촌형	0.02(0.29)	-0.50/1.00	

*p<0.05, **p<0.01, ***p<0.001

② 자활의지_미래전망동기부여 변화율

자활의지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미래전망동기부여 점수의 평균은 2022년 3.67점, 2023년 3.63점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 0.04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미래전망동기부여 변화율의 평균은 0.03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8〉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의지_미래전망동기부여	3.67(0.92)	3.63(0.93)	-0.04	1.47

*p<0.05, **p<0.01, ***p<0.001

미래전망동기부여 점수 변화율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집단에서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미래전망동기부여 변화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0.04, 여성 0.03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미래전망동기부여 점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별 변화율은 60세 이상의 변화율이 0.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9세 이하 0.05, 30대와 50대의 변화율이 각각 0.02, 40대 변화율 0.01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졸업의 변화율이 0.15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무학 0.06, 중학교 졸업 0.04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다. 비교적 낮은 학력인 중학교 이하에서 비교적 높은 학력 집단인 고등학교 졸업(0.02)과 대학교 졸업(0.02)에 비해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자활역량점수별로는 45점 미만 응답자의 변화율이 0.06으로 미래전망동기부여 점수의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으로 80점 이상이 0.05, 60~79점 이하 0.03, 45~59점 이하 0.02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다. 수급유형별로는 자활특례자 0.08, 차상위 0.07로 일반수급자(0.01), 조건부수급자(0.03)보다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참여기간별로는 1년 미만 참여자의 경우 -0.01로 오히려 미래전망동기부여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1년~3년 이하, 3년 초과는 각각 0.03, 0.04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미래전망동기부여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게이트웨이와 인턴 및 도우미형은 변화율이 각각 -0.12, -0.00으로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였으며 사회서비스형(0.05), 시장진입형(0.02), 시간제 사업

단(0.01)은 미래전망동기부여 점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여센터 유형별로는 농촌형이 0.09로 도시형(0.02), 도농복합(0.04)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1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미래전망동기부여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3(0.35)	-0.75/3.00	-
성별	남성	0.04(0.33)	-0.75/2.00	0.66
	여성	0.03(0.36)	-0.63/3.00	
연령	29세 이하	0.05(0.32)	-0.55/1.25	1.71
	30세 이상 39세 이하	0.02(0.44)	-0.47/3.00	
	40세 이상 49세 이하	0.01(0.30)	-0.60/2.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2(0.30)	-0.68/2.00	
	60세 이상	0.09(0.42)	-0.75/2.20	
학력	무학	0.06(0.44)	-0.57/1.40	1.96
	초졸	0.15(0.48)	-0.53/2.20	
	중졸	0.04(0.29)	-0.52/1.40	
	고졸	0.02(0.34)	-0.68/3.00	
	대졸	0.02(0.27)	-0.69/1.1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6(0.34)	-0.75/1.63	0.30
	45점 이상 59점 이하	0.02(0.34)	-0.69/2.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3(0.32)	-0.68/2.67	
	80점 이상	0.05(0.50)	-0.52/3.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1(0.32)	-0.75/2.20	2.01
	조건부수급자	0.03(0.34)	-0.63/2.00	
	자활특례자	0.08(0.31)	-0.45/1.40	
	차상위	0.07(0.46)	-0.60/3.00	
참여 기간	1년 미만	-0.01(0.17)	-0.42/0.25	0.35
	1년 이상 3년 이하	0.03(0.36)	-0.75/3.00	
	3년 초과	0.04(0.34)	-0.68/2.20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12(0.25)	-0.41/0.25	0.92
	인턴 및 도우미형	-0.00(0.25)	-0.45/1.00	
	사회서비스형	0.05(0.39)	-0.69/3.0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2(0.27)	-0.75/1.63	
	시간제 사업단	0.01(0.29)	-0.50/1.00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2(0.32)	-0.69/3.00	2.03
	도농복합	0.04(0.37)	-0.75/2.00	
	농촌형	0.09(0.45)	-0.52/2.67	

*p<0.05, **p<0.01, ***p<0.001

③ 자활의지_기술과 자원 활용 변화율

자활의지의 하위요인 중 자신의 기술과 자원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기술과 자원 활용 점수의 평균은 2022년 3.58점, 2023년 3.5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술과 자원 활용 점수의 평균 변화율 또한 0.06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응답자의 본인의 기술과 자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0〉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의지_기술과 자원활용	3.58(0.93)	3.59(0.93)	0.01	-0.51

*p<0.05, **p<0.01, ***p<0.001

집단별 변화율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남성의 변화율은 0.10, 여성의 변화율은 0.04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기술과 자원활용 점수가 유의하게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기술과 자원활용 점수 변화율이 0.15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30대 0.09, 60세 이상 0.07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40~50대 중장년층의 기술과 자원활용 점수의 변화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연령별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나 중학교 졸업의 변화율이 0.11로 가장 컸으며 다

음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0.09), 초등학교 졸업(0.06)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활역량점수별로는 80점 이상이 0.12로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으로 60점~79점 이하 0.07 등 자활역량점수가 높을수록 기술과 자원활용 점수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 기간에 따라서는 1년~3년 이하이 0.09로 변화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년 초과(0.04), 1년 미만(0.01)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인턴 및 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변화율이 0.13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0.08), 게이트웨이(0.04)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다. 시간제 사업단은 다른 사업단 유형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변화율이 확인되었으나 참여 사업단 유형간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참여센터 유형별로는 도농복합형이 0.12로 가장 큰 변화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도시형(0.05), 농촌형(0.03)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기술과 자원 활용 변화율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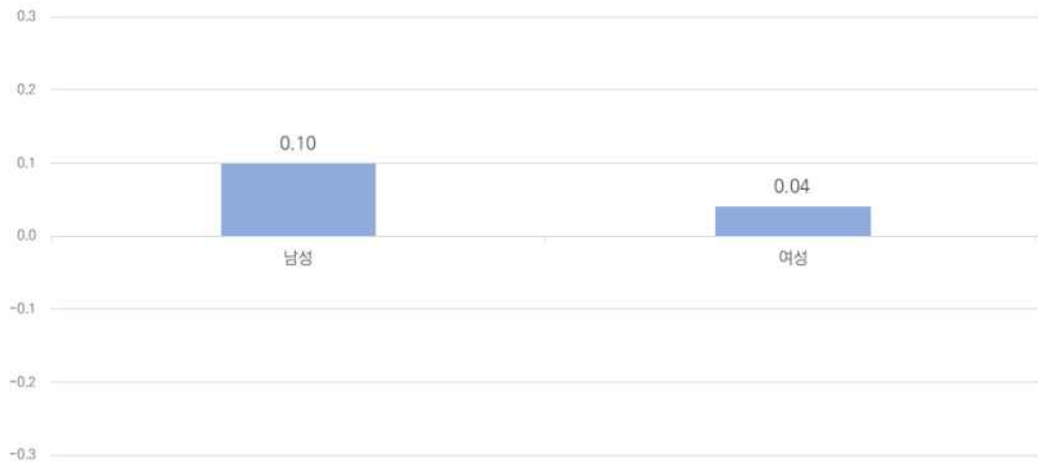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6(0.40)	-0.75/3.00	-
성별	남성	0.10(0.44)	-0.75/3.00	2.36*
	여성	0.04(0.37)	-0.69/3.00	
연령	29세 이하	0.15(0.49)	-0.60/3.00	2.30
	30세 이상 39세 이하	0.09(0.45)	-0.67/3.00	
	40세 이상 49세 이하	0.05(0.36)	-0.67/2.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2(0.38)	-0.69/3.00	
	60세 이상	0.07(0.39)	-0.75/1.75	
학력	무학	0.01(0.44)	-0.50/1.00	1.04
	초졸	0.06(0.30)	-0.64/1.00	
	중졸	0.11(0.49)	-0.67/3.00	
	고졸	0.04(0.34)	-0.69/2.20	
	대졸	0.09(0.47)	-0.53/3.0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4(0.30)	-0.75/1.33	0.89
	45점 이상 59점 이하	0.05(0.40)	-0.69/3.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7(0.40)	-0.67/3.00	
	80점 이상	0.12(0.54)	-0.53/3.00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2(0.39)	-0.75/3.00	1.89
	조건부수급자	0.09(0.41)	-0.69/3.00	
	자활특례자	0.05(0.30)	-0.50/1.00	
	차상위	0.09(0.48)	-0.60/3.00	
참여 기간	1년 미만	0.01(0.29)	-0.47/0.54	2.63
	1년 이상 3년 이하	0.09(0.42)	-0.75/3.00	
	3년 초과	0.04(0.39)	-0.67/3.00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4(0.15)	-0.13/0.25	1.43
	인턴 및 도우미형	0.13(0.60)	-0.43/3.00	
	사회서비스형	0.08(0.44)	-0.67/3.0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3(0.32)	-0.75/2.75	
	시간제 사업단	-0.00(0.31)	-0.62/0.88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0.05(0.39)	-0.69/3.00	2.23
	도농복합	0.12(0.49)	-0.75/3.00	
	농촌형	0.03(0.28)	-0.64/1.00	

*p<0.05, **p<0.01, ***p<0.001

[그림 V-3]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기술과 자원 활용 변화율: 성별 구분

(단위 : 점)



④ 자활의지_목표지향 변화율

자활의지의 하위항목인 목표지향 평균 점수는 2022년 3.67점, 2023년 3.6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2년에 비해 2023년 전반적인 목표지향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목표지향 점수의 평균 변화율은 0.03으로 목표지향 점수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개인의 목표지향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2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의지_목표지향	3.67(0.94)	3.60(0.93)	-0.07	2.27*

*p<0.05, **p<0.01, ***p<0.001

목표지향 점수의 변화율은 남성 0.07, 여성 0.01로 여성에 비해 남성 참여자의 목표지향 변화율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가 0.1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0.06, 40대 0.04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는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유일하게 변화율이 -0.02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목표지향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무학과 대학 졸업 이상의 변화율이 각각 0.07로 가장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 0.03, 초등학교 졸업 0.02 순으로 목표지향 점수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활역량점수별 목표지향 점수 변화율은 80점 이상 0.06, 45점 미만 0.05, 60점~79점 미만 0.04, 45점~59점 미만 0.02로 자활역량점수별로 비슷한 수준의 변화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수급 유형에 따른 목표지향 점수 변화율을 살펴보면 차상위가 0.07로 변화율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조건부수급자와 자활특례자의 변화율이 각각 0.05로 확인되었다. 일반수급자는 다른 수급 유형과 달리 변화율이 -0.01로 마이너스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따라서는 1년~3년 이하의 변화율 0.05, 3년 초과 0.03으로 1년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목표지향 점수는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1년 미만의 변화율은 -0.07로 확인되어 오히려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기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참여 사업단 유형별로 변화율을 비교하면 인턴 및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

입형 참여 응답자의 변화율은 0.04로 확인되며 시간제 사업단은 0.02, 게이트웨이 참여자는 -0.06의 변화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참여센터 유형별 목표지향 점수 변화율은 도농복합 0.05, 도시형과 농촌형 각각 0.03으로 비슷한 수준의 변화율을 보였다.

〈표 V-23〉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목표지향 변화율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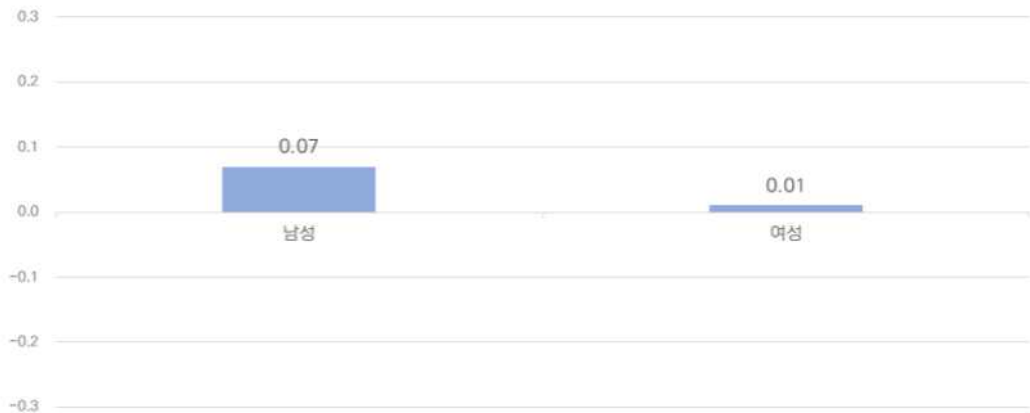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3(0.38)	-0.75/4.00	-
성별	남성	0.07(0.40)	-0.67/3.00	2.07*
	여성	0.01(0.37)	-0.75/4.00	
연령	29세 이하	0.10(0.53)	-0.67/4.00	2.02
	30세 이상 39세 이하	-0.02(0.24)	-0.67/0.67	
	40세 이상 49세 이하	0.04(0.37)	-0.67/2.33	
	50세 이상 59세 이하	0.01(0.36)	-0.75/3.00	
	60세 이상	0.06(0.40)	-0.67/2.00	
학력	무학	0.07(0.51)	-0.50/1.50	0.35
	초졸	0.02(0.33)	-0.63/1.25	
	중졸	0.03(0.33)	-0.67/1.00	
	고졸	0.03(0.35)	-0.67/2.33	
	대졸	0.07(0.52)	-0.50/4.0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5(0.33)	-0.60/1.50	0.47
	45점 이상 59점 이하	0.02(0.36)	-0.67/2.33	
	60점 이상 79점 이하	0.04(0.40)	-0.75/4.00	
	80점 이상	0.06(0.44)	-0.50/2.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1(0.31)	-0.67/2.00	1.96
	조건부수급자	0.05(0.44)	-0.75/4.00	
	자활특례자	0.05(0.30)	-0.57/1.33	
	차상위	0.07(0.41)	-0.56/3.00	
참여 기간	1년 미만	-0.07(0.29)	-0.56/0.43	0.82
	1년 이상 3년 이하	0.05(0.42)	-0.67/4.00	
	3년 초과	0.03(0.35)	-0.75/3.00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6(0.18)	-0.29/0.25	0.13
	인턴 및 도우미형	0.04(0.47)	-0.75/2.00	
	사회서비스형	0.04(0.37)	-0.67/2.33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4(0.40)	-0.67/4.00	
	시간제 사업단	0.02(0.29)	-0.38/1.33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3(0.40)	-0.75/4.00	0.12
	도농복합	0.05(0.36)	-0.63/2.00	
	농촌형	0.03(0.29)	-0.57/1.00	

*p<0.05, **p<0.01, ***p<0.001

[그림 V-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의지_목표지향 변화율: 성별 구분

(단위 : 점)



(3)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 변화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성적 자활효과 중 자본과 정보의 부족으로 근로에 있어 장벽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근로장벽 점수의 변화율을 확인해 본 결과 근로장벽 점수 변화율은 0.08로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근로를 위한 인적자본이나 정보활용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24〉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벽 변화

Mean(S.D.), (단위: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근로장벽	3.23(0.92)	3.24(0.86)	0.01	-0.49
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정도	3.32(1.02)	3.37(0.98)	0.05	-1.27
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정도	3.13(1.00)	3.12(0.95)	-0.01	0.37

*p<0.05, **p<0.01, ***p<0.001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근로장벽 점수의 변화율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0.11, 여성은 0.06으로 남성의 변화율이 여성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나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30대의 근로장벽 변화율이 각 0.11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으로 60세 이상 0.10, 50대 0.06, 40대 0.05로 40~50대 중장년층의 근로장벽 변화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았지만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다. 학력별 근로장벽 변화율은 무학 0.04, 초등학교 졸 0.17, 중학교 졸업 0.20,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은 각각 0.05로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근로장벽 변화율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활역량점수별 변화율 차이는 60~79점 이하의 변화율이 0.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5점 이하 0.08, 45~59점 이하 0.06, 80점 이상 0.03으로 80점 이상의 높은 자활역량점수 응답자의 변화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집단 간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수급유형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는 조건부수급자가 0.09로 변화율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차상위(0.08), 일반수급자(0.06), 자활특례자(0.05)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며 수급유형별 변화율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참여기간별 근로장벽 변화율을 살펴보면 1~3년 이하의 변화율은 0.10, 3년 초과는 0.05로 1년 미만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2022년에 비해 2023년 근로장벽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1년 이하 참여한 응답자의 변화율은 -0.05로 오히려 근로장벽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참여기간별 근로장벽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게이트웨이 참여 응답자만 변화율이 -0.04로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업단 유형별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참여센터 유형별 근로장벽 변화율은 도시형 0.06, 도농복합 0.15, 농촌형 0.09로 도농복합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벽 변화율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5〉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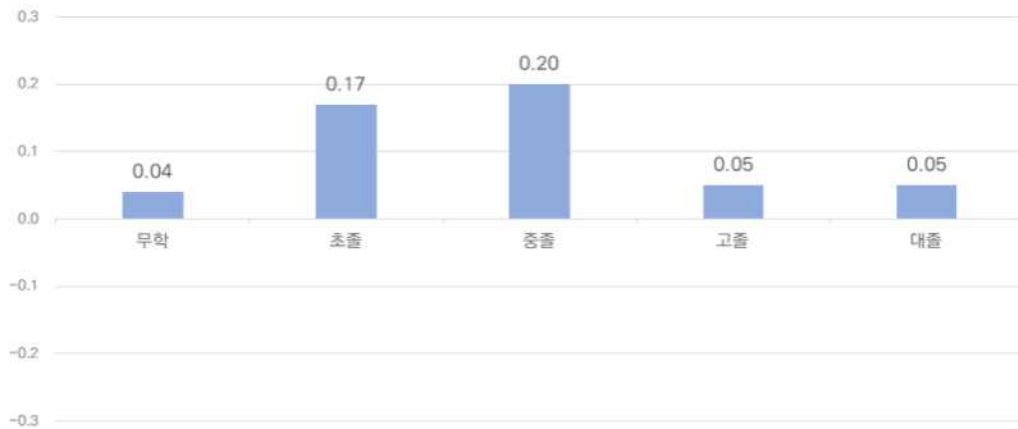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8(0.42)	-0.79/3.00	-
성별	남성	0.11(0.43)	-0.79/3.00	1.80
	여성	0.06(0.41)	-0.75/3.00	
연령	29세 이하	0.11(0.45)	-0.70/2.67	0.91
	30세 이상 39세 이하	0.11(0.45)	-0.54/3.00	
	40세 이상 49세 이하	0.05(0.32)	-0.79/2.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6(0.44)	-0.75/3.00	
	60세 이상	0.10(0.45)	-0.70/2.00	
학력	무학	0.04(0.57)	-0.50/2.00	3.72**
	초졸	0.17(0.56)	-0.67/2.00	
	중졸	0.20(0.58)	-0.70/3.00	
	고졸	0.05(0.35)	-0.79/2.00	
	대졸	0.05(0.36)	-0.54/2.67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8(0.38)	-0.53/2.00	0.45
	45점 이상 59점 이하	0.06(0.42)	-0.73/3.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9(0.42)	-0.79/3.00	
	80점 이상	0.03(0.48)	-0.53/2.6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6(0.42)	-0.66/3.00	0.46
	조건부수급자	0.09(0.45)	-0.79/3.00	
	자활특례자	0.05(0.32)	-0.52/2.00	
	차상위	0.08(0.44)	-0.75/2.00	
참여 기간	1년 미만	-0.05(0.27)	-0.45/0.32	2.04
	1년 이상 3년 이하	0.10(0.45)	-0.79/3.00	
	3년 초과	0.05(0.40)	-0.75/2.67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4(0.28)	-0.43/0.29	1.66
	인턴 및 도우미형	0.08(0.56)	-0.59/2.67	
	사회서비스형	0.10(0.45)	-0.75/3.0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3(0.37)	-0.79/3.00	
	시간제 사업단	0.10(0.27)	-0.45/0.89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6(0.38)	-0.79/2.67	3.04*
	도농복합	0.15(0.54)	-0.75/3.00	
	농촌형	0.09(0.43)	-0.53/2.00	

*p<0.05, **p<0.01, ***p<0.001

[그림 V-5]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 변화율: 학력 구분

(단위: 점)



① 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정도 변화율

근로장벽의 하위항목인 인적자본향상은 점수가 커질수록 취업에 필요한 여러 인적자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의 인적자본향상 점수의 평균은 2022년 3.32점, 2023년 3.3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폭 증가하였다. 인적자본향상 점수의 평균 변화율 또한 0.10으로 확인되어 2022년에 비해 2023년 응답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26〉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벽 변화

Mean(S.D.), (단위: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정도	3.32(1.02)	3.37(0.98)	0.05	-1.27

*p<0.05, **p<0.01, ***p<0.001

성별에 따른 인적자본향상 점수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변화율은 0.12, 여성의 변화율은 0.0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적자본향상 점수의 변화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연령대별 변화율의 차이에 대해서는 29세 이하의 변화율이 0.13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30대와 60세 이상이

0.12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50대 중장년층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 집단의 경우 중학교 졸업의 인적자본향상 점수 변화율은 0.21, 초등학교 졸업의 변화율이 0.20으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무학 0.10, 고등학교 졸업 0.08, 대학교 졸업 이상이 0.04로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인적자본향상 점수 변화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활역량점수별 인적자본향상 점수의 변화율 차이를 살펴보면 45점 미만 0.09, 45~59점 미만 0.10, 60~79점 이하 0.10, 80점 이상 0.09로 자활역량점수별 변화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수급 유형별에 따른 변화율을 확인해보면 조건부 수급자의 변화율이 0.12로 가장 변화율이 컸으며 다음으로 차상위 0.10, 자활특례자 0.08, 일반수급자 0.07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수급유형별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참여 사업단 유형에 따른 변화율을 살펴보면 시간제 사업단 참여자의 변화율이 0.1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0.12), 인턴 및 도우미형(0.11)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컸으며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변화율이 0.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 사업단 유형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참여센터 유형별로는 도농복합형 참여자의 변화율이 0.19로 도시형(0.08), 농촌형(0.10)에 비해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7〉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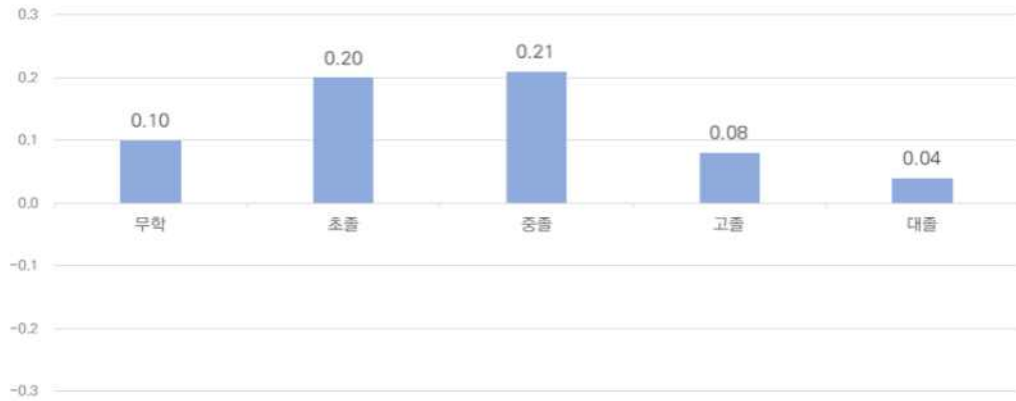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10(0.48)	-0.80/3.00	-
성별	남성	0.12(0.47)	-0.80/3.00	1.34
	여성	0.08(0.48)	-0.80/3.00	
연령	29세 이하	0.13(0.53)	-0.70/2.33	0.40
	30세 이상 39세 이하	0.12(0.48)	-0.50/3.00	
	40세 이상 49세 이하	0.09(0.38)	-0.80/2.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8(0.51)	-0.80/3.00	
	60세 이상	0.12(0.49)	-0.80/3.00	
학력	무학	0.10(0.82)	-0.50/3.00	2.85*
	초졸	0.20(0.61)	-0.80/2.00	
	중졸	0.21(0.63)	-0.63/3.00	
	고졸	0.08(0.41)	-0.80/2.67	
	대졸	0.04(0.39)	-0.58/2.67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9(0.45)	-0.67/3.00	0.04
	45점 이상 59점 이하	0.10(0.51)	-0.80/3.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10(0.45)	-0.80/3.00	
	80점 이상	0.09(0.55)	-0.50/2.6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7(0.44)	-0.73/3.00	0.73
	조건부수급자	0.12(0.53)	-0.80/3.00	
	자활특례자	0.08(0.34)	-0.50/2.00	
	차상위	0.10(0.51)	-0.75/2.67	
참여 기간	1년 미만	-0.00(0.31)	-0.50/0.50	1.34
	1년 이상 3년 이하	0.12(0.52)	-0.80/3.00	
	3년 초과	0.08(0.44)	-0.80/3.00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2(0.36)	-0.42/0.50	0.59
	인턴 및 도우미형	0.11(0.54)	-0.50/2.33	
	사회서비스형	0.12(0.50)	-0.75/3.0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7(0.44)	-0.80/3.00	
	시간제 사업단	0.13(0.36)	-0.64/1.00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8(0.44)	-0.80/2.67	3.59*
	도농복합	0.19(0.61)	-0.75/3.00	
	농촌형	0.10(0.46)	-0.67/2.00	

*p<0.05, **p<0.01, ***p<0.001

[그림 V-6]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 변화율: 학력 구분

(단위: 점)



[그림 V-7]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 변화율: 참여센터 유형 구분

(단위: 점)



② 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정도 변화율

근로 관련 정보 활용에 대한 고용정보향상 평균 점수는 2022년 3.13점, 2023년 3.12점으로 유의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고용정보향상 점수의 평균 변화율은 0.11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응답자의 정보활용능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28〉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벽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정도	3.13(1.00)	3.12(0.95)	-0.01	0.37

*p<0.05, **p<0.01, ***p<0.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고용정보향상 점수 변화율이 0.15, 여성의 경우 0.08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변화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 변화율 차이를 확인해보면 30대의 고용정보향상 점수 변화율이 0.16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0.14로 높았다. 연령집단 중에서는 40대의 변화율이 0.04로 가장 낮았으나 연령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의 경우 평균 변화율은 무학 0.00, 초졸 0.19, 중졸 0.26, 고졸 0.07, 대졸 0.12로 모든 학력 집단에 고용정보향상 점수가 증가하여 정보활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졸 집단과 중졸 집단의 변화율이 다른 집단에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게이트웨이 변화율 -0.12, 인턴 및 도우미형 0.09, 사회서비스형 0.16, 시장진입형 0.03, 시간제 사업단 0.11로 다른 사업단 유형에서는 정보활용에 있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활용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참여센터 유형별 변화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농복합의 변화율이 0.15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농촌형 0.14, 동시형 0.09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11(0.57)	-0.80/4.00	-
성별	남성	0.15(0.63)	-0.77/4.00	1.94
	여성	0.08(0.52)	-0.80/4.00	
연령	29세 이하	0.11(0.48)	-0.75/3.00	1.13
	30세 이상 39세 이하	0.16(0.61)	-0.60/3.00	
	40세 이상 49세 이하	0.04(0.47)	-0.77/4.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12(0.62)	-0.80/4.00	
	60세 이상	0.14(0.62)	-0.75/4.00	
학력	무학	0.00(0.46)	-0.50/1.40	3.01*
	초졸	0.19(0.66)	-0.62/3.00	
	중졸	0.26(0.73)	-0.75/3.00	
	고졸	0.07(0.51)	-0.80/4.00	
	대졸	0.12(0.58)	-0.75/4.0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13(0.55)	-0.63/3.00	1.38
	45점 이상 59점 이하	0.08(0.53)	-0.75/4.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13(0.60)	-0.80/4.00	
	80점 이상	0.01(0.52)	-0.67/3.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11(0.58)	-0.75/4.00	0.08
	조건부수급자	0.11(0.55)	-0.77/3.00	
	자활특례자	0.09(0.57)	-0.73/4.00	
	차상위	0.10(0.58)	-0.80/4.00	
참여 기간	1년 미만	-0.05(0.30)	-0.50/0.43	2.15
	1년 이상 3년 이하	0.14(0.62)	-0.77/4.00	
	3년 초과	0.08(0.52)	-0.80/3.00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12(0.32)	-0.50/0.29	2.93*
	인턴 및 도우미형	0.09(0.62)	-0.67/3.00	
	사회서비스형	0.16(0.65)	-0.80/4.0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3(0.44)	-0.77/3.00	
	시간제 사업단	0.11(0.31)	-0.50/1.00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9(0.53)	-0.77/4.00	0.99
	도농복합	0.15(0.62)	-0.75/3.00	
	농촌형	0.14(0.67)	-0.80/4.00	

*p<0.05, **p<0.01, ***p<0.001

[그림 V-8] 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 변화 : 학력 구분

(단위 : 점)



[그림 V-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 변화율: 사업단 유형 구분

(단위 : 점)



(4)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 변화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성적 자활효과 중 근로 행동,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행동, 청결 및 건강관리 행동 등의 변화에 대한 자활행동의 평균점수는 2022년 3.99점, 2023년 3.98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자활행동 점수 평균 변화율은 0.01로 자활의지나 근로장벽 등 다른 정성적 자활효과 지표들 중에서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V-30〉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행동	3.99(0.50)	3.98(0.50)	-0.01	0.53
자활행동_근로관련행동	4.60(0.58)	4.57(0.63)	-0.03	1.44
자활행동_일상생활	3.29(0.55)	3.28(0.51)	-0.01	0.42
자활행동_사회적관계행동	3.97(0.76)	3.93(0.74)	-0.04	1.65
자활행동_청결외모	4.02(0.75)	4.03(0.75)	0.01	-0.51
자활행동_건강관리행동	3.85(0.83)	3.88(0.82)	0.03	-1.52

*p<0.05, **p<0.01, ***p<0.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집단별 자활행동 변화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활행동 점수의 변화율이 매우 작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다른 정성적 자활 지표들에 비해 자활행동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집단에 따라서는 특히 무학의 경우 자활행동 변화율이 -0.05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자활행동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의 변화율이 0.04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1〉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1(0.13)	-0.76/0.74	-
성별	남성	0.01(0.12)	-0.53/0.74	1.25
	여성	0.00(0.13)	-0.76/0.71	
연령	29세 이하	0.02(0.16)	-0.35/0.74	0.82
	30세 이상 39세 이하	0.01(0.13)	-0.44/0.27	
	40세 이상 49세 이하	0.00(0.13)	-0.76/0.48	
	50세 이상 59세 이하	0.01(0.11)	-0.47/0.51	
	60세 이상	-0.00(0.14)	-0.53/0.44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학력	무학	-0.05(0.18)	-0.53/0.28	1.95
	초졸	0.03(0.14)	-0.48/0.38	
	중졸	-0.00(0.13)	-0.33/0.37	
	고졸	0.00(0.13)	-0.47/0.74	
	대졸	0.02(0.12)	-0.38/0.7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1(0.11)	-0.28/0.37	0.19
	45점 이상 59점 이하	0.00(0.14)	-0.76/0.74	
	60점 이상 79점 이하	0.01(0.12)	-0.48/0.38	
	80점 이상	0.01(0.17)	-0.34/0.71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1(0.13)	-0.48/0.74	0.31
	조건부수급자	0.01(0.14)	-0.76/0.51	
	자활특례자	-0.00(0.11)	-0.53/0.32	
	차상위	0.01(0.13)	-0.34/0.44	
참여 기간	1년 미만	0.04(0.08)	-0.07/0.19	2.38
	1년 이상 3년 이하	0.01(0.12)	-0.35/0.74	
	3년 초과	-0.00(0.14)	-0.76/0.71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1(0.10)	-0.12/0.19	0.42
	인턴 및 도우미형	0.01(0.15)	-0.14/0.71	
	사회서비스형	0.01(0.13)	-0.53/0.51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0(0.12)	-0.76/0.74	
	시간제 사업단	-0.00(0.11)	-0.24/0.25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0(0.12)	-0.53/0.71	1.19
	도농복합	0.02(0.14)	-0.76/0.39	
	농촌형	0.01(0.15)	-0.41/0.74	

*p<0.05, **p<0.01, ***p<0.001

① 자활행동_근로관련행동 변화율

응답자의 근로관련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관련행동 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근로관련행동 평균 점수는 2022년 4.60점, 2023년 4.57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근로관련 행동 점수 평균 변화율 또한 0.01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행동_근로관련행동	4.60(0.58)	4.57(0.63)	-0.03	1.44

*p<0.05, **p<0.01, ***p<0.001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근로관련행동 변화율을 살펴보면 남성 0.01, 여성 0.00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근로관련행동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집단별로는 29세 이하 집단의 변화율이 0.03으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50대의 변화율은 각 0.01로 확인되었다. 30대와 60세 이상의 변화율은 각각 -0.02, -0.01로 오히려 2022년에 비해 2023년 근로관련행동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자활역량점수별 변화율은 45점 미만, 60~79점 이하가 각각 0.01, 45~59점 이하는 0.00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80점 이상에서는 변화율이 -0.01로 오히려 근로관련행동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급유형별로는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변화율이 0.01, 차상위 0.00, 자활특례자 -0.00으로 근로관련행동 점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집단 간 변화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참여기간별 변화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1~3년 이하가 0.02으로 변화율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1년 미만(0.01), 3년 초과(-0.00)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참여 사업단 유형별 근로관련행동 점수의 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다른 사업단 유형의 변화율은 -0.00~0.01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경우 변화율이 -0.05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근로관련행동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 사업단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참여센터 유형별 변화율은 도농복합형의 변화율이 0.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촌형(0.01), 도시형(0.00) 순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33〉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근로관련행동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1(0.18)	-0.80/1.25	-
성별	남성	0.01(0.18)	-0.60/1.25	0.83
	여성	0.00(0.18)	-0.80/1.00	
연령	29세 이하	0.03(0.23)	-0.40/1.25	1.88
	30세 이상 39세 이하	-0.02(0.17)	-0.53/0.43	
	40세 이상 49세 이하	0.01(0.17)	-0.80/1.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1(0.17)	-0.80/1.00	
	60세 이상	-0.01(0.18)	-0.60/0.67	
학력 (N=869)	무학	-0.04(0.21)	-0.60/0.29	1.59
	초졸	0.04(0.21)	-0.40/0.70	
	중졸	-0.02(0.17)	-0.45/0.67	
	고졸	0.00(0.19)	-0.80/1.25	
	대졸	0.02(0.13)	-0.50/0.5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1(0.16)	-0.35/0.67	0.25
	45점 이상 59점 이하	0.00(0.20)	-0.80/1.0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1(0.17)	-0.80/1.25	
	80점 이상	-0.01(0.17)	-0.40/0.67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1(0.17)	-0.80/0.67	0.29
	조건부수급자	0.01(0.19)	-0.80/1.25	
	자활특례자	-0.00(0.16)	-0.60/0.54	
	차상위	0.00(0.20)	-0.60/1.00	
참여 기간	1년 미만	0.01(0.09)	-0.17/0.18	1.35
	1년 이상 3년 이하	0.02(0.18)	-0.45/1.00	
	3년 초과	-0.00(0.18)	-0.80/1.25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5(0.16)	-0.29/0.18	0.65
	인턴 및 도우미형	0.00(0.13)	-0.20/0.43	
	사회서비스형	0.01(0.19)	-0.60/1.25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0(0.18)	-0.80/0.73	
	시간제 사업단	0.00(0.12)	-0.45/0.25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0(0.17)	-0.80/1.25	0.89
	도농복합	0.02(0.18)	-0.80/0.73	
	농촌형	0.01(0.23)	-0.58/1.00	

*p<0.05, **p<0.01, ***p<0.001

② 자활행동_일상생활 변화율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 응답자의 일상생활 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2022년 3.29점, 2023년 3.28점으로 유의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점수의 평균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일상생활 점수 변화율은 0.00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행동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V-3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행동_일상생활	3.29(0.55)	3.28(0.51)	-0.01	0.42

*p<0.05, **p<0.01, ***p<0.00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활사업 참여 특성별 일상생활 점수 변화율을 살펴보면 변화율이 매우 작은 수준이며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여러 구분집단 중에서 학력 집단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된다. 최종학력이 무학인 응답자의 평균 변화율은 -0.07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수준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일상생활 점수 변화율이 0.03으로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표 V-35〉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일상생활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0(0.16)	-0.68/0.70	-
성별	남성	0.01(0.17)	-0.68/0.70	1.53
	여성	-0.00(0.15)	-0.55/0.52	
연령	29세 이하	0.01(0.20)	-0.68/0.70	0.93
	30세 이상 39세 이하	0.02(0.17)	-0.53/0.69	
	40세 이상 49세 이하	-0.01(0.15)	-0.62/0.63	
	50세 이상 59세 이하	0.01(0.14)	-0.49/0.56	
	60세 이상	-0.00(0.16)	-0.41/0.41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학력	무학	-0.07(0.19)	-0.41/0.21	1.49
	초졸	0.03(0.18)	-0.49/0.63	
	중졸	0.00(0.18)	-0.40/0.69	
	고졸	0.00(0.15)	-0.68/0.70	
	대졸	0.01(0.15)	-0.47/0.5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1(0.14)	-0.41/0.43	0.42
	45점 이상 59점 이하	0.00(0.18)	-0.68/0.7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0(0.14)	-0.62/0.56	
	80점 이상	0.02(0.18)	-0.53/0.52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0(0.15)	-0.43/0.70	0.09
	조건부수급자	0.01(0.16)	-0.68/0.69	
	자활특례자	0.00(0.14)	-0.44/0.38	
	차상위	-0.00(0.16)	-0.53/0.42	
참여기간	1년 미만	0.02(0.13)	-0.19/0.20	1.39
	1년 이상 3년 이하	0.01(0.16)	-0.68/0.70	
	3년 초과	-0.00(0.15)	-0.55/0.52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1(0.09)	-0.11/0.20	0.18
	인턴 및 도우미형	-0.01(0.16)	-0.39/0.52	
	사회서비스형	0.00(0.16)	-0.62/0.69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0(0.16)	-0.68/0.70	
	시간제 사업단	0.02(0.16)	-0.43/0.40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0(0.15)	-0.68/0.63	0.02
	도농복합	0.00(0.18)	-0.55/0.69	
	농촌형	0.01(0.18)	-0.49/0.70	

*p<0.05, **p<0.01, ***p<0.001

③ 자활행동_사회적관계행동 변화율

사업단 동료들이나 이웃 및 지인 등 사회적 관계 행동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 행동 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사회적 관계 행동 평균 점수는 2022년 3.97점, 2023년 3.93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사회적 관계 행동 점수의 평균 변화율은 0.02로 적게나마 사회적 관계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3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행동_사회적관계행동	3.97(0.76)	3.93(0.74)	-0.04	1.65

*p<0.05, **p<0.01, ***p<0.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변화율이 0.03으로 여성(0.01)에 비해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 집단별로는 30대 응답자의 변화율이 0.05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으로 29세 이하와 40대의 변화율이 각각 0.02로 높았으며 50대 0.01, 60세 이상 0.00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다. 연령집단별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학력집단별 변화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응답자의 변화율은 0.03, 무학, 초등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졸업 응답자의 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은 0.02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중학교 졸업의 경우에는 -0.01로 다른 학력 집단과 달리 사회적 관계 행동 수준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활역량 점수별로 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80점 이상의 변화율이 0.06으로 가장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45점 이하 0.03, 60~79점 미만 0.02, 45~59점 이하 0.00 순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참여기간 집단 간 변화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1년 미만의 변화율은 0.17, 1년 이상 3년 이하는 0.03, 3년 초과는 0.00으로 사업 참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단 유형별 변화율은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변화율이 0.05로 가장 컸으며 시간제 사업단 참여자의 변화율이 -0.01로 가장 변화율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사업단 유형의 변화율은 모두 0.02로 변화율이 같았으며 사업단 유형별 변화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센터 유형별로 사회적 관계 행동 점수의 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도농복합형이 0.04로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도시형 0.01, 농촌형 0.00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센터 유형별 변화율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V-37〉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

(단위 :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2(0.25)	-0.80/2.33	-
성별	남성	0.03(0.27)	-0.55/2.33	1.36
	여성	0.01(0.23)	-0.80/1.17	
연령	29세 이하	0.02(0.31)	-0.70/1.40	0.93
	30세 이상 39세 이하	0.05(0.35)	-0.47/2.33	
	40세 이상 49세 이하	0.02(0.25)	-0.80/1.17	
	50세 이상 59세 이하	0.01(0.19)	-0.50/0.87	
	60세 이상	0.00(0.22)	-0.79/0.80	
학력	무학	0.02(0.32)	-0.50/0.75	0.37
	초졸	0.02(0.28)	-0.79/0.75	
	중졸	-0.01(0.24)	-0.36/1.00	
	고졸	0.02(0.26)	-0.55/2.33	
	대졸	0.03(0.21)	-0.70/0.86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3(0.22)	-0.50/1.00	1.33
	45점 이상 59점 이하	0.00(0.23)	-0.80/1.17	
	60점 이상 79점 이하	0.02(0.24)	-0.79/1.40	
	80점 이상	0.06(0.37)	-0.47/2.33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1(0.22)	-0.79/0.87	1.67
	조건부수급자	0.04(0.29)	-0.80/2.33	
	자활특례자	-0.01(0.18)	-0.50/0.50	
	차상위	0.01(0.22)	-0.47/0.87	
참여 기간	1년 미만	0.17(0.41)	-0.20/1.40	4.02*
	1년 이상 3년 이하	0.03(0.27)	-0.70/2.33	
	3년 초과	0.00(0.22)	-0.80/1.17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5(0.17)	-0.18/0.30	0.13
	인턴 및 도우미형	0.02(0.28)	-0.29/0.86	
	사회서비스형	0.02(0.24)	-0.79/1.17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2(0.26)	-0.80/2.33	
	시간제 사업단	-0.01(0.24)	-0.46/0.71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1(0.25)	-0.79/2.33	1.01
	도농복합	0.04(0.24)	-0.80/0.80	
	농촌형	0.00(0.22)	-0.36/1.00	

*p<0.05, **p<0.01, ***p<0.001

[그림 V-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 참여기간 구분

(단위: 점)



④ 자활행동_청결외모 변화율

응답자의 청결 및 외모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자활행동 중 청결외모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2022년 4.02점, 2023년 4.03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 응답자의 청결외모 점수 평균 변화율은 0.02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청결 및 외모에 대한 행동 수준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38〉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Mean(S.D.), (단위: 점)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행동_청결외모	4.02(0.75)	4.03(0.75)	0.01	-0.51

*p<0.05, **p<0.01, ***p<0.001

자활역량점수에 따른 청결외모 점수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45점 미만의 변화율이 0.05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45점~59점 이하, 60점~79점 이하의 변화율이 0.02, 80점 이상의 변화율이 0.01로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청결외모 점수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수급유형별로는 차상위 집단의 변화율이 0.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조건부수급자(0.03), 일반수급자(0.02), 자활특례자(0.01)의 순으로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참여기간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의 변화율이 0.16, 1~3년 이하 0.03, 3년 초과 0.02로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청결외모 변화율이 큰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단 유형별 변화율은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변화율이 0.07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인턴 및 도우미형(0.05), 사회서비스형(0.03) 등의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참여센터 유형에 따른 변화율은 도시형 0.02, 도농 복합형 0.03, 농촌형 0.04로 참여센터 유형별 변화율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V-3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청결외모 변화율

(단위: 점)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2(0.21)	-0.71/1.20	-
성별	남성	0.02(0.21)	-0.50/0.87	-0.59
	여성	0.03(0.22)	-0.71/1.20	
연령	29세 이하	0.05(0.23)	-0.43/0.75	0.72
	30세 이상 39세 이하	-0.00(0.20)	-0.60/0.67	
	40세 이상 49세 이하	0.03(0.21)	-0.67/1.0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3(0.20)	-0.50/1.20	
	60세 이상	0.02(0.24)	-0.71/1.14	
학력	무학	-0.01(0.23)	-0.45/0.56	0.62
	초졸	0.05(0.31)	-0.71/1.20	
	중졸	0.04(0.26)	-0.45/1.14	
	고졸	0.02(0.19)	-0.60/1.14	
	대졸	0.02(0.19)	-0.50/0.7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5(0.21)	-0.36/1.14	0.63
	45점 이상 59점 이하	0.02(0.22)	-0.67/1.20	
	60점 이상 79점 이하	0.02(0.21)	-0.71/1.00	
	80점 이상	0.01(0.23)	-0.45/1.1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2(0.20)	-0.71/0.75	0.92
	조건부수급자	0.03(0.22)	-0.67/1.14	
	자활특례자	0.01(0.22)	-0.45/1.14	
	차상위	0.05(0.23)	-0.33/1.20	
참여 기간	1년 미만	0.16(0.26)	-0.13/0.67	2.94
	1년 이상 3년 이하	0.03(0.20)	-0.50/1.20	
	3년 초과	0.02(0.23)	-0.71/1.14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7(0.19)	-0.20/0.43	0.87
	인턴 및 도우미형	0.05(0.16)	-0.43/0.63	
	사회서비스형	0.03(0.22)	-0.71/1.2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1(0.20)	-0.67/1.00	
	시간제 사업단	-0.00(0.21)	-0.50/0.83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2(0.21)	-0.71/1.20	0.81
	도농복합	0.03(0.22)	-0.67/0.83	
	농촌형	0.04(0.25)	-0.45/1.14	

*p<0.05, **p<0.01, ***p<0.001

⑤ 자활행동_건강관리행동 변화율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관리행동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관리행동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2년 3.85점, 2023년 3.88점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건강관리행동 평균점수가 0.03점 증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건강관리행동 점수 평균 변화율은 0.04로 자활행동 하위항목 중 가장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40〉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Mean(S.D.), (단위 : 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T-value
자활행동_건강관리행동	3.85(0.83)	3.88(0.82)	0.03	-1.52

*p<0.05, **p<0.01, ***p<0.001

성별 건강관리행동 변화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변화율은 0.05로 여성(0.03)에 비해 건강관리행동 변화율이 큰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 건강관리행동 변화율은 29세 이하는 0.08, 30대는 0.09, 40대 0.04, 50대와 60대 이상은 각 0.02로 비교적 연령이 낮은 집단인 29세 이하와 30대 참여자의 건강 관리 행동 변화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학력별 건강관리행동 변화율을 확인해보면 초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의 변화율이 각각 0.06으로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0.05, 고등학교 졸업 0.04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 무학의 경우에는 다른 학력집단과 달리 변화율이 -0.10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건강관리행동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학력

집단 간 건강관리행동 점수의 변화율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활역량점수별 건강관리행동 변화율을 살펴보면 60~79점 이하인 응답자의 변화율이 0.05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45점~59점 이하, 80점 이상 응답자(0.04), 45점 미만(0.02) 순으로 변화율이 높았으나 집단 간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수급유형별로는 자활특례자와 차상위의 변화율이 각각 0.05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수급자 0.04, 조건부 수급자 0.03으로 수급유형별 변화율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참여기간별 변화율을 확인해보면 1년 미만의 변화율은 -0.02로 건강관리행동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1~3년 이하의 변화율은 0.05, 3년 초과 변화율은 0.03으로 확인되었다. 참여 기간별 변화율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업단 유형별 변화율은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간제 사업단의 변화율이 0.04로 동일하였으며 게이트웨이 0.03, 인턴 및 도우미형 0.02로 사업단 유형별 건강관리행동 변화율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센터 유형별 변화율을 살펴보면 도농복합형과 농촌형의 변화율이 0.07로 도시형(0.03)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 V-41〉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건강관리행동 변화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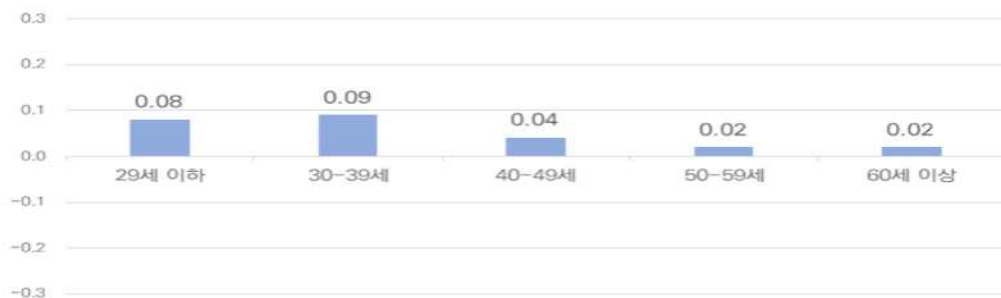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전체		0.04(0.26)	-0.79/1.80	-
성별	남성	0.05(0.23)	-0.57/1.40	0.99
	여성	0.03(0.28)	-0.79/1.80	
연령	29세 이하	0.08(0.31)	-0.58/1.33	2.40*
	30세 이상 39세 이하	0.09(0.31)	-0.60/1.40	
	40세 이상 49세 이하	0.04(0.30)	-0.79/1.80	
	50세 이상 59세 이하	0.02(0.20)	-0.57/1.00	
	60세 이상	0.02(0.23)	-0.77/0.83	
학력	무학	-0.10(0.30)	-0.70/0.44	1.57
	초졸	0.06(0.21)	-0.77/0.67	
	중졸	0.05(0.25)	-0.36/0.83	
	고졸	0.04(0.27)	-0.60/1.80	
	대졸	0.06(0.25)	-0.54/1.33	

	특성	mean(s.d)	min/max	T-value/F-value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0.02(0.28)	-0.70/1.80	0.27
	45점 이상 59점 이하	0.04(0.24)	-0.79/1.33	
	60점 이상 79점 이하	0.05(0.25)	-0.77/1.40	
	80점 이상	0.04(0.37)	-0.58/1.33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0.04(0.26)	-0.77/1.33	0.41
	조건부수급자	0.03(0.27)	-0.79/1.40	
	자활특례자	0.05(0.23)	-0.57/1.00	
	차상위	0.05(0.27)	-0.40/1.80	
참여 기간	1년 미만	-0.02(0.15)	-0.27/0.18	0.71
	1년 이상 3년 이하	0.05(0.27)	-0.58/1.40	
	3년 초과	0.03(0.26)	-0.79/1.80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0.03(0.16)	-0.14/0.29	0.07
	인턴 및 도우미형	0.02(0.29)	-0.40/1.33	
	사회서비스형	0.04(0.25)	-0.77/1.8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0.04(0.27)	-0.79/1.40	
	시간제 사업단	0.04(0.30)	-0.40/0.80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0.03(0.25)	-0.77/1.80	2.22
	도농복합	0.07(0.30)	-0.79/1.33	
	농촌형	0.07(0.26)	-0.40/1.14	

*p<0.05, **p<0.01, ***p<0.001

[그림 V-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_자활행동_건강관리행동 변화율: 연령 구분

(단위 : 점)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

1.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 주요결과
2. 자활사업 참여실태 분석 주요결과
3. 자활사업 참여자 경제적·정서적 자활 분석 주요결과
4. 심층분석: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 변화 주요결과
5.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VI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 <



1.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 주요결과

본 조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과 자활사업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조사를 실시하였다. 자활참여자들의 전체 비율과 함께 각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인 특성과 자활사업 참여특성으로 분류하여, 개인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을 보았으며, 자활사업 참여특성으로는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역량점수, 수급유형을 살펴보았다.

1) 참여자 일반적 특성

먼저, 개인특성의 성별로는 여성 56.1%, 남성 43.9%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50~59세(35.1%), 40~49세(22.5%), 60세 이상(20.9%), 29세 이하(11%) 순으로 나타났다. 30~39세(10.5%)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51.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15.2%)과 중졸(13.9%)이 뒤를 따랐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자활 참여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37.6%)가 가장 많았고 자활역량점수는 60점 이상 79점 이하(41.7%), 45점 이상 59점 이하(36.6%)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참여자의 수급유형은 일반수급자(60.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건부수급자(25.3%)인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에서는 특히 일반수급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경제적 특성

참여자들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채, 소득과 지출, 과거 일 경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부채의 경우 참여자의 54.9%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은 40~49세, 학력은 대졸 이상이 부채가 있는 비율이 높았고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 1년 미만(43.1%), 자활역량 45점 미만과 45점 이상 59점 이하(각 44.7%), 수급유형 조건부 수급자(43.3%)가 상대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참여자들의 부채부담 인지 정도는 평균 7.43점(11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여성일 경우, 연령은 증가할수록, 학력은 낮아질수록, 참여기간 1년 미만, 자활 역량점수 80점 이상, 자활특례자일 경우 부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참여자들의 지출을 보고자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참여자의 32.9%가 100만 원~1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만 원 이상(23.1%),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19.6%)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지출항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식료품비(81.7%)가 1위를 차지하였고, 2위 주거비(52.1%), 3위 난방비(29.1%) 순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식료품비 지출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생활 수준별 필요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근근이 살아가는 것에는 평균 120만 원, 그럭저럭한 생활은 평균 163만 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2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25만 원의 지출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참여자의 과거 일 경험과 중단 시점에 대한 조사결과 참여자 대부분 과거 일 경험이 있었으며(74.3%), 일자리 중단 시점이 대부분 3년 이상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년 이상 된 참여자들도 2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창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긴 시간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과거 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201만 원 미만이 4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은 101만 원 미만(18.8%)으로 매우 적은 소득을 받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과거에 일을 중단한 사유는 1위는 건강상의 이유(신체적, 정신적)가 28.9%, 2위는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11.7%), 3위는 실직(11.5%)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건강상의 이유가 1순위로 참여자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참여자 중 30대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 중단이 1위(2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19.3%)일 경우, 고졸(13.0%), 대졸(11.4%)일 경우 특히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 중단 문제가 심각한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30~39세에 해당하는 여성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확인되었다.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

자활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특성을 살펴보고자 신체적 건강은 동작의 어려움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여부 및 제공자, 건강문제로 인한 자활참여의 어려움을 살펴보았으며, 정신건강으로는 간이 정신건강 BSI-18 척도를 활용한 신체화, 우울, 불안 점수와 PHQ-9 우울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신체적 건강의 경우, 신체적 동작 어려움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4점 만점에서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3.17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동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는 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69.4%로 참여자 대부분 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중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1.5%의 응답자들의 경우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함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9.1%),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오롯이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비율이(44.4%)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신체 건강의 문제는 자활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참여자 중 49%는 건강문제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활특례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이 심각성이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긴급한 관련 서비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의 경우 신체화 평균 13.67점, 우울 평균 11.95점 불안 평균 12.60점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이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울증 진단을 위한 PHQ-9 척도 활용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참여자(51.4%)가 우울증상이 없는 참여자(48.6%)보다 근소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치료를 요하는 중한 증상은 7.0%,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심한 증상은 5.0%, 경한 증상은 13.0%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활특례자는 정신건강점수와 우울점수 모두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나, 이들의 정

신건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도 5점 만점 평균 2.7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 상태에 관한 만족도가 2.12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건강의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에도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건강 관련 서비스 및 일상생활 도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치료방안 모색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급여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4) 주거 특성

참여자들의 주거 특성은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의 안정성과 주거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주거 안정성으로는 현재 거주지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비율이 52.4%로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당장 이주는 6.2%, 1년 내에 이주는 13.3%로 나타나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집의 튼튼함, 내외부 쾌적함, 안전함과 편의시설, 대중교통의 편리함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평균 3.2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은 보통 수준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 내부의 쾌적함(3.10점)과 주변이 쾌적함(3.08점)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내부와 외부 쾌적함이 각 3.04점으로 각 유형 중 가장 열악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참여자들에게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특성

참여자들의 가족 및 사회관계 특성을 살펴보고자 가족형태(동거인 여부, 가구원 수, 동거인 형태), 돌봄 특성(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유무 및 유형, 돌봄 서비스 이용 방식 및 부담), 사회관계(가족지지, 사회적 자본)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로, 가족형태부터 살펴보자면, 참여자들의 1인 가구 비율이 48.1%로 상대적으로 높

았다. 특히, 남성 참여자(65.7%)가 여성 참여자(34.6%)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참여기간이 1년 미만, 자활 역량점수 45점 미만, 자활특례자일 경우에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62.7%)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성별이 여성(74.0%)인 경우, 연령이 40-49세(81.1%),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70.4%), 시설수급자(80.0%)일 때 상대적으로 자녀와 거주할 비율이 높아 이들이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자활참여가 어렵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면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4.8%가 돌봄이 필요하였으며, 1위가 노인(41.4%)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위는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가족(22.8%)으로 나타났으나, 자녀 돌봄으로 초등학교생(13세 미만)(21.9%)과 미취학 아동(11.3%)의 응답을 종합하면, 자녀돌봄 또한 33.2%를 차지하여 자녀 돌봄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전적으로 본인이 돌봄을 하고 있었으며(63.5%), 이에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감 또한 6.40점(10점 만점)으로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여성 참여자들에게서 이러한 돌봄부담이 6.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과거 일을 관둔 이유에서도 가족 돌봄이 큰 쿼터를 차지하였듯, 자활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가족 돌봄의 부담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가족지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4.10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과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3.99점).’ 문항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가족과 함께 나누거나 의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 여성 참여자(4.30점)에 비해 남성 참여자(3.85점)의 가족지지가 매우 취약하였고, 참여기간 1년 미만(3.98점), 시설수급자(3.86점)의 경우에도 가족지지가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남성인 경우,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인 가구일 비율 또한 매우 높았기에 이들이 동거가족이 부재한 것과 더불어 가족지지 또한 낮아 지지체계 회복을 위한 개입이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의 경우 평균 2.70점(5점 만점)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사회참여(1.62점)가 가장 취약하였고 네트워크 수준(2.34점) 또한 낮아 주변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주변 이웃과의 교류나 도움을 받을 만한 지지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규범의식은 3.8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또한 3.30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이는 앞으로의 사회참여 기회 및 지역사회 내의 이웃과 교류 기회를 늘릴 경우 충분히 사회적 자본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인하였다.

6) 사회서비스 이용

참여자들의 사회서비스 이용현황과 필요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이용현황(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황 및 필요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38.4%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47.9%)일 경우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짧을수록 2년 내 검진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아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참여자 중 27.5%가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가장 큰 이유 1위는 비용이 부담되어서(69.1%)로 비용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로는 치과 치료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질환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26.5%, 물리치료(관절염, 통풍 등) 25.4%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건강 외에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은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가 24.8%로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만족도는 3.33점(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3.37점)이며, 노인일자리가 3.1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수급유형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희망근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이들의 근로 역량을 향상할 훈련과 함께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공공근로 또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용해 본 사회서비스 1위는 생계비 지원(73.6%), 2위 의료비 지원(70.6%), 3위 물품 지원(5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유형에서 생계비 지원 경험률이 가장 높았지만, 참여기간 3년 초과(72.2%), 자활특례자(79.1%)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추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원(4.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남성과 초기진입 참여자, 자활특례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참여자들에게 의료비용의 부담을 감소시켜 줄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원활한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 고비용인 치과 진료나 만성질환 관리,

물리치료 등에 대한 의료적 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요구는 참여자들이 뽑은 필요한 사회서비스 1위 또한 의료비 지원(4.33점, 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참여자들이 건강 문제로 인해 기존 일자리를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자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가 다수였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여 향후 원활한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 의료 관련 서비스나 의료비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자활사업 참여실태 분석 주요결과

1)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자활사업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자활참여 이유와 사업단 이동경험, 자활사업 중 구직경험과 자격증 취득 현황을 조사하여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현황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자활 참여 이유 1위는 생활비 지출이 늘어(51.4%), 2위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30.9%), 3위는 취업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27.8%)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1위로는 자활사업 참여로 지급되는 자활수익이 적어서(63.5%), 2위 자활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23.3%), 3위 취·창업에 도움이 안 되어서(22.7%)로 나타났다.

둘째로, 참여자 사업단 이동 경험과 관련한 조사결과 사업단을 이동한 적이 있는 참여자는 28.7%였으며, 평균 이동 횟수는 1.52회로 나타났다. 사업단 이동 사유 1위는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 재배치(17.7%), 2위는 사업단의 종료(17.2%) 3위 건강이 안 좋아져서(13.8%)로 드러났다. 특히 자활기간이 길고, 자활역량 점수가 80점 이상 일 경우, 수급유형이 자활특례자일 경우 사업단 이동 이유 1위가 사업단 종료 때문으로 전체 1위인 원하는 사업단으로의 재배치보다 약 10%p가량 더 높게 나타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업단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로, 구직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자활사업 참여 중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험이 없다(76.0%)고 응답하였다. 해당 사유 1위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5.6%), 2위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4.1%), 3위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13.7%)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

가 자활사업 참여 중 마지막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한 시기 1위는 6개월 미만(31.6%)으로 대부분 비교적 최근 구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자활참여 기간이 길고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수급유형은 자활특례자(33.3%)일 경우 구직 경험이 2년 이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로, 자격증 취득 및 자격증 도움인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응답은 37.1%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개수는 평균 1.93개(국가공인자격증과 민간자격증 총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 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취득 자격증의 평균 개수가 증가하였다. 추가로 취득한 자격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도움 인지 정도의 경우 평균 5.88점(10점 만점)으로 자격증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로 나타나 자격증의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급유형 중 시설수급자가 자격증 평균 개수도 가장 많았고 도움인지 평균 점수 또한 가장 높았다.

2)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참여자의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자활사업 및 사업단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자활사업 및 사업단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9점(5점 만점)으로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은 근로하는 작업장이 안전함(3.65점)으로 대체로 근로 환경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하위 영역은 자활급여와 관련된 만족도로 유일하게 2.46점으로 2점대를 기록하여 자활급여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활 유형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역량점수는 60점 이상일 때 만족도 평균이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전반에 대해 보고자 이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로 2가지 하위 영역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5.01점(7점 만점)으로 자활사업 서비스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공급자 만족도는 평균 5.22점,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4.7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각 하위 유형의 문항별 만족도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 세부 문항에서는 이곳 직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의껏 함(5.53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곳 직원은 본인 업무보다 내 요구를 먼저 들어줌(4.67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서비스 결과 세부 문항으로는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음, 내가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임이 각 5.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고 이곳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음(4.26점)이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고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 기간이 짧은 참여자들에게는 서비스 결과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으며, 상대적으로 참여 기간이 오래된 참여자들에게는 서비스 제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접근을 통해 참여 기간별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경험 및 향후 근로 욕구

참여자들의 근로 관련 요구를 파악하고자 자활사업 관련, 자활사업 종료 후 취·창업 관련으로 2가지 방향의 요구를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자활사업과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업단 업종과 자활 근로형태 및 시간제 근로 선택 사유를 조사하였고, 자활근로 종료 후 근로 요구는 취·창업 중 선호하는 유형과 취·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을 수집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이 원하는 사업단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실제로 참여 가능한 업종, 건강이나 사정의 제약이 없다면 참여하고 싶은 업종 3분야로 나누어, 모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유형 모두 카페·베이커리 사업단이 모두 약 30% 내외 수준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은 사업단 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를 하고 싶지만 건강이나 조건등의 문제로 실제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청소의 경우 참여하고 싶은 비율보다 실제로 참여가 가능한 비율이 약 10%p 가까이 높게 나타나 실제로 원하는 않지만 상황이 나 조건 등으로 청소사업단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원하는 자활근로 형태 및 시간제 근로 선택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23.7%의 참여자가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근로가 어려워(4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양육 및 돌봄의 이유로 인해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것

로 분석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는 평균 4.71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하루 근로시간은 평균 5.37시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 종료 후 취·창업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 자활사업 종료 후 창업(29.2%)보다 대부분 취업(70.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희망 시 고려 조건 1위는 급여수준(28.5%), 2위 근로 시간(24.2%)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희망 시 고려 조건은 1위가 장래성 및 발전 가능성(19.2%), 2위는 소득(19.1%)으로 나타났으나 3위는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여부(14.4%)와 4위 창업 자금 마련(14.0%) 모두 금전적인 지원에 해당하기에 취·창업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결과적으로 ‘소득’으로 파악되었다.

3. 자활사업 참여자 경제적·정서적 자활 분석 주요결과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제적 자활 정도는 3.03점(5점만점)으로 정서적 자활과 같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가족과 개인웰빙(3.24점), 자율성과 자기결정(3.22점)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2.69점)과 재정적 안정과 책임은(2.99점) 모두 3점대 이하로 나타나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점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자활사업 참여자 정서적 자활 및 웰빙을 조사하고자 정서적 자활 수준은 자활사업 참여 전·후 참여자의 태도 변화 수준을 자활의지 변화, 고용장벽에 대한 인지변화, 자활행동 변화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정서적 자활 조사 결과, 각 5점 만점에서 자활의지 변화는 평균 3.60점, 고용 장벽 변화는 평균 3.20점, 자활 행동 변화는 평균 3.91점으로 정서적 자활을 측정하는 3가지 항목 모두 자활사업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활 행동이 사업 참여 후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특성별로는 자활의지와 고용장벽 변화는 참여 기간이 짧고 자활역량점수가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반대로 자활 행동변화는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더 크게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구성요소의 하위 영역 중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활 의지 변화는 가치와 역량(3.69점)이, 고용 장벽 변화는 인적자본 향상정도(3.31점)가, 자활행동 변화는 근로관련행동(4.54점)이 긍정적으로 높은 변화를 이룬 요소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관련행동 변화는 5점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심층분석 :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 변화 주요결과

1) 경제적 자활 변화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율을 확인하여 자활사업의 경제적 자활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경제적 자활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활 점수의 변화율을 확인해 본 결과, 경제적 자활 변화율은 0.02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경제적 자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역량점수, 수급유형, 사업 참여기간, 사업단 유형 및 참여센터 유형 등 자활사업 참여 특성별 경제적 자활 변화율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활 하위지표별로 살펴보면, 자활성과 자기결정 점수의 변화율은 0.01로 경제적인 자활성이나 자기결정 수준은 2022년에 비해 2023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활성과 자기결정 점수의 변화율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사업 참여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재정적 안정과 책임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정적 안정과 책임 점수의 변화율은 0.06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는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역량점수 및 참여기간, 참여 사업단 유형과 같은 자활사업 참여 특성별 재정적 안정과 책임 점수의 변화율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족과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수준을 확인한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의 변화율은 0.06으로 다른 경제적 자활 점수들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경제적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 및 개인웰빙 변화율은 응답자의 최종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학의 경우 다른 학력 집단에서 가족 및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수준이 양호해진 것으로 확인된 것에 반하여 변화율이 -0.10으로 2022년에 비해 가족이나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여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가 증가한 다른 학력 집단 중 초등학교 졸업의 변화율이 0.2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가족 및 개인웰빙 평균 점수를 확인해보면 무학의 가족 및 개인웰빙 평균 점수는 3.09로 초등학교 졸업(3.07점) 다음으로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가 낮았으며 다른 학력집단과 달리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여 다른 집단과의 가족 및 개인웰빙

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수준의 변화율은 0.07로 경제적 자활 하위지표 중 가장 큰 변화율을 보여 기본자산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수준 변화율을 확인해 본 결과, 경제적 자활 점수 및 경제적 자활의 하위항목인 자유성과 자기결정, 재정적 안정과 책임, 가족 및 개인 웰빙, 기본자산 모두 플러스 변화율을 보여 2022년 대비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경제적 자활 하위항목 중 가족이나 개인을 위한 복지에 대한 경제적 수준은 학력수준이 가장 낮은 무학 집단에서 다른 학력집단과 달리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여 학력수준에 따른 경제적 자활 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정성적 자활 변화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의 정성적 자활 점수 변화율을 확인하여 자활사업의 자활 성과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정성적 자활 변화율은 0.01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전반적인 정서적·직업적 역량이나 행동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정서적 자활 변화율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변화율은 0.02로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0.00으로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였다. 2022년 정성적 자활 점수를 비교해보면 남성이 3.69점, 여성이 3.75점으로 남성의 정성적 자활 수준이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활사업의 효과로 인하여 2023년에는 이러한 남녀의 정성적 자활 수준의 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각 정서적 자활지표의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나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지향, 기술과 자원 활용 등에 대한 자활의지의 변화를 확인해보면 자활의지 점수의 변화율은 0.02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학력과 같은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역량점수나 자활참여기간, 참여 사업단 유형 등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자활의지 변화율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활의지의 하위항목인 가치역량의 변화율은 0.02, 미래전망동기부여의 변화율은 0.03, 기술과 자원활용의 변화율은 0.06, 목표지향의 변화율은 0.03으로 자활의지의

하위항목 모두에 대해 자활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관련 기술 및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근로관련 기술 및 인적자원 활용 수준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의 기술과 자원활용 변화율은 0.10, 여성의 변화율은 0.04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술과 자원활용에 있어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근로를 위한 인적자본이나 정보의 충분한지에 대한 근로장벽 점수의 변화율은 0.08로 자활의지나 자활행동에 비해 근로장벽의 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근로장벽의 변화율은 응답자의 학력과 참여센터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학력 집단에서 근로장벽 변화율이 플러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졸업(0.17)과 중학교 졸업(0.20)의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센터 유형별로는 도농복합형이 0.15, 농촌형 0.09, 도시형 0.06 순으로 변화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장벽의 하위항목인 인적자본 향상의 변화율은 0.10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정보 향상의 변화율은 0.11로 인적자본과 고용정보 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인적자본 향상의 경우 학력 집단별로 변화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교적 고학력 집단인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보다 저학력 집단인 무학(0.10), 초등학교 졸업(0.20), 중학교 졸업(0.21)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저학력 집단에서 고학력 집단에 비해 인적자본 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정보향상의 변화율은 응답자의 학력과 사업단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용정보향상 변화율은 중학교 졸업이 0.26, 초등학교 졸업 0.19로 비교적 저학력 집단에서 고용정보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장 학력이 낮은 집단인 무학에서는 변화율이 0.00으로 확인되어 자활사업의 고용정보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형의 변화율이 0.16으로 다른 사업단 유형에 비해 고용정보 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게이트웨이의 고용정보 향상 변화율은 -0.12로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여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고용정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특히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반적인 자활행동의 변화율은 0.01로 자활행동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활행동의 하위항목 중 근로관련행동의 변화율은 0.01로 확인되었으며 일상생활 행동 변화율은 0.00, 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은 0.02, 청결외모의 변화율 0.02, 건강관리행동의 변화율은 0.04로 확인되어 특히 일상생활 행동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관계 행동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단 동료나 실무자와의 관계가 새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활사업 진입 초기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 행동 변화율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9세 이하와 30대 참여자의 건강관리 행동 변화율이 각각 0.08, 0.0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변화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강관리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변화율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년층인 29세 이하와 30대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건강관리 수준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5.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 자활사업 내 참여자 유형 발굴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본 조사에 따르면, 참여기간과 자활역량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자립 장애요인)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I-1〉 조사결과 도출된 자활사업 참여자 특징

참여기간/ 자활역량	단기(1년이내)	장기(3년초과)
역량 낮음(59점 이하)	- 월평균 가구 생활비 적음 - 가족지지 적음 - 주관적 건강상태 어려움 -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 - 주거 문제 요구 - 의료서비스 경험 적음	- 월평균 가구 생활비 적음 - 1인가구 비중 높음 - 장기 실업 경험(8년이상) - 우울, 불안 정도 높음
역량 높음(60점 이상)	- 부채 문제 존재 - 부채에 대한 부담 높음 - 고강도 노동에 대한 두려움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경험 많음	- 삶의 만족도 높음 - 사회적 자본 축적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존재 - 사업단 이동 높음 - 사회서비스(경제적 지원) 이용 경험 많음

역량이 낮고, 단기 참여자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재진단과 만성 질환을 치료할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활능력 향상이 요구되며 일상생활 지원 역시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역량이 낮고, 장기참여자의 경우 우울, 불안 정도가 높은 점, 1인가구 비중이 높고, 장기 실업기간의 경험이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연계와 자활의지(자존감, 동기)등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단으로의 배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역량이 높고, 단기참여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금융 복지 서비스 연계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창업을 시도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보다 취창업 목표를 설정하고 부족한 학력, 자격 등을 보완하는 직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량이 높고, 장기 참여자의 경우 취창업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고, 취·창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연계와 적극적인 고용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2) 참여자 대상 대인·사회관계 강화 프로그램 요구

본 조사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자활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가 23.3%로 나타난 점,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의 경우 평균 2.70점(5점 만점)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점, 특히 사회참여(1.62점)가 가장 취약하였고 네트워크 수준(2.34점) 또한 낮아 주변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주변 이웃과의 교류나 도움을 받을 만한 지지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이웃관계가 적은 상태에서 자활 참여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특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의 자활사업 구조상 자활사업의 구조상 “사업단” 조직 안에서 관계의 다이내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참여 동기를 강화시키고, 사업단 구조 내에서 참여자들의 자립유인 강화, 역량 증대를 위한 대인·사회관계 강화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사례관리 영역에서만 아닌 사업단 공동교육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자활사업의 정책적 목표 다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편

'23년 10월에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활사업에서 “탈수급”이라는 결과적·정량적 평가 지표 외에도 개인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그동안 자활사업이 결과적 성과에 중점을 맞춰있던 것에서 나아가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자활의지, 근로 장벽, 자활행동 등 정서적 효과에도 주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변화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22년도 실태조사와 23년도 실태조사의 중복 참여대상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22년도와 23년도의 동일한 대상에 대한 년도 평균 비교 결과, 경제적 자활은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자활에 있어서는 자활행동에서 청결유지, 건강관리행동이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장벽인지에서 인적자본향상 정도가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의 자립 장애요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의 개선이 자활사업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자 개인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보나 교육 등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과정적 성과로서 자활 의지(가치와 역량, 미래전망동기부여, 목표지향)은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자활사업은 사업단의 창업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자활사업은 게이트 웨이, 시간제 사업단, 청년자립도전단 등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활사업이 변화되는 정책적 목표에 맞춰 세부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표 VI-2〉 경제적 자활 22년도 평균 대비 23년도 평균의 증감

N=978,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경제적 자활	2023년도 경제적 자활	증감	T-value
경제적 자활	3.11(0.83)	3.05(0.82)	-0.06	2.57*
자율성과 자기결정	3.33(0.86)	3.23(0.86)	-0.10	3.56***
재정적 안정과 책임	3.07(1.02)	3.01(1.00)	-0.06	1.76
가족과 개인웰빙	3.31(1.00)	3.27(0.99)	-0.04	1.34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2.75(0.91)	2.71(0.88)	-0.04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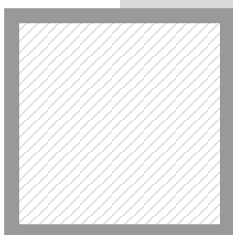
〈표 VI-3〉 정서적 자활 22년도 평균 대비 23년도 평균의 증감

N=978,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정서적 자활	2023년도 정서적 자활	증감	T-value
정서적 자활(전체)	3.73(0.58)	3.71(0.57)	-0.02	0.75
자활의지	3.65(0.79)	3.62(0.80)	-0.03	1.18
가치와 역량	3.69(0.82)	3.66(0.83)	-0.03	1.21
미래전망동기부여	3.67(0.92)	3.63(0.93)	-0.04	1.47
기술과 자원활용	3.58(0.93)	3.59(0.93)	0.01	-0.51
목표지향	3.67(0.94)	3.60(0.93)	-0.07	2.27*
자활행동	3.99(0.50)	3.98(0.50)	-0.01	0.53
근로관련행동	4.60(0.58)	4.57(0.63)	-0.03	1.44
일상생활	3.29(0.55)	3.28(0.51)	-0.01	0.42
사회적관계행동	3.97(0.76)	3.93(0.74)	-0.04	1.65
청결유지	4.02(0.75)	4.03(0.75)	0.01	-0.51
건강관리 행동	3.85(0.83)	3.88(0.82)	0.03	-1.52
고용장벽인지 완화	3.23(0.92)	3.24(0.86)	0.01	-0.49
인적자본향상정도	3.32(1.02)	3.37(0.98)	0.05	-1.27
고용정보향상정도	3.13(1.00)	3.12(0.95)	-0.01	0.37

4)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 정책 실태조사 필요

22년, 23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과 자활사업에 대한 욕구, 자활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제는 자활사업의 세부 개편을 통해 자활사업의 질적 향상 및 고도화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 침체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활사업이 나아갈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데이터 누적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1.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의 변화
2. 2023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설문지

1.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의 변화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 실태조사 모두 응답한 응답자 978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과 정성적 자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 학력, 자활역량점수, 수급유형, 참여기간, 사업단 유형, 자활사업유형별로 자활효과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해 보았다.

1)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변화¹²⁾

(1) 경제적 자활 변화

〈부록-1〉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경제적 자활	2023년도 경제적 자활	증감	T-value
전체		3.11(0.83)	3.05(0.82)	-0.06	2.57*
성별	남성	3.15(0.85)	3.13(0.81)	-0.02	0.75
	여성	3.09(0.82)	3.00(0.82)	-0.09	2.72**
연령	29세 이하	3.49(0.77)	3.45(0.78)	-0.04	0.57
	30세 이상 39세 이하	3.32(0.87)	3.22(0.83)	-0.10	1.45
	40세 이상 49세 이하	3.06(0.81)	2.94(0.78)	-0.12	2.53*
	50세 이상 59세 이하	2.99(0.83)	2.92(0.81)	-0.07	1.79
	60세 이상	3.02(0.78)	3.08(0.80)	0.06	-0.92
학력 (N=869)	무학	2.92(0.79)	2.64(0.73)	-0.28	1.75
	초졸	2.85(0.81)	3.09(0.80)	0.24	-2.39*
	중졸	3.10(0.78)	3.05(0.82)	-0.05	0.62
	고졸	3.11(0.85)	3.02(0.81)	-0.09	2.69**
	대졸	3.26(0.78)	3.21(0.81)	-0.05	0.79

12) 경제적 자활 항목 중 '빛을 갠을 여유가 있다'라는 항목과 '아이를 보내고 싶은 교육활동에 보낼 여유가 있다'라는 항목은 각각 빛이 없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비해당으로 제외된다. 심층분석의 경우 배해당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많아 이 분석에서는 두 항목을 제외하고 경제적 자활 점수를 계산하였음

		2022년도 경제적 자활	2023년도 경제적 자활	증감	T-value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29(0.78)	3.13(0.81)	-0.16	2.20*
	45점 이상 59점 이하	3.03(0.82)	2.98(0.81)	-0.05	1.30
	60점 이상 79점 이하	3.14(0.84)	3.09(0.82)	-0.05	1.38
	80점 이상	3.00(0.85)	2.97(0.82)	-0.03	0.2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17(0.84)	3.10(0.84)	-0.07	1.77
	조건부수급자	3.04(0.80)	2.96(0.81)	-0.08	2.22*
	자활특례자	3.10(0.81)	3.06(0.71)	-0.04	0.64
	차상위	3.23(0.90)	3.24(0.85)	0.01	-0.10
참여 기간	1년 미만	3.37(0.80)	3.63(0.67)	0.26	-1.56
	1년 이상 3년 이하	3.11(0.84)	3.05(0.84)	-0.06	1.73
	3년 초과	3.11(0.83)	3.04(0.79)	-0.07	2.13*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39(0.58)	2.98(0.54)	-0.41	2.28
	인턴 및 도우미형	3.33(0.87)	3.40(0.88)	0.07	-0.49
	사회서비스형	3.00(0.81)	2.96(0.82)	-0.04	1.09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31(0.82)	3.22(0.79)	-0.09	2.39*
	시간제 사업단	2.77(0.77)	2.57(0.65)	-0.20	2.01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3.07(0.82)	3.00(0.82)	-0.07	2.39*
	도농복합	3.15(0.84)	3.10(0.78)	-0.05	0.83
	농촌형	3.33(0.87)	3.27(0.83)	-0.06	0.68

*p<0.05, **p<0.01, ***p<0.001

(2) 경제적 자활_자율성과 자기결정 변화

〈부록-2〉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_자율성과 자기결정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경제적자활_ 자율성과 자기결정	2023년도 경제적자활_ 자율성과 자기결정	증감	T-value
전체		3.33(0.86)	3.23(0.86)	-0.10	3.56***
성별	남성	3.34(0.87)	3.27(0.84)	-0.07	1.45
	여성	3.32(0.85)	3.20(0.87)	-0.12	3.44***
연령	29세 이하	3.65(0.82)	3.54(0.85)	-0.11	1.45
	30세 이상 39세 이하	3.45(0.90)	3.37(0.88)	-0.08	0.96
	40세 이상 49세 이하	3.27(0.81)	3.11(0.82)	-0.16	3.06**
	50세 이상 59세 이하	3.23(0.86)	3.12(0.84)	-0.11	2.30*
	60세 이상	3.29(0.86)	3.31(0.87)	0.02	-0.33
학력 (N=869)	무학	3.25(0.80)	2.88(0.94)	-0.37	2.05
	초졸	3.06(0.92)	3.31(0.89)	0.25	-2.28*
	중졸	3.33(0.83)	3.24(0.85)	-0.09	0.97
	고졸	3.33(0.87)	3.20(0.84)	-0.13	3.30**
	대졸	3.44(0.80)	3.36(0.86)	-0.08	1.2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51(0.80)	3.29(0.87)	-0.22	2.80**
	45점 이상 59점 이하	3.27(0.86)	3.17(0.84)	-0.10	1.95
	60점 이상 79점 이하	3.33(0.86)	3.28(0.86)	-0.05	1.41
	80점 이상	3.25(0.90)	3.09(0.88)	-0.16	1.52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38(0.87)	3.25(0.88)	-0.13	2.76**
	조건부수급자	3.26(0.83)	3.15(0.86)	-0.11	2.69**
	자활특례자	3.31(0.86)	3.22(0.77)	-0.09	1.26
	차상위	3.42(0.89)	3.45(0.87)	0.03	-0.31
참여 기간	1년 미만	3.54(0.78)	3.81(0.65)	0.27	-1.44
	1년 이상 3년 이하	3.33(0.86)	3.23(0.88)	-0.10	2.60**
	3년 초과	3.32(0.85)	3.22(0.84)	-0.10	2.65**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61(0.66)	3.25(0.65)	-0.36	1.31
	인턴 및 도우미형	3.48(0.84)	3.48(0.86)	0.00	0.05
	사회서비스형	3.23(0.85)	3.15(0.86)	-0.08	2.34*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49(0.85)	3.38(0.84)	-0.11	2.66**
	시간제 사업단	2.93(0.72)	2.84(0.75)	-0.09	0.79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3.29(0.84)	3.18(0.86)	-0.11	3.48***
	도농복합	3.34(0.87)	3.29(0.82)	-0.05	0.74
	농촌형	3.51(0.90)	3.43(0.87)	-0.08	1.04

*p<0.05, **p<0.01, ***p<0.001

(3) 경제적 자활_재정적 안정과 책임¹³⁾ 변화

〈부록-3〉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자활_재정적 안정과 책임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경제적자활_재 정적 안정과 책임	2023년도 경제적자활_재 정적 안정과 책임	증감	T-value
전체		3.07(1.02)	3.01(1.00)	-0.06	1.76
성별	남성	3.15(1.00)	3.10(0.96)	-0.05	0.98
	여성	3.01(1.03)	2.95(1.02)	-0.06	1.47
연령	29세 이하	3.51(0.91)	3.52(0.86)	0.01	-0.07
	30세 이상 39세 이하	3.39(1.01)	3.21(1.02)	-0.18	1.99*
	40세 이상 49세 이하	2.98(1.04)	2.91(0.98)	-0.07	1.25
	50세 이상 59세 이하	2.91(1.02)	2.83(1.01)	-0.08	1.43
	60세 이상	2.98(0.96)	3.03(0.95)	0.05	-0.69
학력 (N=869)	무학	2.83(0.91)	2.71(1.02)	-0.12	0.58
	초졸	2.73(0.95)	3.08(1.00)	0.35	-2.53*
	중졸	3.09(0.94)	3.03(1.03)	-0.06	0.61
	고졸	3.03(1.04)	2.97(0.99)	-0.06	1.40
	대졸	3.30(0.99)	3.21(0.96)	-0.09	1.2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26(1.00)	3.10(0.99)	-0.16	1.71
	45점 이상 59점 이하	2.97(0.99)	2.94(0.99)	-0.03	0.51
	60점 이상 79점 이하	3.10(1.04)	3.04(1.01)	-0.06	1.49
	80점 이상	2.95(1.07)	3.01(2.79)	0.06	-0.42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13(0.98)	3.10(1.01)	-0.03	0.47
	조건부수급자	3.00(1.04)	2.92(1.02)	-0.08	1.57
	자활특례자	3.06(1.03)	2.97(0.87)	-0.09	0.92
	차상위	3.15(1.05)	3.12(1.00)	-0.03	0.31
참여 기간	1년 미만	3.31(0.84)	3.44(1.08)	0.13	-0.42
	1년 이상 3년 이하	3.08(1.04)	3.01(1.01)	-0.07	1.37
	3년 초과	3.05(1.01)	3.00(0.98)	-0.05	1.22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48(0.77)	2.52(1.00)	-0.96	4.26**
	인턴 및 도우미형	3.40(1.13)	3.41(1.02)	0.01	-0.06
	사회서비스형	2.93(1.01)	2.90(1.01)	-0.03	0.62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28(1.00)	3.22(0.95)	-0.06	1.33
	시간제 사업단	2.73(1.06)	2.46(0.91)	-0.27	1.97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3.01(1.02)	2.97(1.00)	-0.04	0.98
	도농복합	3.17(1.00)	3.06(0.96)	-0.11	1.49
	농촌형	3.27(1.02)	3.19(1.04)	-0.08	0.86

*p<0.05, **p<0.01, ***p<0.001

13) 경제적 자활의 재정적 안정과 책임을 측정하는 항목 중 '빚을 갚을 여유가 있다'라는 항목은 빚이 없는 경우는 비해당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재정적 안정과 책임 점수를 계산하였음

(4) 경제적 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¹⁴⁾ 변화

〈부록-4〉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경제적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	2023년도 경제적자활_가족 및 개인웰빙	증감	T-value
전체		3.31(1.00)	3.27(0.99)	-0.04	1.34
성별	남성	3.31(1.01)	3.32(1.01)	0.01	-0.23
	여성	3.31(1.00)	3.23(0.98)	-0.08	1.93
연령	29세 이하	3.72(0.96)	3.76(3.59)	0.04	-0.43
	30세 이상 39세 이하	3.57(0.96)	3.47(0.93)	-0.10	1.10
	40세 이상 49세 이하	3.29(0.98)	3.18(0.94)	-0.11	1.66
	50세 이상 59세 이하	3.15(0.99)	3.11(1.01)	-0.04	0.76
	60세 이상	3.19(1.01)	3.21(0.99)	0.02	-0.22
학력 (N=869)	무학	3.09(0.95)	2.63(0.85)	-0.46	2.22*
	초졸	3.07(1.11)	3.32(0.97)	0.25	-1.68
	중졸	3.25(0.98)	3.19(1.04)	-0.06	0.64
	고졸	3.34(1.00)	3.23(0.99)	-0.11	2.45*
	대졸	3.42(0.90)	3.46(0.92)	0.04	-0.57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49(0.93)	3.33(0.95)	-0.16	1.76
	45점 이상 59점 이하	3.24(1.01)	3.18(1.00)	-0.06	1.02
	60점 이상 79점 이하	3.33(1.02)	3.32(1.01)	-0.01	0.24
	80점 이상	3.14(0.93)	3.15(0.94)	0.01	-0.11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34(1.05)	3.34(1.00)	0.00	0.13
	조건부수급자	3.29(0.97)	3.18(0.99)	-0.11	2.20*
	자활특례자	3.29(0.94)	3.25(0.91)	-0.04	0.54
	차상위	3.30(1.06)	3.39(1.04)	0.09	-0.83
참여 기간	1년 미만	3.69(0.83)	4.12(0.74)	0.43	-2.09
	1년 이상 3년 이하	3.29(1.00)	3.26(0.99)	-0.03	0.57
	3년 초과	3.32(1.00)	3.25(0.99)	-0.07	1.55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64(0.63)	3.64(0.85)	0.00	0.00
	인턴 및 도우미형	3.50(1.02)	3.63(0.95)	0.13	-0.85
	사회서비스형	3.18(1.01)	3.18(1.03)	0.00	0.08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51(0.96)	3.41(0.93)	-0.10	2.04*
	시간제 사업단	3.08(1.00)	2.84(0.83)	-0.24	1.50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3.27(0.99)	3.20(0.99)	-0.07	1.87
	도농복합	3.33(1.00)	3.35(0.95)	0.02	-0.23
	농촌형	3.53(1.04)	3.55(0.99)	0.02	-0.20

*p<0.05, **p<0.01, ***p<0.001

14) 가족 및 개인웰빙을 측정하는 항목 중 '아이를 보내고 싶은 교육활동에 보낼 여유가 있다'라는 항목은 자녀가 없는 경우는 비 해당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를 계산하였음

(5) 경제적 자활_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변화

〈부록-5〉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자활_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경제적자활_사 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2023년도 경제적자활_사 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증감	T-value
전체		2.75(0.91)	2.71(0.88)	-0.04	1.21
성별	남성	2.81(0.95)	2.82(0.88)	0.01	-0.12
	여성	2.70(0.88)	2.64(0.86)	-0.06	1.73
연령	29세 이하	3.11(0.82)	3.07(0.85)	-0.04	0.50
	30세 이상 39세 이하	2.92(1.00)	2.86(0.94)	-0.06	0.73
	40세 이상 49세 이하	2.71(0.86)	2.60(0.85)	-0.11	1.98*
	50세 이상 59세 이하	2.66(0.93)	2.61(0.85)	-0.05	0.95
	60세 이상	2.60(0.85)	2.72(0.87)	0.12	-1.64
학력 (N=869)	무학	2.46(1.00)	2.25(0.82)	-0.21	0.66
	초졸	2.54(0.87)	2.64(0.84)	0.10	-0.77
	중졸	2.71(0.94)	2.73(0.87)	0.02	-0.25
	고졸	2.75(0.92)	2.68(0.88)	-0.07	1.62
	대졸	2.86(0.85)	2.86(0.86)	0.00	0.07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2.89(0.89)	2.83(0.85)	-0.06	0.68
	45점 이상 59점 이하	2.65(0.91)	2.62(0.86)	-0.03	0.59
	60점 이상 79점 이하	2.79(0.91)	2.75(0.88)	-0.04	1.00
	80점 이상	2.62(0.92)	2.64(0.94)	0.02	-0.1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2.83(0.91)	2.74(0.92)	-0.09	1.69
	조건부수급자	2.62(0.89)	2.59(0.84)	-0.03	0.67
	자활특례자	2.72(0.88)	2.79(0.78)	0.07	-0.91
	차상위	3.00(0.94)	2.96(0.91)	-0.04	0.38
참여 기간	1년 미만	2.97(1.08)	3.28(0.79)	0.31	-1.24
	1년 이상 3년 이하	2.74(0.91)	2.71(0.93)	-0.03	0.64
	3년 초과	2.75(0.90)	2.69(0.82)	-0.06	1.29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2.86(0.66)	2.62(0.65)	-0.24	0.70
	인턴 및 도우미형	2.96(1.00)	3.14(0.99)	0.18	-1.25
	사회서비스형	2.62(0.87)	2.62(0.88)	0.00	0.0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2.96(0.93)	2.88(0.84)	-0.08	1.66
	시간제 사업단	2.40(0.82)	2.14(0.70)	-0.26	2.10*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2.70(0.90)	2.66(0.88)	-0.04	1.11
	도농복합	2.76(0.92)	2.73(0.84)	-0.03	0.43
	농촌형	3.00(0.93)	2.97(0.87)	-0.03	0.31

*p<0.05, **p<0.01, ***p<0.001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성적 자활 변화

(1) 정서적 자활 변화

〈부록-6〉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정서적 자활	2023년도 정서적 자활	증감	T-value
전체		3.73(0.58)	3.71(0.57)	-0.02	0.75
성별	남성	3.69(0.60)	3.72(0.59)	0.03	-1.30
	여성	3.75(0.57)	3.71(0.56)	-0.04	1.99*
연령	29세 이하	3.56(0.67)	3.61(0.65)	0.05	-0.82
	30세 이상 39세 이하	3.72(0.58)	3.72(0.56)	0.00	0.05
	40세 이상 49세 이하	3.74(0.57)	3.73(0.57)	-0.01	0.49
	50세 이상 59세 이하	3.79(0.55)	3.75(0.54)	-0.04	1.65
	60세 이상	3.69(0.57)	3.70(0.58)	0.01	-0.20
학력 (N=869)	무학	3.63(0.64)	3.49(0.69)	-0.14	0.98
	초졸	3.58(0.61)	3.68(0.57)	0.10	-1.36
	중졸	3.61(0.62)	3.63(0.57)	0.02	-0.32
	고졸	3.76(0.57)	3.73(0.56)	-0.03	1.66
	대졸	3.75(0.54)	3.77(0.54)	0.02	-0.66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78(0.57)	3.80(0.51)	0.02	-0.42
	45점 이상 59점 이하	3.68(0.56)	3.65(0.59)	-0.03	1.16
	60점 이상 79점 이하	3.74(0.60)	3.74(0.57)	0.00	-0.03
	80점 이상	3.74(0.60)	3.68(0.53)	-0.06	0.6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76(0.59)	3.71(0.60)	-0.05	1.80
	조건부수급자	3.70(0.57)	3.70(0.58)	0.00	-0.06
	자활특례자	3.69(0.57)	3.71(0.53)	0.02	-0.55
	차상위	3.78(0.63)	3.78(0.53)	0.00	-0.01
참여 기간	1년 미만	3.82(0.34)	3.81(0.52)	-0.01	0.08
	1년 이상 3년 이하	3.71(0.57)	3.73(0.56)	0.02	-0.98
	3년 초과	3.74(0.60)	3.69(0.58)	-0.05	1.93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61(0.21)	3.54(0.50)	-0.07	0.41
	인턴 및 도우미형	3.79(0.60)	3.77(0.53)	-0.02	0.26
	사회서비스형	3.66(0.58)	3.67(0.57)	0.01	-0.57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84(0.57)	3.79(0.58)	-0.05	1.76
	시간제 사업단	3.61(0.56)	3.57(0.53)	-0.04	0.61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3.72(0.57)	3.69(0.56)	-0.03	1.56
	도농복합	3.68(0.59)	3.72(0.58)	0.04	-1.00
	농촌형	3.81(0.62)	3.82(0.60)	0.01	-0.14

*p<0.05, **p<0.01, ***p<0.001

(2) 정서적 자활_자활의지 변화

〈부록-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의지	2023년도 자활의지	증감	T-value
전체		3.65(0.79)	3.62(0.80)	-0.03	1.18
성별	남성	3.63(0.81)	3.66(0.82)	0.03	-0.73
	여성	3.66(0.78)	3.60(0.78)	-0.06	2.11*
연령	29세 이하	3.57(0.84)	3.62(0.81)	0.05	-0.67
	30세 이상 39세 이하	3.78(0.73)	3.73(0.75)	-0.05	0.70
	40세 이상 49세 이하	3.67(0.77)	3.65(0.81)	-0.02	0.37
	50세 이상 59세 이하	3.70(0.78)	3.61(0.79)	-0.09	2.36*
	60세 이상	3.50(0.82)	3.55(0.82)	0.05	-0.71
학력 (N=869)	무학	3.37(0.88)	3.33(0.86)	-0.04	0.19
	초졸	3.44(0.83)	3.55(0.85)	0.11	-1.24
	중졸	3.48(0.87)	3.50(0.82)	0.02	-0.26
	고졸	3.72(0.76)	3.66(0.78)	-0.06	2.03*
	대졸	3.67(0.77)	3.66(0.78)	-0.01	0.14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73(0.79)	3.74(0.80)	0.01	-0.06
	45점 이상 59점 이하	3.57(0.76)	3.52(0.82)	-0.05	1.30
	60점 이상 79점 이하	3.68(0.80)	3.67(0.78)	-0.01	0.52
	80점 이상	3.63(0.85)	3.60(0.77)	-0.03	0.36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70(0.80)	3.59(0.83)	-0.11	2.77**
	조건부수급자	3.63(0.77)	3.61(0.81)	-0.02	0.29
	자활특례자	3.56(0.80)	3.63(0.74)	0.07	-1.39
	차상위	3.70(0.84)	3.71(0.76)	0.01	-0.16
참여 기간	1년 미만	4.02(0.42)	3.91(0.78)	-0.11	0.53
	1년 이상 3년 이하	3.64(0.79)	3.64(0.82)	0.00	-0.02
	3년 초과	3.65(0.80)	3.60(0.78)	-0.05	1.62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74(0.18)	3.62(0.52)	-0.12	0.61
	인턴 및 도우미형	3.74(0.78)	3.71(0.81)	-0.03	0.25
	사회서비스형	3.55(0.80)	3.55(0.79)	0.00	0.10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81(0.77)	3.75(0.79)	-0.06	1.44
	시간제 사업단	3.49(0.80)	3.37(0.86)	-0.12	1.14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3.64(0.78)	3.59(0.79)	-0.05	1.62
	도농복합	3.60(0.83)	3.62(0.83)	0.02	-0.32
	농촌형	3.79(0.78)	3.79(0.79)	0.00	-0.02

*p<0.05, **p<0.01, ***p<0.001

〈부록-8〉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_가치역량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의지_ 가치역량	2023년도 자활의지_ 가치역량	증감	T-value
전체		3.69(0.82)	3.66(0.83)	-0.03	1.21
성별	남성	3.69(0.81)	3.67(0.84)	-0.02	0.52
	여성	3.69(0.82)	3.65(0.82)	-0.04	1.12
연령	29세 이하	3.59(0.88)	3.51(0.86)	-0.08	1.02
	30세 이상 39세 이하	3.72(0.79)	3.66(0.80)	-0.06	0.73
	40세 이상 49세 이하	3.66(0.82)	3.68(0.82)	0.02	-0.31
	50세 이상 59세 이하	3.73(0.79)	3.65(0.82)	-0.08	1.95
	60세 이상	3.71(0.84)	3.77(0.85)	0.06	-0.90
학력 (N=869)	무학	3.50(0.76)	3.70(0.90)	0.20	-0.93
	초졸	3.58(0.82)	3.72(0.88)	0.14	-1.20
	중졸	3.54(0.97)	3.58(0.90)	0.04	-0.45
	고졸	3.75(0.79)	3.66(0.80)	-0.09	2.65**
	대졸	3.70(0.75)	3.66(0.82)	-0.04	0.60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81(0.81)	3.80(0.84)	-0.01	0.23
	45점 이상 59점 이하	3.66(0.81)	3.60(0.83)	-0.06	1.17
	60점 이상 79점 이하	3.68(0.82)	3.67(0.83)	-0.01	0.43
	80점 이상	3.68(0.85)	3.63(0.76)	-0.05	0.5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74(0.83)	3.64(0.82)	-0.10	2.18*
	조건부수급자	3.67(0.80)	3.64(0.85)	-0.03	0.55
	자활특례자	3.60(0.83)	3.68(0.78)	0.08	-1.04
	차상위	3.75(0.82)	3.74(0.82)	-0.01	0.16
참여 기간	1년 미만	3.90(0.65)	3.77(0.75)	-0.13	1.10
	1년 이상 3년 이하	3.69(0.82)	3.68(0.84)	-0.01	0.29
	3년 초과	3.69(0.82)	3.64(0.82)	-0.05	1.29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36(0.40)	3.50(0.41)	0.14	-1.00
	인턴 및 도우미형	3.64(0.96)	3.58(0.98)	-0.06	0.39
	사회서비스형	3.61(0.83)	3.63(0.81)	0.02	-0.56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84(0.78)	3.74(0.82)	-0.10	2.51*
	시간제 사업단	3.60(0.80)	3.44(0.95)	-0.16	1.31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3.78(0.82)	3.63(0.82)	-0.15	1.48
	도농복합	3.64(0.79)	3.68(0.84)	0.04	-0.58
	농촌형	3.84(0.83)	3.80(0.85)	-0.04	0.57

*p<0.05, **p<0.01, ***p<0.001

〈부록-9〉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_미래전망동기부여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의지_ 미래전망동기 부여	2023년도 자활의지_ 미래전망동기 부여	증감	T-value
전체		3.67(0.92)	3.63(0.93)	-0.04	1.47
성별	남성	3.65(0.93)	3.65(0.95)	0.00	0.09
	여성	3.67(0.91)	3.61(0.92)	-0.06	1.83
연령	29세 이하	3.62(0.93)	3.64(0.94)	0.02	-0.28
	30세 이상 39세 이하	0.90(0.81)	3.80(0.84)	2.90	1.19
	40세 이상 49세 이하	3.72(0.87)	3.65(0.94)	-0.07	1.24
	50세 이상 59세 이하	3.69(0.92)	3.62(0.92)	-0.07	1.67
	60세 이상	3.43(0.99)	3.49(0.97)	0.06	-0.74
학력 (N=869)	무학	3.30(1.08)	3.24(0.99)	-0.06	0.33
	초졸	3.28(1.08)	3.47(1.02)	0.19	-1.40
	중졸	3.52(0.92)	3.52(0.92)	0.00	0.04
	고졸	3.76(0.87)	3.68(0.91)	-0.08	2.08*
	대졸	3.69(0.90)	3.66(0.91)	-0.03	0.51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71(0.94)	3.72(0.92)	0.01	-0.08
	45점 이상 59점 이하	3.59(0.89)	3.53(0.97)	-0.06	1.20
	60점 이상 79점 이하	3.70(0.92)	3.67(0.90)	-0.03	0.88
	80점 이상	3.67(0.98)	3.58(0.97)	-0.09	0.7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71(0.90)	3.61(0.94)	-0.10	2.03*
	조건부수급자	3.67(0.89)	3.61(0.95)	-0.06	1.40
	자활특례자	3.52(0.96)	3.64(0.89)	0.12	-1.80
	차상위	3.70(0.99)	3.70(0.88)	0.00	0.08
참여 기간	1년 미만	4.17(0.46)	4.12(0.87)	-0.05	0.24
	1년 이상 3년 이하	3.67(0.88)	3.62(0.96)	-0.05	1.18
	3년 초과	3.65(0.96)	3.61(0.90)	-0.04	0.87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4.09(0.32)	3.57(0.89)	-0.52	1.29
	인턴 및 도우미형	3.81(0.77)	3.73(0.90)	-0.08	0.60
	사회서비스형	3.56(0.95)	3.53(0.94)	-0.03	0.82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82(0.85)	3.78(0.89)	-0.04	0.79
	시간제 사업단	3.54(1.00)	3.42(1.01)	-0.12	0.86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3.65(0.89)	3.60(0.92)	-0.05	1.68
	도농복합	3.65(0.99)	3.59(0.99)	-0.06	0.78
	농촌형	3.77(0.98)	3.82(0.88)	0.05	-0.73

*p<0.05, **p<0.01, ***p<0.001

〈부록-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_기술과자원활용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의지_ 기술과 자원활용	2023년도 자활의지_ 기술과 자원활용	증감	T-value
전체		3.58(0.93)	3.59(0.93)	0.01	-0.51
성별	남성	3.52(0.96)	3.63(0.91)	0.11	-2.56*
	여성	3.62(0.91)	3.56(0.94)	-0.06	1.32
연령	29세 이하	3.42(1.01)	3.61(0.91)	0.19	-2.30*
	30세 이상 39세 이하	3.65(0.91)	3.72(0.88)	0.07	-0.72
	40세 이상 49세 이하	3.59(0.93)	3.61(0.95)	0.02	-0.30
	50세 이상 59세 이하	3.65(0.90)	3.57(0.93)	-0.08	1.65
	60세 이상	3.47(0.95)	3.51(0.95)	0.04	-0.53
학력 (N=869)	무학	3.33(0.92)	3.16(1.09)	-0.17	0.64
	초졸	3.45(0.90)	3.55(0.94)	0.10	-0.80
	중졸	3.37(1.05)	3.44(0.93)	0.07	-0.79
	고졸	3.64(0.91)	3.63(0.93)	-0.01	0.27
	대졸	3.60(0.93)	3.66(0.89)	0.06	-0.8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68(0.86)	3.70(0.95)	0.02	-0.23
	45점 이상 59점 이하	3.48(0.88)	3.46(0.95)	-0.02	0.37
	60점 이상 79점 이하	3.62(0.97)	3.66(0.92)	0.04	-0.78
	80점 이상	3.51(1.03)	3.56(0.84)	0.05	-0.3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63(0.94)	3.53(0.97)	-0.10	2.04*
	조건부수급자	3.52(0.92)	3.60(0.92)	0.08	-1.76
	자활특례자	3.56(0.90)	3.60(0.88)	0.04	-0.52
	차상위	3.65(1.00)	3.71(0.92)	0.06	-0.63
참여 기간	1년 미만	3.83(0.48)	3.83(1.07)	0.00	0.00
	1년 이상 3년 이하	3.53(0.96)	3.62(0.95)	0.09	-2.12*
	3년 초과	3.62(0.92)	3.56(0.91)	-0.06	1.50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68(0.35)	3.82(0.70)	0.14	-0.66
	인턴 및 도우미형	3.66(0.94)	3.76(0.82)	0.10	-0.56
	사회서비스형	3.48(0.95)	3.53(0.93)	0.05	-1.06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74(0.91)	3.71(0.93)	-0.03	0.59
	시간제 사업단	3.36(0.84)	3.27(1.05)	-0.09	0.64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3.56(0.93)	3.56(0.93)	0.00	0.17
	도농복합	3.50(1.00)	3.62(0.91)	0.12	-1.64
	농촌형	3.78(0.83)	3.77(0.93)	-0.01	0.10

*p<0.05, **p<0.01, ***p<0.001

〈부록-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_목표지향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의지_목표 지향	2023년도 자활의지_목표 지향	증감	T-value
전체		3.67(0.94)	3.60(0.93)	-0.07	2.27*
성별	남성	3.66(0.94)	3.68(0.93)	0.02	-0.42
	여성	3.68(0.94)	3.55(0.93)	-0.13	3.37***
연령	29세 이하	3.73(1.00)	3.78(0.90)	0.05	-0.57
	30세 이상 39세 이하	3.84(0.80)	3.70(0.90)	-0.14	1.88
	40세 이상 49세 이하	3.72(0.91)	3.69(0.91)	-0.03	0.44
	50세 이상 59세 이하	3.72(0.94)	3.58(0.92)	-0.14	2.83**
	60세 이상	3.36(0.97)	3.34(0.98)	-0.02	0.27
학력 (N=869)	무학	3.34(1.19)	3.19(1.01)	-0.15	0.66
	초졸	3.50(1.01)	3.43(1.05)	-0.07	0.55
	중졸	3.49(1.03)	3.42(0.98)	-0.07	0.80
	고졸	3.74(0.90)	3.67(0.91)	-0.07	1.70
	대졸	3.71(0.93)	3.68(0.86)	-0.03	0.3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73(0.98)	3.75(0.92)	0.02	-0.15
	45점 이상 59점 이하	3.54(0.94)	3.44(0.98)	-0.10	1.88
	60점 이상 79점 이하	3.74(0.93)	3.67(0.90)	-0.07	1.71
	80점 이상	3.68(0.94)	3.65(0.86)	-0.03	0.28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75(0.95)	3.58(0.96)	-0.17	3.42***
	조건부수급자	3.64(0.94)	3.60(0.95)	-0.04	0.94
	자활특례자	3.55(0.94)	3.58(0.88)	0.03	-0.40
	차상위	3.70(0.92)	3.71(0.87)	0.01	-0.17
참여 기간	1년 미만	4.23(0.56)	3.85(1.07)	-0.38	1.09
	1년 이상 3년 이하	3.70(0.94)	3.66(0.95)	-0.04	0.90
	3년 초과	3.63(0.95)	3.54(0.91)	-0.09	2.11*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79(0.27)	3.57(0.84)	-0.22	0.81
	인턴 및 도우미형	3.95(0.97)	3.82(1.03)	-0.13	0.60
	사회서비스형	3.56(0.94)	3.49(0.93)	-0.07	1.85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85(0.91)	3.80(0.71)	-0.05	1.02
	시간제 사업단	3.42(0.93)	3.35(0.90)	-0.07	0.62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3.67(0.94)	3.59(0.93)	-0.08	2.35*
	도농복합	3.60(0.99)	3.57(0.96)	-0.03	0.33
	농촌형	3.76(0.90)	3.73(0.90)	-0.03	0.42

*p<0.05, **p<0.01, ***p<0.001

(3) 정서적 자활_근로장벽 변화

〈부록-12〉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벽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근로장벽	2023년도 근로장벽	증감	T-value
전체		3.23(0.92)	3.24(0.86)	0.01	-0.49
성별	남성	3.15(0.90)	3.24(0.87)	0.09	-1.99*
	여성	3.28(0.92)	3.24(0.85)	-0.04	1.02
연령	29세 이하	3.19(0.98)	3.25(0.86)	0.06	-0.73
	30세 이상 39세 이하	3.26(0.90)	3.39(0.85)	0.13	-1.42
	40세 이상 49세 이하	3.28(0.88)	3.26(0.81)	-0.02	0.32
	50세 이상 59세 이하	3.26(0.92)	3.22(0.86)	-0.04	0.87
	60세 이상	3.10(0.93)	3.16(0.91)	0.06	-0.90
학력 (N=869)	무학	3.04(0.99)	2.94(1.06)	-0.10	0.44
	초졸	3.00(0.97)	3.11(0.83)	0.11	-0.75
	중졸	2.92(1.05)	3.11(0.90)	0.19	-1.97
	고졸	3.27(0.90)	3.25(0.85)	-0.02	0.45
	대졸	3.38(0.79)	3.40(0.80)	0.02	-0.3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27(0.91)	3.33(0.80)	0.06	-0.87
	45점 이상 59점 이하	3.14(0.89)	3.13(0.88)	-0.01	0.11
	60점 이상 79점 이하	3.26(0.93)	3.30(0.86)	0.04	-0.94
	80점 이상	3.34(0.92)	3.18(0.76)	-0.16	1.4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26(0.93)	3.24(0.89)	-0.02	0.24
	조건부수급자	3.18(0.92)	3.22(0.86)	0.04	-0.87
	자활특례자	3.19(0.83)	3.22(0.83)	0.03	-0.47
	차상위	3.35(0.96)	3.32(0.79)	-0.03	0.33
참여 기간	1년 미만	3.24(0.67)	3.05(0.98)	-0.19	0.74
	1년 이상 3년 이하	3.18(0.90)	3.26(0.88)	0.08	-1.88
	3년 초과	3.28(0.93)	3.23(0.83)	-0.05	1.10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14(0.54)	2.95(0.90)	-0.19	0.51
	인턴 및 도우미형	3.32(0.85)	3.32(0.95)	0.00	-0.03
	사회서비스형	3.12(0.93)	3.18(0.85)	0.06	-1.64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41(0.89)	3.34(0.86)	-0.07	1.56
	시간제 사업단	3.05(0.85)	3.22(0.77)	0.17	-1.55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3.23(0.90)	3.22(0.86)	-0.01	0.41
	도농복합	3.12(0.97)	3.24(0.84)	0.12	-1.65
	농촌형	3.36(0.95)	3.38(0.86)	0.02	-0.28

*p<0.05, **p<0.01, ***p<0.001

〈부록-13〉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벽_인적자본향상정도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근로장벽_인적자본 향상정도	2023년도 근로장벽_인적자본 향상정도	증감	T-value
전체		3.32(1.02)	3.37(0.98)	0.05	-1.27
성별	남성	3.27(1.02)	3.40(1.01)	0.13	-2.50*
	여성	3.36(1.02)	3.34(0.96)	-0.02	0.38
연령	29세 이하	3.19(1.07)	3.26(1.01)	0.07	-0.74
	30세 이상 39세 이하	3.30(1.00)	3.41(0.93)	0.11	-1.18
	40세 이상 49세 이하	3.39(0.99)	3.46(0.91)	0.07	-1.15
	50세 이상 59세 이하	3.39(1.01)	3.36(0.97)	-0.03	0.58
	60세 이상	3.21(1.07)	3.30(1.10)	0.09	-1.05
학력 (N=869)	무학	3.02(1.10)	2.94(1.24)	-0.08	0.29
	초졸	3.17(1.13)	3.31(1.06)	0.14	-0.77
	중졸	2.99(1.15)	3.18(1.02)	0.19	-1.77
	고졸	3.36(1.01)	3.39(0.97)	0.03	-0.64
	대졸	3.51(0.88)	3.49(0.90)	-0.02	0.2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39(1.03)	3.45(0.92)	0.06	-0.68
	45점 이상 59점 이하	3.22(1.02)	3.24(1.01)	0.02	-0.42
	60점 이상 79점 이하	3.37(1.02)	3.43(0.98)	0.06	-1.34
	80점 이상	3.41(1.00)	3.36(0.86)	-0.05	0.39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34(1.04)	3.33(1.02)	-0.01	0.14
	조건부수급자	3.26(1.03)	3.33(1.00)	0.07	-1.43
	자활특례자	3.33(0.96)	3.42(0.88)	0.09	-1.27
	차상위	3.51(1.02)	3.51(0.89)	0.00	0.05
참여 기간	1년 미만	3.18(0.87)	3.08(1.15)	-0.10	0.36
	1년 이상~3년 미만	3.29(1.01)	3.39(1.01)	0.10	-2.08*
	3년 이상	3.36(1.04)	3.35(0.95)	-0.01	0.21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29(0.45)	3.29(1.11)	0.00	0.00
	인턴 및 도우미형	3.26(0.93)	3.33(0.96)	0.07	-0.04
	사회서비스형	3.23(1.04)	3.29(0.98)	0.06	-1.52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50(1.00)	3.49(0.97)	-0.01	0.19
	시간제 사업단	3.15(1.01)	3.31(0.86)	0.16	-1.00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3.34(1.01)	3.34(0.98)	0.00	-0.10
	도농복합	3.18(1.07)	3.38(0.98)	0.20	-2.46*
	농촌형	3.45(1.06)	3.47(0.98)	0.02	-0.29

*p<0.05, **p<0.01, ***p<0.001

〈부록-14〉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벽_고용정보향상정도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근로장벽_ 고용정보 향상정도	2023년도 근로장벽_ 고용정보 향상정도	증감	T-value
전체		3.13(1.00)	3.12(0.95)	-0.01	0.37
성별	남성	3.03(1.00)	3.09(0.95)	0.06	-1.04
	여성	3.20(1.00)	3.14(0.95)	-0.06	1.38
연령	29세 이하	3.18(1.00)	3.24(0.90)	0.06	-0.57
	30세 이상 39세 이하	3.23(1.01)	3.37(0.96)	0.14	-1.32
	40세 이상 49세 이하	3.17(0.95)	3.07(0.97)	-0.10	1.48
	50세 이상 59세 이하	3.13(1.05)	3.07(0.94)	-0.06	0.91
	60세 이상	2.98(0.98)	3.03(0.95)	0.05	-0.53
학력 (N=869)	무학	3.06(0.94)	2.94(1.07)	-0.12	0.51
	초졸	2.83(1.02)	2.91(0.87)	0.08	-0.55
	중졸	2.84(1.10)	3.04(0.97)	0.20	-1.66
	고졸	3.17(0.98)	3.11(0.94)	-0.06	1.34
	대졸	3.24(0.95)	3.31(0.93)	0.07	-0.82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15(0.99)	3.22(0.89)	0.07	-0.82
	45점 이상 59점 이하	3.06(0.98)	3.02(0.99)	-0.04	0.64
	60점 이상 79점 이하	3.16(1.03)	3.18(0.94)	0.02	-0.39
	80점 이상	3.28(0.99)	3.00(0.94)	-0.28	2.00*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18(1.01)	3.16(0.95)	-0.02	0.28
	조건부수급자	3.10(0.99)	3.11(0.93)	0.01	-0.12
	자활특례자	3.05(0.96)	3.03(0.98)	-0.02	0.30
	차상위	3.19(1.08)	3.14(0.99)	-0.05	0.50
참여 기간	1년 미만	3.31(0.75)	3.03(0.91)	-0.28	1.06
	1년 이상 3년 이하	3.06(0.99)	3.13(0.98)	0.07	-1.21
	3년 초과	3.19(1.02)	3.11(0.93)	-0.08	1.68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00(0.72)	2.62(0.97)	-0.38	1.04
	인턴 및 도우미형	3.38(0.99)	3.31(1.00)	-0.07	0.32
	사회서비스형	3.01(1.02)	3.08(0.95)	0.07	-1.33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32(0.96)	3.18(0.95)	-0.14	2.48*
	시간제 사업단	2.95(0.92)	3.14(0.90)	0.19	-1.54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3.12(1.00)	3.09(0.95)	-0.03	0.77
	도농복합	3.06(1.02)	3.10(0.93)	0.04	-0.46
	농촌형	3.27(1.00)	3.29(0.94)	0.02	-0.20

*p<0.05, **p<0.01, ***p<0.001

(4) 정서적 자활_자활행동 변화

〈부록-1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행동	2023년도 자활행동	증감	T-value
전체		3.99(0.50)	3.98(0.50)	-0.01	0.53
성별	남성	3.94(0.52)	3.96(0.50)	0.02	-0.74
	여성	4.01(0.48)	3.99(0.50)	-0.02	1.19
연령	29세 이하	3.70(0.59)	3.73(0.56)	0.03	-0.66
	30세 이상 39세 이하	3.85(0.52)	3.84(0.51)	-0.01	0.18
	40세 이상 49세 이하	3.98(0.49)	3.97(0.50)	-0.01	0.44
	50세 이상 59세 이하	4.08(0.43)	4.08(0.43)	0.00	-0.03
	60세 이상	4.10(0.44)	4.05(0.52)	-0.05	1.14
학력 (N=869)	무학	4.10(0.46)	3.84(0.60)	-0.26	1.44
	초졸	3.94(0.50)	4.01(0.48)	0.07	-1.00
	중졸	3.99(0.47)	3.94(0.47)	-0.05	1.09
	고졸	3.99(0.50)	3.97(0.50)	-0.02	0.91
	대졸	3.96(0.46)	4.02(0.49)	0.06	-1.7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03(0.47)	4.04(0.42)	0.01	-0.36
	45점 이상 59점 이하	3.99(0.50)	3.96(0.54)	-0.03	0.91
	60점 이상 79점 이하	3.97(0.51)	3.97(0.50)	0.00	-0.07
	80점 이상	3.98(0.46)	3.95(0.48)	-0.03	0.3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00(0.50)	3.99(0.49)	-0.01	0.33
	조건부수급자	3.96(0.50)	3.96(0.53)	0.00	0.07
	자활특례자	4.01(0.47)	3.97(0.50)	-0.04	0.94
	차상위	4.02(0.50)	4.02(0.45)	0.00	-0.02
참여 기간	1년 미만	3.86(0.47)	4.00(0.38)	0.14	-1.79
	1년 이상 3년 이하	3.97(0.48)	4.00(0.46)	0.03	-1.04
	3년 초과	4.00(0.51)	3.96(0.55)	-0.04	1.73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66(0.53)	3.69(0.58)	0.03	-0.20
	인턴 및 도우미형	4.02(0.51)	3.99(0.35)	-0.03	0.37
	사회서비스형	3.97(0.50)	3.98(0.51)	0.01	-0.39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4.02(0.48)	3.99(0.50)	-0.03	1.15
	시간제 사업단	3.93(0.50)	3.89(0.46)	-0.04	0.64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3.99(0.49)	3.67(0.49)	-0.32	1.23
	도농복합	3.96(0.47)	3.99(0.49)	0.03	-0.88
	농촌형	4.01(0.56)	4.02(0.57)	0.01	-0.14

*p<0.05, **p<0.01, ***p<0.001

〈부록-1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_근로관련행동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행동_ 근로관련행동	2023년도 자활행동_ 근로관련행동	증감	T-value
전체		4.60(0.58)	4.57(0.63)	-0.03	1.44
성별	남성	4.57(0.63)	4.55(0.58)	-0.02	0.53
	여성	4.62(0.54)	4.58(0.66)	-0.04	1.40
연령	29세 이하	4.32(0.75)	4.34(0.65)	0.02	-0.38
	30세 이상 39세 이하	4.56(0.53)	4.41(0.69)	-0.15	2.14*
	40세 이상 49세 이하	4.59(0.58)	4.60(0.63)	0.01	0.19
	50세 이상 59세 이하	4.70(0.52)	4.69(0.56)	-0.01	0.21
	60세 이상	4.66(0.52)	4.56(0.64)	-0.10	1.81
학력 (N=869)	무학	4.72(0.50)	4.48(0.84)	-0.24	0.94
	초졸	4.50(0.71)	4.57(0.59)	0.07	-0.76
	중졸	4.62(0.58)	4.48(0.66)	-0.14	2.14*
	고졸	4.59(0.58)	4.55(0.63)	-0.04	1.51
	대졸	4.61(0.54)	4.67(0.55)	0.06	-1.46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62(0.56)	4.60(0.52)	-0.02	0.25
	45점 이상 59점 이하	4.59(0.60)	4.53(0.68)	-0.06	1.28
	60점 이상 79점 이하	4.59(0.58)	4.58(0.63)	-0.01	0.31
	80점 이상	4.69(0.50)	4.59(0.54)	-0.10	1.2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61(0.57)	4.61(0.60)	0.00	0.09
	조건부수급자	4.59(0.59)	4.56(0.64)	-0.03	0.86
	자활특례자	4.60(0.56)	4.53(0.63)	-0.07	1.19
	차상위	4.61(0.58)	4.54(0.65)	-0.07	1.04
참여 기간	1년 미만	4.50(0.46)	4.52(0.48)	0.02	-0.18
	1년 이상 3년 이하	4.61(0.59)	4.61(0.55)	0.00	-0.05
	3년 초과	4.60(0.57)	4.53(0.70)	-0.07	1.99*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4.54(0.39)	4.29(0.71)	-0.25	0.94
	인턴 및 도우미형	4.71(0.43)	4.69(0.44)	-0.02	0.17
	사회서비스형	4.58(0.61)	4.57(0.62)	-0.01	0.32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4.62(0.54)	4.56(0.65)	-0.06	1.74
	시간제 사업단	4.57(0.49)	4.56(0.56)	-0.01	0.15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4.62(0.57)	4.57(0.62)	-0.05	1.73
	도농복합	4.54(0.59)	4.58(0.61)	0.04	-0.71
	농촌형	4.59(0.62)	4.53(0.69)	-0.06	0.83

*p<0.05, **p<0.01, ***p<0.001

〈부록-1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_일상생활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행동_일상 생활	2023년도 자활행동_일상 생활	증감	T-value
전체		3.29(0.55)	3.28(0.51)	-0.01	0.42
성별	남성	3.30(0.57)	3.32(0.54)	0.02	-0.84
	여성	3.28(0.53)	3.25(0.49)	-0.03	1.33
연령	29세 이하	3.05(0.59)	3.07(0.68)	0.02	-0.25
	30세 이상 39세 이하	3.12(0.70)	3.17(0.51)	0.05	-0.80
	40세 이상 49세 이하	3.33(0.51)	3.27(0.50)	-0.06	1.58
	50세 이상 59세 이하	3.33(0.48)	3.34(0.45)	0.01	-0.24
	60세 이상	3.40(0.51)	3.37(0.47)	-0.03	0.44
학력 (N=869)	무학	3.46(0.67)	3.13(0.50)	-0.33	1.69
	초졸	3.27(0.61)	3.36(0.44)	0.09	-1.08
	중졸	3.32(0.61)	3.29(0.52)	-0.03	0.42
	고졸	3.29(0.54)	3.28(0.52)	-0.01	0.49
	대졸	3.21(0.48)	3.24(0.51)	0.03	-0.5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30(0.48)	3.31(0.49)	0.01	-0.23
	45점 이상 59점 이하	3.30(0.58)	3.28(0.55)	-0.02	0.50
	60점 이상 79점 이하	3.27(0.54)	3.26(0.50)	-0.01	0.56
	80점 이상	3.26(0.57)	3.31(0.50)	0.05	-0.5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31(0.57)	3.29(0.50)	-0.02	0.42
	조건부수급자	3.24(0.53)	3.25(0.53)	0.01	-0.13
	자활특례자	3.31(0.51)	3.30(0.47)	-0.01	0.22
	차상위	3.34(0.59)	3.31(0.53)	-0.03	0.55
참여 기간	1년 미만	3.18(0.40)	3.26(0.41)	0.08	-0.56
	1년 이상 3년 이하	3.27(0.53)	3.30(0.54)	0.03	-0.94
	3년 초과	3.30(0.57)	3.26(0.49)	-0.04	1.65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14(0.47)	3.19(0.42)	0.05	-0.42
	인턴 및 도우미형	3.24(0.60)	3.14(0.31)	-0.10	0.92
	사회서비스형	3.28(0.56)	3.27(0.52)	-0.01	0.07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30(0.53)	3.29(0.52)	-0.01	0.51
	시간제 사업단	3.31(0.57)	3.34(0.43)	0.03	-0.36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3.28(0.53)	3.27(0.49)	-0.01	0.40
	도농복합	3.31(0.62)	3.30(0.53)	-0.01	0.23
	농촌형	3.31(0.57)	3.31(0.60)	0.00	0.00

*p<0.05, **p<0.01, ***p<0.001

〈부록-18〉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_사회적관계행동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행동_ 사회적 관계행동	2023년도 자활행동_ 사회적 관계행동	증감	T-value
전체		3.97(0.76)	3.93(0.74)	-0.04	1.65
성별	남성	3.88(0.80)	3.87(0.74)	-0.01	0.17
	여성	4.04(0.72)	3.97(0.73)	-0.07	1.98*
연령	29세 이하	3.63(0.87)	3.57(0.92)	-0.06	0.61
	30세 이상 39세 이하	3.87(0.81)	3.89(0.70)	0.02	-0.14
	40세 이상 49세 이하	4.02(0.76)	3.98(0.70)	-0.04	0.70
	50세 이상 59세 이하	4.04(0.69)	4.00(0.66)	-0.04	1.09
	60세 이상	4.10(0.70)	4.01(0.74)	-0.09	1.32
학력 (N=869)	무학	4.06(0.82)	3.96(0.74)	-0.10	0.37
	초졸	3.92(0.73)	3.88(0.86)	-0.04	0.31
	중졸	4.04(0.74)	3.89(0.66)	-0.15	1.93
	고졸	3.98(0.79)	3.93(0.72)	-0.05	1.34
	대졸	3.90(0.69)	3.93(0.73)	0.03	-0.68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04(0.74)	4.06(0.64)	0.02	-0.29
	45점 이상 59점 이하	3.98(0.70)	3.90(0.76)	-0.08	1.83
	60점 이상 79점 이하	3.97(0.78)	3.93(0.74)	-0.04	1.00
	80점 이상	3.85(0.90)	3.85(0.72)	0.00	0.04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99(0.76)	3.93(0.72)	-0.06	1.46
	조건부수급자	3.92(0.80)	3.92(0.76)	0.00	0.10
	자활특례자	3.98(0.71)	3.87(0.68)	-0.11	1.98*
	차상위	4.09(0.67)	4.05(0.73)	-0.04	0.55
참여 기간	1년 미만	3.18(0.40)	3.26(0.41)	0.08	-0.56
	1년 이상 3년 이하	3.27(0.53)	3.30(0.54)	0.03	-0.94
	3년 초과	3.30(0.57)	3.26(0.49)	-0.04	1.65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67(0.64)	3.81(0.60)	0.14	-0.70
	인턴 및 도우미형	4.04(0.83)	3.94(0.51)	-0.10	0.64
	사회서비스형	3.94(0.76)	3.90(0.75)	-0.04	1.04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4.03(0.74)	3.98(0.72)	-0.05	0.99
	시간제 사업단	3.99(0.83)	3.86(0.82)	-0.13	1.11
참여센터 유형	도시형	3.95(0.76)	3.90(0.73)	-0.05	1.85
	도농복합	3.96(0.73)	4.01(0.73)	0.05	-0.72
	농촌형	4.11(0.81)	4.02(0.76)	-0.09	1.32

*p<0.05, **p<0.01, ***p<0.001

〈부록-19〉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_청결외모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행동_청결 외모	2023년도 자활행동_청결 외모	증감	T-value
전체		4.02(0.75)	4.03(0.75)	0.01	-0.51
성별	남성	3.93(0.76)	3.93(0.78)	0.00	-0.10
	여성	4.08(0.74)	4.09(0.72)	0.01	-0.57
연령	29세 이하	3.76(0.90)	3.81(0.82)	0.05	-0.76
	30세 이상 39세 이하	3.89(0.79)	3.80(0.79)	-0.09	1.28
	40세 이상 49세 이하	4.00(0.74)	4.04(0.76)	0.04	-0.78
	50세 이상 59세 이하	4.12(0.67)	4.14(0.66)	0.02	-0.79
	60세 이상	4.10(0.75)	4.09(0.77)	-0.01	0.26
학력 (N=869)	무학	3.92(0.79)	3.77(0.79)	-0.15	0.68
	초졸	3.91(0.86)	3.97(0.93)	0.06	-0.49
	중졸	3.98(0.80)	4.00(0.74)	0.02	-0.30
	고졸	4.05(0.73)	4.05(0.73)	0.00	-0.17
	대졸	3.98(0.68)	4.00(0.71)	0.02	-0.33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4.04(0.70)	4.16(0.67)	0.12	-1.90
	45점 이상 59점 이하	3.99(0.75)	3.99(0.78)	0.00	0.10
	60점 이상 79점 이하	4.02(0.79)	4.02(0.75)	0.00	0.02
	80점 이상	4.02(0.66)	4.00(0.76)	-0.02	0.15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04(0.76)	4.03(0.76)	-0.01	0.33
	조건부수급자	3.99(0.76)	4.02(0.76)	0.03	-0.76
	자활특례자	4.08(0.70)	4.03(0.72)	-0.05	0.93
	차상위	3.97(0.77)	4.06(0.74)	0.09	-1.46
참여 기간	1년 미만	3.56(1.09)	3.97(0.87)	0.41	-2.21*
	1년 이상 3년 이하	4.02(0.72)	4.05(0.72)	0.03	-1.04
	3년 초과	4.02(0.77)	4.01(0.78)	-0.01	0.57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24(0.92)	3.43(1.07)	0.19	-0.93
	인턴 및 도우미형	3.89(0.78)	4.02(0.75)	0.13	-1.28
	사회서비스형	3.99(0.78)	4.03(0.77)	0.04	-1.19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4.09(0.71)	4.06(0.72)	-0.03	0.86
	시간제 사업단	3.95(0.66)	3.85(0.66)	-0.10	0.83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4.02(0.74)	4.02(0.75)	0.00	0.07
	도농복합	4.02(0.74)	4.04(0.70)	0.02	-0.47
	농촌형	4.00(0.84)	4.07(0.84)	0.07	-0.94

*p<0.05, **p<0.01, ***p<0.001

〈부록-20〉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행동_건강관리행동 변화

Mean(S.D.), (단위 : 점)

		2022년도 자활행동_건강 관리행동	2023년도 자활행동_건강 관리행동	증감	T-value
전체		3.85(0.83)	3.88(0.82)	0.03	-1.52
성별	남성	3.85(0.82)	3.93(0.77)	0.08	-2.41*
	여성	3.85(0.84)	3.85(0.85)	0.00	-0.15
연령	29세 이하	3.55(0.91)	3.67(0.81)	0.12	-1.68
	30세 이상 39세 이하	3.56(0.90)	3.74(0.88)	0.18	-2.14*
	40세 이상 49세 이하	3.77(0.91)	3.75(0.84)	-0.02	0.43
	50세 이상 59세 이하	4.00(0.72)	4.02(0.75)	0.02	-0.52
	60세 이상	4.04(0.71)	4.05(0.82)	0.01	-0.18
학력 (N=869)	무학	4.13(0.67)	3.65(1.13)	-0.48	1.64
	초졸	3.93(0.76)	4.09(0.84)	0.16	-1.54
	중졸	3.79(0.85)	3.86(0.76)	0.07	-0.91
	고졸	3.83(0.86)	3.84(0.82)	0.01	-0.48
	대졸	3.87(0.79)	4.01(0.77)	0.14	-2.45*
자활 역량 점수	45점 미만	3.93(0.84)	3.88(0.76)	-0.05	0.65
	45점 이상 59점 이하	3.89(0.81)	3.93(0.80)	0.04	-0.88
	60점 이상 79점 이하	3.80(0.85)	3.87(0.84)	0.07	-2.09*
	80점 이상	3.83(0.79)	3.80(0.83)	-0.03	0.23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3.83(0.82)	3.88(0.82)	0.05	-1.09
	조건부수급자	3.83(0.82)	3.83(0.84)	0.00	-0.08
	자활특례자	3.87(0.85)	3.95(0.77)	0.08	-1.35
	차상위	3.91(0.89)	3.99(0.81)	0.08	-1.29
참여 기간	1년 미만	3.95(0.85)	3.85(0.89)	-0.10	0.59
	1년 이상 3년 이하	3.81(0.82)	3.88(0.78)	0.07	-1.79
	3년 초과	3.87(0.85)	3.89(0.86)	0.02	-0.50
사업단 유형	게이트웨이	3.43(1.01)	3.52(1.09)	0.09	-0.51
	인턴 및 도우미형	3.99(0.92)	3.91(0.83)	-0.08	0.50
	사회서비스형	3.84(0.81)	3.90(0.82)	0.06	-1.71
	시장진입형(청년자립도전단 포함)	3.87(0.85)	3.89(0.80)	0.02	-0.57
	시간제 사업단	3.62(0.92)	3.60(0.86)	-0.02	0.13
참여 센터 유형	도시형	3.86(0.80)	3.87(0.81)	0.01	-0.35
	도농복합	3.77(0.87)	3.85(0.82)	0.08	-1.12
	농촌형	3.86(0.95)	4.00(0.89)	0.14	-2.17*

*p<0.05, **p<0.01, ***p<0.001

2.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설문지

※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D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실태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실태조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 노동시장 참여 경험, 경제적·정서적 사회적 현황, 자활사업 참여 실태 및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정책 효과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40분 정도 소요되며, 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에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응답해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전체 의견이 취합되어 통계적인 자료만 활용되며,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에도 활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구담당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상아 박사

실사담당 현대리서치 정병현 차장 02)3218-9622

연구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사기관



현대리서치

※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동의 확인 후에 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실태조사 참여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설문지 응답 내용, 설문 응답자에 대한 기초정보(주소, 연락처), 유가증권 제공으로 인한 담배품 지급 증빙 관련 내용(주민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종료일까지
- 응답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설문조사 대행 업체명에서 자료수집을 대행하고 있는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있어서, 본인의 설문응답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성명:

(성명)

(성명)

작성일:

2023년

년

작성월

월

작성일

A. 자활근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가. 일반적 특성

A1 귀하가 현재 이용 중인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A1-1 귀하가 현재 **이용 중인 지역자활센터**는 어디입니까?
 센터
A2 귀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몇 년간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초과

A3 귀하의 **자활역량유형**은 무엇입니까? **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A유형 ② B유형 ③ C유형 ④ D유형

A4 귀하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주민등록 기준)

 년 월 일

B.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생활실태

가. 부채

B1 현재 시점에서 귀하의 **총 개인 부채**는 대략 얼마입니까?
 만원 (없는 경우 0을 입력해 주십시오.)
B1-1 귀하는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 ← 보통 → 매우 부담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나. 지출

B2 지난 3개월간(2023년 4월~2023년 6월) 월평균 **가구 생활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총 만원 (1만원 이상 입력해 주십시오.)

B3 다음의 생활비 항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 ① 식료품비 | ② 주거비 | ③ 난방비 |
| ④ 수도비 | ⑤ 집기구입비(전자제품·가구 등) | ⑥ 피복신발비 |
| ⑦ 보건의료비 | ⑧ 교육비 | ⑨ 여가활동비 |
| ⑩ 교통비 | ⑪ 통신비 | ⑫ 기타소비(일상소모품) |
| ⑬ 비소비(소비품목 없음) | | |

B4 귀하께서 생각하는 귀 가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아래 제시된 항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 지난 1년 동안(2022년 1월~2022년 12월) 월 평균 기준

※ 생활비에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 자가소비액 + 현물로 지원받아 생활하는 금액' 등이 포함됨
(저축액은 제외, 부채나 이자지출 포함)

B4-1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평균 만원

B4-2 귀 가구가 1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평균 만원

B4-3 귀 가구가 1달 동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평균 만원

라. 과거 일 경험

B5 귀하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자활사업이 생애 첫 일자리입니까?

① 예 ☞ C 섹션으로 이동

② 아니오 ☞ B5-1로 이동

B5-1 귀하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 **마지막 일자리를 중단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년 월

년도는 4자리로 응답해 주세요

1월인 경우 01로 응답해 주세요.

B5-2 **자활사업 참여 전** 마지막 일자리에서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대략 얼마였습니까?

월 평균 만원

B5-3 귀하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 마지막 **일 자리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실직(직장파산, 정리해고 등) | ② 계약기간 만료 |
| ③ 참여하던 사업(공공일자리, 국민취업제도(취성패) 등)의 종료 | ④ 장래성이 없어서 |
| ⑤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⑥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환경이 나빠서 |
| ⑦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 돌봄을 해야 해서 | ⑧ (신체적, 정신적)건강상의 이유 |
| ⑨ 코로나 19로 인해 구조적 해고 또는 폐업 | ⑨ 하던 사업이나 창사가 잘 안돼서 |
| ⑩ 정년으로 인한 은퇴 | ⑩ 소득이 낮아서 |
| ⑪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_____) | |

C5-1-1 당신의 현재 일상생활의 도움을 주로 어떻게 제공받고 있습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전적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돌봄 ②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 외 다른 사람
 ③ 비용을 지불하는 가족 외 다른 사람 ④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이용
 (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⑤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_____)

C6 귀하는 지난 한 해 동안(2022.1.1.~2022.12.31.) 건강이 나빠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많이 있다 ⑤ 매우 많이 있다

다. 심리·정서적 건강

C7 다음과 같은 경험이나 느낌에 대해서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조사에 참여하신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심리적 영향으로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6) 긴장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심리적 영향으로 구역질이 나거나 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기분이 울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①	②	③	④	⑤
10) 심리적 영향으로 숨쉬기가 거북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심리적 영향으로 몸이 저리거나 전기가 오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장래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5)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심리적 영향으로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7)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두려운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D2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 환경에 대해 해당하는 답변에 응답해주시요.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집이 든든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집 내부가 쾌적하다 (적절한 방음, 환기,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3) 집 주변이 쾌적하다(소음, 진동, 악취 등이 없음)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안전하다 (전기시설,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 등)	①	②	③	④	⑤
5)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집 주변에 병원, 마트, 소방서, 사회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E. 자혈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자본

E1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동거인 포함)은 몇 명입니까?

0.1M			0.1M
------	--	--	------

E2 (본인 기준으로 응답)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 ① 배우자 ☐ ② 부 (장인) ☐ ③ 모 (장모)
☐ ④ 손자 ☐ ⑤ 자녀 ☐ ⑥ 조부모 (처조부모)
☐ ⑦ 형제자매 ☐ ⑧ 친인척 ☐ ⑨ 기타() 예: 친구

Q3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 포함)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 ① 예 ➡ E3-1로 이동 ② 아니오 ➡ D4로 이동

53-1 현재 돌보미 필요한 가족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미취학 아동 ☐ ② 초등학생(13세 미만) ☐ ③ 장애인
☐ ④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가족 ☐ ⑤ 노인 ☐ ⑥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E3-2 현재 가족(동거인 및 비동거인 모두 포함) 돌봄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전적으로 내가 돌봄 ② 전적으로 나 이외의 가족, 친지가 돌봄
- ③ 나와 가족, 친지가 나누어서 돌봄 ④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 외 다른 사람
- ⑤ 비용을 지불하는 가족 외 다른 사람 ⑥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이용
 (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 ⑦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E3-3 귀하는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는 데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E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까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5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은 날 공정하게 대함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대체로 날 도우려 함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은 대체로 날 이용하려 함	①	②	③	④	⑤
5) 이웃들과 자주 얘기하는 편임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들과 전화, SNS(스마트폰)를 통해 자주 연락함	①	②	③	④	⑤
7) 혈연(친인척) 관계의 도움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8) 지연(고향) 관계의 도움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9) 학연(학교) 관계의 도움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10) 주민모임(반상회, 노인회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11)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 취미, 체육, 문화동호회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13) 봉사,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14) 정당·정치단체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15) 종교단체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17)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은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18) 법을 항상 지키는 것은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19) 범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는 것은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20)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F. 자활사업 참여 현황

F1 귀하께서는 자활사업 참여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가?

- ① 있음 ⇨ F1-1로 이동 ② 없음 ⇨ F2로 이동

F1-1 귀하가 자활사업 참여 중 취득한 자격증 수는 몇 개입니까?

국가 공인 자격증 개 (없을 경우 '0'으로 기입)

민간 자격증 개 (없을 경우 '0'으로 기입)

합계 개

F1-2 귀하가 자활사업 참여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재 근로나 향후 취업과 창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F2 귀하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부터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자활사업에 여러 번 참여하셨다면, 가장 최근의 경험에 근거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생활비(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출이 늘어서 ② 소득이 줄어서
 ③ 부채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④ 취업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⑤ 본인 또는 가구원의 건강이 나빠져서(장애, 음주 등 포함) ⑥ 주변 도움(가족, 친척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⑦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F3 귀하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사업단을 이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활사업에 여러 번 참여하셨다면, 가장 최근의 경험에 근거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단, 게이트웨이에서 사업단으로 배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① 있었다 ⇨ F3-1로 이동 ② 없었다 ⇨ F4로 이동

* 사업단 이동이란?

사업단 유형간 이동(예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과 사업단 업종간 이동(카페→ 세탁)을 모두 포함합니다.

* 게이트웨이란?

참여자 센터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사업단이 배정되기 전, 상담 및 사전 기초교육, 자립경로 및 자활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F3-1 사업단을 이동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자활사업에 여러 번 참여하셨다면, 가장 최근의 경험에 근거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회

F3-2 귀하가 사업단 이동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건강이 안 좋아져서 | ② 가족 돌봄 및 집안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
| ③ 사업단의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 ④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 재배치를 위해서 |
| ⑤ 사업단이 종료되어서 | ⑥ 이동 후 사업단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
| ⑦ 실무자의 권유로 | ⑧ 사업단 내 동료 간 갈등이 있어서 |
| ⑨ 사업단의 유형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 ⑩ 사업단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서 |
| ⑪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

F4 귀하가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은 무엇입니까?

- | 1순위 | 2순위 | | |
|------------------|--------------------|-------------------|-----------|
| ① 집수리 | ② 가사서비스 | ③ 청소 | ④ 폐자원재활용 |
| ⑤ 음식물재활용 | ⑥ 도시락 | ⑦ 음식점(외식) | ⑧ 카페·베이커리 |
| ⑨ 세탁 | ⑩ 세차 | ⑪ 간병·돌봄서비스 | ⑫ 산모도우미 |
| ⑬ 원예·환경정비 | ⑭ 양곡 택배 | ⑮ 일반택배/배송 | ⑯ 유통·판매 |
| ⑰ 인쇄 | ⑱ 식품 (농수축산물) 생산·가공 | ⑲ 공산품, 생활용품 생산·가공 | ⑳ 레저산업 |
| ⑳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 | |

F5 귀하가 자활사업단에서 원하는 근로시간 형태는 어떠한습니까?

- ① 전일제 ⇔ F6으로 이동 ② 시간제 ⇔ F5-1로 이동

F5-1 귀하가 자활사업단에서 시간제 근무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근로시간의 일 자리를 원하십니까?
주당 근로일수와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1주일에 일, 하루에 시간

F5-2 귀하가 자활사업단에서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양육 및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서
 ②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근로가 어려워서
 ③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
 ④ 일(자활근로)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근로의욕이 없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F6 귀하가 현재 참여하는 활동(일자리)과 관련해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받고 있는 자활 급여가 충분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자활근로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자활근로 근로시간(일수 포함)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원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자활근로 사업단 업종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근로하는 작업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근로하는 작업장 환경이 쾌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근로 장소가 접근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F7 귀하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자활센터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곳에서 받은 서비스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곳의 직원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만일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곳을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곳의 직원은 나를 업무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곳에서 나는 나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내가 이곳에서 도움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곳의 직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의껏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곳의 직원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G. 자활사업 효과

G1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정서적 자활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활사업 참여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자활사업이 귀하의 태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함이 없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하는 내 모습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하면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일과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경력을 쌓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앞으로의 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앞으로 내 직업을 통해 이룰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을 직장/직업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직장/직업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을 쌓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자원을 활용하여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을 쌓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경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취업에 필요한 사회생활 경험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직업훈련 및 교육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구직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자각 및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사업장에서 작업장 규칙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사업장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일을 완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사업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이해하고 순서대로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화가 났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업무 시간에 일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이웃이나 지인과 인분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사업단 동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사업단 동료들이나 실무자와 도움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몸과 옷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외모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끼니를 놓치지 않고 챙겨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몸이 좋지 않을 때 병원에 간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처방대로 약을 복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G2 귀하가 현재 참여하는 활동(일자리)과 관련해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자활근로 내용이 내가 자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수강한 교육내용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자활근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참여하는 자활사업단 업종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참여하는 자활사업단 유형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가 받은 게이트웨이의 내용과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가 시기적으로 적절히 제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G3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주관적 경제적 자활 상태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활사업 참여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자활사업 참여가 귀하의 변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함이 없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경제적 측면에서 나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친구와 어울릴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주위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가끔은 외식을 할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생필품(예. 쌀, 차약, 비누 등) 외에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평소 내 관심사와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와 가족은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을 이용할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저축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계획했던 대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빚을 갚을 여유가 있다(빚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14) 아이를 보내고 싶은 교육활동(교육시설, 학원 등)에 보낼 여유가 있다(아이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G4 귀하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자활센터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세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나에게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곳의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곳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도움은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곳의 직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곳의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이곳의 직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내가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G4 귀하가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점부터 차례대로 2가지를 써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동안 수입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렵다
- ②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동안 집안일(육아, 가족의 병간호 등)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 ③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자활사업을 하는 곳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니기가 힘들다
- ④ 자활사업 내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 ⑤ 자활사업의 일의 내용이 어렵다
- ⑥ 자활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 ⑦ 자활센터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 ⑧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⑨ 건강(또는 장애)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 ⑩ 음주 및 정신질환 문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 ⑪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_____)

H. 자활사업 종료 후 희망 일자리 및 의지

가. 구직에 관한 사항

H1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일 자리를 구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활사업에 여러 번 참여하셨다면, 가장 최근의 경험에 근거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① 구해보았음 ⇨ H1-2로 이동

② 구해보지 않았음 ⇨ H1-1로 이동

H1-1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일 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③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교육, 경력의 측면에서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
 ⑦ 육아를 하기 위해서
 ⑧ 가사를 하기 위해서
 ⑨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어서
 ⑩ 심신장애가 있어서
 ⑪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H1-2 마지막으로 일 자리를 구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 년

년도는 4자리로 응답해 주세요

□ □ 월

1월인 경우 01로 응답해 주세요.

H2 자활사업을 통해 귀하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 | | | |
|---|---|--|------------------------------------|
| ☐ ① 집수리 | ☐ ② 가사서비스 | ☐ ③ 청소 | ☐ ④ 폐자원재활용 |
| ☐ ⑤ 음식물재활용 | ☐ ⑥ 도시락 | ☐ ⑦ 음식점(외식) | ☐ ⑧ 카페·베이커리 |
| ☐ ⑨ 세탁 | ☐ ⑩ 세차 | ☐ ⑪ 간병·돌봄서비스 | ☐ ⑫ 산모도우미 |
| ☐ ⑬ 원예·환경정비 | ☐ ⑭ 양곡 택배 | ☐ ⑮ 일반택배/배송 | ☐ ⑯ 유통·판매 |
| ☐ ⑰ 인쇄 | ☐ ⑱ 식품 (농수축산물) 생산·가공 | ☐ ⑲ 공산품, 생활용품 생산·가공 | ☐ ⑳ 레저산업 |
| ☐ ㉑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 | |

H3 자활사업을 통해 귀하가(자신의 건강상태나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희망하는 일부터 차례대로 2가지를 써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 ① 집수리 | ② 가사서비스 | ③ 청소 | ④ 폐자원재활용 |
| ⑤ 음식물재활용 | ⑥ 도시락 | ⑦ 음식점(외식) | ⑧ 카페·베이커리 |
| ⑨ 세탁 | ⑩ 세차 | ⑪ 간병·돌봄서비스 | ⑫ 산모도우미 |
| ⑬ 원예·환경정비 | ⑭ 양곡 택배 | ⑮ 일반택배/배송 | ⑯ 유통·판매 |
| ⑰ 인쇄 | ⑱ 식품 (농수축산물) 생산·가공 | ⑲ 공산품, 생활용품 생산·가공 | ⑳ 레저산업 |
| ㉑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 | |

H4 자활사업 종료 시, 취업과 창업 중 무엇을 더 희망하십니까?

① 취업 ⇄ H4-1로 이동

② 창업 ⇄ H4-2로 이동

H4-1 취업을 희망하시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최대 3순위까지 응답)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① 급여수준 | ② 근로시간 |
| ③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 | ④ 경력유지 가능성 |
| ⑤ 출퇴근 편의성(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가능성 등) | ⑥ 일의 난이도 및 강도 |
| ⑦ 동료와의 관계 | ⑧ 사회적 지위 |
| ⑨ 사회의 기여 | ⑩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H4-2 자활기업 창업을 희망하시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조건은 무엇인가요?(최대 3순위까지 응답)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 ① 장래성 및 발전가능성 | ☐ ② 동업자 |
| ☐ ③ 소득 | ☐ ④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
| ☐ ⑤ 창업자금마련(대출 등) | ☐ ⑥ 사업 아이템의 지속 가능성 |
| ☐ ⑦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입대료, 창업공간 제공) 여부 | ☐ ⑧ 자활기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지원 여부 |
| ☐ ⑨ 창업을 위한 센터지원(컨설팅, 자원연계) 여부 | ☐ ⑩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H5 귀하는 언제쯤 자활 및 탈수급(취업 및 창업)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 | |
|-----------|-----------|-------------------|
| ① 3개월 이내 | ② 6개월 이내 | ③ 9개월 이내 |
| ④ 12개월 이내 | ⑤ 12개월 이상 | ⑥ 자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I. 사회서비스 이용 문항

- 11 귀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 정부가 제공하는 아래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에 체크해 주십시오.

고용지원 프로그램	경험 여부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응답)				
	있음	없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희망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노인 일자리(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 인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직장재향연수 관련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실업자 직장훈련 관련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년 인턴제도 관련 프로그램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참여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 패키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12 귀하께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시점부터 현재(2023. 00. 00)까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에 모두 체크해 주시고 이용경험과 상관없이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대해 귀하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세부 문항	경험 여부		필요도(이용경험과 상관 없이 응답)				
	있음	없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생계비 지원(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급여), 가정위탁급,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의료비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종교(사단)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식사(죽은 일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상담서비스(고민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권익보장지원(공공후견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돌봄 서비스(노인, 아동돌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주택 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사회교육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 응답자 기본정보

(1) 성명	(반드시 응답자 성명으로 기입)										
(2)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					년			월			일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4) 휴대전화번호											
(5) 현 거주지 주소	광역시·도 / 시·군·구										

※본인 휴대전화 번호가 없을 경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세요

Q1-1. 답례품 제공을 위한 다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구 분	내 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응답자 확인, 응답 내용 검증, 답례품 지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답례품 지급 후 30일 이내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조사 종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 강병구. 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 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공공경제, 7(1), 79-105.
- 고용노동부. 2004. 2005년 종합취업지원계획.
- 권민숙·윤영석·김근식. 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435-454.
- 권지성·조준용·정선욱·장연진. 2020. “자활사업 실무자들이 경험한 자활사업의 맥락과 패턴: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20(8), 232-250.
- 경승구·이용갑. 2018. “단기·장기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 영향요인 분석-인천광역시 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6), 679-690.
- 김경휘. 201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연구, 7(2), 89-125.
- 김경휘·백학영·엄태영·최상미·이상우·박송이. 2020.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유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경휘·조성희·최상미·한은영. 2022. “자활사업 과정적 성과지표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2), 89-118.
- 김경휘·최상미·조성희·한은영·박송이. 2021. 자활사업 참여 효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예수대학교.
- 김교성·강철희. 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5-32.
- 김미정·김윤정. 2023.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관계: 참여자가 인식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융합

- 연구교류논문지, 9(9), 337-349.
- 김소형·김경호. 2020. “청년의 빈곤과 자활사업 참여에 관한 문화기술지-Bourdieu의 이론적 관점”. 한국사회복지학, 72(2), 323-348.
- 김은경·남보영·최선아·최서연. 2021.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립에 관한 질적연구*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6(1), 81-110.
- 김영춘. 20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G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21(11), 553-564.
- 김용석·이은영·고경은·민은희. 2007.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83-109.
- 김인숙. 2008.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성매매여성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 95-129.
- 김진숙. 2023. “은둔형 외톨이의 자활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생명연구, 123-148.
- 김자옥·유태균. 2018. “자활사업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2), 39-64.
- 김정희. 2022. “자활사업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8), 607-618.
- 김정희·강정배·김현지·김태용·이혜수. 2021.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태완·김문길·김미곤·여유진·김현경...최민정. 2017. 20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리서치 앤 리서치. 2018.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7차년도 보고서. 중앙자활센터.
- 박경하·김문정·김수린·배재운, 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재민·유태균·최수영.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이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1(4), 125-146.
- 박정호.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가”. 사회복지연구, 41(3), 163-184.
- 백학영·김경휘. 2013.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특성이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29-60.

- 서광국. 2021. 근로능력자 자활 및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2010년 연차학술대회, 213-222.
- 신준섭·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4), 241-269.
- 안서연. 2008. “자활직업훈련 사업의 임금 효과 분석-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으로-”. 사회복지연구, 37, 171-197.
- 엄태영. 2014. “정서적 자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1(4), 81-102.
- 엄태영·임진섭.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가에 관한 연구: 대구시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3), 79-105.
- 엄태영·주은수. 2016.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희망리본사업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3), 225-250.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신현웅·정해식....여나금. 2017.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오미애·이원진·우선희·이병재....신재동. 2020. 2020년 한국복지 패널 심층 분석- 한국복지패널 종단분석 및 표본 특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훈. 2005. “자활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4(3), 317-341.
- 유태균·김경휘·조성은·주은수·최은영....윤성원. 2012. 자활사업 분야(불완전 취업자) 패널구축 연구. 숭실대학교·중앙자활센터
- 이민홍·고정은. 2015.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 복지행정학, 17(3), 85-110.
- 이상아·백학영·황명주·박송이·고은새. 2021a. 자활사업의 변화와 발전방안.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 이상아·최상미·김소형·고은새·설소희. 2021b.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정책효과성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상아·최상미·오성은·고은새·양가람·김수완. 2022.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석원·정희정. 2007. “자활사업의 유형별 고용촉진 효과 분석 - 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149-176.

- 이승호·조성은·백학영·한경훈.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와 특성 변화 추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207-233.
- 이정희·장동호·김장민·최미진. 2022. “한국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9(3), 5-33.
- 이진명·구혜경. 2021. “참여자 관점에서의 자활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제언”. 인문사회 21, 12(2), 563-575.
- 이채정. 2012. 자활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이형하·조원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217-244.
- 인정현·정혜숙. 2022.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사회적 경제 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주민협동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6(2).
- 임동진. 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35(4), 75-97.
- 장수정·백경흔·김병인. 2023. “한부모여성의 일자리지원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취성패와 자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9(1), 63-100.
- 정해식·고혜진·김미곤·노대명·정은희·하은솔. 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 계획(2021-2023)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경식. 2020. “자활요인이 탈수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활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2(3), 89-117.
- 조일원·강혜영.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메타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6(1). 279-321.
- 지규옥. 2021.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자활노동의 의미”. 인문사회 21, 12(4), 541-556.
-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 최상미·조자영·이혜인·설소희. 202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3차년도 패널 구축 연구. 동국대학교·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하승범·신원식. 2019. “농촌 자활사업의 방향성: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유형”. 사회복지정책, 46(3), 93-119.

하승범·신원식. 2020. “신규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의
전망 및 자활의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6(2), 163-18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3. 2023 자활사업 현황 통계.

Derogotis, L. R. 2000. 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s

Gowdy, E. A., & Pearlmutter, S. 1993. Economic self-sufficiency: It's not just money. *Affilia*, 8(4), 368-387.

McMurtry, S. L., & Hudson, W. W. 2000. The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Results of an initial validation study.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0(5), 644-663.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Jama*, 282(18), 1737-1744.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